

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임 언 이영현
최지희 옥준필



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임 언 이영현
최지희 옥준필

머 리 말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높은 진학률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인적자원 개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모두가 고비용을 치르며 대학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산업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으로 인하여 고교 졸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스킬보다 학위를 중시하는 기업의 인사 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능의 획득보다는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학위를 선택하는 양상이 생기고 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 제도는 고교 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현장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취업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우리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편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으로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 속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높은 현장성과 질 관리,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북유럽 국가들의 직업교육 체제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결과가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문계 고교 선진화 방안 등 국가 정책 개발과 실행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년 기본연구 2009-43번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언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이영현 박사, 최지희 박사, 옥준필 전문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시간의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해 준 위촉연구원 박보경, 이태연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09년 12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권 대 봉

목 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5

1. 연구 내용 · 5
2. 연구 방법 · 7

제2장 북유럽 개관

제1절 북유럽의 사회문화와 노동시장 · 11

1. 북유럽 강소국(強小國) · 12
2.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 15
3. 복지국가 · 19
4.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동시장 정책 · 20
5. 사회적 합의주의 · 22
6. 북유럽 사회 모델의 변화 · 25

제2절 OECD 통계로 보는 북유럽 직업교육 · 27

1. 교육비 투자 및 고등교육 진학률 · 27
2. OECD 국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유형 · 35
3. OECD 국가의 진로교육 실태 · 41

제3절 북유럽 개관 요약 · 44

제3장 덴마크의 직업교육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47

1. 인구 · 47
2. 경제 및 노동시장 · 48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 52

1. 직업교육의 기본원칙 · 52
2. 법 체제 · 53
3. 행정 체제 · 57
4. 파트너십 · 62
5. 재정 · 66

제3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 68

1. 직업교육훈련 체제 · 68
2. 교육과정 · 73
3. 도제훈련(Apprenticeship) · 81
4. 졸업자격 인증체제, 중도탈락, 유연성, 통합성 · 85
5. 교사 · 92
6. 진로지도 · 93

제4절 세계화 동향 및 혁신 사례 · 96

1. 세계화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 · 96
2. 최근의 직업교육훈련 혁신 사례 · 98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01

1.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주요 특징 · 101
2. 정책 시사점 · 105

제4장 핀란드의 직업교육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111

1. 인구 · 111
2. 경제 및 노동시장 · 112
3. 국민의 교육 수준 · 116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 117

1. 법 체제 · 117
2. 행정 체제 · 118
3. 파트너십 · 124
4. 재정 · 125

제3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 128

1. 직업교육훈련 체제 · 128
2.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 · 140
3. 계속직업교육훈련 · 14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 144

1. 핀란드 직업교육 체제의 주요 특징 · 144
2. 정책 시사점 · 151

제5장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155

1. 인구 · 156
2. 경제 및 노동시장 · 157
3. 국민의 교육 수준 · 159

제2절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및 제도 · 160

1. 직업교육의 기본 원칙 · 160
2. 법 체제 · 161
3. 행정 체제 · 162
4. 파트너십 · 167
5. 재정 · 169

제3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 171

1. 직업교육훈련 체제 · 171
2. 교육과정 · 172
3. 도제훈련(apprenticeship) · 176
4. 졸업자격 인증 체제, 중도탈락, 제도적 유연성 · 181
5. 교사 · 187
6. 진로지도 · 190

제4절 세계화 동향 및 혁신 사례 · 192

1. 최근의 개혁 · 192
2. 세계화와 EU의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 · 194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197

1.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주요 특징 · 197
2. 정책 시사점 · 208

제6장 스웨덴의 직업교육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217

1. 인구 · 218
2. 경제 및 노동시장 · 220
3. 국민의 교육 수준 · 222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 223

1. 직업교육의 기본 원칙 · 223
2. 법 체제 · 224
3. 행정 체제 · 226
4. 파트너십 · 228
5. 재정 · 229

제3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 230

1. 직업교육훈련 체제 · 230
2. 교육과정 · 235
3. 현장 훈련 · 242
4. 졸업자격 인증 체제, 중도탈락, 제도적 유연성 · 242
5. 교사 · 245
6. 진로지도 · 246

제4절 혁신 사례 · 247

1. 새로운 고교 체제: 통합 체제에서 삼두마차 체제로의 전환 · 247
2. 도제훈련 체제 도입을 통한 직업 현장 훈련의 강화 · 250
3. 교사 교육과 자격의 체계화 · 251
4.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체계화와 강화 · 252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 253

제7장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1절 북유럽 직업교육은 하나의 모델인가? · 257

제2절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목할 만한 특징 · 261

1.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 261

2.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역의 높은 자율성 · 264
3. 사회적 파트너의 주도적 참여,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 · 265
4. 도제훈련의 강조 · 267
5. 체계적인 질 관리 · 269
6.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 · 271
7. 진로변경이 용이한 유연한 제도 · 273
8. 제2의 기회가 열린 유연한 체제 · 274
9. 높은 직업교육 참여율, 상대적으로 낮은 스티그마 · 275
10. 교과통합, 체험중심, 개별화된 진로지도 · 277
11. 세계화와 EU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 278

제3절 북유럽 사례가 우리의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 · 280

1. 시사점 도출의 기본전제 · 280
2. 정책적 시사점 · 283

SUMMARY · 291

<부록 1> 노르웨이, 오슬로 교육 현장 스케치 · 301

<부록 2> 한국의 학업중단현황(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8일
기준) · 305

<부록 3> 스웨덴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307

참고문헌 · 311

〈표목차〉

- 〈표 2-1〉 1994년-2005년 교육수준별 전체 인구의 실업률 · 13
- 〈표 2-2〉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 14
- 〈표 2-3〉 선택과 통제의 자유 · 17
- 〈표 2-4〉 복지체제별 특징 · 20
- 〈표 2-5〉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정도 · 24
- 〈표 2-6〉 교육수준에 따른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1995, 2000, 2006) · 28
- 〈표 2-7〉 OECD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비교(PISA) 결과(2006년) · 35
- 〈표 2-8〉 OECD 국가의 직업계 프로그램 비율 변화(2000-2006) · 37
- 〈표 2-9〉 OECD 국가의 고교 계열별 학생 비율과 국가별 유형 · 40
- 〈표 2-10〉 16세 대상, OECD 국가에서의 진로지도 · 41
- 〈표 2-11〉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 43
- 〈표 2-12〉 북유럽 국가의 교육에 관한 OECD 통계 검토 결과 요약 · 45

- 〈표 3-1〉 산업별 GDP 비중 · 48
- 〈표 3-2〉 산업별 고용 현황(2007년 기준) · 49
- 〈표 3-3〉 덴마크 실업률 현황(2009년 9월 기준) · 50
- 〈표 3-4〉 덴마크 노동력(15-69세 기준)의 학력 비중 · 50
- 〈표 3-5〉 통합된 직업교육훈련 기초과정 프로그램 · 77
- 〈표 3-6〉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차이 · 79
- 〈표 3-7〉 2005년 청소년교육 과정별 학생 수 · 80
- 〈표 3-8〉 실습 지원자와 실습가능 산업체(2008년 12월 말 기준) · 83
- 〈표 3-9〉 초기중등교육 이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인구 비중 · 97

- 〈표 4-1〉 핀란드 주요 산업(2006) · 113
- 〈표 4-2〉 핀란드 취업자의 산업 분포: 성별 · 114
- 〈표 4-3〉 15세-64세 인구의 성별 고용률(핀란드/EU-15/EU-25) · 114
- 〈표 4-4〉 핀란드와 EU의 25-64세 인구 학력분포(2007) · 116
- 〈표 4-5〉 학업중도탈락자 비율(18-24세), 중등교육까지 포함(2007) · 117
- 〈표 4-6〉 초기 직업교육 재정 체제(2004) · 126
- 〈표 4-7〉 실업자 및 기타 대상자 교육 재정 체제 · 128
- 〈표 4-8〉 고교 단계(ISCED 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생수 및 비율
(2005) · 129
- 〈표 4-9〉 교육 단계별 학업중도탈락자 비율(2007) · 130
- 〈표 4-10〉 학교기반 과정 전공별 성별 학생수(2006) · 133
- 〈표 4-11〉 학교기반 과정 전공별 신입생 수(2005) · 133
- 〈표 4-12〉 고교 단계 학교기반 직업교육과정 공통필수 과목(16학점) · 136
- 〈표 4-13〉 초기 직업교육훈련 중 도제 과정 전공별 신입생 수(2006) · 137
- 〈표 4-14〉 폴리텍 대학 전공별 신입생 수(2005) · 141

- 〈표 5-1〉 2007년 4/4분기의 산업별 고용 현황 · 158
- 〈표 5-2〉 16-74세 인구의 평균 고용률, 2007년 기준 · 158
- 〈표 5-3〉 전체 노동인구의 평균 실업률, 2007년 기준 · 159
- 〈표 5-4〉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 · 159
- 〈표 5-5〉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수준별 과목 할당 시간 · 175
- 〈표 5-6〉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의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현장훈련담당자의 역할 · 189

- 〈표 6-1〉 스웨덴과 EU-27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 · 219
- 〈표 6-2〉 스웨덴 이주 현황 · 220
- 〈표 6-3〉 스웨덴과 EU-27개국의 실질 GDP성장률(%) (1999-2009년) · 220

- 〈표 6-4〉 스웨덴과 EU-27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2005-2009년) · 221
- 〈표 6-5〉 스웨덴과 EU-27개국의 GDP대비 교육 훈련 공공 지출 · 222
- 〈표 6-6〉 스웨덴과 EU-27개국 25-64세 인구의 교육 수준(2008년) · 222
- 〈표 6-7〉 고등학교 국가 수준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비율 · 235
- 〈표 6-8〉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7개의 프로그램과 세부 과정 · 236
- 〈표 6-9〉 고등학교 이수과목 및 학점 · 238
- 〈표 6-10〉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17개의 프로그램과 세부 과정의 학점 · 239
- 〈표 6-11〉 프로그램별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과 자유선택과목 개설 범위 · 240
- 〈표 6-12〉 식품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241
- 〈표 6-13〉 고등학교 졸업 이수율과 중도탈락률 · 244

- 〈표 7-1〉 숙련형성 체제 모델 비교 · 259
- 〈표 7-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의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별 북유럽 국가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 282

- 〈부표 3-1〉 자연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309
- 〈부표 3-2〉 전기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310
- 〈부표 3-3〉 경영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311
- 〈부표 3-4〉 호텔 및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 312

[그림목차]

- [그림 2-1] GDP와 1인당 GDP(2007) · 12
- [그림 2-2] 25-64세 성인의 교육 수준별 소득 비교(2006년 또는 국가별 최근 자료) · 18
- [그림 2-3] GDP 대비 초중등 교육비 투자 비율(정부부담/사교육비) · 29
- [그림 2-4] 대학 입학률(tertiary type A)—1995, 2000, 2006 · 30
- [그림 2-5] 전문대학 입학률(1995, 2006) · 31
- [그림 2-6] 20-29세 재학생 비율 · 32
- [그림 2-7] 성인(30-39세, 40세 이상)의 정규 교육 참여율 (2006) · 33
- [그림 2-8]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비중 (연령대별, 2006) · 34

- [그림 3-1] 유연안정성의 “황금삼각형” · 51
- [그림 3-2] 덴마크 교육제도 · 58
- [그림 3-3]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조직 · 61
- [그림 3-4] 덴마크 직업훈련 모델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 63
- [그림 3-5] 기초의무교육에서 고교 단계 교육으로의 진입 · 73
- [그림 3-6]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경로 · 74
- [그림 3-7] 기술계 및 상업계 훈련 프로그램의 구조 · 76
- [그림 3-8] 2005년 직업교육훈련 과정별 학생 비율 · 81
- [그림 3-9] 유연한 교육제도 · 89

- [그림 4-1] 핀란드 인구의 연도별 연령구성 변화(2001-2030년) · 112
- [그림 4-2] 핀란드 전체, 성별, 25세 이하의 실업률 추이(1995-2007) · 115
- [그림 4-3] 핀란드 교육 및 훈련 행정 체제 · 119
- [그림 4-4] 핀란드의 교육체계 · 121

- [그림 4-5] 고등학교(일반/직업), 폴리텍 대학, 대학교 학업중도탈락자의 비율(2000/2001~2006/2007) · 130
- [그림 5-1] 노르웨이 영토 · 157
- [그림 5-2] 노르웨이 교육 제도 · 163
- [그림 5-3]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행정 체계 · 166
- [그림 5-4] 주요 파트너십 기구별 구성원 및 기능 · 168
- [그림 5-5] 노르웨이 고교 단계 교육 · 172
- [그림 5-6] 직업교육훈련 기본 모델(2+2)의 교과목 구성 · 174
- [그림 5-7] 노르웨이 고교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한 모델 · 180
- [그림 5-8] 2002년도 고교 입학생의 5년 후 성과: 자격취득 및 중도 탈락률 · 183
- [그림 5-9]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특징 · 197
- [그림 6-1] 스웨덴 영토 · 218
- [그림 6-2] 스웨덴의 교육행정 체제 · 227
- [그림 6-3] 스웨덴 교육제도 · 231
- [그림 6-4] 스웨덴의 교육 이수 현황 · 234
- [그림 7-1]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모델 · 258

【요약】

1. 연구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의 강소 복지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를 검토하는 데 있다. 북유럽 국가의 직업교육 체제 검토의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북유럽 국가 교육 제도 밑에 작용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그러한 핵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졌는가? 현 장훈련을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 모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되었으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북유럽 국가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그 제도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자 북유럽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개관하였으며, OECD 통계치를 중심으로 북유럽의 경제와 교육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북유럽 4개국의 직업교육 체제를 사회 경제적 배경, 교육 정책 및 제도, 고교 단계 직업교육 훈련 운영 실태, 최근의 혁신 사례 및 국제화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추출하여, 북유럽 국가 사례가 한국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럽 국가들의 네트워크인 ReferNet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와 최근 EU 및 OECD에서 산출한 국가별 보고서와 통계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World Value Survey 자료 분석을 통

하여 북유럽 국가 국민들의 태도 중 직업교육훈련과 관련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문헌 검토에서 드러나지 않는 심층적인 정보를 얻고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북유럽 국가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2. 북유럽 개관

북유럽 국가들의 직업교육훈련 체제가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고자 북유럽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징을 검토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강소 국가이다.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지만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한 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4배~2.1배 정도 높은 35,000~53,000달러 수준이며,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 또한 높다. 둘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전통 아래 있다. 이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본 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존중하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민주적이며 합법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 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유럽이나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개인들은 일상에서의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셋째,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서 사회·정치·경제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안정된 복지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넷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이다. 이들 국가에서

는 노·사·정이 주요 정책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이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모든 국면에서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노사협력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노사 양측 모두 중앙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온 점, 서로가 게임의 법칙을 지켜온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작용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북유럽 국가 교육 체제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OECD 통계를 중심으로 OECD 내의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북유럽 국가에서 성인 인구의 고졸 이상 비율은 77.6%-81.1%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GDP 대비 교육비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교육비 투자 비율은 최상위에 속한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핀란드만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의 역량을 비교한 조사에서는 북유럽 4개국이 모두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덴마크: 47.8%, 핀란드: 65.4%, 노르웨이: 60%, 스웨덴: 54.2%), 진로교육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춘 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들을 종합할 때,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에서의 평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에서 모두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가.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의 분권화

덴마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덴마크의 어디서든 인

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업훈련 제공자들이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분권화되어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분업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 책임을 지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주도적 역할

덴마크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파트너의 주체로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IVET 자문위원에서부터 지방훈련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원회와 협회가 있으며, 이들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은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일 정도로 산업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담지하고 있다. 산업계의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59개의 직종별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 훈련 직종의 개발과 기존 훈련 직종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다. 누구나 언제든지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과 통합성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매우 유연해서 훈련생들에게 시간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

의 직업교육훈련은 프레임워크, 구조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모든 훈련생들은 선행 학습을 평가받은 후에 개인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체에서 학습하였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모듈화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덴마크의 교육제도는 정규 교육제도와 성인계속교육제도에서 단계에 구별없이 고등교육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훈련 실시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은 '이원화 훈련' 원칙에 따라 직업학교에서의 학습과 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이 병행된다. 현장훈련은 기본적으로 훈련생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이나 훈련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3분의 2는 기업체 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받는다.

마.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대응

덴마크는 유럽 통합, 세계화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다른 EU 국가에서 수행하게 하고 있다.

3. 핀란드의 직업교육

가. 직업교육개혁을 통한 직업교육 부흥

핀란드는 1990년 초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교육개혁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은 폐쇄적인 경로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막혀있는 단절된 구조를 폴리텍 대학의 신설을 통하여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이 가능한 체제로 변화시킨 점이다. 이러한 직업교육 개혁이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현장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나. 직업교육 경로의 유연성

핀란드 직업교육체제의 특징은 유연성에 있다. 즉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폴리텍 대학이나 일반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계 고교 프로그램과 직업계 고교 프로그램 간의 전환이 가능하며, 일부 학교이기는 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장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자격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경로를 개방하였다.

다. 직업교육의 철저한 질 관리 체계

핀란드 정부는 각 학교의 졸업생 수, 탈락률, 취업률 등 해당 학교의

직업교육 성과에 따라 기관의 직업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질 관리 체계는 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사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질 관리 방식은 직업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질 관리의 또 한 가지 측면은 학생에 대한 질 관리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장이 충분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 직업교육의 높은 실용 가치

핀란드의 교육전문가들이 꼽는 핀란드의 직업교육의 성공 원인 중 하나는 직업교육의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점이다. 핀란드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의 직업자격을 받게 되며, 이 직업자격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기초자격을 제공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의 역할을 하여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을 준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는 이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되는 것이다.

마.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핀란드의 경우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직업교육개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소신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국공립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도구가 바로 재정 지원이라는 변수이다.

바. 강력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

핀란드에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일종의 중앙집권적 정책 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각 직업교육기관의 장과 교사들은 각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이를 시행함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라든지,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통폐합의 시행 등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핀란드의 중앙정부의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교육정책의 방향,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의 성과에 비추어 핀란드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통폐합은 연간 수시로 진행되고 있다.

사. 기초교육의 강조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핀란드의 청소년이 PISA 등에서 매우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핀란드의 높은 기초교육 이수율 등에서 나타난다. 기초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능력을 갖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핀란드의 직업교육기관들의 특징은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

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학교가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즉 일정 기준 이상을 넘어야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질 또한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아. 직업교육훈련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교사들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정 기간(약 4년)마다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등 교사들의 질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4.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가. 평등과 상호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체제

노르웨이의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은 그 사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상호신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개인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제도를 낳았다. 또한 시민주의의 전통 하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깊숙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의 높은 자율성

노르웨이는 지방자치가 발달된 국가로서 중앙정부는 국가 정책 개발과 교육 및 직업훈련의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는 각 시 또는 주에서 소유하고 운영한다. 지역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만 실행에 있어서 지역에서 사회적 파트너와 더불어 모든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의 지식축진개혁을 통하여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 수준의 자율권을 더 강화하였다.

다.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을 둔 직업교육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주 및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결정, 실행, 자격 인증 등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가운데,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에는 상호신뢰와 협의의 원리에 입각해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간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이 바탕을 이룬다. 도제훈련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정부 당국과 사회적 파트너는 교육훈련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분담한다.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도 사회적 파트너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노사정 간의 상호신뢰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노동시장 적합성을 지니며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왔다.

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핵심 요소로서의 도제훈련

노르웨이 직업교육에서 기본 모델은 2+2로서, 학생들은 2년 동안 학

교에서 기초 역량을 제고하고,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 및 세부 직종과 관련된 이론 학습을 마친 후에 도제훈련에 참가한다. 도제훈련은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기업, 학생 간의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주에게 2년 동안 학생 1인당 약 12,000 유로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업은 학생들에게 숙련된 근로자의 30%~80% 수준의 임금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상하면서 지급한다.

마.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서는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 각 학교가 9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며, 동일한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되는 직종 코스 또한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일한 전공 내에서 학교를 변경하여 코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적으로도 개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특히 도제훈련에서는 기본 모델이 2+2이지만, 학생이 학교에서의 이론 학습을 버거워할 경우, 먼저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론 과정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는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에 공식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동등한 교육 자격으로 인정하고자 하며,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두 경로 간의 이동이 수월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직업계열 학생이 일반계열 졸업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1년간의 보충학습 기간을 통하여 이론적인 학습을 더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

노르웨이는 2006년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와 조직에 관한 “지식촉진개혁”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를 목표로 실행되었다.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과목당 수업 시간을 새롭게 분배하였으며,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수준의 자율권을 강화하였다.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제2외국어 공부를 필수화하였으며, 노르웨이어와 영어에 대한 심화학습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교 평가 및 교육청 평가를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수서비스

각 주에서는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과 연락하여 추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들을 학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교과정을 이수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자격으로서 고교 졸업 자격 취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아. 높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선택, 상대적으로 낮은 스티그마

노르웨이는 도제훈련의 체계화를 포함하는 1994년의 개혁을 통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그 결과 1994년에 44%였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은 60%를 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학생의 최소한 50%가 직업 프로그

램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정치인과 사회적 파트너 모두가 동의하고,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온 결과이다.

5. 스웨덴의 직업교육

가. 스웨덴 교육이 자리한 맥락

스웨덴의 직업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경우 18세만 되면 누구나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동거, 이혼 등 가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며 관리하지 않는다. 둘째, 스웨덴은 거의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학업 수당까지 주는 교육 복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45%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1~2년 정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경험한 후에 대학에 진학한다. 그래서 스웨덴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셋째, 직업 간 차별이나 임금 격차가 많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의 즉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에도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졸업자 간에도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제2의 교육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성인기가 되어 받는 경우들도 많다.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는 생각이 사고 깊숙이 박혀 있다. 다섯째,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학습과 평가를 별개로 보는 문화적 경향이 존재한다.

나. 스웨덴 직업교육의 주요 특징

첫째, 스웨덴에서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재교육 체제, 직업 현장과 학교를 오고 가면서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순환형 교육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다.

둘째, 스웨덴에서는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단계부터 하지만, 의무기초교육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여 기예, 가정, 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

셋째,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교육과 현장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공 계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전공 계열은 다양한 산업 부문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공 계열과도 연계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 직업 분야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계속 학습을 위한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어, 영어, 수학 학습능력에 미달한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 보충 교육으로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섯째,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4년의 경력을 쌓으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곱째,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의 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여덟째, 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사회 통합 적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끝으로, 스웨덴에서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충분한 논의와 상당 기간의 시범 프로젝트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 가

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한다. 새로운 도제훈련 체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까지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6.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가. 주목할 만한 특징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 검토를 바탕으로 드러난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유럽에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주의 전통 속에서 강조해온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수업료가 없다.

둘째, 북유럽 국가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 기관은 지방 정부가 소유하며 지방 정부는 실행에 관한 큰 폭의 자율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직업교육에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정부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중앙에서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관한 기본 틀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은 직업교육훈련의 실행의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훈련 수요의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훈련 실시, 자격 평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자율권은 필수적이다.

셋째, 북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적 파트너가 직업교육훈련의 전 과정

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매우 높다.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자문위와 지방의 훈련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은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산업계의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별 또는 프로그램별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 훈련 직종의 개발과 기존 훈련 직종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정의 목적, 기간, 내용, 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노·사·정간의 상호신뢰는 직업교육 훈련 내용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노동시장 적합성을 가지며,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왔다.

넷째, 북유럽 국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에서 실습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기간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기업체에서의 도제 훈련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주로 학교에서의 훈련이 주가 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거의 대부분이 도제훈련에 참가하고, 노르웨이는 직업계열 학생의 약 23%, 핀란드는 16.7%가 도제훈련을 받으며, 스웨덴은 대부분의 훈련이 학교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스웨덴도 도제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북유럽 직업교육훈련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로 도제훈련을 말할 수 있다.

다섯째, 북유럽의 직업교육은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유럽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서 논란이 될 정도로 중도탈락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이 엄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질 관리 체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 모두 유사하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질 관리는 개인 수준에서만 아니라 개별 교육 기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북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매우 유연해서 학생들이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직업교육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 모두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평가 받은 후에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한 교육이 진행된다. 학생 개인의 선행학습 정도와 능력에 따라서 학습 속도와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모듈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노르웨이에서도 교육법에서 학생 개인은 자신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덜 되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맞물린다.

일곱째, 북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유연성을 넘어서 교육 기관 간 연계를 촘촘하게 하여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틀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모두 기본적으로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여덟째,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엄정한 질 관리와 함께 유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시도에서 실패하거나 대안적인 시도를 하고자 할 경우, 돌아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대안적인 접근 역시 공적 교육 시스템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아홉째, 북유럽 국가에서는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핀란드: 65%, 노르웨이: 60%, 스웨덴: 54.2%, 덴마크: 47.8%). 이와 같이 높은 직업교육 참여의 배경에는 기능인을 존중하는 전통, 숙련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산업계의

문화가 작용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온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평생학습의 틀 속에서 계속 교육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이다. 또한 직업훈련 수요자 측인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선발에서부터 임금, 승진 등 고용관행이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직무능력(skills)에 기초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열째, 북유럽의 국가에서는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시기에 제한적으로 혹은 행사성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하여 범교과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유럽의 진로교육에서는 직업체험을 거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고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계획의 수립과 밀접하게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끝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자격 프레임워크(EQF)”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유럽학점전이체제와 국제 학위 시스템이 고등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다. 기초능력의 강조, 영어와 제2외국어의 강조는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교환 프로그램인 Leonardo da Vinci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 정책적 시사점

북유럽과 우리나라는 대조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으며,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선불리 모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북유럽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직업교육 제도가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점진적으

로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 거기서 이어지는 고등 단계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전폭적으로 비용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트랙의 매력도를 높임과 동시에 엄격한 질 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산업계가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준, 산업수준, 지역수준, 기업수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법에 명시하여 엄격하게 규제하고, 아울러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에게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의 자율권 확대와 중앙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폭 지역으로 이양하되, 재정적인 지원과 기본적인 방향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질 관리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 주도의 국가적 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격제도와 연계하며, 졸업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생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급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업훈련 수요자 측인 노동시장의 관행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임 언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구화의 급속한 확대 속에 각국의 교육 체제는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변모를 해왔다. 최근의 직업교육 체제를 검토한 연구들에서는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진단이 있다(최지희·최영렬, 2006). 이러한 판단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보편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OECD 국가에서 2000년~2006년 동안 직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 추이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감소한 나라¹⁾도 있으나, 핀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스웨덴, 포르투갈 등에서는 직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10.1%포인트, 10.0%포인트, 9.0%포인트, 6.3%포인트, 3.7%포

1) 고교 단계 직업교육 참여율이 감소한 나라는 헝가리, 영국, 폴란드, 프랑스, 터키 등이며, 이들 국가에서는 직업계 고교 입학생 비율이 각각 40.3%포인트, 25.6%포인트, 20.3%포인트, 14.3%포인트, 12.7%포인트 감소하였다.

인트가 증가하여, 중등 단계 직업교육 비율의 감소 현상을 일반적 추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계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1990년에는 35.5%이었으나 2005년에는 28.5%, 2008년에는 25.6%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감소 현상을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한 점이다. 고등학교 재학 시의 전공과 동일한 계열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혜택을 주는 동일계 진학 특혜와, 수능 응시 과목으로 직업탐구 교과를 포함하는 방식을 통해 전문계 고교생들이 수능 성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계 고교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대학입학이 용이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에 힘입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전문대학 및 대학으로의 진학은 해마다 증가해 왔으며, 2008년의 경우 전체 전문계 고교 졸업생(158,408명)의 약 47%가 전문대(74,056명), 약 26%가 4년제 대학(41,193명)에 입학하기에 이른다. 물론 이와 같은 진학률 확대는 단순히 전문계 고교생 진학 지원 제도에만 기인하지 않으며, 경제수준의 향상,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전통,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의 용이함 등이 함께 작용하였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 확대 현상에 대해 교육기회 형평성이 제고되고, 산업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력과잉으로 인하여 사회적 손실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문계 고교 졸업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로 고비용의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의 흐름을 보면, 자칫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이 공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즉,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함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교 단계에서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동시에 시행해 왔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산업 및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와 각 전문계 고교가 소유하고 있는 강점 분야(학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전문계고 특성화정책²⁾이 그 중의 하나이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 제도도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초점이 있다.³⁾ 직업계 고교 졸업생의 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문계고 학생 대다수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계고교는 초기 직업교육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대학진학률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직업교육의 축을 고등교육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계 고교생들의 높은 진학률은 사회적인 낭비이며 고교 단계에서의 실질적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렇듯 대치되는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 고교 단계 직업교육 정책이 일관된 방향성이 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계 고교에 중국교육으로서의 기능과 고등교육을 위해 거쳐 가는 과정으로서의 두 가지 기능이 공존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기능 배분이 적절한 것인가? 고등교육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능 배분이 실제로 가능한가? 이러한 선택이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이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양성의 틀은 무엇이며, 그 안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요청된다. 전문계 고교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력수급, 교육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열의라는 사회문화적 요구, 또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유연한 진로개발의 요구, 사회

2) 이 정책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음. 한 예로 2009년에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성화전문계고 육성사업에는 71개 전문계 고교(약 5만 명의 학생)가 참여하고 있음.

3) 졸업 이후 우수기업으로의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9년 현재에는 21개 전문계 고교가 마이스터고교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라는 실질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따라서 전문계 고교생의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미흡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양상을 단순한 논리에 근거하여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직업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산업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 낮은 취업률과 높은 진학률”이라 하겠다. 높은 진학률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니며, 대학교육의 질 관리가 허술한 상태에서 모두가 고비용을 치르며 대학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산업현장과 괴리된 직업교육으로 인하여 고교 졸업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인 스킬보다 학위를 중시하는 기업의 인사 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기능의 획득보다는 고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학위를 선택하는 양상이 생기고 있다.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교 제도는 고교 직업교육의 질 제고와 현장성 제고를 통하여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보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취업을 위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우리 직업교육의 시스템을 개편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으로서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 속에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시점에서 직업교육의 높은 현장성과 높은 질 관리,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체제를 유지해온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러한 제도를 발전시켜왔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호주와 더불어 북유럽 국가들은 현장실습에 바탕을 둔 직업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국가로 알려져 왔다. 북유럽은 최근 핀란드가 PISA에서 높은 성취를 하면서도 학생들의 기본적인 행복권이 존중되고 있다는 점,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강소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이 나라들의 직업교육 체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지희 외(2006)가 스웨덴을 간략히 검토하였으며, 한승희·오현석(2005)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의 평생학습 체제를 검토한 연구가 전부이다.

직업교육 체제는 그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형성된, 한 사회의 역사적 산물이다(이영현,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 체제를 검토하는 것은 녹록한 작업이 아니며, 그러한 체제를 형성하게 한 배경, 즉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함께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제한된 주제에 해당되는 각국의 전략 중심으로 검토되어, 전반적인 체제와 그 체제를 뒷받침하는 맥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의 강소 복지국가들의 직업교육 체제를 그 제도가 자리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검토하고자 한다. 북유럽 국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을 검토하는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북유럽 국가들의 교육 제도 밑에 흐르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그러한 핵심 가치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졌는가? 현장훈련을 바탕으로 한 직업교육의 모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축되었으며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북유럽 국가의 직업교육 시스템이 우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연구의 범위

북유럽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5개국을 통상적으로 가리키지만, 본 연구에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중

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직업교육은 고교 단계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 계속 교육으로서의 직업교육이 포함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에 한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나. 주요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유럽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개관하였으며, OECD 국가 대상으로 제시된 통계치를 중심으로 북유럽의 경제와 교육에 관한 특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를 다음의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사회 경제적 배경: 인구, 경제 및 노동시장, 국민의 교육수준
- 직업교육 정책 및 제도적 틀: 직업교육의 기본 원칙, 법 체제, 행정 체제, 사회적 파트너, 재정
- 고교단계 직업교육 훈련: 고교 직업교육훈련 체제, 교육과정, 도제훈련, 졸업자격 인증 체제·중도탈락·제도적 유연성, 교사, 진로지도
- 혁신 사례 및 국제화への 대응: 최근의 개혁, 지구화와 EU의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

셋째, 북유럽 국가 체제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북유럽 직업교육 체제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추출하였다.

넷째, 북유럽 국가 사례가 한국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 연구

1) Cedefop의 국가별 컨소시엄 네트워크(ReferNet) 자료 검토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직업교육 체제에 관한 기본 정보를 유럽직업훈련 개발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 이하 Cedefop⁴⁾)의 국가별 컨소시엄 네트워크인 ReferNet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ReferNet⁵⁾은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유럽의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정보와 정책 개발의 일차적 소스를 제공한다. 국가별 보고서는 일 년 단위로 작성되고 업데이트된다.

2) 기타 국가별 보고서 분석

EU 및 OECD에서 국가별 직업교육훈련 체제를 비교하기 위한 시도가 최근에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 중에서는 각 국별 보고서와 종합보고서가 산출되었다. 대표적인 종합보고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국가별 사례를 참조하였다.

- EURYDICE(2003-2008). *Structures of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dults Education Systems in Europe*
- Cedefop(2007). *Zooming in on 2010 Reassess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4) Cedefop은 1975년에 설립된 기구로, 유럽연합의 직업교육 및 훈련의 장려와 개발을 돕는 전문가 그룹이다.

5) http://www.Cedefop.europa.eu/etv/Projects_Networks/ReferNet/default.asp

- OECD(2008b). *Learning for Jobs- OECD Policy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OECD(2009d). *Systemic Innov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3) EU 및 OECD 통계 자료 검토

Eurostat, Education at a Glance 검토를 통하여 각국의 경제·사회적 상황과 교육 현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World Value Survey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문화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가치관조사(The 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웹상에서 국가와 변인을 선택하여 기술 통계 분석 결과를 얻었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사회적 신뢰도, 통제와 선택에 대한 자유에 대한 인식 등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WVS는 가치관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사회정치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전 세계 사회과학자들의 네트워크이다. WVS는 유럽가치관조사(European Values Study, 이하 EVS)와의 협력 하에 전 세계 인구의 약 90%를 포함하는 97개국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별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한 무엇을 믿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변화 추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 변화의 물결을 포착하기 위해 EVS와 WVS는 1981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차례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1981년, 1990-1991년, 1995-1996년, 1999-2001년, 2005-2007년). 현재는 2010-2011년 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 세계가치관 조사 사이트 주소: <http://www.worldvaluessurvey.org/>

다. 해외출장을 통한 면담

- 목적: 문헌 및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확인한 사실의 재확인 및 질적 정보 획득
- 출장자: 국가별 담당 연구자가 해당 국가 방문
- 출장 시기 및 방문 기관
덴마크(9월): 교육부 및 학교
노르웨이(10월): 직업교육훈련청, 노총, 연구소, 지역교육청, 학교
핀란드(10월): 학교

라. 세미나

- 목적: 국가별 보고서 타당성 검토 및 정책 시사점 도출
- 시기: 10월 27일 9시-17시
- 장소: 교육문화회관 카네이션 홀
- 내용: 국가별 사례 발표 및 외부 전문가 토론⁶⁾

6)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정철영(서울대), 이정표(한양여대), 권지영(교육과학기술부), 김종관(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제 2 장 북유럽 개관

임 언

제1절 북유럽의 사회문화와 노동시장

이 절에서는 북유럽 국가들의 직업교육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의 사회·문화·경제적 맥락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 사회의 정책은 정책 아이디어나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적·사회적·경제적 맥락 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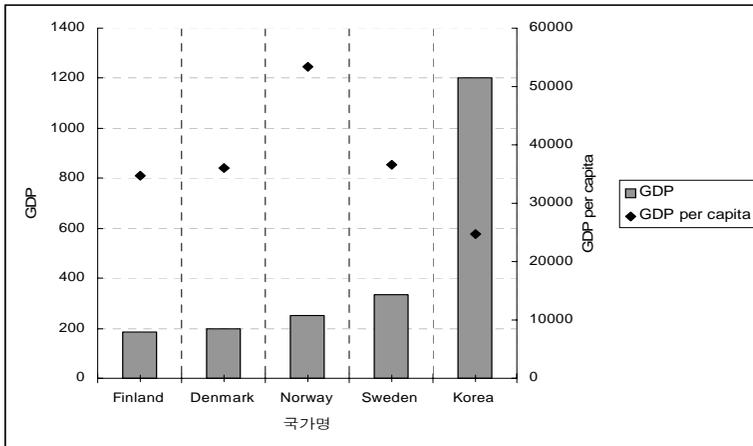
그런데 북유럽 5개국은 그들만의 고유한 사회적 모델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학계와 정치계, 사회운동 영역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북유럽 모델” 또는 “노르딕 모델”이라는 단일한 모델로 이들 5개국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종의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표준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Belanger & Tuijnman(eds.), 1997; Tuijnman & Schuller(eds.), 1999; 한승희·오현석, 2005 재인용). 또한, 북유럽 5개국은 질병, 노령, 빈곤, 실업 등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식이 서로 유사하다는 관점(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2009년 10월 6일)이 지

배적이다. 한승희·오현석(2005)은 우리가 “노르딕 모형”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이들 국가가 1990년대 이전부터 구축해 온 사회 민주주의적 정치성향 및 이것을 지지하는 고유한 경제체제, 또한 비교적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문화적 경향성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화적 전제 조건들을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1. 북유럽 강소국(強小國)

북유럽 국가들은 이른바 “강소국”으로 분류된다. 강소국은 인구규모는 작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를 지칭하는데, 특히 북유럽 강소국은 인구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삶의 질)를 동시에 실현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김득갑, 2009).

[그림 2-1] GDP와 1인당 GDP(2007)



단위: GDP(10억 달러), 1인당 GDP(달러)

출처: OECD(2009c). *OECD Factbook*.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북유럽 국가들의 GDP는 한국의 1/4-1/6 수준인 2,000억에서 3,500억 달러 범위에 있다. 그렇지만,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4배-2.1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노르웨이는 1인당 GDP가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가장 높은 국가이고, 덴마크는 5위, 스웨덴 9위, 핀란드는 14 위이다(2007년 기준, 2008년에 핀란드는 11위임).

중졸 이하 학력자의 실업률 또한 EU 평균에 비하여 북유럽 국가들이 모두 낮게 나타난다(<표 2-1> 참조).

<표 2-1> 1994년-2005년 교육수준별 전체 인구의 실업률

국가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ISCED 0-2												
EU25	·	·	·	·	·	·	11.7	10.3	10.7	11.1	11.4	11.4
EU15	·	12.5	12.7	12.5	12.5	12	10.9	9.3	9.8	10.2	10.4	10.3
덴마크	11.1	10.4	10.4	8.2	7.3	7.2	6.6	5.5	6.2	7.5	8.1	7.2
독일	14.8	14.2	14.5	16.8	·	15.8	14	13.2	15.3	18	20.3	20.1
프랑스	·	·	·	·	·	·	·	·	·	10.5	10.9	11
핀란드	·	17.9	17	16.9	14.4	13.5	12.2	11.2	11.4	11.5	12.4	11.1
스웨덴	·	10.1	10	12	11.1	9.9	7.7	5.1	4.9	5.3	5.8	9.1
영국	11.2	9.8	9.3	7.9	·	10	8.9	7.6	8.5	7.1	6.7	6.9
노르웨이	·	·	4.8	3.7	3.5	·	·	2.9	3.2	5	4.3	6.4
ISCED 3-4												
EU25	·	·	·	·	·	·	8	7.6	8	8.2	8.4	8.1
EU15	·	8.4	8.6	8.8	8.5	7.6	6.8	6.1	6.4	6.9	7.1	7
덴마크	8.3	6	6	4.7	4.6	4.1	3.9	3.3	3.3	4.2	4.9	4.2
독일	8.9	8.1	8.8	10	·	8.8	8	8.2	8.7	10	10.9	11.2
프랑스	·	·	·	·	·	·	·	·	·	6.6	6.6	6.5
핀란드	·	15.6	12.7	13.4	11.2	9.5	8.8	8.6	8.6	9	8.3	7.4
스웨덴	·	8.6	9.5	10.2	9	7	5.2	4	4.1	4.5	5.6	6.1
영국	7.9	7.2	6.6	5.8	·	4.7	4.4	3.6	3.7	3.5	3.7	3.5
노르웨이	·	·	3.4	3.4	2	2	2.3	2.6	2.8	3	2.9	3.8

출처: 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portal/page/portal/Eurostat/home/>)

다만 핀란드는 다른 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학력자의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교 졸업자의 실업률 또한 북유럽 국가들이 EU 평

군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이 집단에서도 다른 나라보다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나, 그 차이가 중졸 이하 집단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볼 때, 학력에 따른 구직 가능성의 차이가 4개국 중에서는 핀란드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유효한 성공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의 IMD⁷⁾ 금융위기 대응능력 평가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는 전체 57개국 중에서 각각 1, 4, 7, 9위를 차지했다(김득갑, 2009).

이 같은 객관적인 지표 외에도 국민들의 행복 체감 정도를 살펴보아도 이들 국가가 강소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2-2>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결과에 따르면 북유럽 사람들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자신이 행복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

(단위: %)

	Total	France	Great Britain	United States	Japan	Norway	Sweden	Finland	South Korea	Switzerland	China	New Zealand	Germany
행복	31.1	36.4	50.8	34.4	29.2	36.7	43.1	29.6	12.9	42.2	21.2	38.4	19.9
약간행복	58.4	54.0	42.8	58.8	60.5	59.8	53.2	62.6	74.5	51.8	55.5	58.9	63.9
별로 행복하지 않음	9.2	7.6	5.2	6.4	9.2	3.3	3.2	6.7	11.7	5.7	19.3	2.5	14.6
전혀 행복하지 않음	1.3	1.9	1.2	0.4	1.1	0.2	0.5	1.2	0.9	0.3	4.0	0.1	1.6
Total	14767 (100)	998 (100)	1039 (100)	1248 (100)	1066 (100)	1023 (100)	1001 (100)	1013 (100)	1200 (100)	1234 (100)	2001 (100)	945 (100)	1998 (100)

출처: World Values Surveys Databank⁸⁾

7) IMD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체 평가 자료에 의거해 경제전망, 정부/기업/사회의 위기대응능력 등 4개 항목을 종합하여 금융위기 대응능력(국가 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을 평가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고 또한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아마도 아래의 키워드들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가. 사회민주주의의 개념

북유럽 국가들을 설명할 때 강소국만큼 자주 거론되는 공통의 키워드는 “사회민주주의 국가” 또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이다. 따라서 우선 사회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관련성 속에서 적잖은 개념적 혼란이 있고(박호성, 2005), 또한 이것을 이념체제로 볼 것인지 또는 정치체제나 생산양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유화나 시장경제 등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사회주의의 이상을 민주적, 합법적, 점진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는 데에는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및 경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박호성(2005)은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유’, ‘정의 또는 평등’, ‘연대’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요컨대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와 평등을 확장하는 사회

8)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국가의 문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The World Values Survey, 이하 WVS)의 조사 결과 중 일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사회적 신뢰도 등에 대한 인식을 국가별로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은 웹상에서의 교차 분석 결과이다 (<http://www.worldvaluessurvey.org/>). 우리나라와 비교 가능한 나라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나라별로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다(China [2007], Finland [2005], France [2006], Germany [2006], Great Britain [2006], Japan [2005], New Zealand [2004], Norway [2007], South Korea [2005], Sweden [2006], Switzerland [2007], United States [2006]).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4개국 중에서 덴마크의 자료는 가장 최근의 비교 자료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Kesselman(1982)은 사회민주주의의 일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 있다(박호성, 2005 재인용). ① 자본주의 경제의 수용은 불균형한 발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전제한 상태에서 수용한다. ② 케인즈주의적 메커니즘은 경제성장, 고임금, 가격안정,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한다. ③ 국가는 경제적 잉여를 누진적 방식으로 복지 계획, 사회보장, 조세법을 통해 재분배한다. ④ 노동자계급은 강력하고 중앙집중적인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나. 평등을 향하여(Toward Equality)⁹⁾

그런데 여기서 사회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은 자유와 결코 대립하지 않는 평등으로, 개인적 자유를 더욱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전제이다(박호성, 2005). 따라서 평등은 동질성이나 획일성의 동의어나 그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요컨대 사회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기회 균등’의 차원을 넘어서 ‘조건적 평등’의 실현을 실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자유주의가 최초의 기회만을 균등하게 보장하는 상태에서 성과주의와 경쟁을 추구한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성과주의와 경쟁으로 인해 훼손된 주요한 인간적 가치를 새로이 복원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가장 배제된 집단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하고자 한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불평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개인의 생애 기회가 일방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한다.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이러한

9)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평등문제연구위원회에서 1969년에 발간한 소책자의 제목. 여기에는 평등 개념과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및 여러 실천적 강령들이 수록되어 있다.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이 동질성이나 획일성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임은 다음의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2-3> 선택과 통제의 자유 (10점 척도)

	전체	France	Great Britain	United States	Japan	Norway	Sweden	Finland	South Korea	Switzerland	China	New Zealand	Germany
N	14539	999	1024	1225	1031	1019	999	1014	1200	1239	1848	903	2037
평균	7.2	6.7	7.3	7.6	6.1	7.7	7.8	7.5	6.7	7.6	7.2	7.9	6.8
표준 편차	2.01	2.05	1.92	1.77	1.89	1.57	1.65	1.74	2.08	1.73	2.34	1.83	2.09

* 1: 전혀 없음 10: 매우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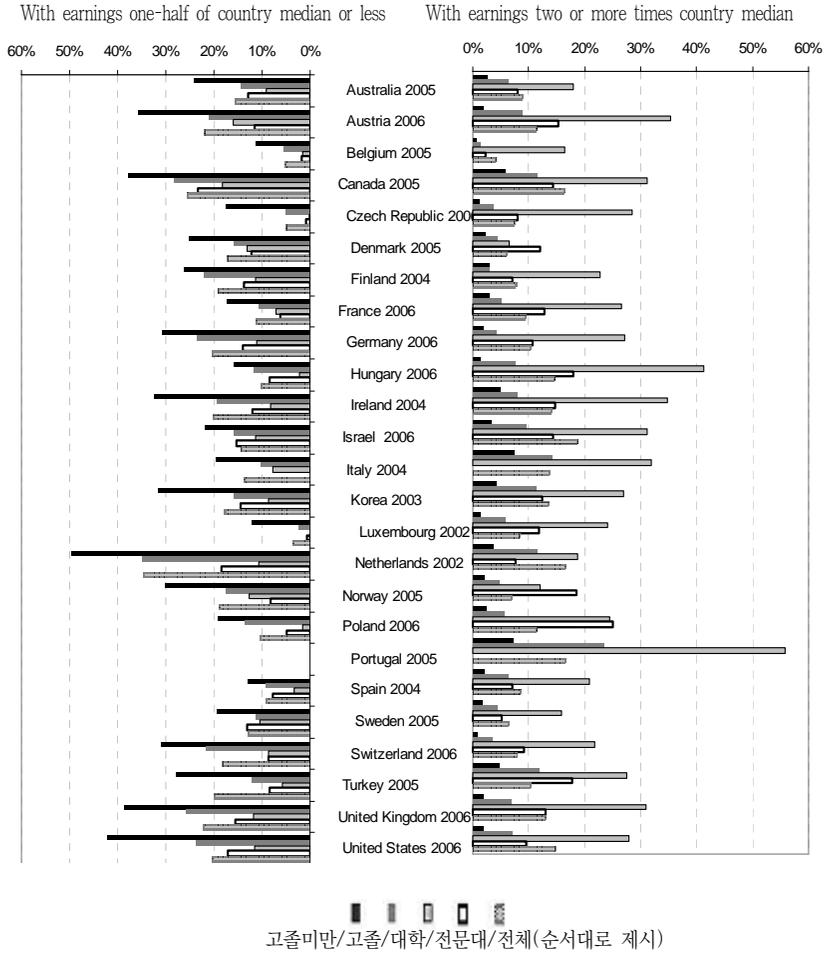
출처: World Values Surveys Databank

개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선택과 통제의 자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 일본, 한국, 독일의 응답치는 평균보다 낮아 일상에 대한 자유를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등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의 왼쪽은 국가별로 1인당 소득중양값의 1/2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학력별 분포를 나타내며, 오른쪽은 국가 1인당 소득중양값의 2배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학력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상위 소득인 사람들의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게 낮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은 하위 소득과 상위 소득 모두 학력 간 차이가 고르게 낮다. 핀란드는 스웨덴에 비해서는 학력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OECD 전체로 볼 때는 낮은 편에 속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저소득층에서의 학력 간 소득 격차가 큰 편이지만, 이 역시 OECD 전체로 볼 때는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상위소득자들의 학력 차이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그림 2-2] 25-64세 성인의 교육 수준별 소득 비교(2006년 또는 국가별 최근 자료)



- 왼쪽: 소득중앙값의 1/2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
- 오른쪽: 소득중앙값의 2배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의 비율

출처: OECD, Table A9.4a. (www.oecd.org/edu/eag2008).

3.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정의,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려는 사회민주주의는 복지국가와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복지체제 분석의 대가라 할 수 있는 Esping-Andersen(1990)은 사회적 권리의 질(탈상품화 정도), 복지제공에 대한 국가·시장·가족 간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복지체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제도를 도입해 정부부조를 극빈층에 국한시키고, 복지수급자들이 복지 대신 노동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연계복지(workfare)는 일자리의 질 보다는 노동시장으로 빨리 진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변종임·채재은, 2008). 미국과 호주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두 번째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로, 시장효율성 및 자유주의적 집착이 약하고, 사회권의 보장이 심각한 각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지위 격차의 유지 및 보존을 그 원리로 하며, 국가기구가 복지공급자로서 시장을 대체하는 조건에서 도입되는 특징을 보인다(황규성, 2008). 이 유형은 남성 부양자 중심 모델(male-breadwinner model)로 사회보험은 대체로 전업주부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 유형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고도의 탈상품화 프로그램과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조합주의 모델과 달리 이원 생계원 모델(dual earner model)로 여성이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육아서비스 및 각종 돌봄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등, 가족친화적 복지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완전고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일 것이다. 일할 권리는 소득보장의 권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Esping-Andersen, 1990).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속한다.

<표 2-4> 복지체제별 특징

복지국가 유형	탈상품화 정도	사회 계층화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해당 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최소	자산조사에 기초한 사회부조제도 도입. 정부부조를 국민층에 국한	국가는 시장의 실패에 한해서 최소한의 개입	미국, 호주 등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시장효율성 및 자유주의적 집착이 약함	지위 격차의 유지 및 보존 (남성노동자/부양자 중심)	국가기구가 복지공급자로서 장을 대체하는 조건에서 도입	독일, 프랑스, 유럽대륙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고도의 탈상품화 프로그램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복지제공	국가 중심적	북유럽 국가

출처: Esping-Andersen(1990), pp. 9-34, pp. 144-161 재정리

4. 유연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동시장 정책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중 하나는 평등으로, 모두가 평등한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는 '일생을 통한' 기회균등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임으로 강조한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실직자에게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도 구직을 위한 직업훈련 참가 의무, 구직 노력의 의무 등을 적극적으로 부가하는 정책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업수당 지급기간을 소극적 기간과 적극화 기간으로 구분하여 적극화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직업훈련 등

에 참여하도록 하고, 육아휴가, 교육훈련 휴가, 안식휴가 등 다양한 유급휴가제를 도입하여 재직자의 휴가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실업자를 임시로 채용하여 현장훈련을 시키는 직장순환제(job-rotation)¹⁰⁾를 활성화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일자리 창출)-관대한 사회보장(안정성 제고)-적극적 노동시장정책(학습복지)으로 구성되는 덴마크 모델은 유연안정성의 황금삼각형으로 잘 알려져 있다(정원호, 2005).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기획 및 시행 단계에 고용서비스 담당자, 노동조합, 고용주 및 교육기관 관계자 등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북유럽 국가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외에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역시 채택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유연성 강화, 일생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면, 적절한 실업급여 제공 등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서도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급여를 받기 전에 12개월 동안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시간제 이상으로 일을 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직자에게는 현금이 지원되며 실업보험에 12개월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실업보험금도 지원된다(나영선 외, 2008). 덴마크에서는 실업급여로 실직 전 임금의 90%를 최대 4년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는 최대 500일간 실직 전 임금의 85%를 제공한다(연합뉴스, 2009년 3월 17일자).

북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¹¹⁾이 높은 편이다. 외부유연성과 내부유연

10) 직장순환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직장에서 직원이 육아, 교육훈련, 안식년 등을 사유로 임시로 회사를 떠날 경우에 실업자로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1980년대 후반에 덴마크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Sheur, 1998). 이 제도를 통해서 사용자는 대체인력 확보를 통해서 노동력의 공급 중단을 피할 수 있고, 실업자는 일시적인 취업을 통해서 직업현장 경험을 쌓아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제도는 복지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실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취업을 밀접히 연계시킨다(변종임·채재은, 2008).

11) 사실 유연성 개념은 매우 복잡하다. 김인춘(2004)은 노동시장 유연성에는 일반적으로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수량적 유연성은 시장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노동자 수를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해고의 자유, 노동시간의 변경, 임시직 및 외주의 활용이 포함된다. 기능적 유연성은 직무 개편, 숙련 향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임금유연성은 유연한 임금수준을 뜻한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구체적

성이 모두 높은 편인데, 여기서 “외부유연성”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을 뜻하며, “내부유연성”은 기업 내에서 노동력의 배치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며, 실직한 노동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뜻한다. 영미의 경우 외부유연성을 강조하는 반면, 북유럽의 경우에는 외부유연성과 내부유연성을 모두 강조하는 편이다. 내/외부 유연성을 모두 강조하는 북유럽에서는 고용안정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다음의 구호가 이를 잘 반영한다. “Protect the workers, not the jobs”(프레시안, 2007년 10월 11일). 즉,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교육 및 재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안정성을 추구하는 모델 하에서는 고용보호 규제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거나 약화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실업자를 위한 관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실업자 대상의 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역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기업은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실직을 하더라도 소득 대체율이 높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안정적이고 충실한 재취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노동유연성의 증대와 고용안정성의 상충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비 제공이 전제된다(변종임·채재은, 2008).

5. 사회적 합의주의

북유럽 국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노·사·정이 정부의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주의(Corporatism)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으로 고용 및 해고의 자유, 탄력적인 임금제도, 임시·시간제 노동의 증가, 높은 노동이동률을 지향한다(김인춘, 2004).

리한 사회적 합의주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는 이익집단(자본과 노동) 상호 간의, 또한 이들과 정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체제를 말한다(최성수, 2000). 사회적 합의주의 하에서 자본과 노동은 각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수직적이며 위계적인 전국 수준의 중앙 조직을 형성하고, 정부는 노사 중앙조직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킨다.

스웨덴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동과 자본의 동반자관계 노선을 추구한 사회민주당 세력과 노조지도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계급타협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에서는 단체협상의 제도화와 연대 임금 등으로, 또한 국가적 수준에서는 이해관계의 사회조합주의적 조정과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수립 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김인춘, 2004). 물론, 이것이 가능했던 데에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이를 통한 자본가계급과의 대등한 힘의 균형 관계, 그리고 사회민주당과의 긴밀한 정치적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 모델이 굉장히 급진적이거나 좌파적이지는 않다. 김인춘(2007)은 스웨덴의 정치지도자, 노동조합, 자본가집단은 “원칙있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평등과 연대의 이념 하에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보편적 복지국가를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협력해왔다고 설명한다. 핀란드의 경우는, 최초의 사회적 협약(국가소득정책협약)이 1968년에 이뤄졌다. 핀란드의 노동조합은 단지 임금인상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작업장 환경 등의 노동조건과 가족의 보육, 문화, 환경 등 모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협약은 5년마다 개정되는데 교육도 이 가운데 한 분야로 포함돼 있다. 교육부, 교육청, 교원노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교육부문의 발전계획 초안을 만든다(경향신문, 2009년 8월 4일).

이처럼 사회적 합의주의가 북유럽에서 정착화 되었음은 다음에 제시된 World Value Survey 결과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사회적 합의의 전제 조건이 되는 사회적 신뢰 정도에 대한 질문 즉,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에서 단연 두드러지게 신뢰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르웨이는 전체 응답자의 74.2%가 대체로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 최고의 신뢰도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은 28.2%만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고 응답하여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표 2-5>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는 정도

(단위: %)

	Total	France	Great Britain	United States	Japan	Norway	Sweden	Finland	South Korea	Switzerland	China	New Zealand	Germany
대부분 믿을수있다	45.4	18.8	30.5	39.3	39.1	74.2	68.0	58.9	28.2	53.9	52.3	51.2	36.8
경계해야 한다	54.6	81.2	69.5	60.7	60.9	25.8	32.0	41.1	71.8	46.1	47.7	48.8	63.2
Total	14306 (100)	996 (100)	1023 (100)	1242 (100)	1026 (100)	71018 (100)	962 (100)	999 (100)	1190 (100)	1178 (100)	1873 (100)	905 (100)	1893 (100)

출처: World Values Surveys Databank

한편, 덴마크의 경우 위의 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덴마크 오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et)의 Gert Svendsen 교수가 World Bank의 지원을 받아 2006년에 수행한 사회적 자본에 관한 협동 프로젝트¹²⁾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웃과 공동체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정도가 덴마크 역시 높은 것(응답자 1,110명 중 93.2%가 이웃주민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항목에 매우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것으로 응답)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 부나 대한 신뢰도 역시 76.9%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들에서 이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가 형성될 수 있던 요인은 무엇인가? 김인춘(2002)은 북유럽 국가들이 다음의 전제 조건을

12) 이 프로젝트에서는 푸트남(Putnam)이 개발한 사회적 자본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각국의 신뢰수준 등 사회적 자본의 주요 요소를 측정하였다.

갖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다. 첫째, 노동과 자본의 정상조직이 포괄적이고 중앙집권화 되어 단위노조가 기업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권위가 있고 둘째, 협상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노동의 정상조직과 기업의 정상조직 간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하여 양자의 협약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하고 협약의 준수를 보장하며 협약에 따르는 단기적 희생을 복지 및 사회안전망 등 사회정책을 통하여 보상해줄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이 주효했다.

더불어,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대외의존도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 형성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설명도 제시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강소국의 경제는 대외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외부환경의 변동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조건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만으로는 이러한 기민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주체 간의 효과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김은환, 2004)는 것이다.

한편, 노동자 교육 및 숙련향상이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논의가 가능하다. 조형제(2007)가 설명하듯이, 교육 및 숙련향상은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해당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사 상생의 방안이다. 또한 노사가 함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신뢰를 통해 노사 간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북유럽 노동조합이 일찍이 교육 및 훈련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 역시 사회적 합의주의 발달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6. 북유럽 사회 모델의 변화

북유럽 모델 또는 사회민주주의 체제 위기론은 1980년대 이후부터 학계와 정치 영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구화의 가속화, 생산양식

의 변화와 또한 이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급상승을 경험하면서 북유럽 모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모델이 점차 서유럽 사회모델로 수렴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북유럽 국가에서 변화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유럽 컨센서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승희·오현석(2005)은 1990년대 이후의 유럽의 경제위기와 EU의 통합정책의 영향으로 북유럽 모델이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핀란드는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정치적 이념과 경제정의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신속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스웨덴과 덴마크 역시 변화의 정도는 약한 편이지만 사회민주당 정권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회귀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김인춘(2007)은 스웨덴, 덴마크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시장자유화 개혁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국가와 민주적 코포라티즘이라는 기본 체제는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스웨덴 모델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김인춘(2007)은 스웨덴 모델이 효율과 형평 또는 유연성과 안정성의 양립과 조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고용을 중시하는 복지개혁,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이른바 “경쟁력 있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제2절 OECD 통계로 보는 북유럽 직업교육

이 절에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북유럽 국가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1. 교육비 투자 및 고등교육 진학률

가. GDP 대비 교육비 비율

북유럽 4개국의 GDP 대비 초중등 교육비 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4개국 모두가 OECD 평균 및 EU 19개국의 평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2-6〉 참조). 2006년 기준으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순으로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6> 교육수준에 따른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1995, 2000, 2006)

	2006			2000			1995		
	초·중등 및 비고등교육	고등 교육	전체	초·중등 및 비고등교육	고등 교육	전체	초·중등 및 비고등교육	고등 교육	전체
Australia	4.0	1.6	5.7	4.0	1.5	5.6	3.6	1.6	5.3
Austria	3.7	1.3	5.5	3.9	1.1	5.5	4.3	1.2	6.2
Belgium	4.1	1.3	6.1	4.1	1.3	6.1	m	m	m
Canada ^{1,2}	3.7	2.7	6.5	3.3	2.3	5.9	4.3	2.1	6.7
Czech Republic	3.0	1.2	4.8	2.8	0.8	4.2	3.5	0.9	5.1
Denmark ²	4.4	1.7	7.3	4.1	1.6	6.6	4.0	1.6	6.2
Finland	3.8	1.7	5.8	3.6	1.7	5.6	4.0	1.9	6.3
France	3.9	1.3	5.9	4.3	1.3	6.4	4.5	1.4	6.6
Germany	3.1	1.1	4.8	3.3	1.1	4.9	3.4	1.1	5.1
Greece ²	m	m	m	2.7	0.8	3.6	2.0	0.6	2.6
Hungary	3.4	1.1	5.6	2.9	1.1	4.9	3.5	1.0	5.3
Iceland ²	5.3	1.1	8.0	4.8	1.1	7.1	m	m	m
Ireland	3.5	1.2	4.7	2.9	1.5	4.5	3.8	1.3	5.2
Italy	3.5	0.9	4.9	3.2	0.9	4.5	3.5	0.7	4.6
Japan ²	2.8	1.5	5.0	3.0	1.4	5.0	3.1	1.3	5.0
Korea	4.3	2.5	7.3	3.6	2.3	6.4	m	m	m
Luxembourg ^{2,3}	3.3	m	m	m	m	m	m	m	m
Mexico	3.8	1.1	5.7	3.5	1.0	5.0	3.7	1.0	5.1
Netherlands	3.7	1.5	5.6	3.4	1.4	5.1	3.4	1.6	5.4
New Zealand	4.3	1.5	6.3	m	m	m	m	m	m
Norway ³	3.7	1.2	5.4	3.8	1.2	5.1	4.3	1.6	5.9
Poland	3.7	1.3	5.7	3.9	1.1	5.6	3.6	0.8	5.2
Portugal ¹	3.6	1.4	5.6	3.9	1.0	5.4	3.6	0.9	5.0
Slovak Rep. ²	2.7	1.0	4.3	2.7	0.8	4.1	3.1	0.7	4.7
Spain	2.9	1.1	4.7	3.2	1.1	4.8	3.8	1.0	5.3
Sweden	4.1	1.6	6.3	4.3	1.6	6.3	4.1	1.5	6.0
Switzerland ³	4.2	1.4	5.9	4.2	1.1	5.7	4.6	0.9	6.0
Turkey ³	1.9	0.8	2.7	1.8	0.8	2.5	1.2	0.5	1.7
U.K.	4.3	1.3	5.9	3.5	1.0	4.9	3.6	1.1	5.2
United States	4.0	2.9	7.4	3.9	2.7	7.0	3.8	2.3	6.6
OECD average	3.7	1.4	5.7	~	~	~	~	~	~
OECD total	3.7	1.9	6.1	~	~	~	~	~	~
EU19 average	3.6	1.3	5.5	~	~	~	~	~	~

1. 2006년 데이터 대신 2005년 데이터 이용.

2. 교육 수준이 혼합된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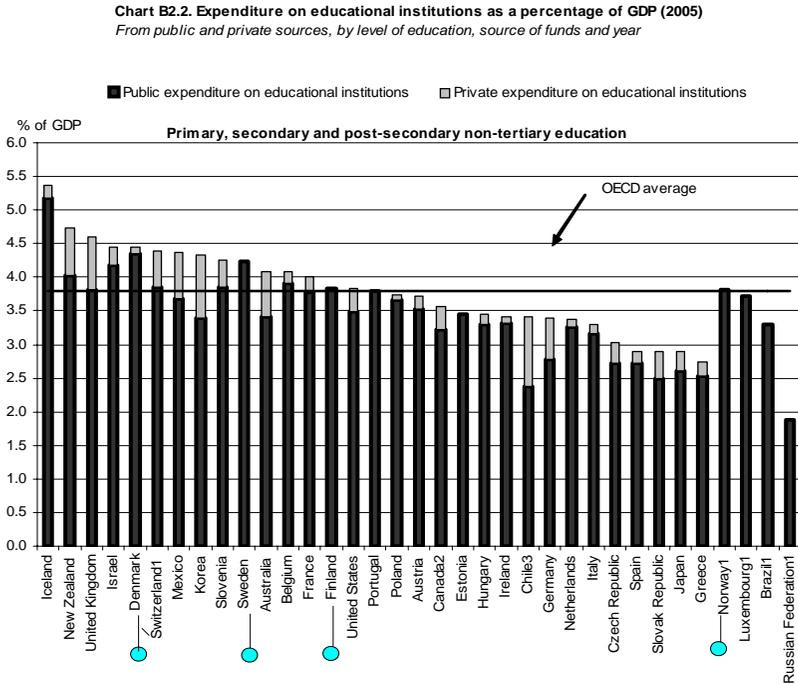
3. 정부 부담액만 포함

4. 2006년 데이터 대신 2007년 데이터 이용.

출처: OECD(2009a). *Educational at a Glance 2009*, p.220.

또한 [그림 2-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북유럽 4개국의 경우 초·중·등 교육비 지출이 전부 또는 대부분 정부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GDP 대비 초·중·등 교육비 투자 비율(정부부담/사교육비)



출처: OECD, Table B2.4. (www.oecd.org/edu/eag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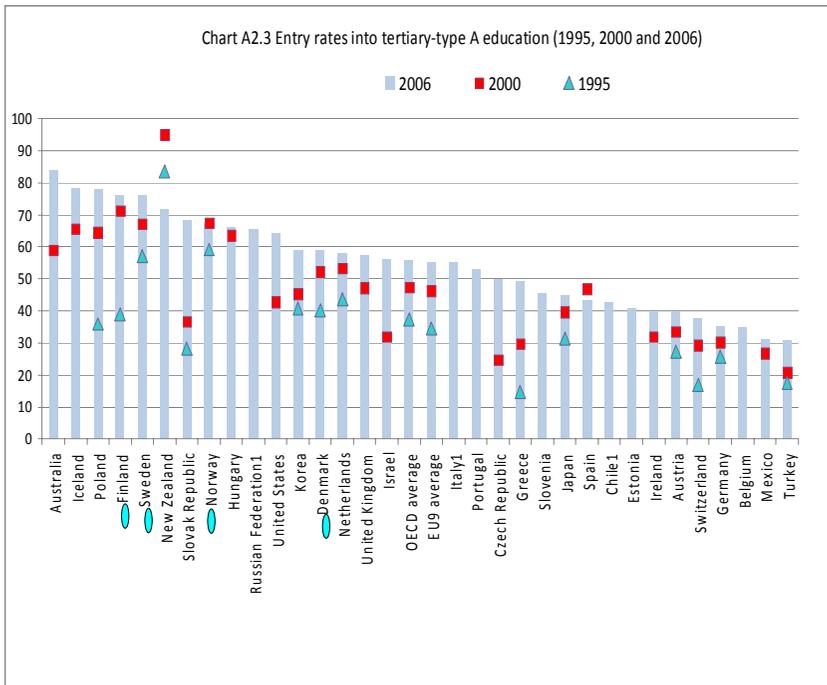
2005년 기준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의 GDP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0%이고 덴마크의 경우 0.1%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1%에 달한다.

나.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률

대부분 OECD 국가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 과

정이 비교적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 진학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음을 [그림 2-4]를 통해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 일반계 고교 졸업생 중에서 56%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대학 진학을 한다.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이론을 기반으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전문직으로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전문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들을 익히게 된다.

[그림 2-4] 대학 입학률(tertiary type A)—1995, 2000,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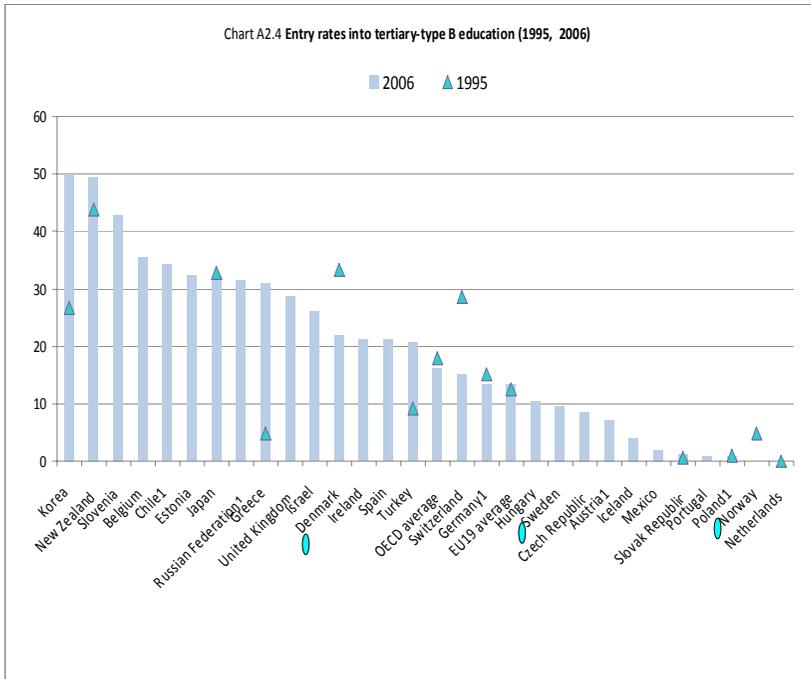


1. 2006년의 대학 입학률은 총 입학률(gross entry rate)¹³⁾로 산출.
 2. 2006년의 대학 입학률을 기준으로 입학률이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 순으로 정리.
- 출처: OECD, Table A2.5. (www.oecd.org/edu/eag2008).

13) 총 입학률이란 연령과 관계없이 전형적 입학연령인구 대비 전체 입학생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광현, 2005).

[그림 2-5]에서 보듯이 직업계열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OECD 국가의 학생들 중 약 15% 정도가 전문대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진학률에 있어서는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고, 전문대학 진학률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인다.

[그림 2-5] 전문대학 입학률(1995,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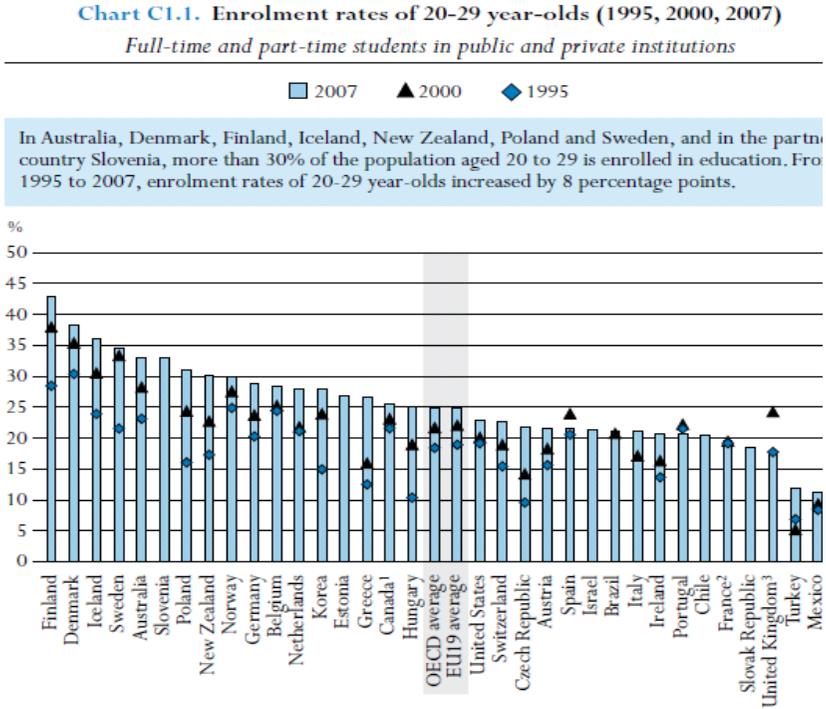
1. 2006년의 전문대학 입학률은 총 입학률(gross entry rate)로 산출.
 2. 2006년의 전문대학 입학률을 기준으로 입학률이 높은 국가부터 낮은 국가순으로 정렬
- 출처: OECD, Table A2.5. (www.oecd.org/edu/eag2008).

다. 정규 교육 참여 비율

대부분의 OECD 국가의 경우 모두가 최소 12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학생의 90% 가량이 14년 혹은 그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고 있다.

[그림 2-6] 20-29세 재학생 비율



1. Reference year 2006 instead of 2007.
 2. Excludes overseas departments for 1995 and 2000.
 3. Break in time series following methodological change from 2006.
 Countries are ranked in descending order of enrolment rates of 20-29 year-olds 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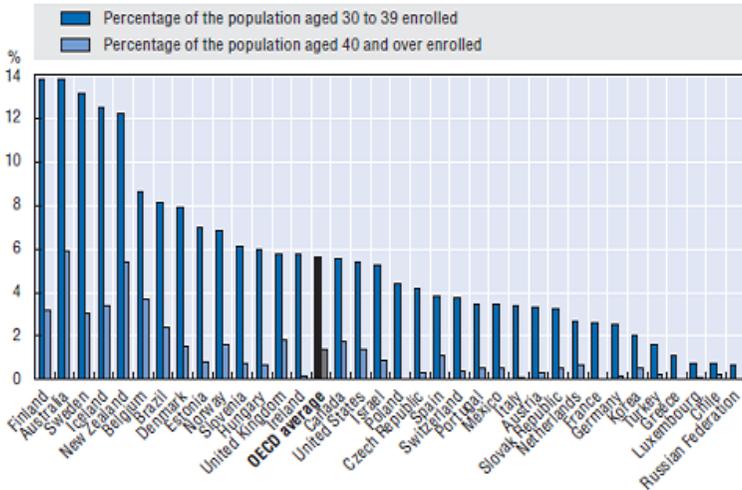
출처: OECD(2009a). *Education at a Glance 2009*.

[그림 2-6]에서 보듯이 OECD 가입국의 경우, 의무교육이 끝난 20-29세의 젊은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OECD 평균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공적, 사적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포르

투가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1995년보다 2007년도에 더 많은 젊은 이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30-39세 성인이 정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그림 2-7])을 보면, 핀란드가 14% 정도로 가장 높고, 스웨덴(3위), 덴마크(8위), 노르웨이(10위)이며 한국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40세 이상의 성인이 정규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높으며, 핀란드와 스웨덴도 높은 편에 속한다.

[그림 2-7] 성인(30-39세, 40세 이상)의 정규 교육 참여율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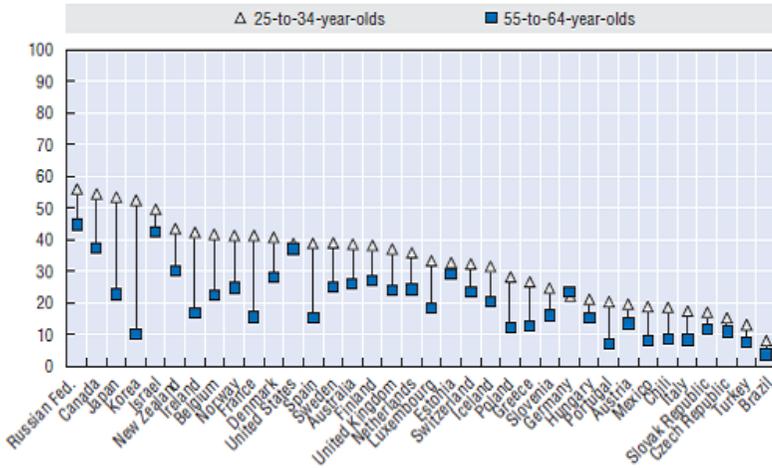


Source: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008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출처: OECD(2008a), *Education at a Glance*.

24세-34세 인구 중에서 대졸자 비율([그림 2-8])은 러시아, 캐나다, 일본, 한국 순서이며 북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55세-64세 인구 중에서 대졸자 비율은 러시아, 이스라엘, 미국이 높으며 북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으로 높은 국가들에 속한다.

[그림 2-8]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비중 (연령대별, 2006)



Source: OECD (2008),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008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출처: OECD(2008a), *Education at a Glance*.

라. 국제학업성취도비교(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16세 학생들(우리나라의 고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PISA 결과(〈표 2-7〉)를 보면, 핀란드는 언어와 수리, 과학에서 각각 2위, 1위, 1위로서 종합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다. 덴마크(15위, 10위, 18위)와 스웨덴(8위, 15위, 16위)은 OECD 30개국 중에서 중위권, 노르웨이(18위, 22위, 24위)는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표 2-7> OECD 국가의 국제학업성취도비교(PISA) 결과(2006년)

국가명	언어(순위)	수리(순위)	과학(순위)
AUS (호주)	513.00 (6)	520.00 (8)	527.00 (5)
AUT (오스트리아)	490.00 (16)	505.00 (13)	511.00 (12)
BEL (벨기에)	501.00 (10)	520.00 (8)	510.00 (13)
CAN (캐나다)	527.00 (3)	527.00 (5)	534.00 (2)
CHE (스위스)	499.00 (11)	530.00 (4)	512.00 (11)
CZE (체코)	483.00 (20)	510.00 (11)	513.00 (10)
DEU (독일)	495.00 (13)	504.00 (14)	516.00 (8)
DNK (덴마크)	494.00 (15)	513.00 (10)	496.00 (18)
ESP (스페인)	461.00 (26)	480.00 (24)	488.00 (22)
FIN (핀란드)	547.00 (2)	548.00 (1)	563.00 (1)
FRA (프랑스)	488.00 (17)	496.00 (17)	495.00 (19)
GBR (영국)	495.00 (13)	495.00 (18)	515.00 (9)
GRC (그리스)	460.00 (27)	459.00 (28)	473.00 (28)
HUN (헝가리)	482.00 (20)	491.00 (21)	504.00 (15)
IRL (아일랜드)	517.00 (5)	501.00 (16)	508.00 (14)
ISL (아이슬란드)	484.00 (18)	506.00 (12)	491.00 (20)
ITA (이탈리아)	469.00 (24)	462.00 (27)	475.00 (26)
JPN (일본)	498.00 (12)	523.00 (6)	531.00 (3)
KOR (한국)	556.00 (1)	547.00 (2)	522.00 (7)
LUX (룩셈베르크)	479.00 (22)	490.00 (22)	486.00 (25)
MEX (멕시코)	410.00 (29)	406.00 (30)	410.00 (30)
NLD (네덜란드)	507.00 (8)	531.00 (3)	525.00 (6)
NOR (노르웨이)	484.00 (18)	490.00 (22)	487.00 (24)
NZL (뉴질랜드)	521.00 (4)	522.00 (7)	530.00 (4)
POL (폴란드)	508.00 (7)	495.00 (18)	498.00 (17)
PRT (포르투갈)	472.00 (23)	466.00 (26)	474.00 (27)
SVK (슬로바키아)	466.00 (25)	492.00 (20)	488.00 (22)
SWE (스웨덴)	507.00 (8)	502.00 (15)	503.00 (16)
TUR (터키)	447.00 (28)	424.00 (29)	424.00 (29)
USA (미국)	m	474.00 (25)	489.00 (21)

출처: OECD(2008a)

2. OECD 국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유형

가.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비중

최지희 외(2006)는 전세계적으로 고등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가운데,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진단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판단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보편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일반화한 측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2000년, 2003년, 2006년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표 2-8>)을 보면 2000년에서 2006년 동안 비율이 감소한 나라는 호주, 덴마크, 독일,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터키, 영국의 11개 국가이다. 이 중에서도 영국, 폴란드, 프랑스에서는 2000년에서 2006년 동안 각각 25.6%포인트, 20.3%포인트, 14.3%포인트나 직업계 고교 학생 수 비율이 감소하였다.

한편,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직업계 고교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동일한 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직업계 고교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각각 10.1%포인트, 9.0%포인트, 6.3%포인트가 증가하였다.

OECD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직업계 고교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이 46.9%에서 44.0%로 감소하였고, 데이터를 제공한 27개국 중에서 11개국이 감소하였으며, 6개국은 증가, 나머지 10개국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덴마크만이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54.7%에서 47.8%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각각 10.1%포인트, 2.7%포인트, 6.3%포인트 증가하여 OECD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2-8> OECD 국가의 직업계 프로그램 비율 변화(2000-2006)

	일반교육			직업교육			예비직업교육			혼합형 (학교기반+ 현장기반)			직업계 프로그램 증감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감소	증가
Australia	34.3	35.8	38.4	65.7	64.2	61.6	a	a	a	x(6)	x(3)	m	▼	
Austria	21.7	20.8	22.1	71.1	71.8	71.8	7.2	7.4	6.2	36.4	34.7	33.0		
Belgium	33.2	29.7	30.6	66.8	70.3	69.4	a	a	a	2.8	3.4	3.5		
Canada	90.9	m	94.6	a	m	5.4	9.1	m	x(6)	a	m	a		
Czech Republic	18.6	20.5	20.7	80.2	79.3	79.2	1.1	0.2	0.1	40.5	37.2	34.8		
Denmark	45.1	46.4	52.2	54.7	53.3	47.8	0.2	0.3	a	54.1	53.3	47.6	▼	
Finland	44.7	41.2	34.6	55.3	58.8	65.4	a	a	a	10.7	10.9	10.9		▲
France	42.6	43.6	56.9	57.4	56.4	43.1	a	a	a	11.7	11.7	11.6		
Germany	36.8	37.8	40.6	63.2	62.2	59.4	a	a	a	48.7	49.0	44.2	▼	
Greece	67.9	64.0	66.1	32.1	36.0	33.9	a	a	a	a	a	5.1		
Hungary	36.0	50.2	76.3	10.3	12.8	12.9	53.7	37.0	10.7	10.3	12.8	12.9		▲
Iceland	66.6	64.9	63.3	32.3	34.0	35.2	1.1	1.1	1.5	14.4	16.0	16.7		▲
Ireland	76.6	71.7	66.6	a	a	2.4	23.4	28.3	31.0	a	a	2.4		
Italy	35.7	36.2	39.5	24.6	26.0	24.9	39.8	37.8	35.6	m	a	a		
Japan	73.9	74.5	75.4	25.3	24.7	23.7	0.8	0.8	0.9	a	a	a	▼	
Korea	63.9	69.3	72.2	36.1	30.7	27.8	a	a	a	a	a	a	▼	
Luxembourg	36.5	35.3	37.1	63.5	64.7	62.9	a	a	a	13.7	13.2	13.8		
Mexico	87.0	89.1	90.2	13.0	10.9	9.8	a	a	a	a	a	m	▼	
Netherlands	31.7	30.9	32.5	68.3	69.1	67.5	a	a	a	20.4	23.6	18.3		
New Zealand	m	100	m	m	a	m	m	a	m	m	a	m		
Norway	42.7	40.8	40.0	57.3	59.2	60.0	a	a	a	m	m	13.9		▲
Poland	35.7	45.7	56.0	64.3	54.3	44.0	a	a	a	a	a	6.3	▼	
Portugal	72.2	71.5	68.5	27.8	28.1	11.6	a	0.4	19.9	m	m	m	▼	
Slovak Republic	21.4	24.6	26.3	78.6	75.4	73.7	a	a	a	39.7	38.9	30.9		
Spain	66.5	62.8	57.5	33.5	37.2	42.5	n	n	n	5.8	4.3	2.2		▲
Sweden	51.2	47.1	44.9	48.8	52.9	54.2	a	a	0.9	m	a	n		▲
Switzerland	34.3	35.0	35.8	65.7	65.0	64.2	a	a	n	57.9	58.9	57.8	▼	
Turkey	51.0	62.0	63.7	49.0	38.0	36.3	a	a	a	9.9	8.4	n	▼	
United Kingdom	32.7	30.8	58.3	67.3	69.2	41.7	x(6)	x(3)	x(6)	x(6)	a	m	▼	
United States	m	100	100	m	a	x(4)	m	a	x(4)	m	a	x(4)		
OECD average	48.3	51.0	53.8	46.9	45.1	44.0	5.1	4.0	4.1	17.1	15.1	15.2	▼	

출처: OECD(2002, 2005, 2008a). *Education at a Glance*. 임연(2009) 재인용.

나. 고교 단계 직업교육 국가별 유형

1) 일반계 프로그램과 직업계 프로그램의 구분 기준

고교 단계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일반계와 직업계로 구분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을 2006년도 기준으로 조사한 OECD 통계 지표는 <표 2-9>와 같다. OECD 통계 수집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학생 등록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아래 표에서 “일반계” 프로그램이란 직업준비와 관련된 내용이 25% 이하인 경우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25% 이상이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직업계” 프로그램으로 분류한다.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25%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이수한 것이 특정한 직업과 관련된 자격과 연계되지 않으며, 향후 이어질 직업교육에 대비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 예비직업교육(pre-vocational education)으로 구분한다.

2) 학교기반 직업교육 vs. 혼합형 직업교육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기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혼합형 프로그램이 혼재한다. 학교기반 직업교육은 교육과 훈련이 학교 혹은 별도의 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반면에 혼합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현장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샌드위치 혹은 듀얼 프로그램이라고 일컬어진다.

3) 국가별 유형 구분: 일반계중심형, 학교기반 직업교육형, 도제식 직업교육형

본 연구에서는 전체 고교 중에서 60% 이상의 학생이 일반계 고교 프로

그림에 참여하는 국가를 일반계중심형 국가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캐나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헝가리,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가 속한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40% 이상인 국가들 중에서 30% 이상의 학생이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도제식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하였다. 오스트리아, 체코공화국, 덴마크, 독일, 슬로바키아공화국, 스위스가 이에 속한다.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40% 이상이면서도 그 학생들의 20% 이하가 도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기반 직업교육형 국가로 구분되며, 이에 호주,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속한다.

4) 북유럽 국가의 특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OECD 국가를 일반계중심형, 학교기반 직업교육중심형, 도제식 직업교육중심형으로 구분했을 때,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덴마크는 도제식 직업교육중심형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학교기반 직업교육중심형으로 구분되었다. 덴마크의 경우 4개 국가 중에서 직업계 고교의 비율은 47.8%로서 핀란드 65.4%, 노르웨이 60%, 스웨덴 55.1%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체 고교생의 47.6%가 혼합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직업교육 트랙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10.9%, 노르웨이는 13.9%가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1/5-1/4이라는 점에서 학교기반으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9> OECD 국가의 고교 계열별 학생 비율과 국가별 유형(단위:%)

국가명	프로그램 유형					국가별 유형
	일반교육	예비 직업 교육	직업교육	직업교육+ 예비 직업	혼합형 (학교기반+ 현장기반)	
Australia	38.4	a	61.6	61.6	m	학교
Austria	22.1	6.2	71.8	77.9	33.0	도제
Belgium	30.6	a	69.4	69.4	3.5	학교
Canada	94.6	x(6)	5.4	5.4	a	일반
Czech Republic	20.7	0.1	79.2	79.3	34.8	도제
Denmark	52.2	a	47.8	47.8	47.6	도제
Finland	34.6	a	65.4	65.4	10.9	학교
France	56.9	a	43.1	43.1	11.6	학교
Germany	40.6	a	59.4	59.4	44.2	도제
Greece	66.1	a	33.9	33.9	5.1	일반
Hungary	76.3	10.7	12.9	23.7	12.9	일반
Iceland	63.3	1.5	35.2	36.7	16.7	일반
Ireland	66.6	31.0	2.4	33.4	2.4	일반
Italy	39.5	35.6	24.9	60.5	a	학교
Japan	75.4	0.9	23.7	24.6	a	일반
Korea	72.2	a	27.8	27.8	a	일반
Luxembourg	37.1	a	62.9	62.9	13.8	학교
Mexico	90.2	a	9.8	9.8	m	일반
Netherlands	32.5	a	67.5	67.5	18.3	학교
New Zealand	m	m	m	m	m	
Norway	40.0	a	60.0	60.0	13.9	학교
Poland	56.0	a	44.0	44.0	6.3	학교
Portugal	68.5	19.9	11.6	31.5	m	일반
Slovak Republic	26.3	a	73.7	73.7	30.9	도제
Spain	57.5	n	42.5	42.5	2.2	학교
Sweden	44.9	0.9	54.2	55.1	n	학교
Switzerland	35.8	n	64.2	64.2	57.8	도제
Turkey	63.7	a	36.3	36.3	n	일반
United Kingdom	58.3	x(6)	41.7	41.7	m	일반
United States	100.0	x(4)	x(4)		x(4)	일반

1. 일반-일반계중심형, 학교-학교기반 직업교육형, 도제-도제식 직업교육형

2. a: 분류 미적용으로 데이터 없음/m: 데이터 이용 불가능/ n: 0에 가까움

출처: OECD(2008a), *Education at a Glance*, p. 331에 기초하여 유형을 구분함. 임언(2009) 재인용.

3. OECD 국가의 진로교육 실태

가. OECD 국가별 진로관련 경험 비율

임언(2009)이 2006 PISA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¹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이 OECD 28개국 중에서 각각 24위, 21위, 26위, 25위로서 일관되게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직업박람회는 노르웨이, 호주, 영국 순서로 많이 하고 있으며, 기업인 강연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호주의 순서로, 또한 기업체 방문은 독일, 핀란드, 덴마크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 활동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결과로는 오스트리아(421.6), 독일(412.9), 호주(396.7)의 순서로 높았으며, 북유럽 국가들 또한 덴마크(6위), 핀란드(8위), 노르웨이(9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스웨덴은 16위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10> 16세 대상, OECD 국가에서의 진로지도

(단위: 1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괄호 안은 국가별 순위)

국가명	직업박람회	기업인강연	기업체방문	진로지도 접수*
Australia	94.6 (2)	86.8 (3)	78.9 (12)	396.7 (3)
Austria	74.0 (10)	89.2 (1)	92.4 (4)	421.6 (1)
Belgium	17.5 (27)	24.8 (28)	58.5 (24)	125.0 (27)
Canada	79.4 (7)	87.4 (2)	74.2 (17)	336.9 (7)
Czech Republic	76.3 (8)	74.6 (8)	84.1 (11)	344.0 (5)
Denmark	75.3 (9)	85.0 (5)	93.1 (3)	343.9 (6)
Finland	69.8 (11)	80.6 (6)	94.0 (2)	326.5 (8)
France
Germany	89.4 (4)	78.9 (7)	94.5 (1)	412.9 (2)

<표 계속>

14)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직업박람회 참여 여부,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현장실습)에 대해서 학생들이 일 년에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경험을 갖는다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임.

국가명	직업박람회	기업인강연	기업체방문	진로지도 접수*
Greece	65.4 (14)	38.9 (27)	76.8 (14)	240.4 (19)
Hungary	38.1 (25)	50.9 (24)	77.9 (13)	227.8 (22)
Iceland	50.9 (21)	64.5 (13)	71.9 (18)	244.7 (18)
Ireland	43.6 (22)	51.6 (22)	43.4 (27)	187.2 (23)
Italy	58.3 (17)	62.3 (15)	66.7 (20)	272.3 (14)
Japan	.	63.4 (14)	27.2 (28)	.
Korea	38.4 (24)	51.8 (21)	44.1 (26)	157.6 (26)
Luxembourg	58.9 (16)	60.6 (16)	84.5 (9)	248.9 (17)
Mexico	17.7 (26)	46.3 (25)	57.5 (35)	176.3 (25)
Netherlands	69.3 (12)	57.5 (17)	71.6 (19)	278.1 (12)
New Zealand	80.2 (6)	70.0 (10)	58.7 (23)	302.0 (11)
Norway	97.6 (1)	69.0 (11)	84.9 (8)	325.4 (9)
Poland
Portugal	66.0 (13)	56.1 (18)	85.5 (6)	265.5 (15)
Slovak Republic	41.7 (23)	65.1 (12)	75.5 (15)	235.7 (20)
Spain	51.0 (19)	54.9 (19)	75.1 (16)	231.1 (21)
Sweden	61.0 (15)	51.0 (23)	87.3 (5)	255.5 (16)
Switzerland	82.9 (5)	54.1 (20)	85.2 (7)	311.1 (10)
Turkey	51.0 (20)	43.8 (26)	60.9 (21)	182.5 (24)
United Kingdom	92.0 (3)	85.0 (4)	84.4 (10)	369.6 (4)
United States	54.6 (18)	73.2 (9)	60.6 (22)	272.7 (13)

* 진로지도 접수는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각각 0, 1, 2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출처: 임인(2009)

나. 학교 진로교육 담당자

PISA 2006에서는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에 고용된 상담가가 있는 학교의 비율은 핀란드(95.6%), 스웨덴(87.5%), 아일랜드(82.9%)의 순서로 높았으며, 덴마크(41%)와 노르웨이(36%)는 이들 나라보다는 낮으나 OECD 국가 전체에서 보면 중간 정도이다. 덴마크나 노르웨이는 고용된 상담가의 비율이 낮은 대신 방문 상담가가 있는 학교의 비율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담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교사에 진로교육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70.9%로 높게 나왔으며, 고용된 상담가, 방문상담가, 특정 교사가 전담하고 있는 학교의 비율은 매우 낮아서 복유립과 대조적이다.

<표 2-11>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

국가명	실시하지 않음	모든 교사	특정 교사	고용된 진로 상담가	방문 진로 상담가
일본	0.69	37.04	61.45	0.00	0.00
이탈리아	26.93	16.41	50.50	0.52	0.79
독일	1.75	6.26	43.05	0.63	27.18
헝가리	6.21	44.02	42.27	1.23	1.79
한국	0	70.91	19.92	2.70	3.75
벨기에	31.68	33.72	13.91	5.22	9.48
체코	0.86	4.81	78.52	10.27	2.32
터키	3.35	50.71	30.31	11.69	1.22
스위스	8.44	24.42	23.66	11.74	15.34
오스트리아	16.39	19.37	42.75	14.46	0
네덜란드	1.97	7.08	58.85	14.59	8.93
그리스	7.30	40.27	27.29	18.67	3.41
영국	0	1.34	30.16	19.90	40.74
멕시코	8.18	37.43	23.58	21.44	1.23
노르웨이	0	3.58	56.49	36.40	0.15
룩셈부르크	7.78	7.79	41.06	36.63	0
덴마크	0	0.98	10.53	41.00	45.70
호주	0.39	2.43	49.79	42.70	0.79
캐나다	0.71	7.36	27.79	52.68	2.40
포르투갈	6.22	3.49	9.80	70.26	7.84
미국	2.90	14.20	6.02	70.40	1.33
아이슬란드	7.85	1.69	9.50	72.12	4.38
스페인	1.06	3.58	14.04	76.36	0.40
슬로바키아	9.26	5.79	4.42	79.94	0
뉴질랜드	0	3.10	8.38	82.04	0
아일랜드	0	3.62	8.50	82.87	0
스웨덴	0.62	0.67	1.24	87.52	8.44
핀란드	0	0	0	95.62	0

출처: 임연(2009)

제3절 북유럽 개관 요약

이 장에서는 북유럽 직업교육체제가 형성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문화·경제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국가들은 강소 국가이다.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작지만 강한 경제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실현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1인당 GDP는 한국보다 1.4배-2.1배 정도 높은 35,000~53,000달러 수준이다. 이 국가들은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의 수준 또한 높다.

둘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적 전통 아래 있다. 이 국가들은 시장경제의 기본 구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존중하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민주적이며 합법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 사회에서는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유럽이나 OECD의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적은 편이며, 개인들은 일상에서의 선택과 통제의 자유를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다.

셋째, 북유럽 국가들은 복지국가이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서 사회·정치·경제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안정된 복지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넷째,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노·사·정과 같이 중요한 사회적 세력들이 주요 정책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 협력적 노사관계에 바탕을 둔 파트너십이 사회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모든 국면에서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 노사협력이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노사 양측 모두 중앙의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힘의 균형을 이루어온 점, 서로가 게임

의 법칙을 지켜온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가 작용하고 있다.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은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또한 북유럽의 교육 체제의 특징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OECD 통계를 통하여 북유럽 국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2-12>와 같다.

<표 2-12> 북유럽 국가의 교육에 관한 OECD 통계 검토 결과 요약

구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교육 정도	25-64세 인구 고졸 이상 (2008) ¹⁵⁾	77.6%	81.1%	79.8%	85%
교육 재정	GDP 대비 교육 투자	7.3%	5.8%	5.4%	6.3%
성취도 국제 비교	PISA ¹⁶⁾ (언어, 수리, 과학)	15위, 10위, 18위	2위, 1위, 2위	18위, 22위, 24위	8위, 15위, 16위
	IALS ¹⁷⁾ (독해력, 문서이해력, 수리력)	8위, 3위, 2위	2위, 4위, 4위	3위, 2위, 7위	1위, 1위, 1위
실업률	중졸이하 실업률	7.2%	11.1%	6.4%	9.1%
	고졸이상 실업률	4.2%	7.4%	3.8%	6.1%
직업 교육 참여	직업교육 참여율	47.8%	65.4%	60%	54.2%
	도제훈련 참여율	47.6%	10.9%	13.9%	0%

이들 국가에서의 성인 인구의 고졸 이상 비율은 77.6%-81.1%로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GDP 대비 교육비 투자 비율이 OECD 평균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투자 비율은 거의 최상위에 속한다. 북유럽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이 최근에 부각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인 16세의 청소년의

15) EU 27개국 평균은 71.5%

16) 2006년, 16세 국제학업성취도 비교 조사

17) 2000년, 20개국 16-64세 성인의 기초능력 비교 조사

역량과 성인의 역량에 대한 국제 비교에서 북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는 핀란드만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났으나, 성인의 역량을 비교한 조사에서는 북유럽 4개국(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덴마크: 47.8%, 핀란드: 65.4%, 노르웨이: 60%, 스웨덴: 54.2%), 진로교육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을 갖춘 학교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제 3 장 덴마크의 직업교육

이영현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국명 : 덴마크(the Kingdom of Denmark)
- 수도 : 코펜하겐(137만명)
- 인구 : 551만명(2009년 기준)
- 민족 : 전체 인구의 96%가 북게르만계 데인족
- 면적 : 약4.3만km² (남한의 약43%)
- 종교 : 루터복음교(국교 88%), 카톨릭, 침례교, 유대교
- 정부 : 입헌군주국, 내각책임제

1. 인구

덴마크는 유럽의 유틀란트 반도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은 4.3만 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551만 명이다(2009년 기준).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며, 전체 인구의 15%만이 시골에 살고 있다(Statistics Denmark, 2009).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에서 0-19세까지의 인구는 24.5%이고

20세-59세까지 인구는 53.5%이며 60세 이상의 인구는 22%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덴마크의 전체 인구의 91.2%는 북게르만계의 데인(Dane)족이며 약 8.8%의 인구만이 외국배경을 가지고 있다(Statistics Denmark, 2008). 정치적으로 덴마크는 입헌군주제와 대의민주주의국가이며 수도인 코펜하겐(Copenhagen)을 기반으로 한 중앙 행정부와 5개의 광역자치단체(region)로 나뉜 지역행정부와 98개의 기초자치단체(municipality)가 있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2. 경제 및 노동시장

덴마크의 경제 규모는 작지만 개방되어 있다.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여 수·출입이 국가 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Cedefop, 2009b). 2008년 일인당 GDP는 37,700달러이고 이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0.38%의 성장을 한 결과이다. 2009년에는 -1.5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Index Mundi 웹사이트 참조).

<표 3-1> 산업별 GDP 비중

구분	비중(%)
농수산업 및 광업	4.18
제조업	21.47
에너지 및 수자원	3.68
건설	6.63
무역, 호텔, 요식업	38.55
운송, 우편, 통신	10.87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11.72
공공 및 개인 서비스	2.92
총계	100

* 2007년-2009년 합계
출처: KOTRA(2009)

한편, 덴마크의 산업별 GDP 비중은 무역, 호텔 및 요식업이 38.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이 21.47%,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가 11.72% 순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덴마크 근로자의 산업별 고용 현황은 전체 산업별 비중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전체 고용에서 35.3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소매업·호텔·요식업의 고용이 18.53%로 두 번째로 높으며 그 다음이 재정 및 사업, 제조업, 건설업으로 나타났다(Cedefop, 2009b).

<표 3-2> 산업별 고용 현황(2007년 기준)

분야	비중(%)
공공 및 민간 서비스	35.36
도·소매업, 호텔 및 요식업	18.53
재정 및 비즈니스	15.02
제조업	14.03
건설업	6.77
교통 및 통신	6.20
기타	4.93
전체	100

출처: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여성의 높은 노동 참여율¹⁸⁾로 인해 전반적으로 높은 노동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550만 명의 인구 중에 2007년 기준 노동인구는 290만 명이고 실업률은 3.9%로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최근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으며 특히 실업률은 2009년 9월 EU 가입국가 27개국의 평균 9.7%에 비해 덴마크는 6.4%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실업률은 6.0%로 EU 평균의 9.8%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25세 미만의 청년실업의 경우에도

18) 전체 인구 대비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73.4%, 남성 참여율: 81.2%

EU 평균이 15.4%인데 반해 덴마크는 그 절반 수준인 7.6%에 그쳤다(〈표 3-3〉 참조).

<표 3-3> 덴마크 실업률 현황(2009년 9월 기준)

	덴마크	EU 평균(27개국)
전체	6.4%	9.7%
남성	6.8%	9.6%
여성	6.0%	9.8%
25세 미만*	7.6%	15.4%

* 2008년 기준

출처: Eurostat 웹사이트

덴마크 노동인구의 교육수준은 〈표 3-4〉로 요약될 수 있다. 노동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75,900명이 기초교육을 이수하였고, 7.4%가 고교단계 교육을 이수했으며, 39%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으며, 29%가 고등교육을 이수하였다. 학력별 비중을 2000년과 비교하여 보면 2005년에 고등교육 이수자는 4.2%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과정의 이수자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3-4> 덴마크 노동력(15-69세 기준)의 학력 비중

(단위: %)

분류	2000	2005
기초교육	28.6	25.4
고교단계교육	7.5	7.4
직업교육훈련	39.6	38.8
고등교육	24.3	28.5
전체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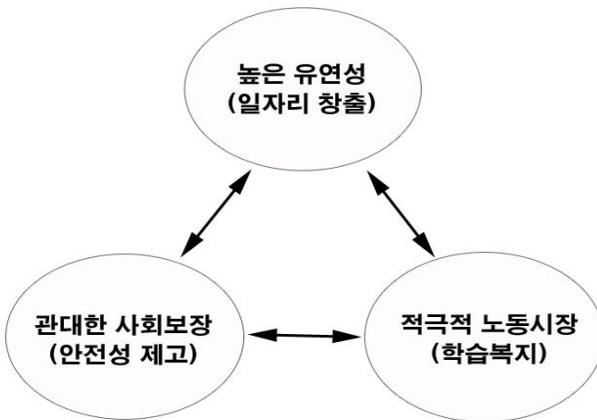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Facts and Figures 2007*.

덴마크 교육부는 노동력의 고학력화 현상을 노동인구의 세대교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의 젊은 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되면서 고등교육을 이수한 노동력이 증가한 것이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위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덴마크 노동시장은 1990년대의 개혁인 ‘유연안 전성’이 그 바탕을 이룬다. 당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고도의 유연성’으로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해고에 대한 보호가 낮으며 노동력의 이동성이 높았다. ② 높은 노동력의 이동에 비해 ‘관대한 실업보상’으로 노동자들이 인식하는 불안정성이 매우 낮았다. 실업수당의 지급기간은 총 4년으로 평균적인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 순소득대체율이 70%가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90%에 이르렀다. ③ ‘노동시장 개혁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1994년 이후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적극화 이념’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숙련향상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그림 3-1] 유연안정성의 “황금삼각형”(Bredgaard, Larsen, & Madsen)



출처: 정원호(2005) 재인용

또한, 실업수당 기간을 단축하고 이중 수급기간제를 도입하여 소극적 기간과 적극화 기간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개혁으로 인해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그림 3-1]과 같은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황금삼각형”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정원호, 2005).

또 다른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덴마크 청년들은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TW)’에 소요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이 학교 재학 중에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2008년 20세의 학생 가운데 직업을 가진 경우가 약 70%에 이르러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교 교육을 이수한 후에 첫 번째 직업을 찾는 데 걸리는 기간 역시 짧다. 2008년의 경우 중등교육이수자와 비이수자 간에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속도에 차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9b).

제 2 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1. 직업교육의 기본원칙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청소년 교육의 한 부분으로 16세 이상 청년들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이다. 덴마크 직업교육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자격)의 제공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능력과 함께 활동적인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체제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원화훈련(dual training) 원칙으로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의 도제훈련이 교과과정을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훈련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이론적, 실제적, 그리고 일반적인 기

술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직업교육훈련의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회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성을 토대로 한 평생학습 지원의 원칙이다. 직업교육훈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부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후에 일반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 안에서 교육받을 수도 있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도 있도록 한다. 또한, 초기직업교육훈련(IVET)과 계속직업교육훈련(CVET)은 자격과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합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위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간, 내용, 과목, 수준이 구체적 프로그램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다.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은 2008년부터 교과목과 시간에 중점을 두지 않고 훈련을 통해 획득한 능력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직업교육의 중점을 변경한 이유는 직업학교에서 학생 개인의 능력과 필요에 맞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변화는 형식적 능력과 비형식적 능력이 모두 교육 시스템에서 평가되고 인식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을 수립한다는 정부의 전반적인 목적의 변화에서 발견될 수 있다(Cedefop, 2009b).

2. 법 체제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목적은 **직업교육훈련법**을 비롯한 아래의 5가지 기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 직업교육훈련법(The Act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직업교육훈련 규제(The Regulation o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직업교육훈련에서 기초과정에 관한 규제(The Regulation on the Basic Course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직업교육훈련 학교법(The Act on Institutions Provid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투명성과 공개법(The Act on Transparency and Openness)

직업교육훈련법은 직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이 생겨난 공과를 지원하고 투명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0년대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개혁되어 왔다. 덴마크 정부는 개혁을 위하여 별도로 중앙기금을 마련하고 새로이 생겨난 분야와 직업을 분석하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한다. 또한, 교육부를 강화시켜 새로운 공과를 위한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개방과 투명성을 골자로 하는 규범을 만들었다(OECD, 2008c). 그 결과, 덴마크는 아래의 개혁과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를 갖춘 직업교육을 구축할 수 있었다.

가. 시장주의 도입과 분권화에 관한 개혁(1989년, 1991년)

1989년의 개혁은 직업학교의 지위 변화를 통해 직업학교가 독립적이고 시장주의를 도입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등록률과 졸업률이 직업학교의 예산에 영향을 주도록 전환하였다. 또한 교수법을 개혁시켜 교수법 지침을 소개하였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1991년 개혁에서는 분권화, 목적에 의한 경영(MBO), 대학의 반(半)민영화, 학생들의 대학 자유선택에 대한 원칙을 도입하였다(Cedefop, 2009b).

나. 직업교육훈련의 유연화(2000년, 2001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이 충분한 훈련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높은 중도 탈락률을 보임에 따라 훈련과정이 더 투명하고 유연화 되어 많은 훈련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직업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83개의 과정 중에 선택해야 했던 것에서 7개의 기본과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내용과 구조에서 교육의 유연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따라서 2001년의 개혁은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수업중심에서 개별훈련 중심으로”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주요 교사들의 교수법적 변화를 추진하였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덴마크 정부는 2001년에 직업교육부분에 여덟 가지 세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교육훈련 과정들을 축소하고, 입학자격을 확대한다. 둘째, 교육과정을 모듈식 교육과정으로 바꾼다. 셋째, “부분 자격인증¹⁹⁾”과 “이중 자격인증”을 도입한다. 넷째, 다학문적 학습을 한다. 다섯째, 학습에 대한 개인별 교육경로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교사를 지원한다. 여섯째, 개인학습계획(personal educational plan)을 세운다. 일곱째, 개인학습포트폴리오와 일지를 작성한다. 여덟째, 업무기반의 학습을 한다(한송희·오현석, 2005).

다. 공동 법규와 부분자격 도입(2003년)

2003년 8월, 상업계 교육훈련과정을 갱신하고 상업계와 기술계 교육훈련 과정에 모두 적용 가능한 공동 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448번 조례의 개정이 있었다. 상업계 교육훈련과정은 너무 이론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며 학교

19) 산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프로그램에 한해서 부분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부분자격은 현재 직업 프로파일과 일치하며 나중에 자격의 일부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을 완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직업자격을 습득할 만한 기술이나 인내심을 갖추지 못한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내의 교육에만 치중한다고 비판받았기에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직업적 특성화 훈련을 받도록 과정을 개선하였다. 448번 조례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은 더 포괄적인 체제를 강조하면서 부가적인 자격을 원하는 학생이나 부분적인 자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모두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자격들을 모두 평가받고 개인학습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2003년 12월에는 또 다시 조례 개정이 있었다. 조례 1228번 개정의 목적은 부분적 자격을 만들고 단기, 부분적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정은 직업교육훈련 장소를 늘리고 직업학교에서의 대안적 실습에 제한을 두었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라. 교수법 개혁과 이수율 향상(2007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정은 2007년 6월에 있었던 561번 조례이다. 561번 조례의 개정은 2015년까지 95%의 청소년이 청소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서 시작된 것으로 간단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사회 각 분야 간 교차적이고 다양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7년 개정은 아래의 12가지 구조적인 교수법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① 기초과정의 수를 기존의 7개에서 12개로 증가시킨다. ② 기초과정의 교육과정은 직업부분과 연계된 다른 일반적인 과정과 연계시키기 위하여 수정한다. ③ 직업훈련과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 기업가정신 그리고 국제화를 모든 개념에 도입한다. ④ 기초과정을 개별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개정한다. ⑤ 교과과정은 모든 수준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에서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⑥ 개별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모든 교육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한다. ⑦ 수업과 진로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중도탈락률을 낮춘다. ⑧ 중도탈락률을 표준화하고 등록하여 중도탈락률의 원인을 찾도록 한다. ⑨ 도제훈련의 기회를 증가시킨다. ⑩ 지역사업체와 대학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학교와 업무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⑪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이 산업과 무역의 발전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연구 활동과 협력한다. ⑫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3. 행정 체제

가. 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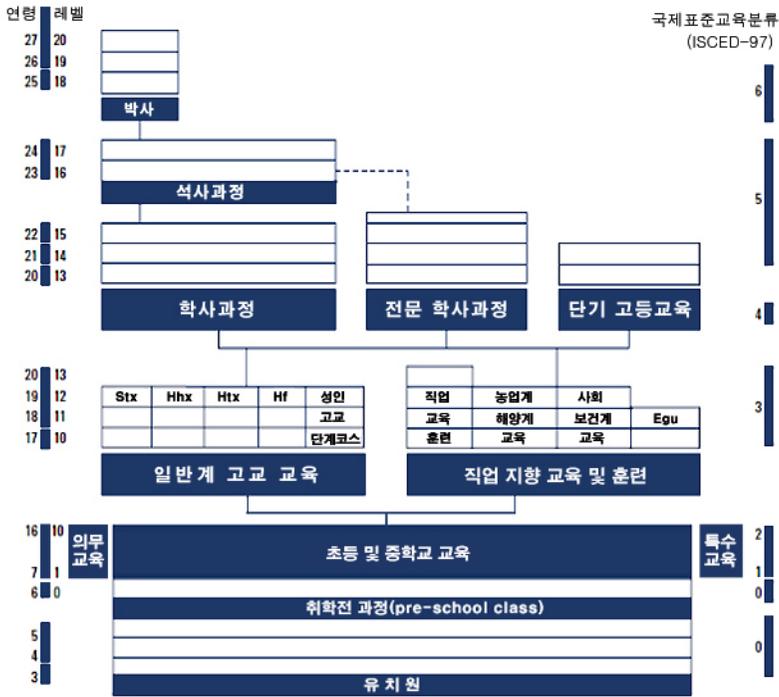
1) 기초교육(초등 및 중학교 단계)

덴마크의 기초교육은 9년간 의무교육이지만, 학교에 다녀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매우 극소수의 아동들만 가정교육을 받는다. 대부분의 아동들은 정규 교육 이전에 1년간 취학 전 예비과정(pre-school class)에 다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예비과정과 연계해 정규 교육과정을 시작한다. 취학 전 예비과정은 학생들에게는 비의무교육이지만, 시 당국(municipalities)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9년간의 기초교육을 받아야 중등교육(youth education)으로 진학할 수 있지만 10학년 차에도 기초의무교육과정을 계속할 수는 있다. 실제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의 9학년 학생들이 10학년이 되어서도 기초교육 학습을 계속하기를 택한다.²⁰⁾

20) 10학년까지 기초의무교육과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는 다양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학생도 있고, 스포츠나 예술, 해외여행 등의 활동을 해 보려

[그림 3-2] 덴마크 교육제도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Fact and Figures.

* Egu: 기초직업교육훈련 과정(basic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기초교육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제공된다. 시립 기초학교(특수학교 포함)가 덴마크 대다수의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무료이다. 시립 기초학교의 대안으로 사립 기초학교와 보습학교(continuation schools)가 있다. 보습학교는 사립 기숙형 학교로서 주로 8학년부터 10학년 수준의 교육을 담당한다. 사립 기초학교와 보습학교는 자치기관으로서, 주 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기초교육 수준의 그 밖에 학교 형태

는 학생도 있으며, 일자리를 찾아 일 경험을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도 있다. 하지만 최근 년도에는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9. 9. 교육부 관계자 면담 자료).

들로는 아동 대상 특수학교,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학교 및 기관, 그리고 시립 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가 있다.

2) 고교 단계 교육(청소년 교육)

고교 단계 교육을 덴마크에서는 청소년 교육(youth education)이라고 일컫는데, 기초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은 일반 고교 교육(upper secondary education),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oriented education and training), 그리고 기초직업교육훈련(basic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으로 구성된다.

고교 단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등교육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비, 혹은 학습 및 취업 둘 다 준비하게 된다. 이 중 어떤 경우이든지 강조점을 두는 것은 전문성 개발, 그리고 이론적인 능력 배양이다. 대부분의 고교단계 교육은 대략 3년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에서 5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고교 단계 교육과정은 학생들 개인의 기술과 희망을 많이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계획된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학습동기 부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고교 단계 교육 후의 지속적인 교육과 최종적인 직업 자격 교육으로 구성된다. 각각 수준(level)과 기간(dura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 고등교육은 직업아카데미교육(vocational academy education), 중기 고등교육은 대학학사프로그램과 전문학사프로그램(professional bachelor programmes), 그리고 장기 고등교육은 석사프로그램과 박사프로그램이 있다.

고등교육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가 정한 입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기 고등교육인 직업아카데미교육은 규정 상 2년 과정이고, 주로 특정 직종이나 직업능력 학습을 목적으로 하며 이론과 현장훈련을 병행한다.

전문학사프로그램은 중기 고등교육 과정으로 통상 3년에서 4년의 교육 과정이고, 이 중 최소 6개월은 현장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전문학사프로그램 과정의 대부분은 고등교육센터(Centres for Higher Education, CVU)에서 이루어진다.

전문학사프로그램과 같은 수준으로서, 대학 내에 3년 과정 학사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학사과정을 마치고 나면 해당 직업 관련 자격이 주어지고 2년 과정의 석사 프로그램에 진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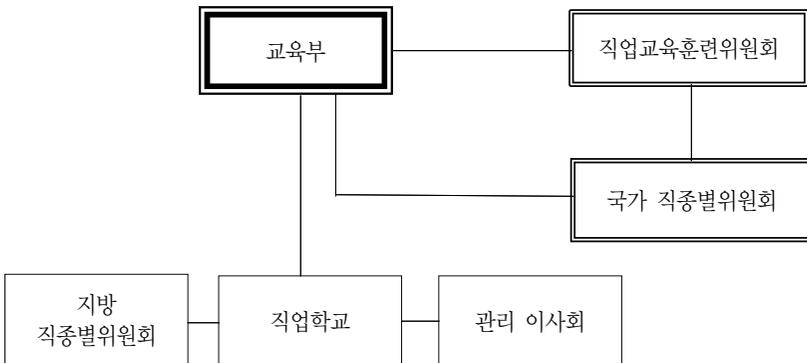
덴마크의 현 대학교육시스템은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석사 학위(master's degree)를 수여하는 장기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단기 과정의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으로 나누었다. 즉, 대학교육 과정을 정리해보면, 3년 학사프로그램, 2년 석사프로그램, 그리고 3년 박사프로그램으로 구성된 '3+2+3 모델'로 요약된다.

나. 교육행정구조

덴마크의 교육행정구조는 2007년 개혁으로 12개의 광역시는 5개의 광역 자치단체로 개편되었고, 광역시 관할 하에 있던 고교 단계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학교들은 자치체제로 바뀌었다(한승희·오현석, 2005). 덴마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덴마크의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예: 교수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직업훈련 제공자들이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분권화 되어 있다. 특히 1991년의 분권화를 도입하기 위한 개혁으로 정부 부처와 함께 직업훈련 제공자, 각종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직업교육훈련 학교는 교육과정 내용, 재정관리, 조직관리 등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만 위의 설명처럼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의 두 번째 원칙에 따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업교육훈련체제에 관여한다. 직업교육훈련 학교는 국가의 자격기준을 따라야 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많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감시되며, 동시에 더 나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학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분업적인 형태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과 일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 책임을 지고 있다([그림 3-3] 참조).

[그림 3-3]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시스템 조직



출처: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교육부는 일반적인 교육정책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청소년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 자문위원회의 추천에 따른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자격을 승인하고 대학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도록 승인한다. 직종별 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별 직업훈련과정의 규정을 정하고 각 직종의 수업의 질을 감시하는 것 또한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해관계자들에게 더 많은 자치권을 주는 1991년 덴마크 정부의 분권화 정책에 따라서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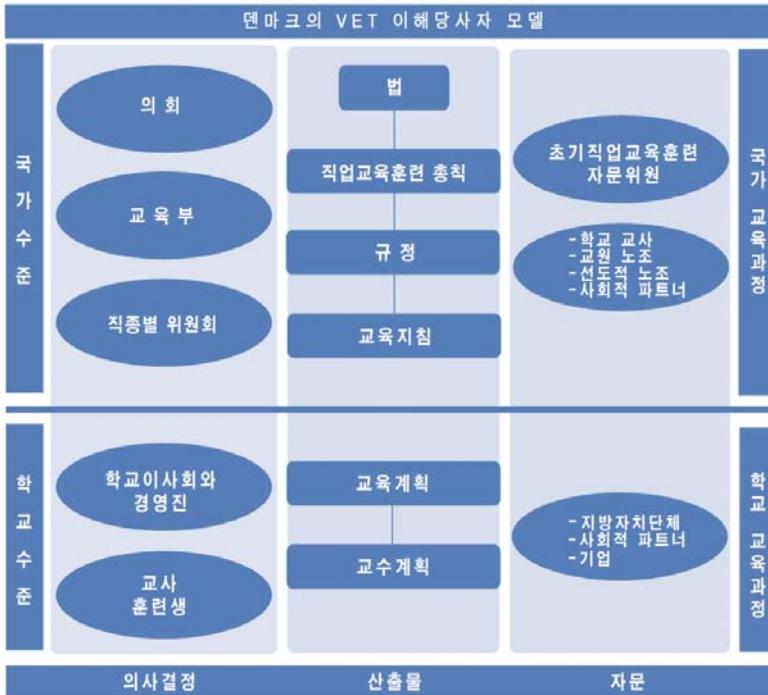
육부는 분권화를 지원하면서도 직업교육훈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4. 파트너십

19세기 말 이후 덴마크의 사회적 파트너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노동시장과 함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데 일조하여 왔다. 사회적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내노동시장 정책의 통합적이면서 노동현장에서의 보건과 안정성, 취업 알선 서비스(job placement service), 노동시장 훈련, 직업교육훈련, 실업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실업보험과 같은 부분에서 기본적인 규제가 가능하여 왔다.

사회적 파트너는 모든 수준의 직업교육훈련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파트너의 주체로는 교육부 장관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원칙을 조언하는 초기직업교육훈련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IVET)에서부터 대학이 직업교육훈련을 지방에 적용하는 것을 조언하는 지방훈련위원회(Local Training Committees)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특정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와 협회 등이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일치하고 직업교육훈련에서 제공하는 자격시스템이 해당 산업에서 인증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덴마크 직업훈련 모델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



출처: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가. 직업교육훈련자문위원회

초기직업교육훈련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for 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는 사회적 파트너, 학교 지도자, 교사협회 등에서 온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교육부에 의해서 임명된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조언을 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모니터링과 새로운 직업교육훈련 자격의 설립 등에 관여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통합된 프로그램 사이의 조화를 이루도록 조언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나. 직종별 위원회

직종별 위원회(Trade Committees)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중추를 구성하는 산업계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직업훈련과정을 창설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 구성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명에서 14명으로 구성되며 노동시장 조직에 의해서 구성된다(구성원들은 동격임). 그들은 개인의 직업훈련과정과 관련된 아래의 문제들에 책임을 지고 있다.

- 목적
- 기간
- 내용
- 최종시험의 기준
- 최종 자격증 발급

덴마크에는 59개의 직종별 위원회가 있으며 대략 96개의 과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직종별 위원회는 개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직종이 중점훈련으로 제공될 것인지와 교실에서의 학습(대략 1/3)과 기업체에서의 도제훈련(대략 2/3)의 비율을 결정하는 등 규범적 형식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기업체가 자격을 갖춘 시설로 승인하고 견습생들과 실제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Cedefop, 2009b).

다. 지방훈련협의회와 재훈련협의회

지방훈련협의회(Local Training Committees)는 직업학교를 지원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훈련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조언을 하고 대학과 현지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협의회의 구성원은 산업별 협의체

에 의해서 임명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학, 교사, 훈련생들의 대표를 포함한다 (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재훈련협의회(Retraining Council)는 각 분야의 사회적 파트너들을 대변하여 특정 분야의 훈련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훈련을 건의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와 직업교육훈련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재훈련협의회는 2000년 개혁 때문에 그 수가 많이 감소하였다(Cedefop, 2002).

그 외에도 국가노동시장협의회, 지역노동시장협의회 등이 있어 교육부와 노동부에 자문을 하고,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의 일치를 위해 노력한다.

라. 기업

실질적인 현장 훈련은 관련 직종별 위원회의 승인 하에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은 적정 수준의 숙련을 유지하고 훈련생에게 다양한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생들이 해당 직군의 숙련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덴마크 전체 수준에서 기업은 고용주 조직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방훈련위원회를 대변하고 직업교육훈련대학에서는 이사회로서 역할을 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마. 학교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학교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농업 직업교육훈련학교, 상업 직업교육훈련학교, 사회·보건 직업교육훈련학교, 기술 직업교육훈련학교, 종합 직업교육훈련학교로 나뉜다. 직업교육훈련학교는 기술계와 상업계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단기고등교육과 성인직업교육훈련도 함께 담당한다. 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15개의 직업교육훈련학교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OECD, 2008c). 직업교육훈련학교는 직업교육훈련 환경의 지속가능성

구축과 직업교육훈련의 지리적 안배 등을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는다. 직업교육훈련학교는 독립된 기관으로 이사회를 가진다.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은 지역의 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되고 한 명은 지방 자치단체 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된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직업교육훈련학교의 전문성을 반영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자 협회와 피고용자 협회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학교들은 예산과 조직적, 교수법적 전략 그리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지며 지역훈련위원회와 함께 지역 수준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5. 재정

덴마크의 경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많은 재정이 국가예산에서 충당된다. 2004년의 경우에도 교육 분야에 대한 지출이 정부 전체 지출의 15.3%로 같은 기간의 OECD 가입국가 평균이 13.4%인 것을 비교하면 높은 수치이다. 덴마크는 2006년 교육재정의 19%에 해당하는 241억 크로네(DKK)를 고교단계 교육에 지출하였는데 이는 초등의무교육에 44.9%의 교육재정을 지출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치는 아니다(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재정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에서 직업학교의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 도제훈련생과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재정을 지원한다. 덴마크의 현 교육재정 체제는 1991년 개혁으로 도입된 택시미터(taximeter) 원칙에 따라서 직업교육훈련원들의 활동 수준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택시미터 제도를 통한 지원금 이외에도 직업교육훈련원은 기본적으로 매년 기관의 유지비와 직원들의 월급을 지원받게 된다. 재정 지원에 대한 규정은 더 '결과 중심적'으로 변화하였다. 직업학교가 정치

적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의 결과와 질, 지역의 산업 분야의 필요에 대한 교육과정의 적응성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가. 초기직업교육훈련의 재정 지원

주 정부에서는 직업학교의 훈련 기금과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훈련생들이 회사에서 받는 도제훈련 급여를 지원한다.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자 배상 계획(Employer’s Reimbursement Scheme)’이라고 불리는 기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금은 훈련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배당되어 기업체들이 훈련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의 기금은 2001년과 비교해서 2006년에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인 훈련생들의 수가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견습 계약을 한 회사들과 학생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Cedefop, 2009b).

나.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재정 지원

계속직업교육훈련과 훈련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노동시장에서 조달된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의 8%를 특별세의 형태로 내고 이 세금이 계속직업교육훈련에 사용된다. 또한 계속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일정금액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계층들에게는 무료로 훈련이 제공된다. 즉, 고용자들이 비고용자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훈련비를 내는 것이다. 직업훈련원에서 교통비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실업자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위한 재정 지원

기초자치단체는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실업자가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실업수당을 삭감하고 훈련을 계속해

서 받을 경우 실업수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개혁이 실행되면 고용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될 것이다.

제 3 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1. 직업교육훈련 체제

직업교육훈련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Initi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과 계속직업교육훈련(Continu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이라는 용어는 유럽연합(EU)의 가입 국가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본 장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특정 직종이나 전문 분야의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직업적인 자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의미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네 가지(농업, 상업, 사회·보건, 기술) 형태의 프로그램을 포괄하고 있으며 덴마크의 고교 단계 교육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직업교육훈련과정 훈련생들의 평균 연령은 22세이고 사실상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도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최근에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과 계속직업교육훈련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통합하여 직업훈련교육과정을 더 투명하고 유연하면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가.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고교 단계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은 고등교육 진학을 준비하거나 취업 준

비, 혹은 학습 및 취업 둘 다 준비하게 된다. 이 중 어떤 경우이든지 강조점을 두는 것은 전문성 개발, 그리고 이론적인 능력 배양이다. 대부분의 고교 단계 교육은 대략 3년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에서 5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고교 단계 교육과정은 학생들 개인의 기술과 희망을 많이 반영하여 차별화되고 계획된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학습 동기 부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훈련(Vocationally Oriented Education and Training)은 상업계와 기술계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Commercial and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UD), 기초 사회 및 보건 훈련 프로그램(Basic Social and Health Care Training Programmes, SOSU), 보육 및 돌봄 보조 훈련(Educational Childworker and Care Assistant Training, PGU), 농업, 향해 등 분야의 교육 과정, 그리고 기초 직업교육훈련(Basic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gu)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특정 직종의 직업 활동을 위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직업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해당 직업관련 자격을 수여하며, 또한 고등교육 단계 진입도 준비시킨다. 일반적으로, 직업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초교육과정의 의무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EUD) 기간은 규정 상에는 3년에서 4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년 6개월에서 5년 6개월 사이이다. 직업교육훈련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상업 및 기술 분야에서 1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진입 지점(entry points)은 7곳인데, 각각 기초과정(basic course)과 실습을 포함한 본 과정(main course)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은 기업과 훈련 계약을 맺어 현장훈련에 참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

별적인 교육과정을 갖고자 하는 학생은 학교와 훈련을 제공해주는 기업과 상의해 개인 교육계획서(personal education plan)를 작성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기초과정 입학 요건에는 아무런 제약은 없으며, 입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대략 30%-50%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50-70% 시간은 기업에서 현장훈련을 하거나 기업에서 현장훈련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직업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실습에 참가한다.

최근 직업교육훈련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2007년 8월 1일 개혁 조치로 직업교육훈련, 기초 사회 및 보건 훈련 프로그램, 농업교육의 법적 틀/framework이 만들어졌다. 우선 교육 프로그램 목적에 변화가 있다. 국제화와 교육 보장이 좀 더 강조되었고, 중퇴율 감소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7개 진입 지점(entry points)이 12개로 늘어나고, 기초과정을 수정해서 자격조건이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을 단계(steps)와 수준(levels)으로 나누고 개별 학습을 위한 보다 나은 기회가 제공된다. 현장훈련 기회 확대 노력과 학교 실습의 질 개선이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교육 첫 단계를 마친 25세 이하의 학생들은 최소 6개월간 관련 직업경력을 쌓은 후 EUD+라고 불리는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해당 분야 직업 경력이 있는 25세 이후의 성인들은 그들의 선행학습과 역량 심사에 따라 단기간에 과정을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해당 직업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는 단기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일부 전문 학사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다.

사회 및 보건 훈련 프로그램(SOSU)은 현장훈련과 학교 학업을 병행하여 제공한다. SOSU 프로그램은 사회 및 보건 지원(1년 8개월) 뿐만 아니라 사회와 보건 지원 교육(1년 2개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및 보건훈련 프로그램은 또한 교육차원의 아동케어지원 훈련(PGU)도 포함한다.

농업 및 해양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농업교육 기간은 3년 6개월이고 현

장훈련과 학교 교육을 교대로 수행한다. 해양 교육 과정 예로는 숙련갑판원(able seaman), 어부, 연안 선장 교육 과정이 있다.

기초 직업교육훈련(egu)은 중등교육과정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이다. 교육과정은 근본적으로는 실습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고, 현장훈련과 학교 교육을 교대로 수강한다. 교육 기간은 2년이지만, 실습을 위해 연장할 수 있다.

실습은 단일 혹은 다수의 기업에서 이루어지며 그 밖에도 기술학교의 실습실, 생산학교(production school) 혹은 유사 기관에서 행해진다. 기초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마치면 직업 관련 자격이 생기고 학점 교환을 통해 일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나.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단기 고등교육과 중기 고등교육으로 분류된다. 단기 고등교육은 분석적인 기초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직업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단기 과정은 농업, 봉제, 디자인, 식품업, 호텔관광, 재정, 건설, 기술과 에너지, 정보통신과 전자, 산업생산, 정보통신, 소매업, 국제 마케팅, 컴퓨터, 물류 등이 있고 직업학교나 성인교육센터 등에서 교육이 제공된다. 이론과 실습 그리고 프로젝트로 구성된 2년간의 과정으로 이수 후에는 아카데미 직업학위가 부여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중기 고등교육은 대규모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주로 교사훈련 프로그램, 사회사업, 저널리즘, 간호 공학 분야에서 이론과 최소 6개월의 실습을 포함하는 3~4년 과정이다. 과정을 마치게 되면 동일 분야에 한해서 석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전문 학사학위 혹은 학위증이 수여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

다. 계속직업교육훈련

계속직업교육훈련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체제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고 기본적으로 노동시장훈련체제에 의해서 제공된다. 계속 직업교육훈련의 법령은 1995년에 마지막으로 수정되었으며 수정의 목적은 학생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과 기업체의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단기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자격을 향상시킨다. 계속직업교육훈련은 24개의 독립된 계속직업교육훈련센터와 덴마크 전국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제공되며 대상은 20세 이상의 숙련공 혹은 미숙련공으로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다. 초기직업교육훈련과 달리 산업체에서의 견습과 학교에서의 이론이 병행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실습과 워크숍을 통해서 견습을 대체한다. 계속직업교육훈련은 미숙련공이 교육을 모두 이수하였을 때 직업 자격을 취득하며, 실기시험에 통과하면 차후의 직업훈련을 위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Cedefop, 2002).

계속직업교육훈련은 2,000개 정도의 과정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직종과 부문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다. 2,000개의 과정은 아래의 5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경쟁력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6주로 비교적 짧지만 집중적인 과정이다. 둘째, 통합된 형태의 계속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서 취업자/미취업자 혹은 피난민/이민자 등으로 교육 대상자를 나누어서 실행되는 장기간의 교육과정이다. 셋째, 개인의 능력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요건을 알아낸다. 넷째, 회사의 특정 훈련 요구에 의해서 개설된 과정이다. 다섯째, 18-25세의 사회 부적응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사회적, 업무적, 개인적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서 혹은 일반적인 교육체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Cedefop, 2002).

이후의 논의는 교육체계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훈련의 논의의 폭을 좁히기 위하여 고교단계의 직업교육훈련에 한정될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적인 특성 상 모든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아우르는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2. 교육과정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교육체제에서의 특정 연령층과 과정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다.

[그림 3-5] 기초의무교육에서 고교 단계 교육으로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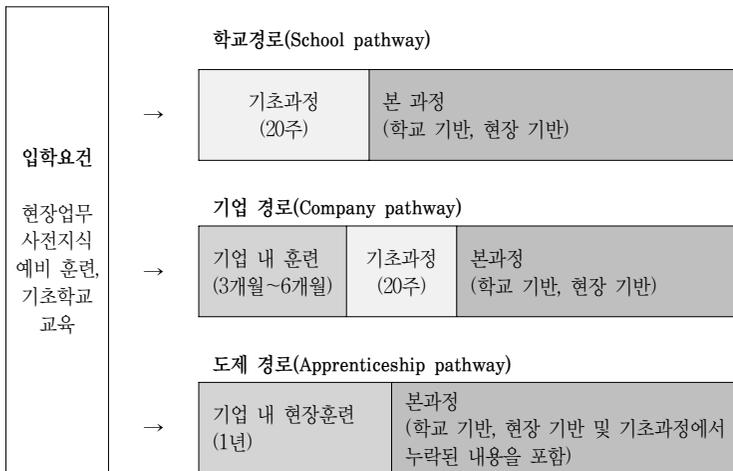
출처: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고교 단계 교육과정(Youth Education)에서는 일반계 직업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실행되고 있다. 기초의무교육 단계에서 고교 단계의 유형별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그림 3-5]와 같으며 일반계 직업과정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47.5%의 기초의무교육 이수자들이 직업관련 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이다. 한편 고등교육과정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은 직업학교와 일반 학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가. 입학경로와 개인학습계획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거나, 예비훈련을 받았거나 기초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고교 단계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입학할 요건을 갖추게 되고 2008년부터 [그림 3-6]과 같이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6]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경로



출처: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학교경로는 기존의 일반적인 경로로 기초과정을 이수한 후 본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과정이고, 기업경로는 기업 내에서 3개월~6개월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 학교경로와 같이 기초과정과 본 과정으로 시작하게 된다. 도제경로를 선택하면 기업 내에서 1년간의 현장훈련을 이수하고 기초과정 없이 본 과정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 두는 것은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훈련을 받고자 하는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개인학습계획(Personal Educational Plan)이 수립된다. 개인학습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은 입학과정 전에 습득한 선행학습을 평가받는다. 선행학습의 평가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지속적인 교육훈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며 나아가서는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수립된 개인학습계획은 ‘엘레브플랜(Elevplan)’이라는 국가 웹사이트에 등재되고 훈련생들의 학업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계열별 프로그램 구조와 교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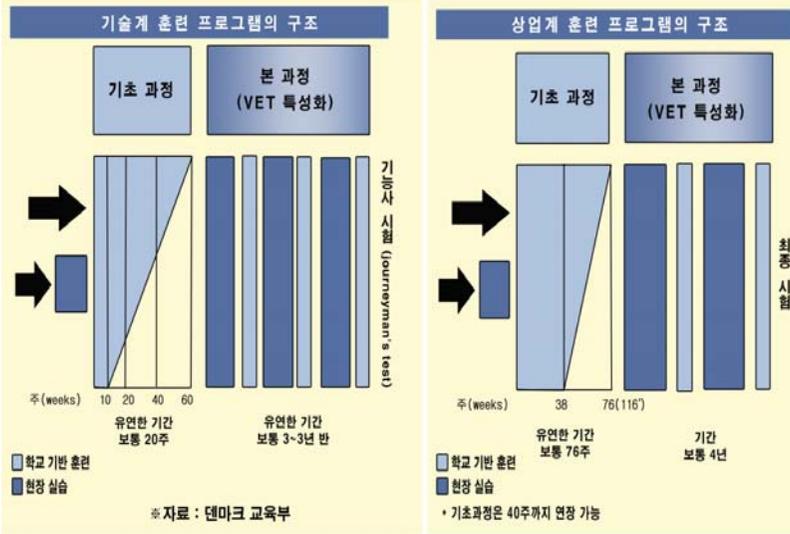
덴마크의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은 상업(business) 및 기술계(technical) 훈련을 포함하는 직업교육훈련, 기초 사회·보건 교육, 농업교육, 그리고 해양교육으로 나뉜다. 직업교육훈련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는 해양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해당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을 가르치고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훈련생들은 교육기간의 3분의 2를 견습생(apprentice)의 형태로 산업체에서 훈련받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대체하고 있다. 훈련 기간은 학생들에게 직업능력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서 검증된 노동자로서 대우받을 수 있고 노동시장에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Cedefop, 2002).

1) 기술계 교육훈련과정

기술계 훈련과정의 구조는 농업 및 사회·보건 과정의 구조와 동일하게 기초과정과 특성화된 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과정은 학교에서 제공되며 이수 후에는 자격증이 발급된다. 일반적으로 20주로 구성된 과정이지만 10주에서 60주까지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된다. 각 기

초과정 이수 후에는 특성화된 83개의 본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3년 반의 기간 중에 3분의 1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3분의 2는 산업체에서 교육을 받는다([그림 3-7] 참조).

[그림 3-7] 기술계 및 상업계 훈련 프로그램의 구조



* 기술계 훈련 프로그램의 구조는 농업과 사회·보건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출처: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2) 상업계 교육훈련과정

상업 및 사무 분야는 1996년에 개혁되어 현재에는 4년 동안 교육받으며 이는 산업체 내에서의 견습 기간의 감소 없이 학교 내에서 받는 교육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상업 부문은 사무업, 소매업, 도매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회사나 학교를 통해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1996년의 개혁은 상업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목표를 자격증 취득에서 경쟁력 향상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든 과정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이고 개인적이며

직업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Cedefop, 2002).

위의 설명과 같이 초기직업교육훈련은 특성화된 본 과정을 듣기 위해서 기초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기초과정은 110개의 많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2008년부터 기초과정을 <표 3-5>와 같이 12개의 직군으로 통합시켰다(Cedefop, 2009b).

<표 3-5> 통합된 직업교육훈련 기초과정 프로그램

자동차, 항공 및 교통수단	6개 프로그램
건물과 건설	15개 프로그램
건설과 사용자 서비스	3개 프로그램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	9개 프로그램
신체와 스타일	3개 프로그램
음식	11개 프로그램
미디어 생산	7개 프로그램
비즈니스	8개 프로그램
생산과 개발	30개 프로그램
전기, 관리와 IT	7개 프로그램
보건 관리와 교육	4개 프로그램
운송 및 물류	7개 프로그램

출처: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Cedefop (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과목

훈련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과목은 기본과목(basic subject), 분야과목(area subject), 특별과목(specialist subject), 선택과목(optional subject)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본과목과 분야과목은 훈련생에게 해당 직업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이면서 직업교육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과목이다. 특별과목은 우수한 훈련생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

램으로 훈련생에게 특별한 능력을 길러주는 데 목표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과목은 훈련생의 관심사를 반영하기 위해 제공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들의 수준과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수법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에서 교사들은 지식전수자의 역할보다는 조력자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의 교육과정적인 접근법에서 교수법(didactic)적인 접근법의 차이에서 온다. 교육과정적인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영미권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평가나 시험을 중요시 하는 결과중심의 교육 체제이며 교육 제공자와 수혜자의 역량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하지만 덴마크에서 강조하는 교수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에 맞춘 과정중심의 교육으로 개개인의 발전에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은 덴마크 교육의 특징은 덴마크 교육의 유연성과도 연관이 있는데 덴마크 교육은 제한된 기간 내에 예측 가능한 기술을 터득하는 데 목표를 두지 않고 교육을 중단하였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Skovsgaard, 2009).

<표 3-6> 교육과정과 교수법의 차이

구분	교육과정(Curriculum)	교수법(Didactic)
국제 동향	결과중심	과정중심
	역량/기술	재능/능력
	누가적 평가(테스트, 시험)	형성적 평가(토론/피드백)
	개념화	개념화
강점	투명성	활동성과 유연성
	교사와 학생에게 명백한 기대치	학생들에게 학습을 의미 있게 함
	측정 가능한 결과물	개인의 발전에 중점
	피드백, 질 관리 그리고 거버넌스의 규정화	교수의 전문성 발휘 가능
약점	활동성과 유연성 부족	교사 질의 다양성
	내용이 시대에 뒤처지게 됨	기초기술 훈련의 동기부여 없음
	엄격성과 수단적 학습	낮은 기대치 → 낮은 성과
	교수들의 책임이 지침에 한정	증거 부족
	우수학생에게 초점을 두고 뒤처지는 학생들 방지 가능	뒤처지는 학생에게 초점을 두어 우수학생의 필요를 무시

출처: Skovsgaard(2009).

라. 학교 수와 학생 수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체 265개의 청소년 교육기관 중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훈련 학교 수는 총 117개이며 그 가운데 직업학교는 97개이고 사회보전관리학교는 20개이다. 고등교육과정에서는 152개의 전체 교육기관 중에 4개의 직업학교가 있고 그 외의 대학에서 부분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있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표 3-7>과 같이 2005년 후기중등교육 과정에서 직업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는 33,808명이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등록한 학생 수는 129,511명으로 전체 청소년 교육과정에 등록한 학생의 69.2%에 달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인기 과정이지만 선호도는 성별로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에서는 전체 72,684명 학생 중 남학생이 27,990명으로 38.5%, 여학생이 44,694명으로 61.5%로 여학생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직업계에서는 여학생이 43.4%이고,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는 여학생이 44.6%로 남학생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표 3-7> 2005년 청소년교육 과정별 학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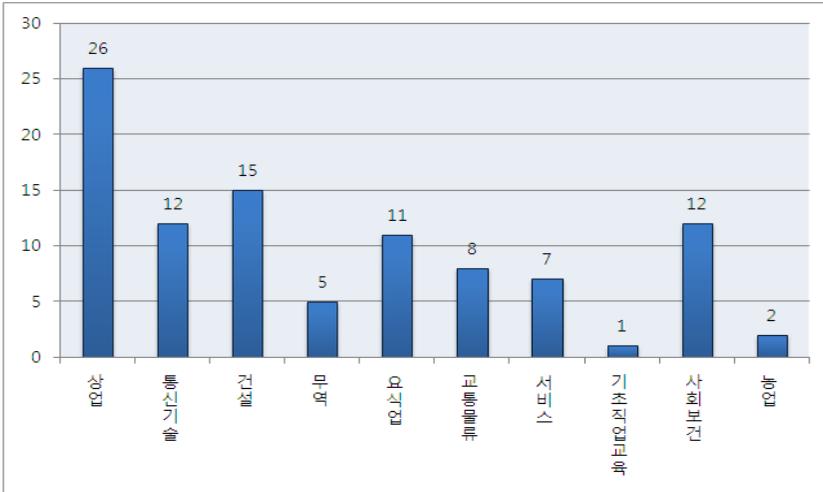
	학생 수	비중
청소년 교육과정 학생	236,003	100
후기중등 일반교육과정	72,684	30.8
남학생	(27,990)	(38.5)
여학생	(44,694)	(61.5)
후기중등 직업교육훈련과정	33,808	14.4
남학생	(19,133)	(56.6)
여학생	(14,675)	(43.4)
직업교육훈련과정	129,511	54.8
남학생	(71,770)	(55.4)
여학생	(57,741)	(44.6)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Facts and Figures 2007*.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크게 농업, 상업, 사회보건관리, 기술과정으로 구분된다. 가장 인기있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그림 3-8]과 같이 상업, 건설, 통신기술과 사회보건관리이다. 교육과정에서 성별의 차이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정별 등록률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회·보건관리 분야의 여학생 비중은 93%에 달하는 반면 교통, 물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여학생은 4%에 그쳤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그림 3-8] 2005년 직업교육훈련 과정별 학생 비율

(단위: %)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Facts and Figures 2007*.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전체 청소년교육 과정에서 인기 과정이지만 그 추세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과정 이수율에 있어서 부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대비 2005년의 절대적인 학생 수는 15.5% 증가한 수치이지만, 새로이 등록한 학생 수는 2.6% 감소하였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는 19.5%가 감소한 수치이다. 학생 수의 감소는 전체 청소년층의 수적 감소, 높은 중도탈락률, 직업교육훈련보다 일반 후기중등교육의 선호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덴마크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3. 도제훈련(Apprenticeship)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은 ‘이원화 훈련(dual-training system)’ 원칙에 따라 직업교육훈련학교에서의 훈련과 산업체에서의 현장 훈련이 병행된다.

현장훈련은 기본적으로 훈련생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이나 훈련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훈련의 3분의 2는 기업체 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받는다. 모든 훈련 기업체는 관련 직종별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으며 학교와 회사는 모두 법에 의거한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밀접하게 협력한다.

가. 도제훈련 시기

위의 기본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수료하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학생 수준이 명기된 자격증이 발급된다. 이 자격이 주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는 것이다. 기술계 직업교육훈련 기본과정은 10주에서 60주까지이며 상업계 직업교육훈련 기본과정은 38주에서 76주까지 기간의 폭이 넓다. 기술계는 좀 더 현장 기술을 요구하기에 비교적 짧은 기본과정이 있는 반면, 상업계는 이론학습이 중요하기에 비교적 긴 기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주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훈련으로 시작되며 학교에서의 훈련과 직장에서의 훈련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3년에서 3.5년이 소요된다. 주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학생들은 승인된 회사와 실습계약을 해야만 한다.

나. 도제훈련 장소와 참여 학생 수

앞의 설명과 같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은 학교에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이 병행되어 실시되며, 산업체를 찾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습한다. 2003년에서 2006년 사이에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은 실습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아래의 <표 3-8>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12월에 실습 가능 산업체는 2003

년 대비 38%나 증가하여 36,077개로 늘어났고 견습이 이미 진행 중인 산업체 또한 증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특히 학교 견습자 수는 70% 가량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8개 공과(정보통신과 커뮤니케이션, 특정분야의 사무실 업무, 기술 디자인, 기계공과, 전자, 전기, 목공, 가구제작)의 학교실습에 대한 강한 규제와 도제훈련 제공 산업체 수의 증가 및 학교실습으로 기업체 도제훈련을 대체한 학생들의 낮은 취업률에 따른 것으로 덴마크 교육부는 해석하고 있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도제훈련 제공 기업체가 증가한 이유는 도제훈련생을 받는 기업체는 '고용자 배상 계획(Employer's Reimbursement Scheme)' 기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제2절, 5. 재정 참조).

각 직업훈련 과정을 위한 직종별 위원회는 기업체를 훈련 기업체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기업체를 승인할 때, 기술 장비와 제품의 다양성,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질 관리를 위해서 기업체들은 몇 년 동안 훈련기업체로 선정이 되고 도제훈련생의 불만이 적었던 기업만 다음에 훈련기업체로 선정이 가능하다.

<표 3-8> 실습 지원자와 실습가능 산업체(2008년 12월 말 기준)

	2003	2006
실습 가능 산업체	26,170	36,077
실습 진행 중인 산업체	55,038	62,689
실습 지원자	11,370	4,800
학교 실습자	7,562	2,575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The Facts and Figures 2007*.

최근에는 기업체 도제훈련을 덴마크가 아닌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덴마크-미국 프로그램, 노르딕 노르드플러스 프로그램(Nordic Nordplus Programme), 유럽연합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외견습 프로그램

(Practice Abroad, PIU) 등으로 교과과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해주었다. 해외 도제훈련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는 2000년 1,369명에서 2005년에는 1,866명으로 3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직업교육훈련과정 학생 수의 1.4%에 해당한다. 해외 도제훈련을 이수한 학생의 72%는 덴마크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노르웨이, 영국, 독일과 스웨덴으로 취업했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다. 시행 책임

교육부에서 표준적으로 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이수와 고용률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도제훈련은 시행 장소에 따라서 기본적인 책임이 달라진다. 학교 내 훈련은 교육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기업 내 훈련에 대한 책임은 사회적 파트너가 지고 있다. 사회적 파트너 중에서 직종별 위원회는 지역교육위원회(local education committees)와 함께 훈련의 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덧붙여 직종별 위원회는 기업체를 훈련 기업체로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기업체를 승인할 때, 기술 장비와 제품의 다양성 및 업무 성과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질 관리를 위해서 기업체들은 몇 년 동안 훈련기업체로 선정이 되고 도제훈련생의 불만이 적었던 기업만 다음번의 훈련기업체로 선정이 가능하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a ; 2008b).

라. 훈련 수당

덴마크의 고등학교 단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은 OECD 가입국가 평균인 7,884달러보다 많은 9,466달러로 노르웨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2004년 기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grants)과 대출금(loan)의 두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보조금은 학교와 집의 거리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대출금은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고교단계 학생들은 2006년 기준 한 해에 보조금으로 일인당 21,200크로네(약 497만원)를 받았으며 대출금으로는 보조금보다 조금 적은 18,100크로네(424만원)를 받았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마. 신 도제훈련제도

2006년부터 바로 기업체에서의 훈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프로그램으로의 입학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신 도제훈련제도는 정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중도탈락률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교육으로는 해당 분야에 대한 동기를 가지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경험을 먼저 시작하게 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이다. 신 도제훈련제도도 학생들이 개인적인 교육 계획에 동의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교육을 추후에 받아야만 한다.

신 도제훈련제도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학교와 기업체는 학생과 함께 현장훈련의 내용과 형식을 구성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에 실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의 개인적인 교육계획을 구성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기본과정을 먼저 이수하기를 선택하고 있다(Cedefop, 2009b).

4. 졸업자격 인증체제, 중도탈락, 유연성, 통합성

가. 졸업자격 인증체제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입학한 훈련생들은 기초의무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예비 훈련 및 현장업무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훈련생들은 입학 초기에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개인 교육 계획을 편성하게 된다. 인터뷰에서는 학생들의 현재 능력과 목표,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훈련생들이 입학 이전에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단기과정이 편성되고,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기간이 연장된 장기과정이 편성된다. 기초과정과 본 과정에서 계속되는 평가를 거쳐 훈련생은 최종 시험을 쳐야 하는 단계에 이른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전문적인 기술을 평가하는 기능사 시험(journeyman's test)으로 졸업자격을 인정한다. 이런 시험에는 관련 직종별 위원회가 기업체들과 함께 외부 시험관으로서 대표성을 띄고 시험을 개발하고 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다는 자격을 발급하는 데 관여한다. 이는 훈련생의 지식, 기술 그리고 학문이 초기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요건을 맞추었다는 뜻이자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부합되었다는 뜻이다. 상업계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는 각 학교가 최종시험에 책임을 진다. 최종시험은 실제 업무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형태의 시험이다. 기능사 시험과 최종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졸업생들은 숙련공 수준에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Cedefop, 2009b; 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a).

나. 중도탈락

2009년 덴마크 전체 고교단계 이수율은 약 81%로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OECD, 2009b) 덴마크 정부는 2015년까지 이수율 9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09. 9 면담 자료).

고교 단계의 이수율은 그 과정마다 이수율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일반계 직업과정과 직업교육훈련의 이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

다. 일반계 직업과정에서 약 70%의 훈련생이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본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 수는 더 적다. 그리고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율은 51%로 매우 낮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일반계 직업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낮은 이수율의 원인은 중도탈락 후 일자리를 갖는 경우(특히 경기가 좋을 때), 도제훈련을 받을 기업체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학습의욕이 없으면서 학생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받으며 지내려는 학생, 이민자 가족으로 언어 등 학습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의 많은 이유가 있다(2009. 9 면담 자료).

일반계 인문과정은 학사과정으로의 진학이 목적이고 일반계 직업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은 직업교육훈련으로 진학 혹은 취업이 목적이다. 하지만, 각 과정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과정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계 직업과정 졸업자의 93.6%(2005년 기준)가 학업을 계속하였는데, 이 가운데 28%는 대학과정을 계속해서 공부하였고 18%는 전문 학사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며 15%는 단기 고등교육을 선택하였다. 반면 직업 고교 단계 졸업자들은 72%(2005년 기준)가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입하였다. 나머지 학업을 계속한 28%의 졸업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선택하였고 대략 10%가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였다(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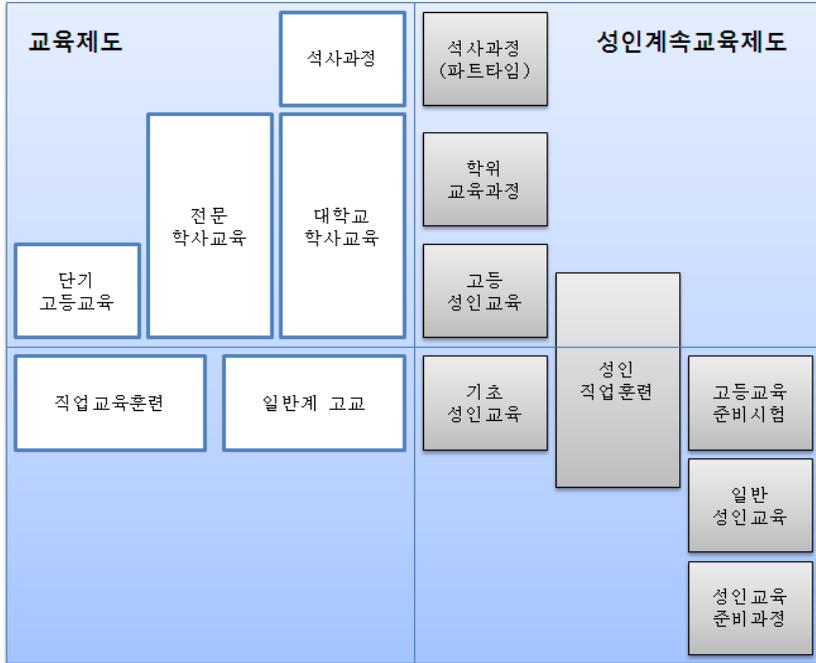
한편 덴마크 정부는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였다. 학습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 언제라도 필요한 자격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덴마크 교육장관은 이러한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유연성(flexibility)'과 '교육(education)'을 결합시킨 개념으로 '유연교육(flexeduca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함께 덴마크의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성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매우 유연해서 훈련생들에게 시간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유연성은 학습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개인학습계획(personal education plan)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개인학습계획이 수립된다. 개인학습계획을 편성하기 위해서 훈련생들은 입학과정에 전에 습득한 선행학습을 평가받는다. 선행학습의 평가는 직업교육훈련시스템과 앞으로의 교육훈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면서 나아가서는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훈련생들이 이수하게 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과목에서 특별과목과 선택과목을 통해 우수한 훈련생의 능력 향상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내용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수준과 다양한 관심사를 포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수준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기간과 내용을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체에서 학습되었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 개 개인의 학습 속도와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모듈화된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이를 토대로 덴마크 교육제도는 [그림 3-9]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제도의 단계와 성인계속교육제도 단계의 구별 없이 고등교육까지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림 3-9] 유연한 교육제도



출처: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라. 직업교육훈련의 통합성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높은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고 뒤쳐진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유치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의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덴마크의 소수인종의 60%의 청소년이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고 이민자나 피난민의 자녀들은 낮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의 학습 장애는 언어적·문화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계층을 기초학력 미달계층(practically-oriented young people)이라고 명칭하고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문화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초학력 미달계층과 우수한 학생

을 모두 직업교육훈련에서 통합하기 위하여 덴마크 정부는 아래와 같은 6 가지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1) 단기 직업교육훈련 과정(short VET programmes)

단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005년에 시행된 것으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계층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 이수 후에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정은 고용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단기 전문자격과 일반자격이 모두 필요로 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매업이나 도축업종이 있다.

2) 부분자격(partial qualifications)

부분자격은 직종별 위원회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부분자격은 기술이 없는 훈련생 혹은 정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만한 인내심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0개의 직업교육훈련 과정 중에 70개의 과정이 부분자격을 도입하고 있다. 시험과 부분자격 검증과정을 통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훈련생들에게 부분적인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규 자격을 이수할 가능성도 주고 있다.

3) 도제경로(apprenticeship pathway)

도제경로는 직업교육훈련에서 기초과정이 1년간의 기업체 내 훈련을 통해서 이수될 수 있는 것으로 훈련생들이 본 과정을 시작할 때에는 충분한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직업학교와 기업체는 훈련생이 기업체 내 훈련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을 평가하고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여 학생이 원활하게 본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과정 기간 동안 학

생들은 기업체 혹은 학교에서 기초과목을 들어야 한다. 도제경로는 학교경로를 선택한 정규과정의 학생들과 과정의 시작이 다르지만 동일한 시험을 통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4) 예비훈련(pre-training)

예비훈련은 청소년(15세-18세)을 대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기업체에서 예비학습을 시작하면서 취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이다. 예비훈련 후에 훈련생들은 기업체 내의 생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예비훈련은 법에 의해서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비훈련 후에 청소년이나 기업체가 생산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5) EUD+

EUD+과정은 기초학력 미달계층에게 추후에 정규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과정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다. 과정의 대상은 25세 미만의 청소년층으로 기업체 내에서 혹은 현장훈련계획 내에서의 기본과정과 본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수 후에 훈련생들은 최소 6개월간 기업체에 정식으로 고용되게 된다. 만약 훈련생들이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계속해서 이수하기를 원한다면 직업학교에서 자격을 평가받고 개인학습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본 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6) 추가자격(additional qualifications)

추가자격은 훈련생들의 직업자격에 학문적 자격을 더하는 것으로 고등교육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일반계 직업과정의 학생들은 기본과정을 늘리고 다른 과목을 줄이며 본 과정 동안에

추가적인 과목을 들으면 된다(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2008b).

5. 교사

직업교육훈련에서 교사들은 일반대학졸업자 혹은 일반교원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된 일반교과 교사와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직업교과 교사로 구분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사 훈련은 현직훈련을 통해서 제공되고 이론과 실체가 병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덴마크 훈련교사양성기관(Da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Training of Vocational Teachers)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실제로 훈련원에는 정규 교수법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관련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고 학생들에게 최신 지식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기 교사가 많다. 훈련과정은 대학과 교원단체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한다. 대학과 훈련센터는 교사 채용에 있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여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교사들의 역할은 교수 활동만이 아니라 지방교육 계획, 질 관리 및 연구 사업을 개발하는 데 있다. 최근 교사들의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점점 더 학습 조력자(facilitator), 코치(coach), 그리고 진로지도 상담가(guidance counsellor)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교수, 교육학 원칙의 도입, 변화하는 자격과 교육과정 구조 그리고 점점 더 모듈화 되는 교육과정에 기인한다(Cedefop, 2009b).

가.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교사

개별대학과 교육시설은 자격을 갖춘 직원을 모집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직업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자격요건이 있다.

- 교사들은 학사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업무 경력이 더 높ی 평가된다.
- 교사들은 최소 5년의 업무 경력을 가진 기술 인력이어야 한다.
- 후기 중등교육과정의 직업교육훈련 교사들은 반드시 석사학위 보유자여야 한다.

나. 전문성 제고와 교사교육

덴마크는 직업교육훈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학교와 직업교육훈련 센터의 교사들의 훈련을 담당하는 덴마크 직업훈련 교사 교육훈련원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훈련교사 훈련과정은 다른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에 비해서 그 주기가 짧다. 직업훈련교사들의 기초훈련 과정은 이론적 교육과 실제적 교육이 병행되기 때문에 '샌드위치식 과정'이라고 부른다. 학교에서 훈련받는 14주로 구성된 3학기와 4주로 구성된 현장훈련이 있다. 훈련 후 교사들은 계속해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산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직업교육훈련에 관련한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Cedefop, 2002).

6. 진로지도

가. 전략

2003년 4월 덴마크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The Danish act on Guidance"를 제정하고, 2004년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진로지도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성인과

기업체를 위한 신진로지도의 프레임워크는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추후의 교육과 훈련 수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유지하면서 2007년-2008년에 시행되었다(김나라, 2009).

나. 진로지도 전문 인력

2004년의 진로지도 개혁(Guidance Reform)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자격 및 역량의 개발이다. 이는 덴마크 진로교육 전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양성·유지·보수 프로그램들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자격 또는 교육프로그램이 진로교육 담당인력의 필수적인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김나라, 2009).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담당인력은 대부분 진로지도 관련 추가과정을 이수한 일반 교사이다. 2007년의 진로지도 강령 수정안에 따라서 진로지도 상담가는 교육과 직업 진로지도에 관련한 학위가 있어야 한다(Cedefop, 2009b). 진로지도 담당인력의 학사학위 프로그램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제공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순수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정규교육과정이 아니라 이미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담 분야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계속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덴마크 전역에 걸친 5개 고등교육센터에서는 파트타임을 기본으로 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12개월의 풀타임 프로그램 또는 60 ECTS 학점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고등교육 프로그램(2년제)을 이수하거나, 관련 기관에서의 2년간의 현장경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김나라, 2009).

2008년에는 진로지도 시스템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성인 진로지도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지식을 수집하는 '능력 개발을 위한 국가 센터(national centre for competence development)'가 수

립되었다(Cedefop, 2009b).

다. 진로 상담 서비스 체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 서비스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덴마크에는 여러 종류의 진로지도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센터는 청년 진로지도센터, 지역 진로지도센터, 교육과정 종료와 관계된 진로지도, 공공 직업센터의 총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청년 진로지도센터(Youth Guidance Centre)는 전국에 45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센터의 활동들을 규정한다. 진로지도는 전문 인력이 직접 제공하며 청년들의 필요에 특별 우선순위를 두며 교육과 고용 상태에 있지 못한 청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CIRIUS, 2008).

두 번째 지역 진로지도센터(Regional Guidance Centre)는 2004년 진로지도의 개편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과 관리를 한다. 지역 진로지도센터는 고등교육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졸업 후의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진로지도센터에서는 온라인 상의 진로지도, 개별 그리고 집단 진로지도, 워크숍, 직업 박람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학교 또는 지역 진로지도센터에서 진행된다.

세 번째 교육과정 종료와 관계된 진로지도는 센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개별 혹은 집단 진로지도 세션을 통해서 진행된다. 진로지도 담당하는 이들은 각 학교에서 시간 강사와 진로지도교사로 일하는 이들이다.

네 번째 공공 직업센터는 전국에 91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4개의 센터는 지방,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국가 노동시장 당국과 4개의

고용지역의 이사들이 공공 직업센터의 전반적인 책임과 관리를 하고 있다. 진로지도는 직업 지도 카운슬러와 직업 컨설턴트에 의해서 제공되며 직업 정보와 노동시장 상황, 취업과 관련된 진로지도, 능력 평가와 선행학습과 같은 미고용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활동을 한다(CIRIUS, 2008).

제 4 절 세계화 동향 및 혁신 사례

덴마크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이 세계화의 과제에 적응하고 지식사회를 도출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훈련 진로를 만들며 자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규학습과 비정규학습이 모두 교육시스템 내에서 인식되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계속해서 자기계발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창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덴마크의 노력은 아래의 정책과 사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세계화에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정책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는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첫째로, EU의 '유럽 지역의 평생학습의 실현화(Making a European Area of Lifelong Learning a Reality)'라는 2004년 11월 정책보고서에 따라 선행학습에 대한 인식을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였다.

둘째로, 2006년 덴마크 정부는 평생 학습을 위한 세계화 전략으로 '진보, 혁신 그리고 통합 - 세계화 경제에서의 덴마크 전략'을 발표하였다. 위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150억 크로네(20억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고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직업 교육훈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세계화와 기술적 발전으로 인한 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계속 직업교육훈련의 참여를 강화하여 기업체와 개인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의 전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덴마크는 교육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표 3-9>과 같이 초기중등교육 이후에 교육을 지속하지 않은 인구의 비중은 2002년 대비 2007년에 3.8%가 증가하여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에서의 덴마크 정부의 목표는 95%의 전체 학교 중도탈락자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표 3-9> 초기중등교육 이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인구 비중

(대상: 18세 - 24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8.6%	10.3%	8.5%	8.5%	10.9%	12.4%

출처: Eurostat, EU Labour Force Survey(2008), Cedefop(2009b) 재인용.

덴마크는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수한 학생에게는 교육의 기회 제공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교육 프로그램은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도 현실적인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어 중도 탈락자들의 비율을 낮추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춘 부분적 자격을 도입하여 모든 청년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 도제제도'는 특히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대안적 방법으로 소개되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2007년과 2009년에 걸쳐 정부는 7억 5천만 크로네(DKK)를 배정하였다.

셋째로, 세계화의 동향을 읽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의 실습을 다른 EU 국가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상업계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서는 다문화적 이해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Cedefop, 2009b).

2. 최근의 직업교육훈련 혁신 사례

가. 사례 1: 세계화 의회의 조언에 따른 미래를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Follow-up to the Globalization Council's recommendations for a VET system fit for the future)

2005년에 덴마크는 세계화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위해서 '세계화 의회(Globalization Council)'를 창설하였다. 덴마크 수상이 의장직을 맡은 세계화 의회의 14번의 미팅을 통해서 정부, 고용자, 노동조합, 학계와 연구기관 등 덴마크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을 선출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전문 분야에 관해 미팅에서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의회의 목적은 덴마크가 신세계경제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다. 세계화 의회는 350개의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그 중에 320개의 제안이 법제화되었다. 그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140개의 제안이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법안은 교육 정책 변화, 세계화 속에서 덴마크가 직면한 기술과 일자리 창출을 세계화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의회는 세계화에 관한 100쪽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에서 덴마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분야로 '교육, 연구개발, 혁신과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구조적 프레임웍(잘 기능하는 공공 영역)'을 들고 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의회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교육의 질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세계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교육에서의 목표는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을 2010년까지 85%로 높이고 2015년까지는 95%로 올리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2015년까지 이수율을 95%로 높이기 위한 제안의 개발을 목적으로 각각의 목표에 따른 두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두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약 150여 개의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제언은 덴마크 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2006년 복지협약(2006 Welfare Agreement)'라는 결과로 도출되었다. 2006년 복지협약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 발의되고 재정 지원을 받게 되었다. 현재 위의 개혁은 진행 중에 있으며 개혁이 처음에 의도하였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OECD, 2008c).

나. 사례 2: 기업체 훈련 비중을 높이고 학교 내의 훈련 감소를 위한 2002/03 발의의 결과(Outcomes of the 2002/03 initiatives for reducing the number of school-based training in favor of practical, in-company training)

본 개혁 사례는 학교 내의 직업교육훈련 수를 감소하기 위한 발의에 중점을 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학생들은 그들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기업체 내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교 내의 훈련은 기본 과정 이수 후 2달 내에 적절한 기업체를 찾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으로 권장되는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몇몇 정규업체들과 고용자 기반으로 훈련기관 내에서의 훈련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학교 내 훈련을 등록한 학생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의 배경에는 재정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다. 고용주들이 '고용자 배상 기금'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훈련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기업들은 기한이 없는 학교 내의 훈련비용을 부담스러워했다. 동시에 몇몇 개인 고용자들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훈련을 제공하면서 기금을 사용하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기업체에서 훈련 받았던 학생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학교 내의 훈련생들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결국은

학교 내의 훈련 비중을 높이고 기업체 내의 훈련 비중을 감소시킨 것이다.

위와 같은 현실은 훈련 정책의 목표를 무시한 상황으로 결국에는 직업교육훈련 졸업생들의 취직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훈련을 받은 학생들보다 취업률이 낮았다.

이에 2003년 1월,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만한 제안을 해주길 부탁하였고 몇몇 제안은 의회를 통해서 논의되고 승인되었다. 하지만 본 개혁은 학생 조직과 노동조합이 덴마크 교육 시스템의 원칙이면서 아주 근본적인 사항인 '교육 보증(education guarantee)'이라는 개념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논쟁사항이 되어 왔다. 특히 학생 조직은 학교 내의 훈련이 역량이 약한 학생들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연습할 기회와 그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므로 기업체 내에서의 훈련보다 더 선호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2001년 선거 이후에 현장을 강조하는 Venstre 정당에 힘을 입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학교 내의 훈련을 감소시켰다. 또한 원래 목표였던 3,400개의 추가적인 훈련기업체 등록은 초과되어 9,960개의 훈련기업체가 등록되면서 2007년 말에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OECD, 2008c).

다. 사례 3: Niels Brock 직업학교의 교수법과 세계화

Niels Brock 직업학교는 1881년 덴마크의 부상인(富商人) Niels Brock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9년 9월 현재 이 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에서 다양한 상업(business)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Niels Brock 직업학교는 고등학교 교육(Youth programme)에 있어서 덴마크에서 가장 큰 상업계 고등학교로서 코펜하겐에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 약 1,800명, 교직원 150명 규모의 북유럽에서 대표적인 상업계

고등학교이다.

Niels Brock 직업학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덴마크 정부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제도를 적용하고 사회적 파트너 참여원칙에 따라서 직업훈련 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부분자격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생들이 개별적인 훈련 기간과 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평생학습이 가능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덧붙여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의 특징인 교수법을 도입하여 집단 내의 개인을 강조하고 상황적 학습을 통해서 좀 더 프로젝트 중심의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교육을 추구한다. 즉, 규격화된 교육과정에 따르기 보다는 훈련생 중심의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추구한다.

최근에는 세계화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제과정(International program)은 영어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교육에서는 중국과 학업전문과정(Academy Profession program, AP degrees)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3대륙 경영학사학위과정을 두어 경영학과 학생들이 중국, 덴마크(코펜하겐), 미국(로스앤젤레스) 등 3개 대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류의 폭을 넓혀서 한국의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또한 희망하고 있다.

제 5 절 요약 및 시사점

1. 덴마크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주요 특징

가.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분권화

덴마크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덴마크의 어디서든 인정받

을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예: 교수법)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직업훈련 제공자들이 자율권을 갖기 때문에 분권화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분권화는 사회적 파트너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에서 정부 부처와 함께 직업훈련 제공자, 각종 사회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이 강조된다. 직업학교는 교과과정 내용, 재정관리, 조직관리 등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원칙 중의 하나인 '사회적 파트너십'에 따라,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업교육훈련 체제에 관여한다. 직업학교는 국가의 자격기준을 따라야 하고 교육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많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감시되며, 동시에 더 나은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직업학교에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주요 이해당사자인 교육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에 의해서 분업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사회적 파트너들은 노동시장과의 연계성과 일에 관한 전반적인 부문에 책임을 지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에서 사회적 파트너의 주도적 역할

덴마크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 파트너의 주체로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IVET 자문위원회에서부터 지방훈련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원회와 협회가 있으며, 이들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은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일 정도로 산업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담지하고 있다. 산업계의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59개의 직종별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 훈련 직종의 개발과 기존 훈련 직종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구성에서도 주도적

인 위치에 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정의 목적, 기간, 내용, 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사업주단체는 강한 리더십으로 직업훈련 제도를 관리·운영하며, 노동조합도 직업훈련(숙련형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훈련의 결과는 대부분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임금 인상, 승진, 배치 등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 Anyone, anytime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유연성과 통합성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매우 유연해서 훈련생들에게 시간과 내용 측면에서 모두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덴마크의 직업교육훈련은 프레임워크, 구조 그리고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의 측면에서 모두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혁은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수업 중심에서 개별훈련 중심으로”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는 교사들의 교수법에 변화를 추진하였다.

선행학습 평가시스템은 유연성을 더하고 있다. 모든 훈련생들은 선행 학습을 평가받은 후에 개인적인 학습 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학교와 기업체에서 학습되었던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 개인의 학습 속도에 맞추어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모듈화된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토대로 덴마크 교육제도는 정규 교육제도와 성인계속교육제도에서 단계에 구별없이 고등교육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높은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고 뒤쳐진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적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 자녀 등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문화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을 모두 직업교육훈련에서 포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훈

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훈련 실시

덴마크 직업교육훈련은 '이원화 훈련' 원칙에 따라 직업학교에서의 학습과 산업체에서의 현장훈련이 병행된다. 현장훈련은 기본적으로 훈련생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이나 훈련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직업교육훈련의 3분의 2는 기업체 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받는다.

직종별 위원회는 훈련을 제공하는 기업을 선정하며, 현장훈련에 책임을 지고 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훈련의 질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기업들이 현장훈련에 적극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직업교육훈련 파트너들(정부, 사업주단체, 기업, 직업학교 등)의 역할을 법으로 정하고, 기업들이 현장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훈련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의 모든 고용주들은 '고용주 배상 계획(Employer's Reimbursement Scheme)'이라고 불리는 기금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기금은 훈련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에 배당되어 기업체들이 훈련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비용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훈련생에게는 훈련 인센티브가 있다. 즉 훈련생은 훈련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으며, 훈련의 결과로 얻게 되는 직업능력(자격)은 취업, 임금, 승진 등 경력개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질 높은 현장훈련의 배경에는 기능인(craftsmanship)을 존중하는 덴마크의 전통, 숙련(skills)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덴마크 산업계의 문화, 열림과 상호신뢰의 사회문화(노사문화 포함) 등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세계화/국제화에 대한 대응

덴마크는 유럽 통합, 세계화와 같은 도전에 직면하여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생들로 하여금 세계화의 동향을 읽고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고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교과과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이수하는 것을 인정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실습을 다른 EU 국가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상업계 교육과정의 경우 '다문화 이해'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체 현장실습을 덴마크가 아닌 해외에서 이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05년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서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는 1,866명으로 전체 직업교육훈련 과정 학생 수의 1.4%에 불과하지만 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의 72%는 덴마크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노르웨이, 영국,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미국 등의 직업학교와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학교도 있으며, 개별 직업학교 차원에서 학생 및 교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정책 시사점

가. 직업교육훈련 파트너십 구축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skills)의 현장성 내지 변화관리를 위해서는 산업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분권화(중앙과 지방의 협력)가 필수적이다. 한편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여전히 중앙집권적·공급자주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주도의 산업화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산업체와 지방의 역

할을 제한하였으며 파트너십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직업교육훈련 파트너십을 노사 간의 파트너십과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노사 간의 파트너십

최근 정부는 직업교육훈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가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준별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부위원회들을 단순화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법률을 정비하여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 수준에서는 사업주단체와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성 면에서 자체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단체나 근로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통하여 이들 단체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단체와 근로자단체도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전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같은 몇몇 기구들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기업 수준에서 사용자는 직업교육훈련의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적극 동참시키고, 훈련에 대한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역시 직업능력개발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단체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자체의 훈련전문가를 양성할 필

요가 있다. 정부는 노사협의회에서의 교육훈련 의결을 법적·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야 한다.

2)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최근 정부는 각 지역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통해서 각 지역의 수요에 맞는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차원의 직업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 구축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은 지역의 요구로부터 출발했다기보다는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까닭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책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없이 중앙정부에서 수립된 정책을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관련없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자체의 인적자원정책은 수동성을 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들의 연계 협조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 DB 미비로 인하여 체계적인 인력수요 예측이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분권적인 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의 직업교육훈련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관련 예산 및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현장에 적합한 정책의 구상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부처 간 사업의 연계 강화 및 사업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의 직업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사업을 진단하여 중앙 차원에서의 사업 중복 현황을 파악하고, 유사사업의 경우 관

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정하여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넷째, 지역 내 직업교육훈련 관련 기관, 즉 정부기관, 교육훈련기관, 기업체, 연구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 차원에서 기초자료들의 DB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제한된 기간 내에 예측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에 상관 없이 동일한 기간 내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보증할 수가 없다. 더욱이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직업교육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교수법의 혁신으로 학생들의 역량에 맞춘 과정중심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사는 지식 전수보다는 학습조력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교수법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에 진입하도록 한다.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의 진입에서 누락된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능력중심의 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교육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에서 현장훈련을 내실화한다.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업능력(skills)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실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산학협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업체 현장실습을 내실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교육과정중심형'으로서 제한된 수준에서 현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자원을 교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과정은 산업체의 수용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장실습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산업체는 현장실습(산학협력)에 소극적이며 협력적이지 않다.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교육기관-산업체 연계형' 내지는 '산업체 중심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 산업체,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법에 명시하고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이 직무능력(skills)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과정 학생들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업능력(skills)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업훈련 수요자 측인 노동시장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즉 인력의 선발에서부터 임금, 승진 등 고용관행이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기초로 하게 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는(encouraging)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인사관리시스템은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일부 기업들은 합리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직무능력을 보상체계와 연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에 의존하는 등 직무급 보상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기업에서 관리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입직수준을 정하고 학력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관행, 생산직과 관리직의 직무가 엄격히 분리된 작업조직(work organization), 생산직의 경우 근무 중에 상위학력을 취득했다라도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짧은 승진사다리 등은 학생들이 직업교육훈련을 꺼리게 하는 요소들이다.

정부와 기업은 직업능력을 기초로 하는 직무급의 도입, 유연한 작업조직의 설계 등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핀란드의 직업교육

최지희

제 1 절 사회 경제적 배경



- 국명 : 핀란드 공화국(Republic of Finland)
- 수도 : 헬싱키(Helsinki, 54만명)
- 인구 : 518만(2002)
- 면적 : 338,000km²(한반도의 약 1.5배)
대러시아 국경 : 1,269km
- 인종 : 핀란드인(93%), 스웨덴인(6%)
- 언어 : 핀란드어(93%), 스웨덴어(6%)
- 종교 : 루터복음교(88%), 그리스정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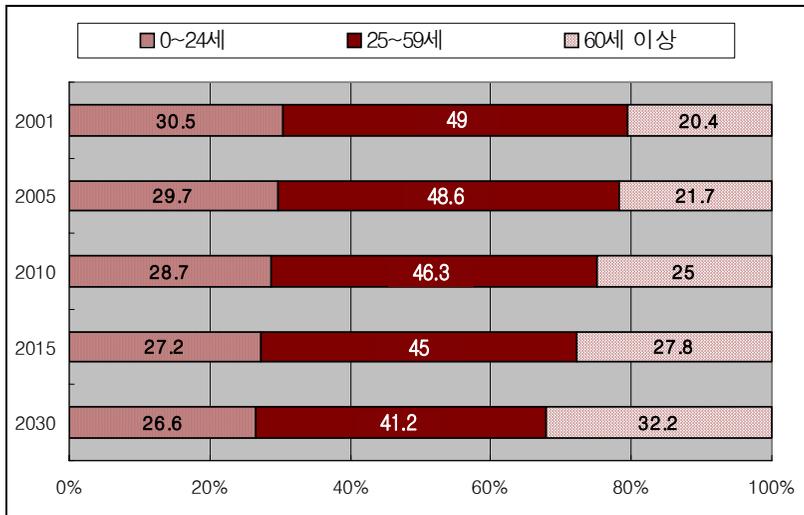
1. 인구

2006년 현재 핀란드 인구는 대략 520만 명 정도로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인구 5백만 명 이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

부분의 북유럽 나라들의 경우와 같이 핀란드의 인구 고령화는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핀란드 통계청에 의하면 핀란드의 생산연령인구는 당분간은 증가할 것이나 2010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까지는 전체 인구 4분의 1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핀란드의 국어는 공식적으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 두 가지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핀란드어와 스웨덴어가 통용되고 있다.

[그림 4-1] 핀란드 인구의 연도별 연령구성 변화(2001-2030년)



출처: Statistics Finland(2006), Cedefop(2006) 재인용

2. 경제 및 노동시장

핀란드는 지식기반 사회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 지난 2세기 동안에 농업 및 제조업의 비율이 감소했고, 전자산업이 핀란드 수출에서의 주요

산업이 되었다. 1990년대 전자산업의 성과는 휴대폰과 다른 전기통신 기기의 생산에서 기인하였다. 오늘날의 주요 수출품은 전자공업, 금속공업, 목재산업, 그리고 제지산업이다. 또한, 핀란드 내의 주요 산업은 2006년의 보고에 따르면 72.0%로 서비스업에의 종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참조).

한편, 노동시장의 세계화로 인해 핀란드 산업이 인건비가 낮은 국가로 이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자공업과 제지산업에서 두드러진다. 1990년대 초 경기 악화로 핀란드의 전체 실업률은 17%까지 올라갔으나 그 후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이를 극복해냈다. 1995년 전체 실업률 15.4%, 2000년 9.8%, 그리고 2005년 8.4%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 실업률 8.7%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1%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한편 2007년 전체 실업률은 6.9%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 핀란드 주요 산업(2006)

주요산업	구성 비율(%)
농업	4.3
제조업	23.7
서비스업	72.0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핀란드는 여성의 경제참여가 높아 남녀 간 경제활동참가율에 큰 격차가 없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핀란드의 성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2>와 같다. 이에 따르면, 서비스업이 시간 변화에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인구가 종사하는 산업임을 알 수 있으며, 농업 및 제조업이 남성의 종사비율이 더 높은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여성 종사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2> 핀란드 취업자의 산업 분포: 성별

(단위: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1995	남성	10.2	39.2	50.3
	여성	5.7	14.2	79.9
	총계	8.1	27.3	64.4
2000	남성	8.1	39.8	51.9
	여성	3.9	13.9	81.9
	총계	6.2	25.5	66.1
2005	남성	6.6	26.5	55.0
	여성	2.9	11.3	84.5
	총계	4.8	25.8	69.2
2007	남성	6.4	38.8	54.5
	여성	2.6	11.5	85.8
	총계	4.5	25.6	69.6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표 4-3>은 핀란드, EU-15, 그리고 EU-25 국가들의 15세-64세 경제활동 인구의 성별 고용률을 살펴본 것이다. 핀란드의 성별 고용 평등화 정책에 의해 유럽 타국에 비해 여성과 남성의 고용비율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4-3> 15세-64세 인구의 성별 고용률(핀란드/EU-15/EU-25)

(단위: %)

	핀란드			EU-15			EU-25		
	여성	남성	총계	여성	남성	총계	여성	남성	총계
1995	59.0	64.2	61.6	49.7	70.5	60.1
2000	64.2	70.1	67.2	54.1	72.8	63.4	53.6	71.2	62.4
2005	66.5	70.3	68.4	57.4	72.9	65.1	56.3	71.3	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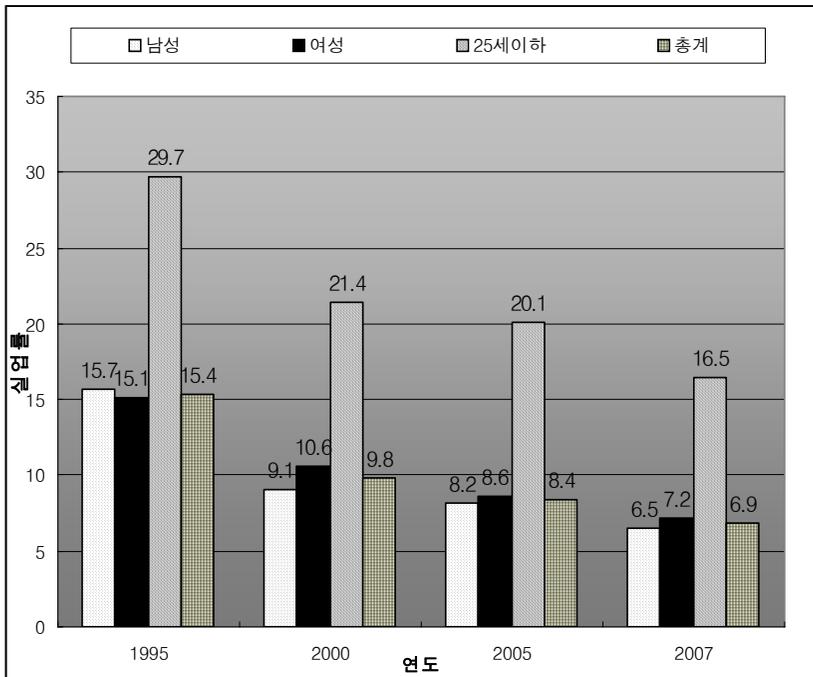
*. 통계치 없음

출처: Eurostat, EU Labour Force Survey(2006), Cedefop(2006) 재인용.

핀란드 및 유럽국가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노동이 가능하다. [그림 4-2]는 전체 연령 및 15세-25세 사이 연령 인구의 실업률을 나타낸 것으로 1995년 이후 전체, 성별, 15-25세 인구의 실업률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 인구의 실업률 회복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 1999년의 핀란드 교육 관련법 개정과 함께 직업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핀란드 내 정책의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2] 핀란드 전체, 성별, 25세 이하의 실업률 추이(1995-2007)

(단위: %)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3. 국민의 교육 수준

국가 간의 교육 수준을 비교해볼 때, 핀란드 교육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3년 PISA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중 핀란드는 15세 인구의 문맹률이 가장 적은 국가로서 5.7%의 문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EU 평균 19.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는 핀란드의 주요 교육정책이 모든 국민이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받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데에서 기반을 둔다.

2007년 기준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자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 23%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년도를 기준으로 고교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 인구는 44%이며, 인구의 19%, 즉 5분의 1 정도만이 중졸 이하 수준의 학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유럽연합의 29%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표 4-4〉 참조).

<표 4-4> 핀란드와 EU의 25-64세 인구 학력분포(2007)

(단위: %, 천명)

	전체	ISCED 0-2		ISCED 3-4		ISCED 5-6	
	인원수	인원수	%	인원수	%	인원수	%
EU27	268,116	77,859	29	125,857	47	62,688	23
핀란드	2,859	557	19	1,262	44	1,039	36

ISCED: 국제 교육 분류 기준

ISCED 0-2는 유치원, 초등/중등 교육, ISCED 3-4는 고등/후기의무교육, ISCED 5-6은 대학/직업전문 교육

출처: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한편, 핀란드의 학업중도탈락자는 〈표 4-5〉와 같이 2007년도에 7.9%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평균 14.8%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2000년을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학업중도탈락자의 수는 조금씩 감소했으며 핀란드의 경우도 감소추세에 있다.

<표 4-5> 학업중도탈락자 비율(18-24세), 중등교육까지 포함(2007)

(단위: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EU27	17.1	16.6	15.9	15.5	15.2	14.8
핀란드	9.9	8.3	8.7	9.3	8.3	7.9

출처: Eurostat(2008),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제 2 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1. 법 체제

핀란드의 교육관련 법은 1999년 초에 개정되었으며, 교육의 목표와 내용, 수준을 고려하여 개정되었고, 학생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은 각 지역 자체에서 교육과 관련된 판단을 독자적으로 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근무시간, 고등학교 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육 자료를 결정하는 것 등에 대해 각 지역 자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지향한다.

핀란드의 직업 교육 및 훈련을 관장하는 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고등 단계 직업교육 및 훈련을 관장하는 법은 직업 교육법(Vocational Education Act)과 직업교육 법령(Decree on Vocational Education)이 있다. 이는 젊은 층과 성인층의 초기 직업교육에 대하여 다룬다. 도제수업을 관장하는 법은 성인대상 직업교육법 및 법령(Act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 Decree on Vocational Adult Education)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제수업 시의 근무 시간, 휴일, 그리고 근무 시의 안전한 환경 마련 등에 대한 부분을 법적으로 다룬다. 또한 성인대상 직업교육법은 능력 기초 자격수여 과정 및 이후의 특수 직업 자격 과정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교육 제공 기관은 교육과 훈련을 구성할 수 있으려면 법적인 인증이 필요하다. 또한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학생 수, 학업 내용, 학생 권리, 교육과 훈련의 평가 등을 일반적으로 규제한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2. 행정 체제

가. 전반적 교육 행정 체제

핀란드의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 체제는 크게 전국 수준(national level), 지역 수준(regional level), 그리고 도시 수준(local or municipal)의 세 수준으로 나뉜다.

첫째로, 전국 수준에서 핀란드의 전체적인 교육정책은 정부 및 의회에서 결정되며, 정부와 의회의 교육정책을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와 핀란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Committee)가 이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권위 기관으로 국립기관을 담당하여 교육과 관련된 법과 규제를 결정한다. 핀란드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산하 정부기관으로 초등/중등교육과 성인교육 및 훈련을 담당한다. 또한 초기 직업교육과 능력 기초 자격과정을 담당한다.

둘째로, 지역 수준에서 볼 때, 교육부의 영역에 속하는 일들은 각각 6개 지역 자치구 내의 교육문화부서(Education and Culture Department)에 의해 이뤄지며 이들 교육문화부서는 지역별 교육문화부서 장이 이끌고 있다. 이들 부서들은 법적 보호, 국가 선발 체계, 성인 교육의 조정, 유럽사회자금의 재정 지원 및 감독, 그리고 지역 직업교육훈련(TVET)의 예측, 평가 및 감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무소와 별개로 지역의회는 정부기관이 아닌,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지역의회는 지역의 장, 사업 대표자 등과 협동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세운다. 여기에는 지역 고용 및 경

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포함된다.

셋째로, 각 시 수준의 행정 체제들은 기초(의무)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정부를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의 틀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정부들이 직업교육훈련을 조직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80% 정도는 각 도시의 행정기관, 시정부 연합 등의 형태로 각 시에서 관장하며, 20%는 지역정부 또는 사설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4-3] 핀란드 교육 및 훈련 행정 체제



출처: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Cedefop(2006) 재인용.

나. 직업교육 행정 체제

직업교육을 조직, 개발, 운영하는 것은 각 교육훈련기관의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구성, 행정, 교원 등에 대한 판단은 모두 각 기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성인 교육은 각 도시나 도시 사이의 통합위원회 혹은 등록기관에서 담당한다.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은 젊은 층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동일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이 어떠한 교육 활동을 할지는 각 기관에 따라 다르며, 특히 성인 교육과 훈련을 맡고 있는 기관장이나 교장이 결정한다.

이외에 성인 직업교육 센터가 있으며, 이는 센터장에 의해 운영되고 매일의 교육활동이 센터장에 의해 결정된다. 계속 직업교육 센터가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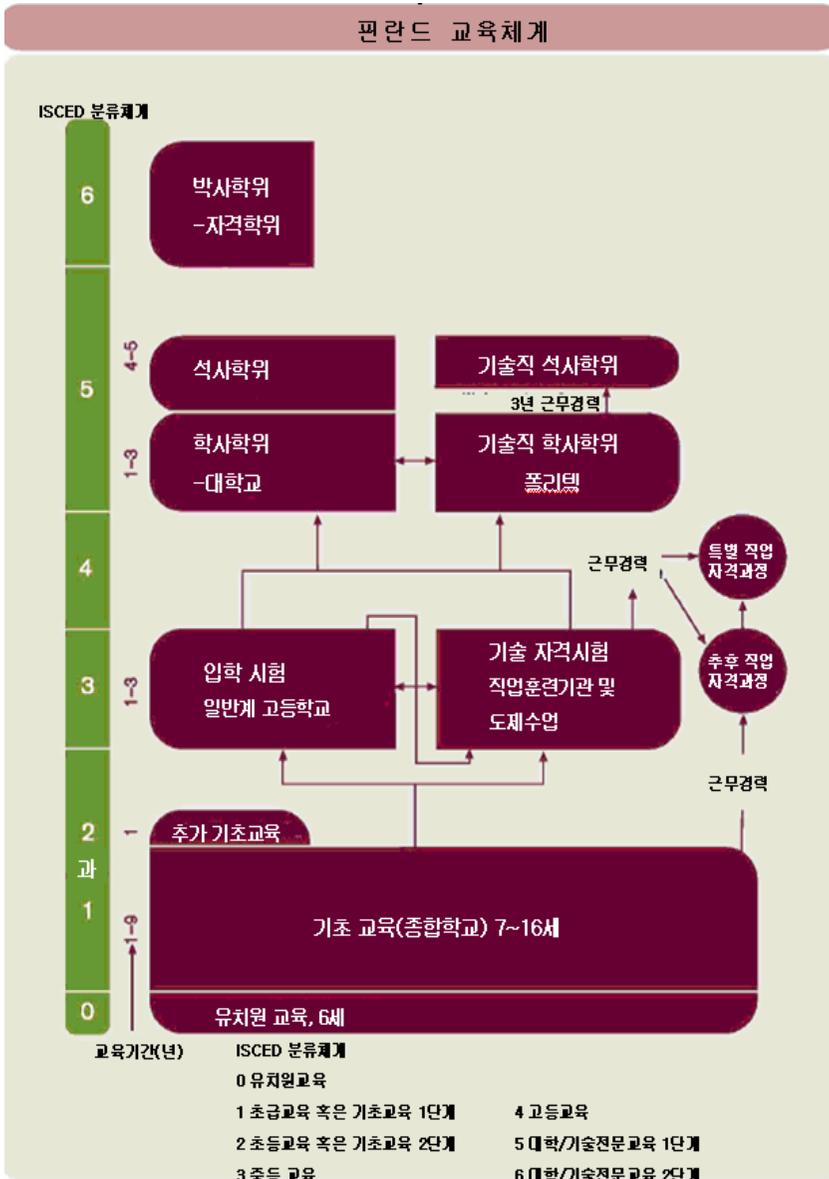
다. 기초의무교육 과정(1-9학년)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에 따르면, 아동은 반드시 7세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여 1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장은 아동들이 거주하는 각 지역에서 기초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교육은 몇 개의 사립기관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이 주어지게 된다.

기초교육 과정에서의 학습과목은 기초교육법에 따른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동일한 학습과정을 따르게 된다. 7학년부터 9학년까지는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또한 2주간의 현장실습도 이루어진다.

[그림 4-4] 핀란드의 교육체계



출처: Cedefop(2006).

라. 일반 및 직업 고등학교 과정

기초교육을 완수한 이후에, 학생은 학업을 계속하거나 일을 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바로 일을 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는다. 학업을 이어나가는 경우, 고등학교 중 일반계 혹은 직업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기초교육을 완수한 학생의 90%는 학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56%는 일반계로, 35%는 직업계, 그리고 약 3%는 추가적인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10학년에 진학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기초교육 학업과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3년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최대 4년 내에 졸업해야 하며 교육의 종결부에 학생은 국가 입학시험 즉, 고등단계 교육(대학 및 폴리텍 대학)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시험에 임하게 된다. 일반계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각 학교에서 교육부의 입학기준에 의거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시민,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고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후의 학업 및 일, 개인의 성격개발 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와 기술을 증진하도록 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3년 과정(120학점)이다. 교육이 각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현장에서의 실제 근무가 20학점 정도 포함된다. 현장근무는 도제수업으로도 대체될 수 있으며, 도제수업의 학생들은 대부분 성인들로 구성된다. 젊은 층의 학생들은 초기 직업학교 기관에서 학교에 기반한 교육을 완수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직업관련 기술에 대하여 얼마만큼 능숙한지 등에 대한 능력 기초 자격 수여 과정도 포함한다. 대부분이 성인들로 이루어진 이 과정은 성인대상 직업교육 법령에 의해서 관리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각 직업 분야에서의 기술 및 능력, 그리

고 취직능력을 키우는 것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동시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이후의 진학과정에도 도움을 제공한다.

마. 고등 교육과정

일반 혹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완료하게 되면 학생들은 고등단계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핀란드의 고등단계교육은 2가지로 구성되는데, 대학과 폴리텍 대학으로 나뉜다.

폴리텍 대학에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의 성과를 통해 얻게 되며 일반계 및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다. 폴리텍 대학은 다양한 학문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가 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서의 근로를 시작하는 데 있어 폴리텍 대학의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으로의 입학자격은 입학시험이나 직업자격증의 소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이다. 핀란드에는 총계 20개의 대학이 있으며, 대학생 수는 170,000명이 넘는다. 10개의 대학은 기존의 다양한 학문을 포함하는 종합대학이며 나머지 10개는 특수 전문대학이다. 특수 전문대학 중 3개의 대학은 경제 및 경영을 다루고 3개는 기술, 4개는 예술 관련 전문대학이다. 대학의 학사학위는 공학 및 의료과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3년 과정이다. 석사학위의 경우에는 최소 5년이 걸리게 된다. 약학, 치의학 그리고 수의학의 경우에는 Licentiate degree라고 불리며 이는 5-6년의 학업과정이 필요하다.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약 4년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전에 석사학위의 이수가 필요하다.

바. 성인 교육과정

성인 교육 및 훈련은 시민들의 연령에 상관없이 교육과 직업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 몇 세기 동안에 성인 교육이 핀란드의 국가 교육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다. 따라서 다양한 성인 학생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 및 정책들이 법적인 조항에 의해 마련되었다. 그에 따라 성인들은 젊은 층이 공부하는 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으며, 다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공부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과정, 추후 직업교육과정, 혹은 특별 직업과정은 능력 기초 자격과정을 통해 학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학 및 폴리텍 대학 또한 성인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성인 학생들은 각자가 원하는 학업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핀란드의 교육 및 훈련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성인 교육 기관은 핀란드 인구율에 비하여 그 수가 많은 편이며 대략 1,000개의 성인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다.

핀란드 성인 교육과 훈련과정은 전통적으로 두 개의 분야 즉, 일반계 성인 교육과 직업계 성인 교육으로 나뉜다. 일반계 성인 교육과정은 모국어 및 문학, 타국어, 외국어, 종교, 윤리학, 역사, 사회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및 지리학, 그리고 철학 및 심리학의 과정을 포함한다. 직업계 성인 교육은 고등학교 과정과 추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나뉘며 고등학교 과정은 자격이 수여되며 추가 고등학교 과정은 자격이 수여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직업계 성인 교육은 능력 기초 자격 수여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 추후 직업 자격과정 및 특별 직업 자격과정으로 나뉠 수 있다.

3. 파트너십

핀란드의 직업훈련을 다루는 법령에 의해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관 사이의 협력제도가 관리된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훈련위원회, 교육협력 자문위원회, 그리고 성인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제도가 시행되며, 그 외 주요 노동시장 기관들 또한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에 참여한다. 2004년에 정부에서 임명한 노동위원회와 훈련기관에 노동 및 교육정책의 주요 당면

문제와 계획에 대하여 협력해서 논하도록 하였다.

직업 훈련위원회와 교육협력 자문위원회는 교육부와 핀란드 교육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의 개발을 꾀한다.

직업계 성인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는 능력 기초 검사의 개발을 감독하며 자격 인준과 자격증 수여를 담당한다. 성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성인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고 현재 및 미래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보고한다.

교육기관 내의 주요 부와 자문위원회는 지역 직업교육 훈련의 협력제도를 책임지고 있다. 최근 비공식적인 각 지역별 협력제도가 증가했는데 직업교육 및 훈련의 실용성과 성인 훈련에의 능력 기초 검사, 그에 따른 자격증 수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외 각 기업들에서는 성인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지원한다. 기업들은 현장수업과 각 기업특성에 맞는 인원을 훈련하는 것, 전문화된 직업기관을 운영하고, 도제수업을 마련하며, 성인 인력의 훈련비용을 마련하고, 직업 훈련 기관에서 수학하는 젊은 층 및 성인층에게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것, 그 외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직업훈련 과정에 협력하게 된다.

4. 재정

가. 전반적 교육재정 체제

교육재정을 관장하는 법에 따르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재정체제는 교육부가 담당한다. 단, 노동시장 훈련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각 교육단계의 재정은 주정부와 지역 자치, 혹은 다른 교육기관장들이 담당한다. 대학의 경우 주 예산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얻게 된다. 기초교육과 일반/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별 재정법령에 의해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지역 자치장들이 교육재정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의 액수는 학생 수나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교사의 급여는 학교나 교육기관장 혹은 각 시에서 지급한다.

나. 직업교육 재정 체제

직업교육 및 훈련의 재정은 공공예산에서 부담된다.

1) 초기 직업교육 재정 체제

초기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의 경우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주로 학생의 수에 기반을 두어 결정되며, 초기 직업교육에 부과되는 보조금은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재정의 45.3%를 지원한다. 2002년 당시 초기 직업교육 재정 체제는 <표 4-6>과 같다. 이러한 보조금과 별개의 재정이 지원되며 이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의 효율성, 성과, 교원진 등 수행 수준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다.

초기 직업교육에서 모든 학생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식비 등 여타 비용 또한 재정 지원에 포함된다. 단, 중/고등 교육의 경우 학생이 식비나 여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유학비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도제수업의 경우 총계 교육비의 77%가 주 예산에서 부담된다.

<표 4-6> 초기 직업교육 재정 체제(2004)

(단위: 유로)

초기 직업교육 재정체제		
초기직업교육 (공통)	총계 교육비	1,107백만
	학생 당 교육비	8,467
도제 수업	총계 교육비	129백만
	학생 당 교육비	4,873
	정부 지원금	61백만

출처: Cedefop(2006).

2) 계속 직업교육 재정 체제

성인의 계속 직업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해 재정 체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각 기관의 최대 강의 수 및 다른 지표들에 의해 지원액이 결정된다.

성인 대상의 계속 직업교육의 재정 체제는 2001년에 마련되었으며, 젊은 층의 교육 재정체제와 유사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주 예산에서 재정을 보조받으며, 대학이나 전문기술학교의 경우에는 지역 자체 사무소에서 재정을 지원받는다. 지역 자체 사무소는 교육의 수준이 낮은 성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외 무역/산업 분야에서도 훈련기관을 운영하며 특수한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 42개의 기관 또한 주 예산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다.

3) 실업자 및 기타 대상자 교육 재정 체제

각 지역 노동행정 체제는 주 예산 내에서 실업자를 위한 고용훈련을 지원한다. 이들을 위한 훈련은 성인 직업훈련센터, 직업기관, 그리고 대학들에서 담당한다.

훈련 자체는 교육부에서 담당하지만 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노동부에서 담당한다. 노동부 산하 지역의 노동행정 체제는 다양한 훈련기관의 고용 훈련 과정을 듣고자 하는 실업자들에게 재정을 지원한다(〈표 4-7〉 참조).

그 외 현재 근무지들에 대한 고용 재정 지원도 이루어진다. 주로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등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기존 근무자들에게 훈련을 하고자 할 때에 재정 지원을 하게 된다. 이때 고용주와 지역 자체 사무소 간의 논의를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액수가 정해진다.

<표 4-7> 실업자 및 기타 대상자 교육 재정 체제

(단위: 유로)

교육비 분류	금 액
총계교육비	1,510백만
정부 지원금	540백만
각 시 지원금	85백만
개인 후원금	460백만

출처: Cedefop(2007).

제 3 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1. 직업교육훈련 체제

핀란드의 초기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시기([그림 4-4]의 ISCED 3단계 해당)부터 시작된다.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로 나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로 대학교육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고려되지만 학생들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융통성 있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02년에는 2,0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일반계의 대학입학시험(matriculation test)과 직업계의 직업자격시험을 동시에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²¹⁾

2005년 기준으로 핀란드에서 기초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53%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으며, 39%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3%는 기초교육 10학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나머지 5%는 진학을 보류하였다. 한편, 고등학교 과정에서 핀란드의 초기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63.9%로 EU27개국 평균 참여율 60.5%에 비해 다소 높은 편

21) matriculation test는 일종의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전에 진학을 위해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다(〈표 4-8〉 참조). 한편 EU국에서 이와 같이 중학교 단계에서 직업계 고교로의 진학률에 비해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참여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층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²²⁾

<표 4-8> 고교 단계(ISCED 3)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생수 및 비율(2005)
(단위: %)

국가	학생 수(명)	직업교육훈련과정	사전 직업교육훈련과정	전체 비율
EU27	26,036,676	55.9	4.6	60.5
FI	333,586	63.9	0.0	63.9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한편, 초기직업교육의 학업중도탈락의 비율은 다른 교육과정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다음의 〈표 4-9〉에서 참조할 수 있는 것과 같이 2006년과 2007년의 통계 결과 직업계 고등학교, 즉 초기직업교육은 10%인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도탈락자의 비율은 4%였다. 폴리텍 대학의 경우 9%였으며, 일반 대학교의 학업중도탈락자의 비율은 6%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다른 교육 단계(e.g. 직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한 사람의 비율이 2.1%, 실질적인 중도탈락자가 2%인데 반해,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 도중에 다른 교육 단계로 전환한 사람은 1%, 실질적인 중도탈락자 또한 9.2%로 다른 교육 단계에 비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림 4-5]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초기 직업교육, 즉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업중도탈락자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핀란드의 경우 고교단계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주연령대는 16-25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9> 교육 단계별 학업중도탈락자 비율(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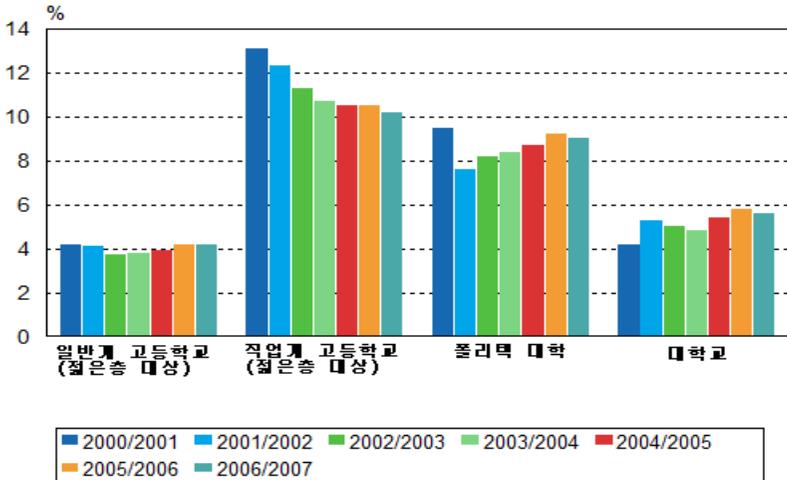
(단위: %)

교육단계	전체 학업중도탈락자	교육단계 전환자	실질적 학업중도탈락자
일반계 고등학교 (청년층 대상)	4.2	2.1	2.0
직업계 고등학교 (청년층 대상)	10.2	1.0	9.2
폴리텍 대학	9.0	2.3	6.8
대학교	5.6	0.8	4.8
전체	7.3	1.5	5.8

출처: Education Statistics, Statistics Finland

[그림 4-5] 고등학교(일반/직업), 폴리텍 대학, 대학교 학업중도탈락자의 비율(2000/2001~2006/2007)

(단위: %)



출처: Education Statistics, Statistics Finland

대부분의 직업교육 및 훈련기관은 각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된다. 사립 기관은 직업훈련 기관의 18.5%를 차지한다. 6개의 정부기관 중 5개의 기관은 특수교육을 제공한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일반계 고등학교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교육부는 이 두 기관 사이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 학교기반 직업교육 훈련(school-based VET) 과정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법령에 의하면, 교육 분야에 따라 교육 기관이 나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양한 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이는 교육의 단위가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직업교육과 훈련이 과거에는 정부 책임이었으나 현재는 각 지역 자체로 이전되었다.

초기 직업교육에서 수행되는 교육과 훈련은 학생들이 직업기술과 스스로 직업을 찾고, 고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사회 속에서 더 나은 인재로 개발되는 데에 목적을 두며, 더 고등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인성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평생학습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 직업교육으로의 입학조건은 의무 기초교육 수료, 혹은 그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해외에서 이수한 것이다. 하지만 의무 기초교육을 완수하지 않은 17세 이하인 학생들이 특별한 조건으로 입학할 수도 있으며 이는 매우 극소수에 해당한다. 학생 선발의 기준은 교육부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적인 교육과정 교사들이 학생을 선발하고 모든 유형의 입학시험을 결정한다.

학생들은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입학하기 위하여 사전에 국가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서 직업교육에 지원한다. 직업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선발기준은 이전 학업기록, 직업 경험, 그리고 이와 대등한 요인들이다. 다양한 입학시험과 적성시험이 지원자들에게 주어지기도 한다. 현재 사

회 및 교육 정책의 목적에 따르면, 이전 직업교육을 받지 않았던 젊은 층이 선발에서 우선권을 갖는다.

모든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건강상태가 교육 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 단계의 직업교육과 훈련과정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무료이다. 적은 비용은 특별한 이유로 학생이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청구해야 한다. 학생들은 매일 무료식사를 제공받지만 교재비는 지불해야 한다.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 3년 과정의 이수를 통해 폴리텍 대학과 일반 대학에 지원할 자격을 얻게 된다.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은 지역 자체기관이나 사립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사립기관의 운영비율은 전체 38%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지역 내에서 통합 연결망을 만들어서 지역 내 직업관련 기관들과 초기직업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학교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자신의 학업계획과 일치하는 다양한 학문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근무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따로 없으며 학사일정 및 휴일에 대한 부분도 법령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업과정의 개강과 종강, 휴일의 시작과 끝은 교육 제공자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초기 직업교육과 훈련은 교육의 각 분야들로 구분되며, 각 학문 분야에 따라 그리고 각 학문의 프로그램의 수여에 따른 자격들로 구분된다. 교육의 구분은 <표 4-10>과 같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레저 활동, 신체교육, 몇몇의 춤 교육, 그리고 음악 교육은 기관 내 성인 교육 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이 교육 부문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수강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교육 부문의 자격과정을 밟게 된다. <표 4-10> 및 <표 4-11>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의 경우, 전체적으로 기술 부문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으며, 성별로는 여성은 사회복지 및 건강 부문에, 남성은 기술 부문에 가장 많이 속해 있다. 이는 앞서 여성이 서비스업에 가장 높은 비율이 종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며 곧 여성의 경우 초기 직업교육과정이

근무 분야 설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4-10> 학교기반 과정 전공별 성별 학생수(2006)

(단위: 명)

전공 과정(sector)	여 성	남 성	총 계
인문 및 교육	1,786	523	2,309
문화	6,560	3,588	10,148
사회과학, 경제 및 행정	8,435	5,975	31,510
순수과학	959	5,047	6,006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이전	8,078	42,831	50,909
천연자원 및 환경	3,564	3,362	6,926
사회복지, 건강 및 스포츠	16,081	1,669	17,750
관광, 요식업 및 가정학	12,369	4,330	16,699
기타 부문	271	1,146	1,417
총계	58,103	67,571	125,674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표 4-11> 학교기반 과정 전공별 신입생 수(2005)

분야 명	학생 수(명)
인문 및 교육	1,133
천연자원 및 환경	3,543
기술 및 기술 이전	22,771
사회과학, 경제, 행정	6,228
관광, 요식, 가정학	7,674
사회 및 건강 복지 및 체육	10,427
문화	4,135
순수과학	2,758
기타 교육	562
총계	59,231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7) 재인용.

핀란드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수여하는 자격과 관련된 핵심 교육과정과

적성-기초 자격수여 과목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고용자와 피고용인의 협력을 통해 그리고 동시에 다른 관계자들과 경제관련 전문가 및 교사, 학생들의 참여로 수강 과목 등이 구체화된다. 여기서 핵심 교육과정이란, 자격이 수여되는 부문의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능력 및 직업능력 등을 다루는 과정을 말한다.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교육기관들에 법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교육 정책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시민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도록 하는 것과 전국적으로 동일한 직업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핵심 교육과정은 전국 학습 성취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국, 핀란드 교육위원회에서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의 각 자격수여과정의 목적과 핵심 과목 내용 등을 결정한다. 또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학업수행의 평가기준을 결정하여 학생들이 동일한 직업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학생 평가기준을 만들고, 습득한 직업 기술을 증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각 국가 핵심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격증을 받으면, 관련 분야의 다양한 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기술 관련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수여받은 자격과 관련된 부문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적 능력과 직업 기술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 제공자들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기초를 두고 각자의 교육과정을 세운다. 구체적인 내용과 학습방법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의 지역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으며, 관련된 핵심 교육과정을 기초로 교육 제공자가 결정하게 된다. 각 기관은 교습 구성을 각자 결정하고 지역 내의 직업 세계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학생들에 대한 교습방법은 제한되지 않는다. 교사는 각자가 교육과정에서 명시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현재의 교습방법은 학생에 초점을 두어 학생의 독창성과 적극성을 개발할 수

있는, 또한 책임감과 학습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교습법의 핵심 요소에는 융통성, 다양성, 학년에 구속되지 않는 교습, 이론과 실제의 통합, 교육기관들 사이의 협력(교육계획과 교육제공에 있어) 등이 있다. 기관들은 통합교습법과 통합과제를 사용하여 통합적인 학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어떠한 순서로 공부할지에 대해 개인 학업 계획을 세우게 된다. 최근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급을 위한 선택과 기회 제공을 위하여 향상되고 있다.

2001년 8월 1일을 시작으로 고등 직업교육 자격시험을 받기 위해서는 3년 과정 동안 12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즉, 직업 연구와 현장 연수(90학점), 공통 핵심과목(20학점), 그리고 자유선택 과목(10학점)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총 40학점을 채우게 되며 한 학점은 학생의 평균 40시간 동안의 근무경력이 해당된다. 직업교육 자격증은 이후의 폴리텍 대학과 일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다. 모든 초기 직업교육 및 훈련 과정은 기초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이때, 3년 자격과정 중에는 현장연수를 최소 20학점 포함하며 직업관련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훈련 워크숍을 포함한다. 현장연수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며 학생들이 교육 경험을 갖게 하여 고용기회를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과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분야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 직업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특수 능력과 직업 기술 또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각 특별 자격 인준은 각 자격과정에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수준으로 결정된다.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다른 고등학교 수준의 기관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과목들을 자신의 흥미에 따라 자격수여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목들에는 적절한 근무 경험도 포함될 수 있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핵심과목은 20학점 정도이며, 스웨덴어로 된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21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이 중 필수과목은 <표 4-12>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16학점이며, 4학점은 선택과목이다. 선택과목은 필수과목보다 더 고등의 과목들로 구성되며 환경관련 과목,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학, 윤리학, 타문화, 심리학과 기업가 정신 등의 과목 중 선택이 가능하다.

<표 4-12> 고교 단계 학교기반 직업교육과정 공통필수 과목(16학점)

과목명	학점 수
모국어(e.g. 핀란드어, 스웨덴어, Same)	4
다른 모국어(핀란드어, 스웨덴어)	1
외국어	2
수학	3
사회, 경제, 노동시장 과목	1
물리학과 화학	2
체육	1
건강 교육	1
예술과 문학	1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7) 재인용.

나. 도제 과정(apprenticeships)

초기 직업교육 훈련 과정인 도제수업은 국가 핵심 교육과정 혹은 능력 기초 자격과정의 기준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국가 핵심 교육과정이나 능력 기초 자격과정의 과목 수강은 각 학생의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며 학생과 근무현장의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 고용주, 지역 행정관리인의 협력에 의해서 계획되고, 또 근무지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

도제수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교육훈련 기관, 성인 직업교육 센터 혹은 다른 교육 기관에서의 이론수업과 함께 이루어진다. 훈련은 앞서의 학

습계획 혹은 계약에 준해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현장학습 및 이론과 실제의 통합 수업이 중시되며 70-80%의 학습시간은 근무지에서 현장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훈련의 평가는 고용주와 이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평가결과는 과정 완수 이후 주어지는 자격증에 함께 기록된다. 도제수업 또한 학교기반 과목의 수강이 필요하다.

도제 과정의 전공별 참여 신입생 수는 <표 4-13>과 같다.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교육 분야는 기술 부문이며 성별로 집중된 분야는 여성의 경우 사회복지 건강 분야, 남성의 경우는 기술 부문으로 앞의 학교-기반 교육과정과 동일한 선호를 나타내고 있다(<표 4-10> 참조).

<표 4-13> 초기 직업교육훈련 중 도제 과정 전공별 신입생 수(2006)

(단위: 명)

전공	여성	남성	총계
인문 및 교육	501	190	691
문화	167	162	329
사회과학, 경제 및 행정	3,662	1,737	5,399
순수과학	383	534	917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이전	905	6,927	7,832
천연자원 및 환경	465	279	744
사회복지, 건강 및 스포츠	3,984	586	4,570
관광, 요식업 및 가정학	1,188	347	1,535
기타 부문	0	0	0
총 계	11,255	10,762	22,017

출처: Statistics Finland,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다. 초기 직업교육 교사

1) 특성

초기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에는 핵심과목 교사, 직업교육 교사, 특수교육 담당 교사, 직업 훈련기관 내 학생 상담교사, 교장, 그리고 현장교사 등이 포함된다. 초기 직업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교사는 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이론 교육을 최소 60학점(유럽 학점이전 인정 체계에 따른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직업교육 교사들은 석사학위나 기술전문학위, 혹은 그에 상응할 만큼의 높은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3년간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핵심과목 교사는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과 동일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석사 학위(300학점)에 해당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때 교육의 실습경험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장은 석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전의 교습경력이 충분히 있어야 하며, 국가 교육 위원회로부터 교육 행정 자격을 인준받아야 한다. 도제수업 교사나 현장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교사양성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2) 직업교육 교사의 양성 및 훈련

교사들은 1년에 3일 정도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직업교육학을 담당하는 대학에서는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위, 기초교육 이수, 근무경력, 교습 경력, 특별 활동경력 등의 자격을 요구한다. 교육대학에서는 각 학생의 지원 분야에 상관없이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다. 교육과정에는 기초 교육학, 직업 과목 교육학, 교생실습 등이 포함된다.

라. 진로지도

1) 진로지도 및 목적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교육지도의 내용은 핀란드 교육위원회에서 계획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개인 학업 계획, 그리고 학생의 과목선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또한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이는 학생의 미래 직업능력, 이후의 학업, 그리고 직장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이러한 상담 및 지도 서비스는 학생들의 직업 세계로의 도입을 지원하고 증진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은 또한 교육기관에 지원할 때에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로지도는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적 수준과 각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이때 교육부와 노동부 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 사적 수준에서도 진로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고용주의 기관이 근무환경 및 직업에 대한 진로 정보에 대해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훈련도 제공하는 과정이다.

2) 진로지도 전문 인력

직업훈련 기관의 진로지도 상담가는 일반 직업과목 교사들과 동일한 기초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직업 교육대학의 60학점(유럽 학점이전 인정 체계에 따른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진로지도상담 훈련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격증과 함께 최소 1년의 교습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로지도상담 훈련과정에서 지도 상담가로 훈련받는 학생들은 속한 교육기관이나 다른 연계기관에서 실제 상담의 여러 분야를 접하고 방법에 대하여 익히게 된다.

3) 진로상담 서비스 체계

초기 직업교육 단계에서의 진로상담 서비스는 학생이 속한 각자의 학교에서 제공받게 된다. 핀란드의 법에 의해 각각의 직업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교 과정에서 일정한 학점이 부여되면서(1-2학점) 진로상담이 공식적으로 주어진다.

그 외, 인터넷 및 고용서비스 기관에서의 진로상담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2. 고등교육 단계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단계 교육에는 대학과 폴리텍 대학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직업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은 폴리텍 대학이다. 고등 단계 교육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의 90%, 그리고 폴리텍 대학의 70%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생으로 구성된다.

가. 폴리텍 대학(Polytechnics)

폴리텍 대학은 3-4년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우도록 한다. 이 과정은 각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고등 단계의 교육과 함께 각 지역의 경제적인 삶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폴리텍 대학에서는 기술전문분야에서의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폴리텍 대학은 또한 성인교육을 담당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폴리텍 대학에서는 인문 및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사회과학 분야, 경제 그리고 행정 분야, 순수과학 분야,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기술이전 분야, 천연자원과 환경 분야, 사회복지 분야, 건강과 스포츠, 관광, 요식업과 가정학 분야의 교육을 제공한다.

폴리텍 대학의 학위 프로그램은 기초과목과 고급과목, 선택과목, 실제훈

련과 학위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140-160학점 정도를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학점은 학생의 40시간 참여에 상응한다. 필수 현장연수는 20학점에 해당되고 학생들이 학위 프로그램에 실제 근무경력을 더하며 동시에 실제 현장근무를 통한 이론과의 통합을 위한 과정이다. 한 학년과정동안 대략 40학점을 이수하게 된다. 폴리텍 대학의 석사학위는 40-60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폴리텍 대학에서는 학생의 독자적인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자의 교습방법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와 팀 프로젝트, 그리고 학교 밖에서의 교육, 즉 현장실습 등을 교육과정 내에 포함시킨다. 폴리텍 대학의 학문 분야별 신입생 수는 다음의 <표 4-14>와 같다. 앞의 ISCED 단계 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주로 선호하는 분야는 기술 분야임을 알 수 있다.

<표 4-14> 폴리텍 대학 전공별 신입생 수(2005)

전공	신입생 수(명)
천연자원 및 환경 분야	1,200
기술,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이전 분야	10,690
사회과학, 경제 그리고 행정 분야	7,300
관광, 요식업 및 가정 분야	2,320
순수 과학 분야	1,890
사회복지, 건강 및 스포츠 분야	8,680
문화 분야	2,960
인문 및 교육 분야	370
총계	35,410

출처: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Cedefop(2007) 재인용.

폴리텍 대학의 교사는 각 학교가 원하는 학위의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주로 폴리텍 대학의 교사는 직업교사 교육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채용되며 반드시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폴리텍 대학 교사는 자율적

로 각자의 학교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교육 단계 교사와 동일하다.

나. 대학

대학의 목적은 개인의 연구와 과학적인 지식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추후의 학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학교육은 20개의 연구 분야로 나뉘며(〈표 4-15〉), 신학, 인문학, 법학, 사회과학, 경제 및 경영 행정학, 심리학, 교육학, 순수과학, 농업 및 산림학, 스포츠과학, 공학 및 건축학, 치의학, 건강과학, 수의학학, 약학, 음악, 예술 디자인, 연극학, 드라마, 그리고 응용예술학을 포함한다. 대학에의 진학은 입학시험(matriculation) 및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통해 자격을 얻게 된다.

대학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3년 동안 120학점)를 이수하거나, 석사학위(5년 동안 160학점)를 받을 수 있다. 이 외 대학원 과정에 해당되는 전문가 과정(licentiate)이나 박사과정은 더 높은 학위과정을 통해 얻게 된다.

3. 계속직업교육훈련

1) 고교 단계 및 고교 후 계속직업교육훈련

고교 단계 및 고교 후 계속 직업교육에는 원래 초기 직업교육과정이었 던 것을 성인에게 맞춘 형태와 추후 직업교육과 훈련과정을 포괄하는 과정 이 있다. 초기 직업교육과정을 완료하게 되면 직업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곧 능력 적성 자격이 된다. 일반적인 초기 직업교육과정보다는 기간이 짧 으며, 이 자격과정은 도제수업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고교 후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은 특별히 성인만을 위한 과정이다. 이는 성인의 현재 직업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학생 각자의 고

용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은 학교 혹은 도제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자격과정은 능력 적성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결국 성인들이 자신의 직업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준을 받기 위함이다.

2) 고등 단계 계속 직업교육훈련

폴리텍 대학의 기초적 업무는 성인 교육이며 따라서 성인들은 젊은 층과 동일하게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핀란드에서는 2002년도에 폴리텍 대학 석사학위에 해당되는 과정을 개설하여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특별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였다. 2005년도에 공식적 학위체제로 인정된 폴리텍 대학 석사학위 과정은 기술전문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고등 교육학위를 소지하고 동시에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폴리텍 대학에는 학위 비수여 과정도 있다. 이 과정은 폴리텍 대학 학위 과정에 속한 것으로, 이미 폴리텍 대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은 20-60학점을 1-2년 사이에 이수하게 된다.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는 교육은 연령에 따라서 과정이 다르게 설립되지 않는다. 모든 연령대가 동일한 대학 학위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대학은 고등단계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개의 석사 과정을 설립하였다. 이는 정규시간보다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대학에서는 동시에 학문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부설 계속 직업교육센터와의 협력으로 다른 형태의 계속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 핀란드 직업교육 체제의 주요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핀란드 직업교육 사례의 주요 특징을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직업교육 개혁을 통한 직업교육의 부흥

핀란드는 1990년 초의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1990년 초 핀란드의 전체 실업률은 10%에 육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경제는 침체해 있었다. 핀란드는 이러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개혁을 통해 오늘의 경제부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공의 배후에는 교육개혁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직업교육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개혁 이전의 핀란드의 직업교육은 폐쇄적인 경로로 인해 졸업생에게는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이 실제적으로 막혀 있었다. 한번 직업교육경로에 들어서면 곧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단절된 직업교육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1990년대 초 교육개혁을 통해 핀란드는 폐쇄적이었던 직업교육경로를 개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폴리텍 대학을 증설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폴리텍 대학 또는 일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경로를 개설하였다. 실제로 이를 통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중 얼마만큼 많은 학생의 진학이 이뤄졌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가 남아있지만,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가 개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들의 수가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업교육 개혁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직업교육 개혁이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실제 현장의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방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 정책수립의 모체가 된 것은 핀란드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을 담당하고 결정하는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Committee)이다. 교육위원회는 정치가,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실제적인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현장의 교육기관장들의 견해를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육기관장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핀란드는 1990년 초 직업교육의 부흥을 가져온 직업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였다.

나. 직업교육 경로의 유연성

핀란드 직업교육체제의 특징은 유연성에 있다. 여기서 유연성이라 함은 수직적·수평적 유연성을 모두 포함한다. 앞의 핀란드 교육체제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핀란드 교육체제에서는 수직적 유연성이 존재한다. 즉 직업계 고등학교(vocational school)를 졸업한 학생들은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폴리텍 대학이나 일반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실시된 것은 1990년도 직업교육개혁이 이뤄지면서 부터이며 그 이전까지는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이 어렵고 취업만이 가능한 폐쇄된 경로였다. 따라서 직업교육 기피현상이 만연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고교졸업자의 70%가 대학진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목표로 내세울 정도였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전체적 취업률이 하락하면서 청년층 실업률은 20%가 웃도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직업교육의 개혁을 서두르게 되었다. 직업교육 개혁의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직업교육의 개방성을 높인 것이다. 진학이 불가하던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폴리텍 대학 제도를 신설하여 졸업생들에게 진학의 진로를 열었으며, 학생의 일반계 고교 프로그램과

직업계 고교 프로그램 간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일부 학교이기는 하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장과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자격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개방하였다.

다. 직업교육의 철저한 질 관리 체계

먼저 핀란드의 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각 학교의 졸업생 수, 탈락률(drop out rates), 취업률 등 해당 학교의 직업교육 성과에 따라 기관의 직업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헬싱키 시의 경우 현재 시정부는 시에 있는 8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질 관리 기준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재정 지원에서 기존의 지원액의 일정비율(약 2-3% 정도)을 삭감하여 그 전 해에 좋은 실적을 거둔 기관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질 관리 체계는 기관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 운영자들의 사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제로 이러한 질 관리 방식은 직업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²³⁾ 특히 학교를 평가함에 있어 졸업생의 취업률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가 소속한 지역(지역에 따른 취업률의 격차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그리고 학교가 속한 직종 분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되 같은 지역, 같은 분야에서의 취업률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평가기준에 대해 피평가자들이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 관리의 또 한 가지 측면은 학생에 대한 질 관리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장이 충분

23) 핀란드의 모든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학교의 경영주체가 사립이든 국립이든 상관없이 주 또는 시정부에 의해 이뤄지므로 질 관리에 따른 차등을 두는 재정 지원 방식은 전체 학교에 적용이 가능하다.

한 노력을 하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일정한 능력기준(competency)에 도달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학교의 학생에 대한 질 관리 방식이다. 이때 학생들이 일정기준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 장소에서 현장 감독자에 의해 이뤄지므로 평가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일정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격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결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결국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질 관리로 연결되므로 직업교육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질 관리 체계를 통해 핀란드는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라. 직업교육의 높은 실용 가치

핀란드의 교육전문가들이 꼽는 직업교육의 성공 원인 중 하나는 직업교육이 실제적으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때 실제적 가치라 함은 직업교육의 결과가 노동시장에서 그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업교육의 실제적 가치가 높다는 것은 반드시 핀란드의 일반인들이 직업교육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핀란드의 학교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들은 아직도 자녀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직업교육이 수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직업교육의 성과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게 되면 졸업장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의 직업자격(vocational qualification)을 받게 되며 이 직업자격은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위한 기초자격을 제공할 뿐 아

나라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자격의 역할을 하여 실제적인 취업에 도움을 준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는 이들에 비해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자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은 해당 직업교육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교육기관은 졸업생의 취업의 양과 질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이수함으로써 받게 되는 직업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장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 직업자격이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자격이 자격증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졸업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므로 해당 분야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직업자격이 필요하며 이러한 직업능력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학교에서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직업교육의 실제적 가치가 높음을 의미한다.

마.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주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나 핀란드의 경우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모든 재정 지원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의 재정 지원에 대한 기술에서도 살펴 보았거니와 핀란드 정부는 직업교육과 직업교육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각 시·도별 지자체에 일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각 관할구역에 있는 공립은 물론 사립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 직업교육기관도 공립과 같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며 동일한 기준에 대해 직업교육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재정 지원체제로 인해 정부의 직업교육개혁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즉 정부가 직업교육개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을 소신있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이들 국·공립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적 도구가 바로 재정 지원이라는 변수이다.

바. 강력한 중앙 정부의 영향력

핀란드에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실제로 일종의 중앙집권적 정책시행이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이때 중앙집권적이라 함은 각 직업교육기관이 교육훈련과정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앞의 행정체계에서 살펴보았거니와 각 직업교육기관의 장과 교사들은 각각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율권을 가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일단 수립되면 이를 시행함에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질 관리 체계라든지, 평가 결과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기관에 대한 통폐합의 시행 등은 교육행정에 있어서 핀란드의 중앙정부의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교육정책의 방향, 그리고 교육훈련기관의 성과에 비추어 핀란드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통폐합은 연간 수시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사. 기초교육의 강조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기초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핀란드의 청소년이 PISA 등에서 매우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핀란드의 높은 기초교육 이수율 등에서 알 수 있다. 기초교육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능력을 갖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또한 핀란드 국민의 평균 교육수준은 EU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은 교육에 대한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직업교육의 베이스라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 자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핀란드의 직업교육 기관들의 경우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많기도 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이 거의 없다. 학교가 뒤떨어지는 학생이 없도록, 즉 일정기준 이상을 넘어야 학교를 졸업하고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직업교육의 질 또한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아. 직업교육훈련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핀란드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사는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는 있으나 일정 기간(약 4년)마다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의 경험을 체득하게 하는 등 교사들의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자. 그 밖의 사회적 제도들과의 연관성

이 밖에 간접적으로 핀란드의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서 고교 입시제도를 언급할 수 있다. 핀란드의 중학교(comprehensive school)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선택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1년 더 이수할 수 있으나, 고교진학을 원하는 경우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신청함으로써 선발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때 학생들은 진학을 원하는 학교를 5개 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이 리스트를 기초로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 이러한 고교입시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에 동시에 적용되며 인기있는 직업학

교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계고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므로 우수한 학생의 선발이 가능하다. 편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반계고->직업계고 또는 직업계고->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학업 성취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진학이 미진한 일반계 학교에 비해 취업률 및 자격 취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진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희망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교선발제도는 직업교육의 발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핀란드의 독특한 제도 중 하나는 청년층에 대한 관리제도이다. 핀란드는 25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하도록 사회적·제도적으로 체제를 조성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는 5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미취업 졸업자는 이 중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는 반드시 학업만은 아니며 핀란드의 경우 폴리텍 대학과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경우 국가가 등록금 외에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므로 취업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진학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핀란드 청년층은 18세 이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며, 이를 위해 취업 또는 진학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게 된다. 사회적 제도와 직업교육제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실례라 볼 수 있다.

2. 정책 시사점

종합적으로 볼 때 핀란드의 직업교육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적절한 보상체계(rewards system)때문이다. 잘하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고, 미진한 기관의 경우 그에 대한 부정적 보상(penalty)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상의 원칙은 개별 직업교육기관 내에서도 적용된다. 잘하는 학생의 경우 국제대회 참여, 해외 연수 등 개인의 성취도를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 받을 수 있는 평가체계의 마련도 중요한 요소라 볼 수 있다. 이 밖에 직업교육기관의 경영자가 한 기관에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중요하다.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해 나감으로써 목표달성이 용이해지고, 목표에 일관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의 지속적인 개혁이 가능한 정책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쉽지 않은 교육기관 간의 통합이 폴리텍 대학, 일반 대학, 그리고 직업계 고등학교 수준에서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헬싱키에 존재하는 4개의 일반 대학이 2개의 대학으로, 그리고 폴리텍 대학 등으로 구조조정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업적이 미진한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학교 간의 통합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통폐합은 국립교육기관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립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이 큰 폭을 차지하므로 개혁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기술한 핀란드 사례의 주요 특징에서도 나타나듯이 직업교육제도의 성공은 단 하나의 정책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직업교육을 둘러싼 정책 간의 연결성, 한 개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한 여러 가지 선행조건 등 정책적, 사회적으로 여러 제도들이 맞물려 최종의 성과를 내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 경제적 난국에 봉착하여 직업교육 개혁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 개혁에 대한 노동시장과 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더라도 직업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이들이 직업교육의 부흥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 날과 같이 정책적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인 투자, 직업교육을 성공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혁,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기관과 학생, 교사에 대한 철저한 질 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직업교육의 성과가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자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점 등은 전체가 하나의 성공적 직업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는 결코 어느 한 가지 요소의 성공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 직업교육 정책입안자, 학교기관장, 교사, 현장 교사, 학생, 노동시장 관계자 등 관련된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변화하는 교육사회적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가 중심이 된 직업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핀란드의 사례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직업교육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얼마나 여러 가지 요소가 맞물려져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사례가 핀란드이기 때문이다. 핀란드 직업교육기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깨달은 정부 중심의 직업교육개혁의 가장 큰 핵심은 정부가 직업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때 여건에 맞는 교육개혁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핀란드 직업교육 정책 개혁의 중심이 된 핀란드 교육위원회의 경우 직업교육 개혁에 진정한 관심이 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정책을 수립했다는 점이 정책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1990년 초 직업교육개혁 정책수립에 직접 관여했던 한 교육현장전문가는 증언하고 있다.

제 5 장 노르웨이의 직업교육

임 언

제 1 절 사회 경제적 배경



- 국 명 : 노르웨이왕국(the Kingdom of Norway)
- 수 도 : 오슬로(Oslo, 약 54.9만명)
- 인 구 : 480만명(2008.1월)
- 면 적 : 38.7만km² (한반도의 약 1.7배)
- 인 종 : 노르웨이인
- 언 어 : 노르웨이어
- 국경일 : 5.17(1814.5.17 헌법제정 기념일)
- 종 교 : 루터 복음교(전체국민의 94%)

노르웨이는 군주제 의회민주주의 국가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국이다.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52%가 온전한 EU 회원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여 정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노르웨이는 단일 시장의 회원국이 되었

고, Cedefop와 Socrates²⁴⁾, Leonardo da Vinci²⁵⁾, Youth²⁶⁾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EU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EU 가입에 반대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된 문화 속에서, 현재 국가보다 더 확장된 추상적인 통치체제에 대하여 구세대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어업 및 농업 종사자들의 입장이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현재 시민당 정부조차도 EU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정도로 EU 가입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의 현실이 되고 있다.²⁷⁾

1. 인구

노르웨이의 전체 인구는 470만 명이고 전체 면적은 387,000제곱미터이다(스발바드와 얀 마예 섬 포함). 인구밀도는 1제곱미터 당 15명으로 475명(2005년 기준)인 우리나라에 비교할 때 1/32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인구증가 추세는 2002-2005년 사이에 0.5-0.6%이던 것이 2007년에 1.18%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의 36%가 오슬로 피오르드 주변의 5개 주에 분포해 있다.

2008년의 경우 이주자 및 이주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이들의 수가 360,000명이었다(전체 인구의 9.1%). 이 중 246,000명(이민자의 68%)이 비서구 국가 출신이다.²⁸⁾ 이주자들은 431개 시에 널리 거주하고 있다. 비서

24) EU에서의 초중등 일반교육 교류 프로그램

25) EU 직업교육 및 훈련에서의 교류 프로그램. 청년과 연수생이 직업 교육을 받고 외국에서 근로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사업. 2013년까지 8만 개 자리를 창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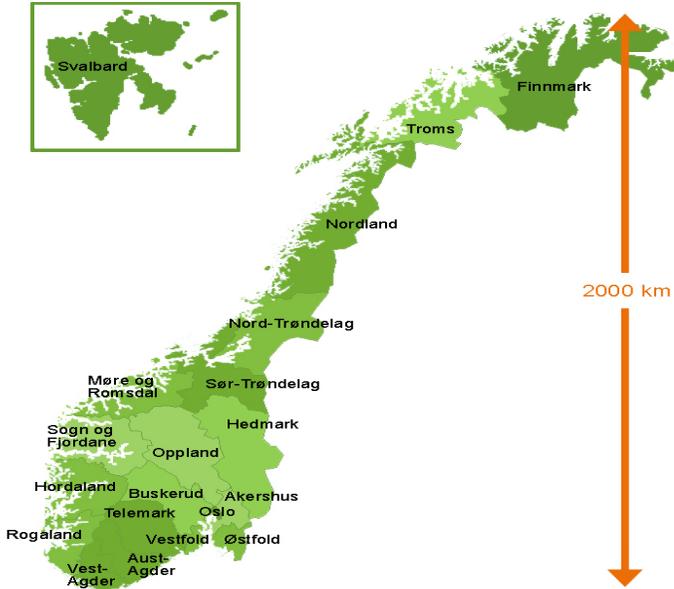
26) 청소년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

27) 현재로서 노르웨이 국민들은 자치정부(self-governance)에 대한 이상이 있으며, 강한 지방화의 전통 속에서 추상적인 통치체제(예컨대, 브뤼셀의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결정한다는 사실)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EU에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정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실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한 타격이 유럽 내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르웨이가 적은 것 또한 이와 같은 생각을 오히려 더 강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오일 생산을 하는 한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일종의 환상에 젖어있다는 것이다(노동조합총연맹 교육부문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28) 이주자의 교육 수준은 출신국가 배경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필리핀과 인도의 경우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노르웨이 평균보다 높은 반면, 파키스탄과 소말리아 이주자의 경우 노르웨이 평균을 훨씬 밑돈다. 비서구 출신 여성 이주자들의 경우 무학이거나 학력이 아주 저조하다. 이는

구 출신 이주자 중 39%는 오슬로 지역에 거주하며 이들은 수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약 17%를 이루고 있다.

[그림 5-1] 노르웨이 영토



2. 경제 및 노동시장

2007년에 노르웨이는 세계 5대 원유 수출국, 세계 3대 가스 수출국이었던다. 오일 산업, 전력집중 제조업 섹터, 예컨대 제철 생산, 산업화학, 펄프 산업은 조선과 해양작업대건설 산업과 함께 대규모의 수출지향 산업이다. 양식어업은 지난 20년간 붐을 이룬 바 있다. 노르웨이 경제는 광범위한 무역으로 점차 개방되고 있다. 천연 자원에 대한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산

계속직업교육훈련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가 모두 이주자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노르웨이 평균 진학률(25-29세 성인)을 웃돈다. 실업률은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 집단에서 노르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Cedefop, 2009b).

업국가로서 생산설비에 지속적이며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중 83%가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은 전체 노동력의 대략 70%에 이른다. 오직 2,500개 기업만이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다.

<표 5-1> 2007년 4/4분기의 산업별 고용 현황

영역	전체 고용(명)	전체 고용(%)
농업, 임업 및 어업	78,739	3.16
제조업, 광공업, 에너지와 물 공급 및 건설	514,574	20.72
공공 및 영리 서비스	1,879,561	75.67
미분류	11,126	0.45
전체	2,484,000	100.0

출처: 노르웨이 통계청.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노르웨이의 전체 고용률은 72.8%로 59.8%인 우리나라²⁹⁾에 비하여 높다. 특히 여성의 고용률이 우리나라(48.9%)에 비하여 매우 높다. 실업률은 2.1%이며 3.2%인 우리나라³⁰⁾에 비하여 낮다.

<표 5-2> 16-74세 인구의 평균 고용률, 2007년 기준

구분	고용률
남성	76.0
여성	69.5
전체	72.8

출처: 노르웨이 통계청.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29) 우리나라의 성별 및 전체 고용률, 2007년 기준(남성:71.3%, 여성:48.9%, 전체:59.8%)

30) 우리나라 실업률: 전체(3.2%), 남성(3.7%), 여성(2.6%)

<표 5-3> 전체 노동인구의 평균 실업률, 2007년 기준

구분	실업률
전체	2.1
남성	2.3
여성	2.0
15-24세	5.4

출처: 노르웨이 통계청,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재인용

실업률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표 5-4>에서 보듯이 30세 이하의 실업률은 고졸 미만의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년 이상의 고등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의 실업률은 0.6%로 가장 낮다. 유럽통계청의 통계 결과는 25-64세 노르웨이 국민의 학력이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지만,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가 높은 것은 전 국민의 학습을 강조하는 국가 교육 정책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취업기회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인의 기초 능력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IALS, ALLS 조사에서 노르웨이가 일관되게 상대적으로 높은 능력 수준을 보이는(OECD, 2008b) 것도 이러한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4>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

구분	30세 이하	31세 이상
전체	2.3	1.5
고졸 미만	3.9	2.5
고졸	1.4	1.3
대학재학 이상	0.6	0.8

출처: 노르웨이 통계, OECD(2008a) 재인용

3. 국민의 교육 수준

노르웨이는 GDP 대비 교육비 투자가 5.2%로서 OECD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비 투자의 대부분이 공적투자로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를 국가가 책임진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의 의무교육은 10년이지만(6세에 입학, 7년 과정의 초등학교, 3년간의 중학교 교육) 그 이후의 교육 참여율이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Cedefop, 2009b). 24세-34세 인구 중에서 대졸자 비율은 42%(우리나라 52%)이며, 55세-64세 중에서 대졸자 비율은 24%(우리나라 10%)로 OECD 평균보다 높다(OECD, 2008a).

16세 학생들(우리나라의 고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PISA 결과를 보면, 노르웨이는 언어와 수리, 과학에서 각각 18위, 22위, 24위로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OECD, 2008a).

노르웨이의 경우 여타 유럽 국가와 비교해볼 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이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second-chance)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다. 노동시장 훈련, 이주자를 위한 훈련 및 다양한 타깃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성인 대상 계속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여기에 속한다(Cedefop, 2008).

제2절 직업교육훈련의 정책 및 제도

1. 직업교육의 기본 원칙

노르웨이 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원리는 **평등과 선택의 자유**이다. 성별, 사회적·지리적·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질 좋은 교육에 접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을 공적인 책임으로 공공 교육 및 훈련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며, 지리적·사회적 요인에 상관없이 교육 및 훈련의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되어야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정부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Cedefop, 2009b).

2. 법 체제

가. 초, 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법(OPPLÆRINGSLOVA 1998, 2008년 개정, the Education Act)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이 법은 교육 목표 및 범위, 책임 분담과 관련된 조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콘텐츠에 관해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적 수준의 계획과 재정 지원 제도 개발의 책임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 있는 반면, 지역별로 포괄적인 계획 수립, 실행, 재정 지원의 책임은 각 주(county)와 시(municipal)에 있다.

이 법은 또한,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기량, 이해, 책임감을 드높여 학생들이 직장과 사회생활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학생과 훈련생들의 인성 발달을 지원하는 것이 그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가르치기를 통해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의 토대를 제공하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 문화, 기본 가치 및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도제 실습생, 훈련 기관, 학교, 가정, 일터 간의 협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Cedefop, 2009b).

나. 학생 재정 지원 법(LOV OM UTDANNINGSSTØTTE TIL ELEVER OG STUDENTER 1985, 2005년 개정, Financial Support to Students and Pupils Act)

공·사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계를 위한 보조금과 정부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유학 중인 노르웨이 학생에게도 지원은 제공

되는데, 이들은 여행비, 입학비 및 수업료를 위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학생(특정 재정 지원 필요를 문서화할 수 있는 현장 훈련생 포함)과 또한 실질적인 훈련을 위해 최소한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를 현장 훈련생에게도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지역, 성별, 나이 및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더욱 강화하며, 학생들의 노동 조건과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Cedefop, 200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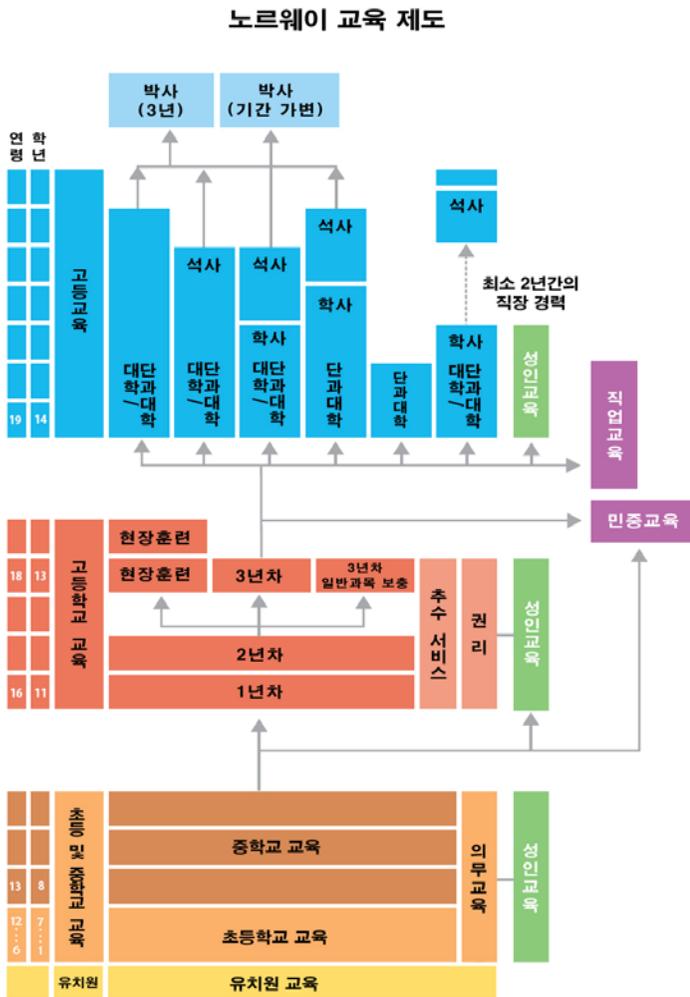
3. 행정 체제

가. 교육 체제 개요

노르웨이 의무교육은 10년이다(6세에 입학, 7년 과정의 초등학교, 3년간의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공립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및 훈련은 전 단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사립기관³¹⁾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나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university)과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에서 제공되는데 이들 대학의 대부분이 국립대학이다. 대학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5-6년 과정으로, 수료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단과대학에서는 이보다 짧은 2-4년간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한다(Cedefop, 2009b).

31) 초등, 중학교 과정의 경우 2% 남짓한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다니는 반면, 고등학교와 고등 교육 과정의 경우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비율은 각각 7%, 15%이다 (<http://www.ssb.no/>).

[그림 5-2] 노르웨이 교육 제도



출처: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7)

성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의 공교육을 제공받을 법적인 권리가 있다. 성인 대상의 초등, 중학교 교육 제공에 대한 책임은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와 유사하다. 성인도 청소년과 비슷한 조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다.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은 성인교육단체 (Studieforbund), 원격훈련조직, 공립 및 사립 훈련센터 등에서 제공한다 (Cedefop, 2009b).

노르웨이의 경우, 두 가지 유형의 계속직업교육훈련이 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한 유형이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또 한 가지 유형이다. 전자의 경우는 학문적 지향이 강한 교육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 고등교육 과정의 대안으로서 6개월-2년간의 실질적인 훈련과정이 포함된다.

공립 대학과 여타의 고등교육 기관은 교육연구부 직권 하에 조직되고 교육연구부의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고도의 전문성과 재정적 자율성을 가진다. 이들 기관은 교육연구부에서 발간한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분야 품질보증 국가기관(NOKUT, Nasjonalt organ for kvalitet i utdanningen, Norwegian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은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및 품질보증의 책임을 맡는다(Cedefop, 2009b).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사회적 파트너는 섹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및 계속직업교육훈련의 의사결정, 구성 및 제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고등교육 과정에서 각 기관은 교육연구부에서 발간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주요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프로그램 콘텐츠와 실행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다. 직업 훈련 과정은 고등교육 규정에 통합되고, 그 지위와 학점에 있어 주요하게 다른 점은 없다. 학점은 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학점이전체계)에 따라 대개 6-12개월간의 코스 통과 시험에 따라 주어진다. 1년을 온전히 채울 경우 대개 60학점 정도 취득한다.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학사, 석사, 박사 3단계의 국제 학위 체계를 따르고 있다. 직업지향적인 대학 프로그램의 경우, 예컨대 의학이나 법학 프로그램

의 경우는 5-6년 과정이다.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s)은 이보다 짧은 2-4년간의 초기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한다. 교사 교육, 건강과 사회복지, 엔지니어링과 경영학이 주요 분과이다. 일부 단과대학은 석사 과정의 훈련을 제공하기도 하고, 박사 과정 프로그램 제공을 승인받은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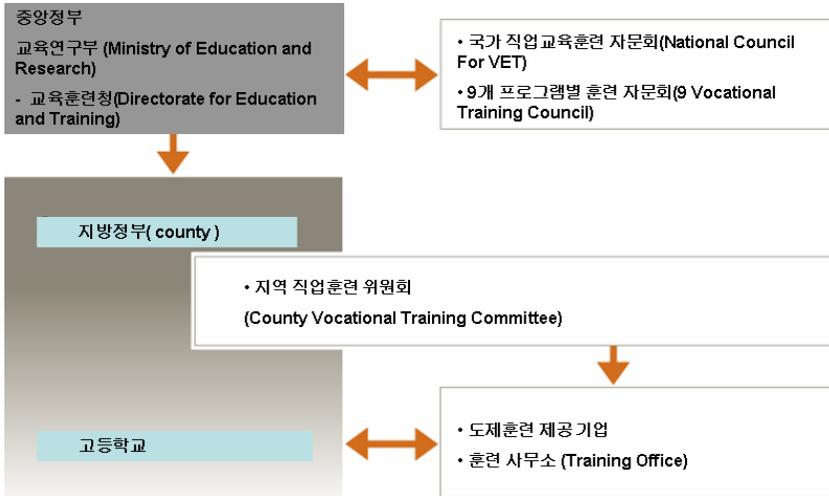
최고위 고등교육 과정의 경우,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면 3년간의 과정이 필요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려면 연속 2년간의 과정이 필요하며, 박사학위를 위해서는 3년간의 학습과정이 필요하다. 몇몇 훈련 프로그램은 2년 과정으로 이를 수료한 학생들은 “Høyskolekandidat”라는 자격을 취득한다. 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4년 과정으로 학생들은 교사 자격증을 획득한다. 정규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기관에서는 지역 산업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과정을 제공한다. 개방교육과 원격 교육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직업전문대학은 고유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책임이 있는데, 정부에서 제시하는 지침서를 따를 필요는 없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분야 질 보증 국가기관(NOKU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과정에서 이들 직업전문학교는 노동시장과 교육 프로그램 간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주에서 운영하는). 고등 직업전문학교는 이미 직업기술과 실제 직무경력이 있는 학생 또는 직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2년간의 과정을 제공한다(Cedefop, 2009b).

나. 행정 체제

초기교육훈련, 즉 고교 단계 직업교육 및 훈련에 관련된 법적인 효력은 노르웨이 의회에 있는 반면, 국가정책 개발과 각 단계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행정적 책임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 있다. 한편, 교육과정의 개발, 평가, 품질 보증에 관한 실행적인 책임은 전국, 주 단위의 여타의 공공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그림 5-3]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행정 체계



출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청 담당자 발표 자료

2004년 6월 고등교육 이전 단계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노르웨이 교육훈련청(Utdanningsdirektoratet, Udir,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을 설립하여 교육연구부 산하에 배치하였다. 이 기관의 주된 기능은 기본교육 과정에서 질 개혁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강화된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Cedefop, 2009b).

431개 시에서 공립 초등, 중등학교를 소유, 운영한다. 반면 19개 주에서는, 현장 훈련과 일부 중등 후 비 고등 직업교육훈련(post-secondary pre-tertiary vet)을 포함하여 공립 고등학교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전 영역을 책임진다. 이들 시와 주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고등 교육 및 훈련기관은 교육연구부 직권 하에 조직되고 재정 지원을 받으며 고도의 전문성과 경제적 자율성을 갖고 운영된다(Cedefop, 2009b).

4. 파트너십

노르웨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식, 비공식 모두에서 교육과 훈련 당국, 사회적 파트너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건, 생산성, 이윤이 고려되는 한, 직업훈련은 노동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종업원 조직은 고등학교 과정의 국가 직업 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³²⁾ 사회적 파트너는 국가 차원과 주 차원에서 중요한 모든 자문기구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자신들의 대표를 내세운다.

사회적 파트너들 간 협의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림 5-4]와 같다. 국가 직업교육및훈련 자문회(Samarbeidsrådet,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에서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며, 9개 프로그램별 직업훈련자문회(Faglige rad, Nine Vocational Training Councils)에서는 9개 직종별 훈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파트너 조직들은 정부의 녹서 준비에 참여하고, 국가 개혁, 예산 등에 대한 의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의견을 제안한다. 교사, 학생 조직 역시 여기에 참여한다. 관련 있는 고용주 조직과 섹터 조직 및 노조는 9개 직종별 직업훈련자문회(Nine Vocational Training Councils)들의 프레임 내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기구의 구성원 중 2/3을 임명한다. 직종 훈련 콘텐츠의 입안 및 의사결정은 국가 직업훈련협회(SRY,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Training)의 조정을 통해, 시장 영역에서 제안한 의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산업계 대표들은 교육훈련청(Udir,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임명하는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위원회의 대표가 되어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2) 공식적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에 있어서 사회적 파트너의 역할은 ILO 협약 142호(ILO convention 142)에 따른다. 이 협약은 고용주 조직과 노조가 직업지도 및 훈련의 프레임 형성과 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노르웨이는 1976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다. 교육법은 이와 같은 제도화된 참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주요 조직의 대표자에 대한 절차 또한 공식화하고 있다(Cedefop, 2009b).

[그림 5-4] 주요 파트너십 기구별 구성원 및 기능

파트너십 기구	구성원	기능
국가 직업교육훈련 자문회 National Council for V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부 주요 노동조합 학생 및 도제생 단체 교원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신뢰와 합의 도출 정책개발 기여 VET 발전 촉진 및 모니터링 VET 질 제고 도모
9개 직업훈련자문회 Nine Vocational Training Counci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 단체 구성원 노동자 단체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프로그램 교육 내용 개발 스킬 수요 모니터링
카운티 직업훈련위원회 County Vocational Training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개 지역별 노사정합의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훈련의 질 제고 내용의 적합성 평가단 임명

출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청 담당자 발표 자료

각 주별로는 직업훈련위원회(Yrkesopplæringsnemnda, Ynemnda, Vocational Training Committee)가 구성되며, 지역의 사회적 파트너들이 교육 및 훈련의 질 관리, 진로지도와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도제훈련과 관련하여 주의 교육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각 주에는 직종별 평가위원회(Prøvenemnder, Trade-specific Examination boards)가 구성되어 훈련 제공 기업을 승인하고, 훈련이 시행되는 동안 각 기업을 감독하며, 직종별 자격을 제공하는 책임을 진다.

지역에서는 훈련사무소(Opplæringskontorer, OK, Training Offices)를 통하여 도제훈련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훈련사무소는 몇몇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며, 각 기업에서 제공하는 훈련이 교육과정의 요건을 따를 수 있도록 확인하며, 훈련 계약 업무 등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표기구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들은, 승인된 직종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 형성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 체계와 범위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직종 및 기능인 자격 평가의 프레임 형성에 참여한다.

이 같은 법적인 프레임워크와는 별개로, 직장생활에 대한 일종의 “게임의 법칙”을 확립하는 사회적 파트너들 간의 공식 협정을 통해서도 사회적 파트너들이 직업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4년마다 열리는 전국적 임금협상과 2년마다 열리는 임금협상에서는 회원기업 간의 협력적인 직원 훈련, 현장 도제훈련에 관하여 그 목표, 권리, 의무 및 절차 등을 국가, 지역, 기관 수준에서 논의한다.

5. 재정

노르웨이에서는 정치적 행위자와 사회적 파트너 모두가,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재정 시스템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지역 민주주의의 입지가 강하다. 선출된 시 정부와 주 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정 및 자금조달 프레임의 범위 내에서 공적 서비스의 우선순위와 시행에 대한 자치권을 일부 가진다. 학교를 소유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시 정부와 주 정부는 중앙 정부로부터 정액 보조금을 받는다.

가. 고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재정

학생들에게 공립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훈련은 무료로 시행된다. 일부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연구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사립학교의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그 사회가 소중히 여기는 평등의 원리를 거스

르며 학교 간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관계자 면담 내용).

현장 훈련을 포함하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 받은 훈련기관에 정부가 공립/사립의 구분 없이 80-85% 수준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공립기관은 국가 소유로서, 나머지 비용은 지역 예산으로 부담한다. 사립기관의 경우에는 참가비를 통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 고교 단계 도제훈련비용은 중앙정부와 주에서 공동 부담한다. 저소득층 가정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학생에게는 보조금 지급과 정부 학자금 대출을 통한 보조금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훈련 참가를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생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필수장비 구입 시에도 기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Cedefop, 2009b).

훈련 기업에 대하여 정부는 학생당 2년 동안 12,000유로(2009년 기준)를 지급한다. 훈련생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게 되는데, 초기에는 30%로 시작하여 1년이 지난 후에는 임금이 80%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략 2년의 기간 동안 평균 숙련근로자의 1년 치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관계자 면담 내용).

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공립대학,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은 교육연구부가 소유, 설립한다. 정부에서는 정해진 정액 보조금을 통해 이들 대학 비용의 80-85%를 부담한다. 이들 대학의 나머지 예산은 수주받은 연구와 여타의 프로젝트, 그리고 사기업과 공공기관에 맞춤형 계속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조달된다.

사교육 기관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도록 승인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은 재정 지원(대략 비용의 85%)을 받고 있고 예산의 나머지 부분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에 의해서 조달된다. 경제 상태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고등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있는 학생들, 또한 도제훈련생들은 개인 보조금 및 정부 학자금 대출을 통한 보조금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다(Cedefop, 2009b).

제 3 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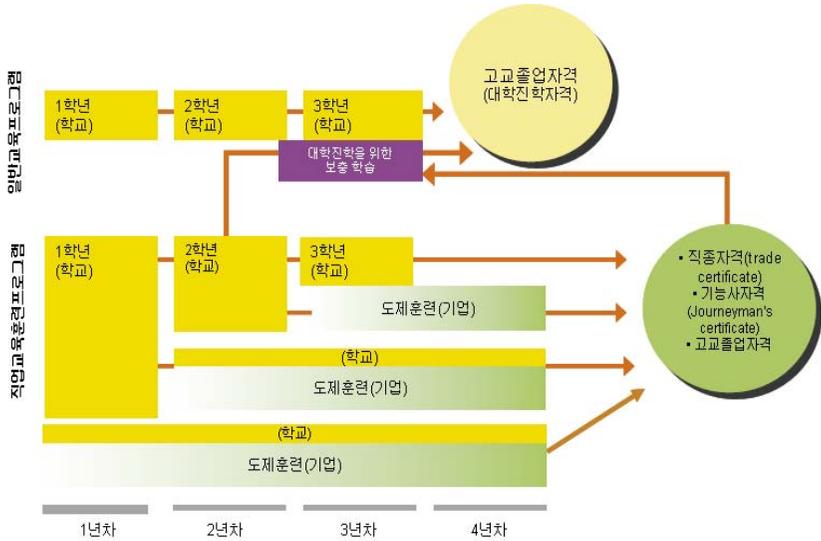
1. 직업교육훈련 체제

노르웨이에서 직업교육은 고교 단계에서부터 제공된다. 중학교까지 10년의 의무교육을 마친 학생에게는 3년간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은 11-13학년 과정으로, 일반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모두를 제공한다. 총 451개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도제훈련을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온전히 통합되어 있고 같은 수준의 일반교육과 그 공식적 지위가 유사하다.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학생의 대부분은 16-21세로서 공식 입학 요건은 단 하나로, 지원자는 중학교 교육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특정 기술 분야, 특정 학교를 지원할 경우, 이전 학업성취도를 기반으로 학생 간의 경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립기관에서 제공되는 훈련은 무료이다. 사립기관의 학생들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단, 기관 및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공식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Cedefop, 2009b).

고교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모두 12가지로, 이 중에서 3가지는 일반교육 프로그램이며, 직업교육훈련계열에서는 총 9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5-5] 노르웨이 고교 단계 교육



출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청 담당자 발표 자료

[그림 5-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계 프로그램 3년 과정을 마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자격을 갖추게 되며, 이러한 자격은 매해 부과되는 과정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 부여된다.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학문 중심의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할 경우, 1년 동안의 보충 학습 기간을 가져서 이론적 공부를 보충한 후에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직업교육훈련계열은 기본적으로 2+2모델로 2년간의 학교에서 이론에 바탕을 둔 학습과 2년 동안의 도제훈련을 받는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정된 대안 프로그램이 제시된다.

2. 교육과정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다음의 9개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다.

가. 9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엔지니어링 및 산업 기술
- 전기 기술
- 건축 및 건설
- 레스토랑과 음식 조리 기술
- 양식어업과 임업
- 건강과 사회적 돌봄
- 예술, 공예 및 디자인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 서비스, 교통 및 여행

이러한 9개 프로그램이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니며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제한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학교와 지역을 넘어서 지원이 가능하다. 특정학교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 학생이 많은 경우, 중학교 때의 학업 성적이 기준이 되고 있다. 동일한 전공 내에서는 고교 1학년 때와는 다른 학교에서 고교 2학년을 보낼 수 있다.

각 프로그램별로 5-72개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갈수록 전문화 정도는 증가한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공식 직업교육훈련 자격 및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은 62개의 전문 과정으로 분화되고, 도제훈련 과정은 194개로 분화되어 있다(Cedefop, 2009b).

나. 교과목 구성

국가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은 실제 훈련과 특정직업과 관련된 이론에 따라서 그 콘텐츠가 다양하다.

[그림 5-6] 직업교육훈련 기본 모델(2+2)의 교과목 구성



출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청 담당자 발표 자료

그러나 학교를 기반으로 훈련을 하는 동안에는 모든 교육과정에 일반과목이 포함된다. 노르웨이어, 외국어훈련, 수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직업교육훈련을 마친 학생들은 6개월간의 이론 연계과정을 더 수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 입학에 필요한 공식 요건을 획득할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지식의 개념은 광범위하다. 예컨대, 윤리적 가치관, 태도, 사회적 역량, 기업가적 수완 및 의사소통 역량, 국제적 책임성 및 환경적 자각,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다.

<표 5-5>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수준별 과목 할당 시간

과목	고등학교 레벨 1	고등학교 레벨 2	도제훈련 과정
공동 핵심 과목	336	252	노동시간에 관한 단체협상을 따름
프로그램 과목	477	477	
심화학습 프로젝트	168	253	

출처: 교육훈련청(<http://www.udir.co/>)

<표 5-5>는 도제훈련 기간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의 수준별 프로그램에 할당된 시간을 보여준다. 매 해의 훈련 기간은 38주에 걸쳐 190일이다. 학교에서 매년 총 1,309시간의 수업이 진행되는 반면에 도제훈련은 일반적인 직장 생활 사이클을 따른다.

다. 새로운 스킬에 대한 수요 파악 및 교육과정 리뉴얼

교육 당국은 고용주 및 근로자가 특정 자격 및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새로운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과 훈련 시행과정에 반영되어 사회적 파트너들이 모든 자문기구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국가, 주, 지역 수준에서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 체계, 교육과정 개발 및 자격 관리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정부에서 승인한 각 단계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책임은 교육연구부에 있다. 교육연구부에서는 교육과정과 그 개발에 대한 지침 및 안내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 대한 시행 책임은 교육훈련청(Utdanningsdirektoratet, Udir,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에서 맡는다. 이 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직업교육훈련 교사를 임명한다.

정부 부서, 학부모, 학생, 고용주, 노조, 그 밖의 다양한 집단에서 훈련 프로그램, 콘텐츠, 시행방식의 개발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고용주 조직, 섹터 조직 및 노조는 자신들이 구성원의 2/3를 임명하는 직종별 직업훈련협회(Faglige rad, Vocational Training Councils)와 국가 직업훈련위원회(Samarbejdsrådet for yrkesopplæring, SRY,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Training)를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3. 도제훈련(apprenticeship)

도제훈련은 자격을 갖춘 훈련제공자의 감독 하에 직장에서의 실제 직무를 통해 직업적 정보와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는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의 정규과정으로, 학생과 훈련 기업 간의 도제훈련 계약에 의해 공식화된다. 2007년 10월, 전국적으로 등록된 훈련생 수는 37,222명이었다. 이들 중 대부분(88.7%)이 24세 이하이고 25세 이상의 경우는 11.3%이다. 또한 27,566명이 남자였다. 2008년 10월 1일 기준 38,200명의 도제훈련생이 있었다. 18,585명이 새로운 도제 계약을 맺었으며, 21,000여명이 직종 및 기능인 시험에 통과했다. 이 중에서 6,300명은 고교 직업교육훈련 이수자가 아니라 성인 재직자가 재직경험에 바탕을 두고 자격을 신청한 경우이다 (Cedefop, 2009b).

가. 시기 및 장소

도제훈련은 일반적으로 관련 직업 영역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실습을 제공하는 2년간의 학교 기반 직업교육을 마친 후에 시작된다. 2년간의 도제훈련은 1년간의 현장에서의 훈련과 1년간의 실제 직무로 이루어진다. 수공예와 같이 도제훈련 기간이 길수록 혜택을 보는 영역인 경우 1년간의 학교 기반 훈련을 마치고 도제훈련을 시작할 수도 있다(1+3모델).

도제훈련은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적합한 기업을 찾을 수 없을 시에는 학교를 대리 기관으로 인정하여 학교 기반의 훈련을 1년 더 받는 것이 가능하다.

나. 도제훈련 시행 책임

도제훈련을 포함한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의 시행은 도제훈련 계약을 승인하는 19개 주의 소관이다. 각 주에서 도제훈련 조직 및 행정은 주 정부가 담당하는데, 주의 직업훈련위원회(Ynemnda, Vocational Training Committee)가 주 정부에 자문을 제공한다. 이들은 도제훈련을 시행할 기업을 모집하고, 도제훈련 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훈련의 질을 보증하며, 또한 직종별 평가를 관리하고, 직종 및 기능사 자격(trade and journeyman certificates)을 부여한다.

훈련 기업이 되고자 하는 조직은 교육과정 필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을 갖춘 훈련 감독관이 지도해야 하고, 회사의 몇몇 직원이 훈련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회사 내 직원 대표부와 훈련 감독관이 감독한다. 또한 이들은 적당한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교육과정의 요건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훈련기관 인정 기준>

- 자격을 갖춘 훈련 매니저가 있을 것
- 교육과정의 훈련 요건을 충족
- 자격을 갖춘 훈련 교사가 훈련 담당
- 건강, 환경, 안전(meet the Health, Environment and Security: HES)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며, 교육법(the Education Act)에서 규정하는 여자 요건을 충족
- 정식 계약을 맺고 도제 실습을 제공할 의지를 갖추는 것
- 훈련에 대한 계획, 질 평가 및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출처: 오슬로 교육청(City of Oslo Education Agency) 직업교육훈련 담당자 인터뷰 자료

한 기업에서 도제훈련 교육과정을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힘든 경우에는 몇몇 기업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도제훈련 계약은 훈련생과 지역의 훈련사무소(Opplæringskontorer, Training Office) 간에 이루어진다. 훈련사무소는 산업계 기반의 조직으로서 도제훈련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다. 프로그램의 종류

도제훈련 체계는 9개의 상이한 훈련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 하에서의 182개 직종(trade)으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시행되는 9개 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각각의 직업군에 대한 훈련은 고등학교 1학년(level 1) 과정에서 시작되고 2학년 과정(level 2)에서 더욱 전문화된다. 1, 2학년 과정 모두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실습 훈련은 학교 워크숍을 통해 제공되고, 또한 심화학습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기업에 단기간 배치됨으로써 실습 훈련을 제공받는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주어지는 선택권은 훈련 영역별로 다양하다. 2006년 8월부터는 62개의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

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해양 교육훈련 과정은 해안에 있는 주에서만 제공되고, 항공업 훈련은 주요 공항이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직업훈련이 19개 주에서 거의 다 제공되고 있다(Cedefop, 2009b).

도제훈련생은 법적으로 기업의 직원이므로 직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진 협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다. 급여는 도제훈련생의 생산 활동의 결과물에 따라 달라진다. 2년간의 도제훈련 기간 동안 결과물은 점차 증가하므로 이에 따라 급여 역시 인상된다. 도제훈련생은 도제훈련 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은 표준화되어 있고 또한 도제훈련생, 기업 관리자, 훈련 관리자 및 주 정부의 대표부가 여기에 서명을 한다.

라. 도제훈련의 다양한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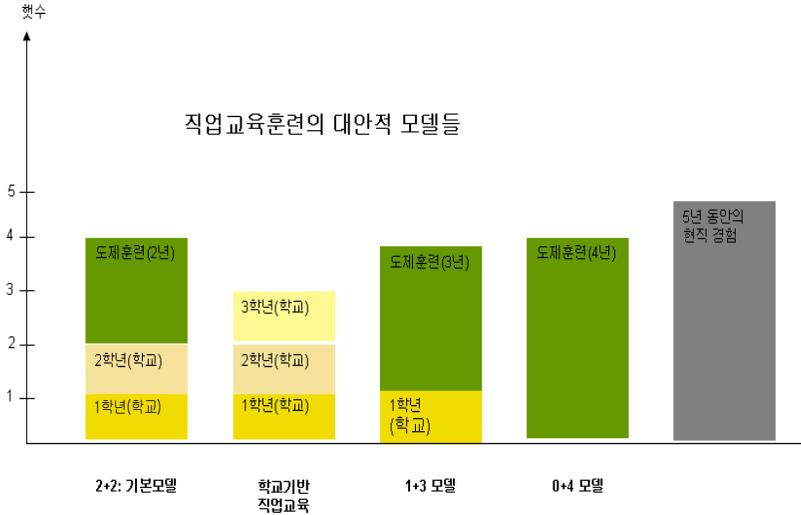
도제훈련에 필요한 요건은 단 한 가지이다.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과정의 입문 수업을 수료해야 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21세 이상의 지원자도 도제훈련생으로서 초기직업교육훈련 전체 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인원을 선발할 시 어린 지원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고용주는 나이가 더 많은 지원자를 도제훈련생으로 선택해도 상관없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보통, 학교에서의 2년과 기업체에서 도제훈련을 받는 2년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2년 동안에는 이론 학습과 더불어 워크숍을 통한 실습, 단기 현장실습이 제공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을 2+2 모델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3+0, 1+3 또는 다른 방식의 조합이 가능하다.

현장에서의 도제훈련 과정은 학교에서의 1년간의 훈련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일 도제훈련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경우, 학생들은 학교에서 1년 더 훈련받을 수 있고 학교는 도제훈련의 대리기관으로 인정된다. 도제훈련

을 3년간 수료했건, 학교에서 3년간 훈련했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와 시험에 응할 자격을 갖는다.

[그림 5-7] 노르웨이 고교 직업교육훈련의 다양한 모델



출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청 담당자 발표 자료

[그림 5-7]에서의 1+3 모델은 전통 목공예와 같이 실질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경우에 많이 채택되며, 학생이 학교에서의 이론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고자 제공되는 모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현장의 양해 하에 현장실습 기간에 짬을 내어 이론 공부를 마치고 일정한 수준을 통과해야만 최종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게 된다. [그림 5-7]에서의 맨 오른쪽은 고교 단계를 이수하지 못한 성인이 현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자격인정절차를 밟아서 고교졸업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4. 졸업자격 인증 체제, 중도탈락, 제도적 유연성

가. 졸업자격 인증

학생들의 역량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주에서 개발한 개별 과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또한 공통핵심과목에 대해서는 전국 차원에서 행하는 평가에 무작위로 선별되어 평가에 응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기능사 평가(trade and journeyman's examination)로 완료된다. 이 평가는 며칠 동안 치러진다. 이 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직종 자격(Fagbrev, trade certificate)을 취득하거나 전통적 기량에 대한 기능인 자격(Svennebrev, Journeyman's certificate)을 취득한다. 이 두 자격은 지위가 동등하고 유사한 이론적 정보와 실질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격 취득자에게는 기술교육전문대학(fagskole, Tertiary Vocational Education College)에 입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1년간의 공통핵심과목에 대한 보충을 통해서 대학 입학 요건을 갖추는 경우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시험은 종합적, 현실적, 실제적인 시험을 통해서 치러지고, 분야에 따라서 5시간에서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된다. 시험 장소는 학교 또는 기업이며,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이 가능하다. 이 때 회사는 다시 시험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은 카운티가 지급한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수수료증을 받고, 도제훈련이 끝난다.

이러한 평가를 주관하는 것은 주정부이며, 각 주는 직종별로 최소한 하나의 평가위원회를 갖춘다. 각 주에서 속한 직업훈련 평가위원회(Examination Boards)의 구성원은 지방 의회가 4년에 한 번씩 임명한다.

각 평가위원회에는 관련 분야에 대한 검증된 역량과 경력을 갖추고 있는

두 명의 위원이 있다. 주요 업무는 직종 및 기능인 평가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조직, 실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는 교육훈련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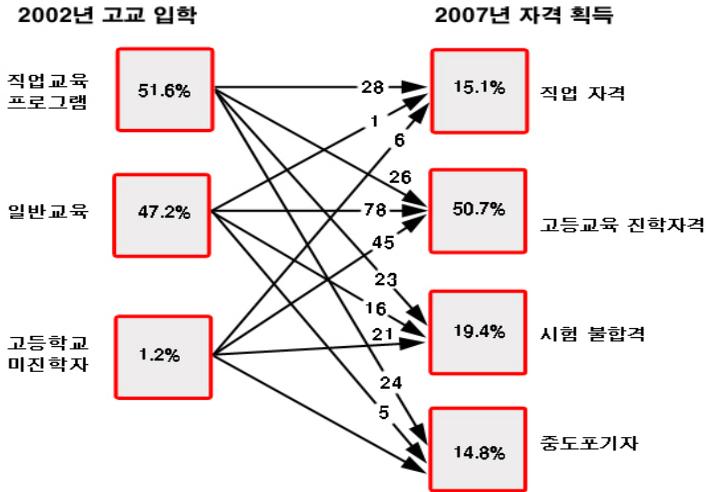
< 노르웨이 고교 단계 교육에서 발급되는 자격 >

- 능력 자격증(Certificate of Competence)
능력 자격증(kompetansebevis)은 고교 단계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했음을 입증한다. 능력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고교 단계 교육 및 훈련 자격, 기능사 자격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은 아니며, 성공적 이수와 상관없이 자격증 발행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발행 가능하다.
- 고교 단계 교육 및 훈련 자격증
고교 단계 교육 및 훈련 자격증(vitnemål for videregående opplæring)은 3년간의 교육 및 훈련의 성공적인 이수에 관한 증빙 문서로, 이 자격이 있을 시엔 대학 교육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고 직업능력에 대한 증빙 문서가 주어진다.
한편 매년의 결석사항이 일, 시간 단위로 자격증에 기재된다. 결석 사유를 자격증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능사 자격(craft certificate and journeyman's certificate)의 실기시험 결과는 3단계의 등급 척도(뛰어난 성적으로 통과, 통과, 통과 못함)로 제시된다. 시험에 대한 평점을 기입할 경우에는 시험 방식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필기시험은 S("skriftlig"), 구술 시험은 M("muntlig"), 구술-실기 시험은 MP("muntlig-praktisk"), 실기시험은 P("raktisk")로 표기한다.

나. 중도탈락

1) 중도탈락 현황

[그림 5-8] 2002년도 고교 입학생의 5년 후 성과: 자격취득 및 중도탈락률



데이터: 노르웨이 동남지방의 9,749명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부터 도출된 자료(Markussen의, 2008)

출처: Høst(2008).

고교를 입학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졸업 및 상급학교 진학, 자격 취득에 관한 Høst(2008)의 연구에 의하면, 노르웨이 고등학교에서의 중도탈락률은 약 15% 내외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속했던 학생들로서 그들 중 약 24% 정도가 중도 탈락하였다. 각 교육 프로그램 사이에는 중도탈락률에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호텔 및 조리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절반 정도가 수료 전에 그만두었다. 직업계 고교 입학생 중 30%에 다소 못 미치는 학생들이 직업자격을 취득하고 15%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진학 자격을 취득하였다. 호텔 및 조리 프로그

램에서는 29.5%의 학생들이 상위교육 혹은 직업으로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고교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시험 탈락, 과목이수 부족, 과목별 점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직업 자격이나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비율은 2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일반계 고교를 졸업한 학생의 75% 정도가 상급학교 진학 자격을 취득하였고, 15% 정도는 그 자격을 아직 얻지 못했으며, 4% 정도만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주 소수(2% 내외)이기는 하지만 일반계 고교 졸업생 중에서도 직종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직업계 고교 학생의 중도탈락 이유

초반에 중도탈락하는 학생의 경우, 이론의 비중이 높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동기유발이 안 되는 것이 주된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들의 경우, 아예 초반부터 도제제도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선택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그 프로그램의 질은 카운티에 따라서 매우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2년 동안의 학교에서의 학습 기간이 끝나고 도제훈련을 받고자 하나 적절한 도제훈련 기업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가운데 중도탈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나 도움은 카운티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에 대안을 찾아 나서는 기간이 길수록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은 낮아지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Høst, 2008)에 의하면 이 중의 몇 학생들은 고교 졸업을 위하여 돌아오기도 하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Høst(2008)가 40명의 중도탈락생(건강 및 사회적 돌봄, 건축 호텔 및 조리 분야)을 대상으로 면담한 결과 중도탈락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 및 사회적 돌봄 분야(Health and Social Care)는 여학생의 비율이 높으며, 주된 중도탈락의 이유로 사회적 소외, 즉 따돌림을 이유로 들었다. 사회적

소외로 인해 혼자가 됨을 경험한 여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 두는 결정을 하게 된다. 건물건축 분야(Building Construction) 학생들은 교육 수준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나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중도하차하게 된다. 또한 교내 폭력도 남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호텔·요리 분야(Hotel and Food-Processing) 학생들은 현장훈련에 대한 불만족, 친구 및 교사로부터의 괴롭힘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3) 중도탈락을 야기하는 구조적 문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한 고등학생이 2학년에서 3학년을 거치는 시기, 즉 학교에서 실습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실습을 신청한 16.1%의 학생 3명 중 2명이 원하는 도제훈련을 할 수 있었다. 도제훈련을 하지 못한 3분의 1의 학생들은 두 가지 다른 선택을 하였다. 일부는 고등학교 교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시도했고 나머지는 중도 하차하였다. 도제훈련을 신청한 학생 중 중도탈락한 학생은 17.5%로 집계되었고 이들 중 절반은 2학년과 3학년 사이에 중도탈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전체 중도탈락한 학생 중 5분의 1 정도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도제훈련을 하려는 젊은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원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탈락함을 보여준다.

Host(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제훈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높아진다. 1학년 때의 높은 성적, 2학년 때 모든 시험에 통과했을 때,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2학년 때 결석률이 낮을 때,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용주들이 보다 적절한 도제생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단지 실습의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기업에서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 제2의 기회 제공

노르웨이 교육 관계자들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고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교육법 상에서 학생 개인은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사학적 선언을 넘어선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덜 되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맞물린다.

노르웨이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학업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과 원인을 개인에게 두기 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일각에서는 고교 졸업 자격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단지 소수의 이상이 아니라 교육법 상에 명시된 내용이며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고교 교육과정에서 성취한 것을 인정하려는 원칙으로서 이것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Høst, 2008). 실제 노르웨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시도라 하더라도 그 기본 방향은 주목할 만하다.

낮은 수준 성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함은 중도에 탈락하거나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드물며 중도탈락자들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바탕을 이룬다. 현재 노르웨이 노동시장에서는 이들이 고교 단계에서 이수한 내용에 대한 자격증을 갖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많으므로 어떤 식으로든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은 인정해주자는 의견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비중의 이론 공부와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높은 데 있다고 보고, 아예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기준과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고교 단계에서 성취하도록 하고, 이를 성취했

을 경우 인정해주자는 입장이다.

각 주에서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수(follow-u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과 연락할 의무가 주 정부에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들을 학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Cedefop, 2009b).

5. 교사

노르웨이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 담당 교사는 이론과 실습을 모두 담당한다. 원칙적으로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다른 일반 교과를 담당한 교사 간의 차이는 없다. 모두가 두 가지 공식 자격증 즉, 해당과목 자격증과 교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교사에게 요구되는 공식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서 상술하고 있다.

가. 교사 훈련 프로그램

고등학교에서 정규직 직업교육훈련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공식 교사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직업교육훈련 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공립대학과 단과대학에서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교육연구부의 지침에 따라 상세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연구부의 지침에는 교육 내용 및 체계, 다양한 직업 과목에 대한 교수법 및 평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소간의 유연성이 인정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각 고등교육기관 자체 위원회와 교육 분야 질 보증 국가기구(Norwegian Agency for Quality Assurance in Education)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학사 3년과 석사 2년이라는 국제 학위 시스템을 따른다. 직업교육훈련 교사 훈련은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와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별도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1) 실용적 교육학 교육 모델(실기 우선 이론 나중 모델)

이 모델은 직업과 관련된 전문적 스킬을 이미 갖춘 사람이 1년 동안 또는 2년간의 파트타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사가 되는 경로이다.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입학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자들에게 대학입학자격을 요구하지는 않으며 4년간의 현직 경험과 해당 직종에서의 전문성을 기초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60ECTS(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유럽학점이전체계)를 포함하며, 학습의 주요 영역은 교육학 이론, 직업 교수법, 수업 및 훈련 실습이다 (최소 12-14주).

2) 직업훈련교사 교육(이론과 실기 동시 모델)

동시 모델은 3년간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으로, 직업 훈련 및 교육학을 포함한다. 이 과정 또한 4년 6개월간의 파트타임 프로그램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종종 성인 교육으로 취급된다. 입학 요건은 일반적인 대학 입학 자격, 또는 공식 승인받은 직업 자격과 2년간의 관련 직업경험 장기 재직 경력(25세 이상의 성인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개별 기관에서 맡는다)을 갖추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사 학위와 고등학교, 기술학교, 초등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수여한다.

한편, 기업체에서 훈련생에 대한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훈련제공자(trainer)는 특별히 요구되는 공적인 자격은 없으나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나. 직업교육훈련 교사 및 훈련제공자의 역할

노르웨이의 교육은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고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사와 기업에서의 훈련제공자는 정책 형성, 교육과정, 평가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적 파트너의 일원으로서 중앙 및 지방 위원회에 참여하여 정책 입안에 참여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교사는 직업교육훈련청에서 교육과정개발 시 참가하여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현장훈련담당자는 섹터 단위(sector-based)의 지방 평가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시험을 개발하고 지원자를 평가한다.

<표 5-6>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에서의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현장훈련담당자의 역할

활동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현장훈련담당자(Trainer)의 역할
정책 형성	삼자 협력 제도의 일환으로, 직업교육훈련 교사는 정책 입안에 참여한다.
국가적 실러버스 개발	직업교육훈련 교사는 관련 국가기구에서 임명하는 그룹에 참여하여, 교사 훈련을 포함하여 자신의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지방 행정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을 설계, 관리할 목적으로 주정부가 임명한 지방 협의회에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참석한다.
평가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현장훈련담당자는 섹터 단위(sector-based)의 지방 평가위원회에 참석한다. 시험을 개발하고 지원자를 평가한다.

출처: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6. 진로지도

가. 기본 전략

진로지도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일부 사기업에서 제공한다. 교육법에서는 초등, 중등교육 과정의 학생들이 “교육, 진로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필수적인 지도”를 받을 권리가 있고 각 학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보통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사가 직업 및 진로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적인 교사가 그룹별, 개인별로 지도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도와 더불어 주(州)의 추수 서비스(Follow-up service)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6-24세의 청년층 가운데 학생도 아니면서 일자리도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훈련 또는 직업 소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 시행 방식

노르웨이에서 진로지도는 초등, 중등 교육의 일부이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사들이 진로지도를 제공하고 또한 학교 측의 여러 가지 노력을 조정한다. 학교 전체가 진로지도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일반적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학교와 기업 간의 연계가 적극 장려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 정보의 기초, 다시 말해 일의 종류 및 취업 기회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 검사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프로그램과 개개인의 성격에 맞는 훈련과 직업 정보 제공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지역 기업 방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초등, 중등학교와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의 모든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주 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배치(work placement)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방식의 주체적인 교육 선택이 이 교육과정에 보장되었는데, 기업가 훈련을 위해 학생 기업 설립이 장려되고 있고 학교와 지역 기업의 도움을 받고 있다.

주에서는 초등, 중등 교육 및 훈련 과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및 진로 박람회를 조직한다. 이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훈련 제공자들과 각 직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인재를 채용한다. 중등 교육 과정의 학생들은 이 박람회에 참석 가능하다. 주의 추수 서비스(Follow-up service)는 개개인에 맞는 훈련 및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퇴학한 학생들과 다양한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한다.

다. 진로지도 담당 인력

초등,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지도는 전문 기술을 갖춘 전문 교사가 제공한다. 2009년 봄부터 교육법에서는 이 교사들에게 최소한의 훈련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 전문교사는 정규 교사직과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학교 상담자 역할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년간의 국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지도 역할과 직업적 지도 역할을 다른 서비스 분야에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의 분리를 시도해보았다. 또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무난하게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 상담자들 간의 상호협력을 개선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면, 상담 서비스의 분리는 직업교육훈련 분야에 유익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위원회에서는 상담 서비스 분리 및 일반적인 진로 지도에 대한 방법론적 핸드북을 발행했다. 이 백서 16호(2006)에서는 지도 서비스의 분리를 두고 전체 학교가 따라야만 하는 표준적 해법이라 언급하고 있다(Cedefop, 2009b).

제4절 세계화 동향 및 혁신 사례

1. 최근의 개혁

가. 지식 촉진 개혁(Knowledge Promotion Reform, 2006)

지식 촉진 개혁은 초등 및 중학의 10년 동안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와 조직에 관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개혁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역량 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이는 각 학생이 가진 능력과 태도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정책에서 포함하고 있는 주요 변화는 기초 역량의 강화를 강조하며, 이를 위하여 과목당 수업시간을 새롭게 배분하고, 새롭게 제작되는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한다. 또한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수준의 자율권을 더 강화하였다. 학교와 훈련기관 간의 협력을 증대하는 것이 이 개혁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 개혁은 2006년 가을부터 10년 의무교육과정의 1-9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고교 교육훈련의 1학년 학생들(11학년)에게 적용되었다. 아래의 내용이 지식장려로부터 발생한 노르웨이 학교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변화들이다.

첫째, 기초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독해와 작문에 중점을 둔다.

셋째, 모든 교과와 과목 요강에서 학생과 현장실습생들이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한다.

넷째, 과목당 수업시간을 새롭게 분배한다.

다섯째,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 가능한 선택의 구조를 새롭게 제시한다.

여섯째,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수준의 자유를 확대한다.

이 개혁에서는 해당 학교가 학생들의 기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적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07년 가을에 시작된 노르웨이어와 영어의 독해 시험, 수학시험은 5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험 결과는 학교의 질적 발전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지만 학교별 순위는 제공되지 않는다. 2006-2007년에는 2학년을 대상으로 독해 과목의 의무교육 검토 평가가 실시되었다. 추후에 수학과 수리적 사고에 대해서도 검토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Directorate of Educational and Training, 2006).

나. 역량 개혁(Competence Reform, 1999-2004)

노르웨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삶의 질 보장 및 계급 간 갈등 예방을 위하여 한 국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교육을 잘 받은 국민이 되도록 지원하는 일이라는 공감 하에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전국 단위 임금 협상의 결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 “역량 개혁”의 주요 목표는 기술과 지식 측면에서 개인과 사회, 직장의 요구를 충족하고 또한 성인에게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개개인의 자격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1999년-2004년 기간 동안의 역량 개혁의 주요 결과 중 하나는 모든 성인에게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는 2000년 가을에 발효된 반면 초등, 중학교 교육에 대한 권리는 2002년 8월에 발효되었다.

최근 들어 성인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중도에 탈락한 집단의 교육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학력이 낮은 성인과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다양한 집단, 또한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및 성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6년에는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기반의 기초 역량 숙련 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직장 외부에서 조직되는 프로젝트 역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프로젝트의 목표가 개개인이 직장생활에 잘 대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는 성인 개개인에게 기초 역량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현대의 직장 및 시민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세계화와 EU의 흐름에 대응하는 전략

가. EU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발의에 참여

노르웨이는 여타 유럽 국가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상호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다. EU의 정회원은 아니지만,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을 통해 단일 유럽 시장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수출입 면에 있어서 EU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다. 따라서 유럽국가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이 단일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EU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노르웨이는 Youth, Socrates, Leonardo da Vinci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Cedefop)와 Eurydice(유럽 31개국의 정보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는 볼로냐 프로세스³³⁾, 리스본 전략³⁴⁾ 및 코펜하겐 프로세스³⁵⁾를 엄밀히 따르고 있다. 노르웨이 직

33) 유럽 대학교육 통합 프로세스

업훈련생, 학생, 젊은 노동자들의 유럽 내로의 이동성은 이러한 프로그램과 양자 협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개혁은 현대화되고 역동적인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의 야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이 분야에 있어서 노르웨이에 미치는 유럽의 영향력은 중요하다.

나. 직업교육훈련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강조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과목에서 영어는 필수 과목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영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학습은 선행 지식에 기초한다. 고등학교 직업훈련 과정의 학생들은 2년간 주당 2시간의 영어 학습을 한다. 무역 용어가 이 교육과정의 주를 이루지만 이뿐만 아니라 더욱 보편적인 영어 기술, 예컨대 보고서 및 전문적 문서 작성법도 제공한다. 호텔과 요식업 훈련 과정에서는 불어와 독일어를 제2,3의 외국어로 가르치고 있다. 핵심 교육과정에 따라서, 방법론은 유연하며 학습 환경은 학생 개인의 필요와 능력에 맞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젝트, 예컨대 국제 이동성 프로젝트를 이 교육과정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르웨이 학생들은 해외의 교육 및 훈련과정에 접근할 수 있고, Euroguidance³⁶⁾, Socrates와 Leonardo da Vinci에 의해 지원받는 각 학교 정보를 제공받으며 해외에서 1년간 중등 교육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훈련생에게는 해외로의 직장배치와 유학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의 자격이 주어진다.

-
- 34) 2000년 3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합의, 서약한 유럽연합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2010년까지 미국과의 경제격차를 만회하자는 것이 골자
- 35) 직업교육과 훈련 체계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 32개국이 참가한다. 유럽 간 교육학점 이전 체계와 직업 자격증 상호인정 방식을 구축 중에 있다
- 36) 유럽 차원의 진로 안내 네트워크. 레오나르도 다 빈치 프로그램의 일부로 EU, EEA 회원국 간의 이동성 촉진을 목적으로 함

다. 고등교육의 질 개혁

볼로냐 프로세스의 요지를 실행하기 위하여 노르웨이에서는 최근에 고등 교육에서 질 평가 수단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과 세계화를 우선순위에 두는 유럽학점이전체제(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ECTS)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학위 시스템은 3년간의 학사과정과 5년간의 석사과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일반 및 직업분야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모듈 방식으로 유연한 구조이다. 이를 위하여 노르웨이는 고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책임지고 또한 해외에서 받은 학위나 직업 훈련의 승인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교육 분야 품질 보증 국가기관(NOKUT)을 새로 설치하였다.

질 개혁에 따르면 고등교육 및 훈련 과정의 모든 학생들은 교육 및 훈련 과정의 일부로서 해외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실습이 의무적인 직업 교육을 위해 아마도 훈련기관, 혹은 해외의 회사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고등훈련 기관은 훈련의 일부로서 학생들을 훈련기관이나 회사에 배치하는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고 있다. 정부 학자금 대출 펀드에서는 고등 학교 교육 및 고등 교육과정을 위해, 또한 현장 훈련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보조금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 정부는 EU의 정치 프로세스에 따라 이전 학습(prior learning)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몇몇 훈련 분야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이 평가가 인정되고 있다. 2004년 이후부터는 모든 주의 더 많은 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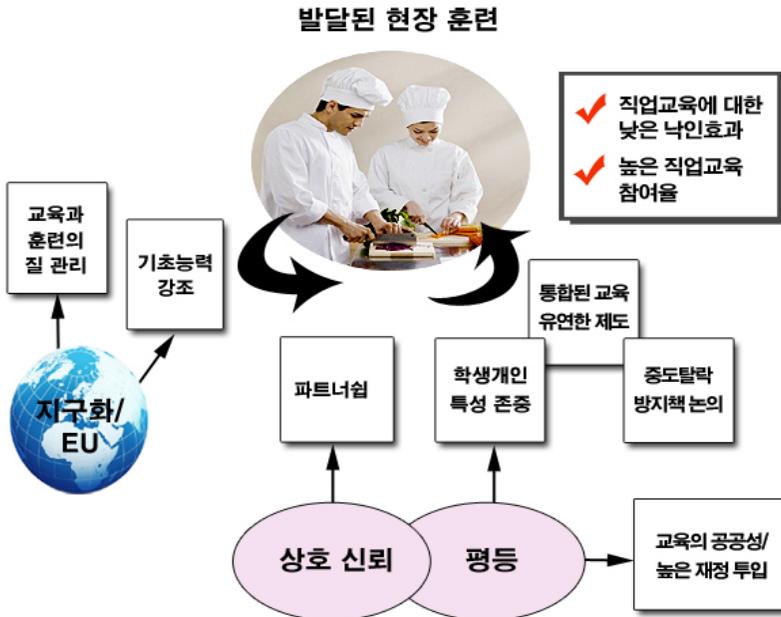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1.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 체제의 주요 특징

가. 평등과 상호신뢰의 원칙을 바탕으로 발전해온 체제

노르웨이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은 그 사회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평등과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9]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특징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속에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

난 수 십 년간 노르웨이의 다양한 정권이 이 이념과 목표를 달성하고자 갖은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르웨이의 교육과 훈련은 공적 영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사회적, 지리적 요인에 상관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 원리이다.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공교육 내에서 수업료는 없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교육으로 인한 갭을 우려하여 사립학교 설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전문가 면담 내용).

OECD 국가들 중에서 GDP 대비 교육비 투자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며 특히 이러한 교육비 투자의 대부분이 공교육비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평등의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개인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가 파생되었으며, 이는 유연하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낳았다.

또한 사민주의의 전통 하에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훈련의 내용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깊숙하게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지역의 높은 자율성

노르웨이의 행정체계는 19개 주(counties)와 431개의 시(municipalities)로 구성된다. 각 단위별로 지역에서 선출한 의사결정 조직체가 있고 관련 의회에서 선임하는 행정조직이 있다. 지방의 자율성은 노르웨이의 강력한 원칙이다. 노르웨이는 지방자치가 발달된 국가로서 국가적 수준에서 교육 연구부(Kunnskapsdepartementet,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는 국가 정책 개발과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는 각 시 또는 주에서 소유하고 운영한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고등교육 이전 단계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조직으로 노르웨이 교육훈련청(Utdanningsdirektoratet, Udir,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을 2004년에 별도로 설립하여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산하에 배치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강화된 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의 평가도구의 개발 책임도 이 기관에서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에서, 반면 공립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의 모든 영역은 주 당국에서 책임진다. 이를 위해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만 실행과 관련해서는 교육과정 요강을 준수하고, 질 관리 체계에서 요구하는 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사회적 파트너와 더불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다. 특히 최근의 지식축진개혁을 통하여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 수준의 자율권을 더 강화하였다.

다. 사회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직업교육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은 기업주 및 근로자가 직업교육훈련의 내용 결정, 실행, 자격 인증 등 전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가운데, 노동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에는 상호신뢰와 협의의 원리에 입각해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간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이 바탕을 이룬다.

도제훈련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정부 당국과 사회적 파트너는 교육훈련, 전 직원의 역량 제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함께 분담한다.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에서도 사회적 파트너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노사정간의 상호신뢰는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노동시장 적합성을 지니며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이루어왔다. 이는 오랜 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협력해 온 경험에 바탕을 두고 노사정간에 투명하게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전통에 근거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기술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라 요구되는 훈련에 대한 논의가 고용주 및 근로자의 의사결정 조직체 간에 빠르게 이루어진다.

라.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핵심 요소로서의 도제훈련

2006년 기준, 60%의 학생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나, 그 기간 중에 도제훈련에 참가한 학생의 비율이 13%에 그친다. 이렇듯 도제훈련의 비율이 낮은 것은 도제훈련이 발달된 독일, 덴마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직종에서 도제훈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직종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성격 상 현장에서의 훈련보다 학교에서의 훈련이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르웨이 직업교육에서 도제훈련은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기본 모델은 2+2로서 학생들은 2년 동안의 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통하여 기초역량을 제고하고,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 및 세부 직종과 관련된 이론 학습을 마친 후에 도제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도제훈련은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기업, 학생 간의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주에게 2년 동안 약 1,200유로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업은 학생들에게 숙련된 근로자의 30%-80% 수준의 임금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상하면서 지급한다.

도제훈련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주 행정 담당자, 기업의 대표, 노동자 대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계약의 체결과 훈련 제공 비용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지역의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훈련사무소(training offic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질 제고를 위한 적지 않은 규제와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가 소규모의 기업인 노르웨이에서 도제훈련 제공이 기업에게 도움이 된다고 기업주가 판단하는 데는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자격 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도제훈련 제도의 확립과정은 오래된 도제훈련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전통적인 수공업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 없이도 자체적으로 도제제도를 일구어 왔던 직종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질 높은 도제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나, 서비스 직종과 같이 새롭게 대두되는 직종에서는 도제제도가 확립되지 못하고 빠져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이 도제훈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와 유사한 상황이거나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사실이다.

<단기간 체험(work placement)>

- 학생들은 학교 재학 중에 산업현장에 익숙해질 기회를 갖는다.
- 산업체는 학생과 학교에 익숙해진다.
- 직업계 고교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직종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지식을 갖는다.
- 모든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갖는다.
- 이후의 교육에 대한 동기를 제고한다.

(출처: 오슬로 교육청 담당자 발표 자료)

도제훈련과는 다르지만 노동 시장에 밀착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장체험학습도 주목할 만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1-2주 동안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체험을 하게 된다(work placement). 이러한 단기 현장 체험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익숙해질 기회를 가지게 되며, 학생들은 직업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

마.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지역과 학교를 넘나드는 선택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서는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 실제로 오슬로 지역의 경우, 산업체의 수에 비하여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기준에 비하여 낮은 편이므로 타 지역의 학생들이 오슬로에 와서 도제훈련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학생들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받는 임금과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대출을 통하여 비용을 충당한다. 각 학교별로 9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며, 동일한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되는 직종 코스 또한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일한 전공 내에서 학교를 변경하여 코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와 지역을 넘어서 지원을 허용하므로, 특정학교 특정 프로그램에 지원 학생이 많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학교 때의 학업 성적이 기준이 되고 있다. 동일한 전공 내에서는 고교 1학년 때와는 다른 학교에서 고교 2학년을 보낼 수 있다

2) 도제훈련의 다양한 모델

노르웨이는 교육법 상에서 학생 개인은 자신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덜 되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맞물린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제도적으로도 개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특히 직업교육에서의 도제훈련에서는 기본

모델이 2+2이지만, 학생이 학교에서의 이론 학습을 버거워할 경우, 먼저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론 과정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며, 학생들이 현장에서 도제훈련을 받으면서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성인학습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며 더 많은 자기통제와 인내심이 요구되기도 한다(전문가 면담 내용).

개인의 태도와 능력에 맞추어 학습과정과 교육방법을 조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로서 교사들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직업훈련교사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교사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최근에 약간의 보수 인상이 있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실행은 발견하지 못했다.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유연성은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만이 아니라 직종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교 기반의 훈련, 이론의 비중 등을 달리 할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되어 이동이 가능

노르웨이는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과 시행 차원에서 이 둘의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교육 평등 촉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간에 공식적인 차이를 배제하고 동등한 교육 자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제도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입직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은 같은 수준의 일반교육과 공식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두 경로간의 이동이 수월하

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한 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두 영역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습이나 직종에 특수한 이론은 물론 코스에 따라서 다르지만, 2+2 모델에서 학교에서 2년간 제공되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은 모두 일반교육 과정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일반이론 수업을 포함한다. 이는 직업학교 학생이 일반 교육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최근의 지식촉진개혁(knowledge promotion reform)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직업계열 학생이 일반계로 이동하길 원하거나 대학입학에 필요한 공식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고등교육 과정 진학에 필요한 보충 과목을 제공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1년간의 보충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전환이 가능하다.

계열간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교육 과정에서 직업교육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까다롭다. 왜냐하면 각 직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직종에 특수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계 학생이 직업계열로 이동할 경우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국제화에 대한 대응

노르웨이는 2006년 의무교육과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와 조직에 관한 지식촉진개혁(knowledge promotion reform)을 단행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기초 역량 제고를 목표로 실행되었다. 기초역량(basic skills)의 강화, 이를 위한 과목당 수업시간의 새로운 분배를 통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수법, 교수자료, 수업의 구조에 관하여 지역 수준의 자율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이 개혁에서는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제2외국어 공부를 필수화하였으며, 노르웨이어와 영어에 대한 심화학습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학교 평가 및 교육청 평가를 위한

국가적 수준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의 개혁은 국제화의 흐름과 밀접하다. 노르웨이는 유럽 질 프레임워크(EQF)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유럽학 점이전체제와 국제 학위 시스템이 고등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다. 기초능력의 강조, 영어와 제2외국어의 강조는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Socrates와 Leonardo da Vinci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에서 1년간 중등교육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훈련생에게는 해외로의 직장배치와 유학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의 자격이 주어진다.

사.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수 서비스

각 주에서는 추수(follow-u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과 연락할 의무가 주 정부에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들을 학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고교과정을 이수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자격으로서 고교 졸업 자격 취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노르웨이는 경험에 기반한 직종 자격증 제도가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현 시스템 속에서 성인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직업훈련 종료 시 받는 자격증과 동일한 직종 및 기능인 자격을 갖고자 할 경우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새로운 직종의 생성에 따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성인 자격 지원자(practice candidate)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을 인정하게 하는 시스템이다(Cedefop, 2009b).

아. 높은 직업교육 프로그램 선택, 상대적으로 낮은 스티그마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낙인이 적다는 것이 OECD 직업교육 전문가 집단이 검토한 결과이다(OECD, 2008b).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생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는 사실이다. 이는 전통으로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는 94년의 개혁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체계화하고 직업교육 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그 결과 1994년에 44%였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은 60%를 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학생의 최소한 50%가 직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치인과 사회적 파트너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온 결과이다.

직업교육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교내 상담자, 사회적 파트너, 주 정부는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 캠페인에 정기적·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로 선택에 필요한 현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도제훈련을 시행할 기업을 조직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Cedefop, 2009b).

그러나 노르웨이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낙인효과가 적다는 것은 정책 차원에서의 평가 결과이며,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전문가 혹은 실천가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노르웨이에서조차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며, 대도시와 같은 오슬로 지역에서는 70% 이상이 일반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5년 동안의 대세로 보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는 정치적 결단, 그에 따른 많은 투자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르웨이가 직업교육에 대한 스티그마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유럽 내에서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와 비교한다면 높은 편이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과 비교한다면, 스티그마가 낮은 편인 셈이다.

자. 남아있는 문제들

이상에서 검토한 노르웨이 직업교육의 특징은 주로 장점으로 부각할만한 사항들이었다. 그러나 노르웨이 시스템도 문제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하여 검토한 OECD 전문가들은 노르웨이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노동시장의 수요와 학생의 요구 간의 미스매치, 현장훈련 질 관리 시스템의 미비, 직업교육훈련교사의 고령화, 직업교육훈련관련 체계적 데이터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정책 개발의 부족을 들고 있다(OECD, 2008b).

1)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노르웨이 직업교육훈련에서의 프로그램 선택에서 학교는 최대한 학생의 1차적인 선택을 중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가능한 현장훈련 자리와 갭이 생기게 된다.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당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생 개인의 선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고자 하는 원칙은 조만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전문가 면담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미스매치로 인하여 학생들이 현장훈련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경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경로를 바꾸거나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여 이러한 갭으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도제 훈련: 제한된 직종, 후발 직종의 어려움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1970년대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왔으며, 1994년 개혁 이후 안정적인 훈련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94년 이전에는 섹터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산업과 교육 간에 전통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으며 이 둘 사이의 연결은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도제훈련에 바탕을 둔 직업교육훈련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끝나게 되면 더 증가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이제 최고점을 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독일이나 덴마크에 비교할 때 노르웨이는 제한된 직종이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 섹터와 같이 도제의 전통과 무관하게 인력을 충원해왔던 직종에서 새롭게 도제훈련제도를 도입하고자 한 경우, 도제의 전통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비스 섹터의 경우 매우 이질적인 직업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낮은 스킬 수준의 근로자나 고학력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도제제도가 자리잡기 어려운 현실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서비스 섹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며, 어쩌면 이러한 섹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훈련보다도 기초역량을 갖추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2. 정책 시사점

가. 공교육비 비중을 높여서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

우리나라 교육비 투자는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용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

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09a).

반면, 노르웨이는 공교육비의 거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서 명실 공히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고 이를 실제로 사회시스템으로 구현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 할 방향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것의 핵심 기제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갈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 지역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중앙의 체계적 지원

노르웨이의 초중고 학교는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실행의 주체가 되고 있다. 중앙의 교육부와 그 산하의 교육훈련청에서는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자치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직업교육의 실태는 수도권 지역 및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구성된 교육청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차이가 고려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 지역은 아직 현실에 뿌리를 내린 적절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기에 적절한 행정·재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며, 나아가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참여 확대

노르웨이의 직업교육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산업체가 체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의체가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실행의 주체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현재 11개의 산업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교육에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 전문 역량 축적 및 안정적 예산 지원, 조직의 법제화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별 협의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맥락을 살펴보고 한국식 산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볼 수 있다. 시민주의의 전통 속에서 발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노르웨이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은 문화자산이며, 이를 우리 사회에 그대로 이식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는 전 사회적인 노사정파트너십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별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 체결, 1社1校 결연을 통한 상호 교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엽적인 협력은 직업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가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는 대다수의 학교를 배제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보다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라. 직업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훈련 비중을 높임

현재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에서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된 가운데 시행하는 훈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노르웨이의 도제훈련 제도와 유사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하고자 한다면, 산업체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기업이 중요시하는 스킬을 실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록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 산업체의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제훈련을 통하여 교육을 시킬 경우,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저렴한 가격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미숙련기간 동안의 훈련에 대하여 기업에게 비용을 지급한다.

노르웨이 직업교육에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과정의 구성 과정에 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학교가 키워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계 고교의 직업교육과정 구성과정에서 산업체의 체계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해야 한다.

도제훈련의 실시는 학생과 교육청 기업 간의 공식적인 계약체결로부터 시작되는데, 실기능력 평가를 통한 자격증 부여까지 많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며, 훈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기 위한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노르웨이에서는 몇몇 기업이 연대하여 훈련사무소를 설치하고 이 기관을 통하여 이와 같은 행정적 절차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업에 속하며, 독자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운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훈련사무소를 설치하여 도제훈련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체에 현장훈련을 의뢰했을 경우, 각 기업의 훈련담당자들이 교육담당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숙지시키고, 단순 허드렛일 담당자가 아닌 학습의 기간이라는 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 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교육비를 기업에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2년 동안의 도제훈련 동안 12,000유로가 학생 1인당 지급되며, 이는 미숙련 기간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우리의 경우도 만약 전문계 고교생을 6개월 동안 현장 훈련에 참가시킨다면, 국가가 그 기간만큼 학교에 지원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에 준하여 기업에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고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고교 졸업 기능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로서 일반화하기에는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스킬 수준이 매우 다양한 수준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계 고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없지 않으리라는 가정과 함께,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계 졸업자의 역량에 대하여 탐구하고, 전문계 고교 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그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조차도 도제훈련의 전통이 부재한 직종에서 도제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때,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장훈련 제도를 도입했을 때, 가정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훈련 제도 도입을 사회적으로 합의한 경우, 이것이 뿌리내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를 통하여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높임

노르웨이에서는 학생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그 대신 일반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아야 한다. 현재의 전문계 고교는 진학을 위하여 거쳐 가는 과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학생이 고등교육으로의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학습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이론 교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요청된다. 학생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 실제로 진학을 위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동을 허

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동이 가능하기 위하여 최대한 두 계열간의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현장훈련을 비롯하여 실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직업교육훈련에서 2+1.2.5+1, 1+2, 0+3, 3+0과 같이 다양한 트랙을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의 특징과 분야의 특성에 따라서 현장에서의 훈련과 이론에 바탕을 둔 학교 수업의 비중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를 넘나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의 경우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를 넘나드는 선택이 가능하며, 학생이 지역을 이동하여 학교에 다닐 경우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생계보조금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제공되는 전문계 고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의 산업체의 요구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역사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반드시 학생들의 요구 차이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관심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부모의 경제력 등의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역을 이동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 직업교육의 질 관리 체제 강화

노르웨이 교육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질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상에서 요구하는 이론 및 실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해당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육과정의 구성, 도제훈련, 자격증의 부여 과정에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이 자격증은 노동시장에서 바로 통용되며, 동시에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격증으로도 통

용된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 요구와 괴리되며, 별도의 직종자격 역시 산업 현장과의 밀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한편 고교졸업자격은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출결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바는 산업계 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격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종별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업데이트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자격제도, 고교 졸업인증 제도를 맞물려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 중도탈락 학생의 학업 및 취업 지원

노르웨이 직업교육에서는 나름대로의 엄격한 졸업자격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끝까지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이 생긴다. 이러한 학생들이 교육시스템 안으로 다시 들어와 졸업자격을 갖추는 것이 가능한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일단 졸업자격 취득에 실패하게 되면, 성인교육 트랙을 통해서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 통로를 열어놓고 있다. 또한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추수 서비스를 통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고교 졸업 자격 인증 체제가 매우 느슨하기 때문에 중도탈락하지 않는 한 졸업자격을 갖게 되며, 2008학년 고등학생 전체 중도탈락률은 1.81%로 매우 낮다. 그러나 전문계 고교생의 중도탈락률은 3.75%로 일반계 고교 학생들보다 훨씬 높다³⁷⁾(교육통계연보, 2009). 이러한 중도탈락자 외에도 형식적으로는 학교에 남아있지만 학교생활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며,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의 비율이 전문계 고교는 10%(국어:

37) 2008학년도 전문계 고등학생 학년별 중도탈락률을 보면 1학년이 6.4%, 2학년은 3.5%, 3학년은 1.0%로 1학년에서 탈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9%, 수학: 24.2%, 영어: 14.5%)를 넘고 있다(교육과정평가원 내부 자료, 박동열, 2009 재인용). 이러한 학생들에게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고교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중도탈락 이후의 진로경로를 살피고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큰 틀에서 보는 직업교육의 개선 방안 수립 및 실천

노르웨이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낙인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시민주의의 정치적 전통 하에 평등이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귀족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럽의 변방에서 지켜온 문화적 맥락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기본적으로 배타시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합의와 실천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시행한 결과라는 점은 우리의 직업교육관련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을 통하여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는 전도된 부양책이 아니라 직업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힘을 실어서 행정, 재정적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이 요청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리면서 제도가 부분적으로 변화한 결과, 우리나라 직업교육 제도는 매우 복잡다단하고 기형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진단하고, 직업교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며, 그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직업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장

스웨덴의 직업교육

옥준필

제1절 사회 경제적 배경



- 국명 : 스웨덴 왕국(Kingdom of Sweden)
- 수도 : 스톡홀름(Stockholm, 약 180만명)
- 인구 : 930만(2009.8월말)
- 면적 : 45만km²(한반도의 약 2.4배)
- 인종 : 스웨덴인(95%), 렉족
- 언어 : 스웨덴어, 소수민족어
- 종교 : 루터교(국교, 88%)
- 1인당 GDP: 36,371달러(2008)
- 실업률: 5.9%(2008), 8.0%(2009.8월말)

스웨덴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974년에 헌법이 개정된 이래 군주제에서 국가 원수는 정부의 결정권 행사에 단지 형식적인 기능만을 해왔다. 의회는 국가 최고의결기구이며, 1명의 의장과 4년마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민주당은 전후

1976-82년과 1991-94년을 제외하고 줄곧 스웨덴에서 집권해 왔다. 2006년 9월 선거에서 보수 우파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변화를 위한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카운티 의회가 없는 Gotland 지방자치체를 포함하여 290개의 지방자치단체(kommuner)와 21개의 카운티 의회(landsting)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스웨덴 통치 구조의 변별적인 특징은 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득세도 징수하고 있다.

1. 인구

스웨덴은 대략 450,000km²의 면적으로 서유럽 [그림 6-1] 스웨덴 영토에서 4번째로 큰 나라이다. 남북의 거리는 1,500km에 달한다. 2009년 현재 인구는 930만 명에 이른다. 인구의 90% 이상이 스웨덴의 남쪽에 살고 있다. 북쪽 지역에는 매km마다 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3대 도시(스톡홀름 주민 180만 명, 고텐버그 80만 명, 말모 50만 명)와 그 주변에 집중해 살고 있다. 2009년 7월에 스웨덴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었으나 5개의 소수 언어(핀란드어, 지방 방언, 핀란드 방언, 루마니아어, 이디쉬어(유대))도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이후 하락하여 1990년대 말에 여성 1인당 1.5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에 출산율이 상당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EU 평균보다 높은 여성 1인당 1.9명을 넘어 섰다. 기대 수명은 남성이 78.7세, 여성이 82.9세로 늘어났다. 스

웨덴의 인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웨덴도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의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5년에 150만 명이던 것이 2025년에는 2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 예산 증가와 노동력 문제 등 향후 스웨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표 6-1> 스웨덴과 EU-27개국의 연령별 인구 구조(2008년, 2050년까지 전망)

구분	0-14세		14-64세		65세 이상	
	스웨덴	EU-27	스웨덴	EU-27	스웨덴	EU-27
2008	15.7	14.6	66.8	68.3	17.5	17.1
2010	15.3	14.5	66.5	68.1	18.2	17.4
2020	16.3	14.4	62.9	65.6	20.8	20.1
2030	16.2	13.6	61.3	62.9	22.5	23.6
2040	15.2	13.0	60.6	60.1	24.3	26.8
2050	15.2	13.1	60.1	58.1	24.7	28.8

출처: Eurostat(2009).

그러나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고령화율이 낮은 편에 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 즉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과 유입 이민 인구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 거주민의 약 17%가 외국 출생이거나 부모 고향이 외국인 인구이다. 2007년에는 역이민 16,000명을 포함해서 거의 10만 명이 스웨덴으로 이민해 왔다. 대표적인 이민국은 이라크, 폴란드, 덴마크, 소말리아, 독일 등이다. 스웨덴에서는 최근 높은 이민으로 인해 이민자들을 스웨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 훈련은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스웨덴어 교육과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표 6-2> 스웨덴 이주 현황

구분	1991	1996	2007	2008
유입 이민자	49,806	93,955	99,485	101,171
유출 이주자	24,846	34,265	45,418	45,294
순 이민자	24,960	5,690	54,067	55,877

출처: Statistics Sweden(2009).

2. 경제 및 노동시장

스웨덴은 국제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07년에 수출의 반 이상이 다른 EU 국가들에 이루어졌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5%를 차지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 경제 위기 이래 스웨덴은 EU와 OECD 평균을 초과하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 왔고, 성장의 동력은 수출에서 나왔다.

<표 6-3> 스웨덴과 EU-27개국의 실질 GDP성장률%(1999-2009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스웨덴	4.6	4.4	1.1	2.4	1.9	4.1	3.3	4.2	2.6	-0.2	-4.0*
EU-27 개국	3.0	3.9	2.0	1.2	1.3	2.5	2.0	3.2	2.8	0.9	-4.0*

주: *표시한 것은 전망치

출처: Eurostat(2009).

1990년대 중반 이래 스웨덴은 저인플레이션 정책(2% 목표)과 재정긴축 정책을 결합한 정책을 써 왔다. 스웨덴이 경제를 경쟁력있게 유지·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선도 정보통신기술(ICT)과 엔지니어링 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주효했다. 스웨덴의 1999-

2006년 GDP 성장률을 보면 EU-27개국의 평균 성장률을 초과하여 달성해 왔다.

스웨덴은 경제 구조에 있어서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은 산업 부문 간에 경제 사이클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³⁸⁾ 전반적으로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은 2000년과 2020년 사이 27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54만 명이 이 부문에서 고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스웨덴은 15세-65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에 있어 덴마크와 네덜란드 다음으로 유럽에서 3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EU-27개국 중 여성 고용률이 높은 데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표 6-4> 스웨덴과 EU-27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2005-2009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스웨덴	21.7	21.5	19.1	20.0
EU-27개국	18.3	17.1	15.3	15.4

출처: Eurostat(2009).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높은 청년 실업률을 경험하고 있지만, 스웨덴의 실업률은 더 높다. 스웨덴 정부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대책들을 도입해 왔고, 최근 2009년 1월에 청년 실업에 관한 개혁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은 EU 평균보다 교육 및 훈련에 GDP 대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38) 예컨대, 건설 산업에서의 고용은 2003년 주택 건설 붐과 함께 증가했지만 2008년 가을에 시작된 경제 위기 이후 급속하게 감소했다. 장기적으로 농림업 종사자 수는 2020년까지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서비스 부문의 고용 인원은 2000년에 150만 명에서 2020년 17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교육과 보건·사회 서비스 부문(보육, 학교, 보건 의료, 노인 복지 등)에서 고용 성장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변화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인 복지 분야는 많은 고용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표 6-5> 스웨덴과 EU-27개국의 GDP대비 교육 훈련 공공 지출(1999-2006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스웨덴	7.39	7.31	7.12	7.43	7.30	7.18	6.97	6.85
EU-27개국	4.95	4.91	4.99	5.10	5.14	5.06	5.04	5.05

출처: Eurostat(2009).

3. 국민의 교육 수준

1970년대 초에만 해도 스웨덴 근로 성인의 60%가 의무기초학교(ISCED 1-2)의 교육 수준이었다. 단지 40%의 성인만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 고등교육(ISCED 5-6)을 받은 비율은 10% 미만이었다.

<표 6-6> 스웨덴과 EU-27개국 25-64세 인구의 교육 수준(2008년)

구분	고등학교 이하 (ISCED 1-2)	고등학교와 중등이후 교육기관(ISCED 3-4)	고등교육기관 (ISCED 5-6)
스웨덴	26%	41%	32%
EU27개국	28%	47%	24%

출처: Eurostat(2009).

스웨덴은 현재 교육 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지만, 캐나다 등 선도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다른 EU 회원국에 비해 스웨덴은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많다. 스웨덴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의무기초학교 교육 수준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절 직업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1. 직업교육의 기본 원칙

스웨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바람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주 시민으로 키우는 것이다. 또한 사회에서 계층 간의 차이를 줄여 평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직업교육훈련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스웨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은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이루어진다.

현재 스웨덴에서 직면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전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고등학교 이수율(completion rates)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교육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의 이수율은 79%인 반면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의 이수율은 67%로 더 낮다. 또 다른 하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다. 인구 변화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신규 노동인력의 수보다 숙련 노동인력의 은퇴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한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직업교육훈련 정책 도전에 대응하여 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청년층 실업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지 않은 청년층이 실업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직업교육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교육 개혁은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늘리고,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준비시키는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이민자들의 사회적인 배제를 막고 통합을 촉진하도록 고등학교 직업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민자들을 위한 스웨덴어 교육과 통합지원책을 결합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직업현장에서의 실제적

인 직업교육훈련과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단축도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교직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훈련 지도자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사회 직업 생활을 통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을 교직으로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사 교육을 개혁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정부는 교장의 학교 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연수 훈련을 고려하고 있다.

넷째, 더 좋은 대안을 통해 중등 이후의 직업교육훈련(ISCED 4B와 5B)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목표는 중등 이후 직업교육훈련의 형태에 대한 명확한 구조를 만들고 더 일관된 지침을 설정하는 것이다. 모든 중등 이후의 직업교육훈련 형태는 2009년 7월 1일 설립된 새로운 국가고등직업교육청의 관할 하에 공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인정할 수 있도록 더욱 명확한 인증(validation)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인증 체제는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직업과 교육훈련 참여 간의 이동을 촉진할 것이다.

여섯째, 성인 대상의 직업교육훈련 과정과 프로그램을 늘려 경제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인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출입을 돕고, 인구 고령화로부터 야기되는 미래의 기능 부족에 대한 노동시장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법 체제

스웨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에 관한 입법 권한은 의회와 정부에 있다. 단지 예외적으로 농업과학대학에 관한 책임은 농업식품수산부, 고용 훈련에 관한 책임은 고용부에 있을 뿐이며, 보육과 유아학교에서부터 기초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다양한 형태의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에 관한 책임은 교육연구부가 맡고 있다.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 1984 기업 내 노동시장훈련 보조금에 관한 규정
- 1985 교육 법령
- 1987 노동시장훈련에 관한 규정
- 1991 지방정부 법령
- 1991 대중 교육을 위한 국가 보조금에 관한 규정
- 1996 학습 지원에 관한 법령
- 2000 노동시장훈련에 관한 규정
- 2001 고급직업교육에 관한 법
- 2002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 교육 법령 보완
- 2009 지자체 성인교육의 틀
- 2009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

교육법(Skollagen, SFS 1985)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교육법(Skollagen, SFS 1985:1100)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별이나 거주지, 또 사회적·경제적인 요인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공하고, 가정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책임있는 인간과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배려가 주어질 것이다. 의무기초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립학교, 또는 독립학교(공영사립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지자체 의무학교에 다닌다.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조직은 피고용인의 의사결정 참여에 관한 법에 의하며(Lag om medbestämmande i arbetslivet - MBL, SFS 1976:580),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의 결정권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학부모와 학생은 지역 학교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경영에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에게 20세까지 의무기초학교를 이수하고

고등학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의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의무기초학교에서 국어(스웨덴어)와 수학, 영어 세 과목에 대해서는 합격 성적 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만약 학생이 선택한 프로그램을 그 지자체에서 제공할 수 없다면, 다른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원래의 지자체는 교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Lag om kommuners skyldighet att svara fr vissa elevresor, SFS 1991:1110).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Skollagen, SFS 1985)과 국가적인 수준에서 제시하는 의무학교 이외 학교 체제를 위한 교육과정(Lpf 94, 1994), 고등학교 프로그램 목표 등에 명시되어 있다.

3. 행정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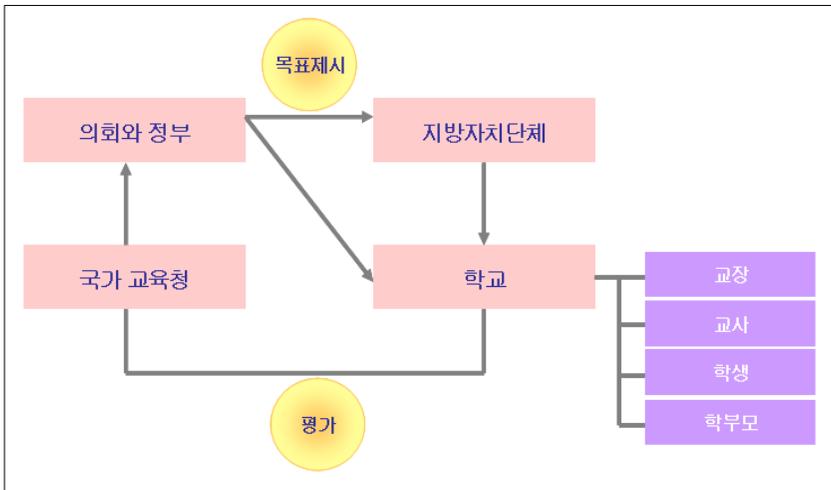
스웨덴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이 지방분권화되는 추세에 있고, 이를 반영하여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교육 체제도 최근 20여 년 동안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1991년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권한뿐만 아니라 학교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코뮌)와 지역 학교로 위임되었다. 스웨덴은 1991년 개혁을 통해 규제는 과감히 줄이고 목표는 더 명확히 제시하여, 목표와 결과에 의한 학교 경영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에 관한 국가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중앙 및 지역 교육 행정 당국과 교육기관은 이러한 국가 목표와 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행한다.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집행한다.

스웨덴의 교육행정 체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주무 정부 부처인 교육연구부 이외에 국가교육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교육연구부는 교육에 관한 국가 목표와 지침을 설정하고, 산하의 국가교육청은 정책 목표 달성

을 평가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 내각에 속해 있는 교육연구부의 장관과 차관은 정치인이 맡고, 국가교육청장은 행정관료 출신을 임명한다. 이는 교육 정책이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6-2] 스웨덴의 교육행정 체제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보다 구체적으로 의회와 정부를 포함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정기관들의 권한과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고, 정부 지출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주무 정부 부처인 교육연구부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법령과 규정을 공포하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승인하며, 정부 지출 예산의 배분에 관한 지침을 결정한다.

교육연구부 산하의 중앙정부기관으로는 국가교육청(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Skolverket), 학교장학국(School Inspectorate: Skolinspektionen), 국가고등직업교육청(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

YH)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교육연구부의 산하 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국가교육청은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지자체 성인 고등학교 직업교육 국가 목표가 얼마나 성취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임무가 있다. 또한 학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실리버스, 교육과정 기준, 평가 기준 등을 개발한다. 이외에도 학교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과 교사들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학교장학국의 주요 임무는 공립학교와 공영 사립학교에서 교육의 질과 결과를 조사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지도·장학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크고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학교 교육에 관한 것이다. 2008/09학년도 기준으로 지자체 공립 학교 체제에서 맡고 있는 학생들이 성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160만 명에 이른다. 대학교 수준 아래의 대다수의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공된다.

4. 파트너십

스웨덴에서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주요 사회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은 기업을 포함한 고용주 단체와 노동조합이다. 기업들은 직업교육훈련기관에 현장 훈련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며, 직업교육훈련 관련 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현장 훈련은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을 통해 편성·운영된다. 직업교육훈련 교사들은 현장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현장 훈련을 계획 운영하고 평가한다. 기업들은 현장 훈련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노동조합도 직업교육훈련 관련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적 파트너로서 역할을 한다.

사회적 파트너들은 국가교육청과 협력하여 국가 수준의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와 자문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국가적인 수준에서 17개의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13개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에 관한 것이다. 각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별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산업체와 노동조합 등 사회적 파트너들은 국가 수준의 목표와 관련 산업계의 기능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참여한다.

노사공동훈련기구(Joint Business-Labor Trainig Boards)는 산업 부문별 여러 직종들에 대한 자격 인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전기 기사와 같이 산업 부문별로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의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준과 내용을 개발하여 도제훈련이나 중등 이후 훈련의 형태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 기구는 노사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필요한 예산은 기업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외 사회적 파트너로는 노사공동직업자문위원회(Joint Business-Labor Occupation Advisory Committees: Yrkesrad)가 있다.

5. 재정

스웨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에 관한 재정은 대부분 공공에서 부담한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비롯한 학교 교육에 관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가 재정은 일반 국고 교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학교 교육 재정을 충당한다.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재정은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된다. 기업 내 훈련은 국고 보조금이나 훈련 기금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기업의 자체 부담에 의해 이루어진다. 실업자 훈련은 노동시장훈련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에서 재정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직업교육훈련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스웨덴 정부는 2007년에 약 19억 SEK³⁹⁾를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해 지원했

39) 1 EUR = 10.8 SEK(2009년 7월 1일 기준)

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예산은 국가 재정과 지방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국가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인구 밀도, 사회 구조, 이민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교육 활동을 조직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현재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한 공공 기금이나 훈련 기금이 없다. 그러나 스웨덴은 새로운 고등학교 도제훈련 체제를 도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도제훈련 비용을 지원할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도제훈련 시범 프로젝트를 위해 도제훈련생 1인당 25,000 SEK를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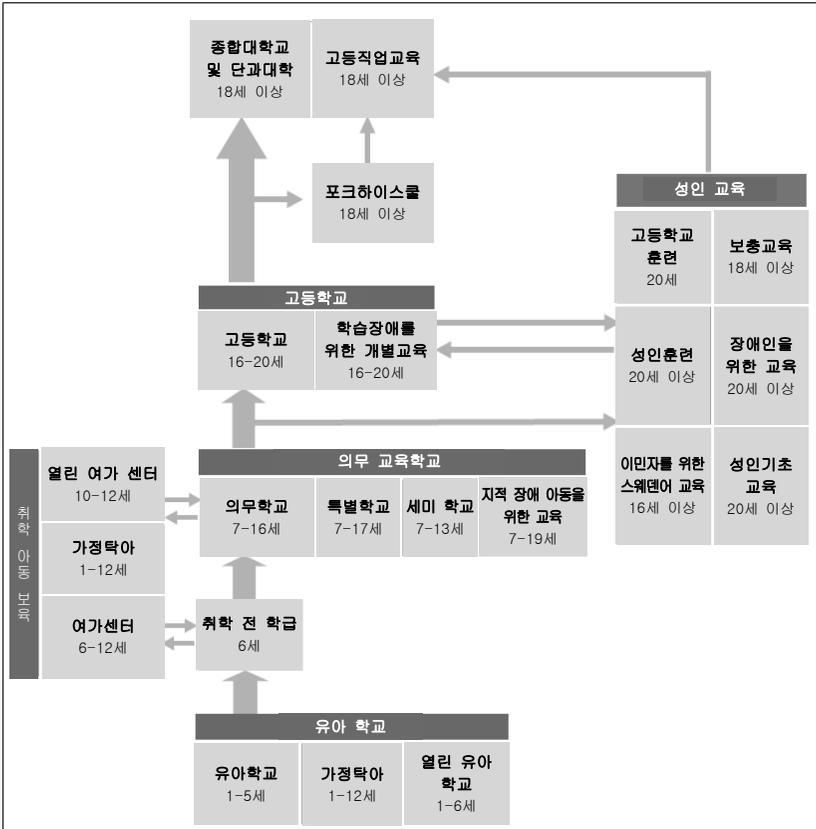
최근에 스웨덴에서 직업교육훈련 재정에 있어 우선권은 교사 역량 개발에 관한 투자에 있다. 스웨덴 정부는 교사 연수 지원 사업을 위해 2007-2010년간 약 25억 SEK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제3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1. 직업교육훈련 체제

스웨덴 교육제도의 특징은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이 일정한 연령층과 수학 기간을 정해서 주어지지 않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직장과 학교 교육을 번갈아 넘나들 수 있는 평생 순환교육 형태(recurrent education)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 교육이 교육 수준과 대상별로 잘 체계화되어 있어 가히 평생학습 사회, 교육복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3] 스웨덴의 교육제도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스웨덴의 학교 체제는 크게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취학 전 교육으로 1-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학교(pre-school)와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학 전 학급(pre-school class)이 있다. 취학 전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아직까지 의무교육은 아니다. 둘째는 7-16세 학생을 위한 의무기초학교(primary school 또는 compulsory school)가 있다. 의무기초학교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단계로 9년 과정이 모두 무상의무교육이다. 셋째는 16-19세를 위한 고등학교(upper secondary

school)가 있다. 3년 과정인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넷째는 고등교육 단계로 2-5년 과정의 종합대학교(university)와 단과대학(university college), 고급직업교육훈련(KY)이 있다. 다섯째는 석·박사 대학원 과정이 있다.

스웨덴에서 본격적인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이전에 기초학교 단계에서는 수공예(Craft), 가정 및 소비자 연구(Home and consumer studies), 기술(Technology) 등의 교과⁴⁰⁾를 통해 주로 실제적인 기능(practical skills)에 초점을 둔 교육을 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연관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스웨덴에서는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17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술(Arts)·자연과학(Natural sciences)·사회과학(Social sciences)·기술(Technology) 등 4개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경영, 아동과 레크리에이션, 건설, 전기 등 13개 프로그램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고등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은 주로 고급직업교육(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Y)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급직업교육은 1-3년 과정이나 2년 과정이 주를 이룬다. 고급직업교육은 직업 현장과 상당히 밀접한 연계를 가지면서 이루어진다. 고급직업교육에서는 LIA(Larande i Arbete)라고 하는 현장 훈련을 강조하는데, 전체 교육 기간의 1/3이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LIA가 전통적인 현장 훈련과 구분되는 특징은 전체 교육의 맥락에서 적극적인 직업 현장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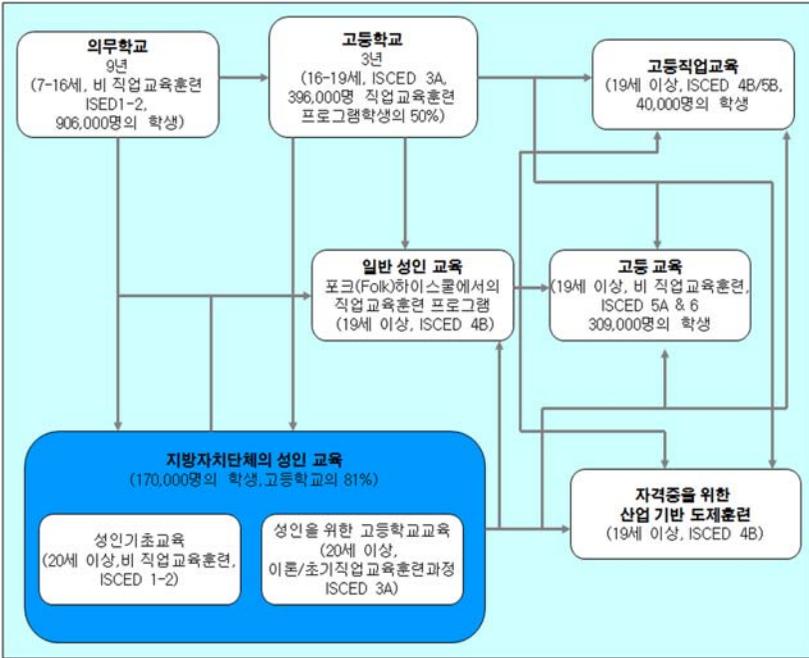
한편 스웨덴에서는 성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40) 기초학교에서는 예술(230시간), 기예(330시간), 영어(480시간), 가정 및 소비자 연구(118시간), 언어 선택(320시간), 수학(900시간), 음악(230시간), 체육과 보건(500시간), 국어(1,490시간), 지리·역사·종교·사회(885시간), 생물·화학·기술·물리(800시간) 등 11개 교과와 학생 선택(382시간)을 포함하여 총 6,665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지자체 성인교육을 통한 고등학교 초기 직업교육훈련
(Yrkesinriktad gymnasial vuxenutbildning inom kommunal vuxenutbildning)
- ② 고급직업교육(Kvalificerad yrkesutbildning: KY)
- ③ 고교 단계 이후 훈련: 종종 지자체 성인교육 체제 하에서 이루어짐
- ④ 보충교육
- ⑤ 산업부문별 직업자격을 위한 도제훈련
- ⑥ 포크하이스쿨을 통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⑦ 국가노동시장위원회 지원의 노동시장훈련
- ⑧ 기업 내 훈련이나 직원 연수

다음으로 스웨덴의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9년 과정의 의무기초학교에는 2008/09학년도 현재 906,000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의무기초학교를 이수한 학생들 중 약 98%가 3년 과정의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스웨덴에서 2008/09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수는 396,000명인데, 그 중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이 177,935명이다. 전체 고등학생의 49.5%가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그림 6-4] 스웨덴의 교육 이수 현황



주: 의무기초학교, 고등학교, 지자체 성인교육과 고등교육은 2008/09학년도 자료임, 고등직업교육 자료는 대략적인 수치임. 포크하이스쿨에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산업부문별 노사공동훈련 기구(Joint Training Boards at Sectoral Level)에 의한 도제훈련에 참여 학생 수에 대한 국가적인 자료는 없음.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구체적으로 국가 수준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비율을 보면 <표 6-7>과 같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에서는 전기(Electrical engineering)가 6.6%로 가장 많고, 경영(Business and administration)이 5.3%, 미디어(Media)가 4.9%, 건설(Construction)과 운송(Vehicle engineering)이 4.7% 순이다.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3년 안에 약 45%의 학생들이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하는데 이는 최근 2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현재 고등직업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은 40,000명,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 등 고등교육에는 309,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크하이

스쿨에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과 산업부문별 노사공동 훈련 기구(Joint Training Boards at Sectoral Level)에 의한 도제훈련 참여 학생 수에 관한 국가적인 자료는 없다.

<표 6-7> 고등학교 국가 수준 프로그램별 참여 학생 비율

프로그램	전체 학생 대비 비율
예술(Arts)	6.5%
경영(Business and administration)	5.3%
아동과 레크레이션(Child and recreation)	4.4%
건설(Construction)	4.7%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6.6%
에너지(Energy)	1.1%
식품(Food)	0.5%
수공예(Handicraft)	2.7%
건강관리(Health care)	3.9%
호텔과 레스토랑(Hotel and restaurant)	4.3%
공업(Industry)	2.9%
미디어(Media)	4.9%
자연자원활용(Natural resource use)	3.1%
자연과학(Natural science)	12.5%
사회과학(Social science)	25.7%
기술(Technology)	5.7%
운송(Vehicle engineering)	4.7%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2. 교육과정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programme)과 프로그램별 세부 과정(branches/orientations)까지 설정하여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스

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에 스웨덴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개발하였다. 당시에는 16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였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1개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어 현재는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밀접히 연계된,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 초점을 지닌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 교육과정은 17개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은 다시 2-4개의 세부 과정으로 구분된다. 스웨덴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세부 과정을 보면 <표 6-8>과 같다.

<표 6-8>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17개의 프로그램과 세부 과정

프로그램	세부 과정
예술(Arts)	미술과 디자인, 무용, 음악, 연극
경영(Business and administration)	상업, 관광
아동과 레크레이션(Child and recreation)	레크레이션, 교육과 사회활동
건설(Construction)	빌딩, 주택건설, 판금가공, 페인팅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자동화, 컴퓨터기술, 전자, 전기
에너지(Energy)	공정·유지, 해양기술, 열/통풍/공중위생/냉동
식품(Food)	지역 특성화
수공예(Handicraft)	지역 특성화
건강관리(Health care)	지역 특성화
호텔과 레스토랑(Hotel and restaurant)	호텔, 레스토랑
공업(Industry)	지역 특성화
미디어(Media)	미디어제작, 인쇄
자연자원 활용(Natural resource use)	지역 특성화
자연과학(Natural science)	수학과 컴퓨터과학, 환경과학, 자연과학
사회과학(Social science)	경제, 문화, 사회과학, 언어
기술(Technology)	지역 특성화
운송(Vehicle engineering)	항공기, 자동차 차체설계, 기계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 수송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일반적으로 17개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 중 13개 프로그램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만, 원칙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학생이 희망하면 대학 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17개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모두 동일한 국어(스웨덴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의 핵심 교과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과정 학생들 간에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 철학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핵심 필수 교과(Core subjects), 프로그램별 공통 필수 교과, 세부과정별 선택 교과, 자유 선택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필수 교과는 스웨덴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종교, 예술, 체육과 보건 8개 교과이며, 이러한 핵심 필수 교과에서 총 75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 100학점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련 교과에서 1,450학점, 개인 선택 교과에서 300학점 등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총 2,50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학생들은 <표 6-9>에 제시된 교과별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에는 일반적으로 3년이 걸리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더 적게 또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

<표 6-9> 고등학교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	학점
핵심 필수 교과	스웨덴어(Swedish)/제2외국어로서 스웨덴어 (Swedish as a second language)	200
	수학(Mathematics)	100
	영어(English)	100
	사회(Civics)	100
	과학(Science studies)	50
	종교(Religion)	50
	예술 활동(Artistic activities)	50
	체육과 보건(Physical education and health)	100
	소계	750
프로그램 및 개인선택 교과	프로그램 관련 교과 (프로젝트 학습 project work 100학점 포함)	1,450
	개인 선택 교과	300
총 이수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프로그램 관련 교과는 1,450학점으로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운영된다. 프로그램 관련 교과는 대체로 프로그램별 공통 필수 교과와 세부과정별 선택 교과로 구분되는데, 프로그램 공통 필수 교과는 프로그램에 따라 350학점(공업 프로그램)에서 850학점(자연과학 프로그램)까지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세부과정별 선택 교과는 각 세부과정당 200학점(기계 및 화물자동차 세부 과정)에서 550학점(항공기 세부 과정)까지 배정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 및 세부과정별 배정 학점을 표로 나타내면 <표 6-10>과 같다.

<표 6-10>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17개의 프로그램과 세부 과정의 학점

프로그램		세부 과정
프로그램명	학점	
예술	600	미술과 디자인(350), 무용(450), 음악(400), 연극(450)
경영	600	상업(450), 관광(450)
아동과 레크레이션	700	레크레이션(300), 교육과 사회활동(300)
건설	500	빌딩(300), 주택건설(300), 판금가공(300), 페인팅(300)
전기	400	자동화(300), 컴퓨터기술(300), 전자(300), 전기(350)
에너지	450	공정·유지(250), 해양기술(250), 열/통풍/공중위생/냉동(250)
식품	600	지역 특성화
수공예	700	지역 특성화
건강관리	650	지역 특성화
호텔과 레스토랑	650	호텔(400), 레스토랑(300)
공업	350	지역 특성화
미디어	600	미디어제작(400), 인쇄(500)
자연자원 활용	450	지역 특성화
자연과학	850	수학과 컴퓨터과학(300), 환경과학(300), 자연과학(300)
사회과학	800	경제(350), 문화(400), 사회과학(250), 언어(400)
기술	650	지역 특성화
운송	500	항공기(550), 자동차 차체설계(300), 기계 및 화물자동차(200), 자동차(500), 수송(3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스웨덴의 고등학교에서는 자유 선택 교과를 3년 동안 300학점 이수해야 한다. 자유 선택 교과는 원칙적으로 두 종류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교가 반드시 자유 선택 교과로 개설하도록 국가가 규정하는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와 학생이 속한 프로그램의 다른 세부 과정 교과 등을 포함하여 프로그램별 교육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개설되는 자유 선택 교과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각 프로그램별로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를 최대 4개(자연과학 프로그램)까지 지정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별로 개설해야 할 자유 선택 교과의 학점수를 최저 150학점(사회과학

프로그램)에서 최대 1,000학점(공업 프로그램)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1> 프로그램별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와 개설 범위

프로그램명	개설 범위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
예술	300-400	없음.
경영	300	영어B, 수학B
아동과 레크레이션	700	영어B, 역사A, 수학B
건설	550	영어B, 수학B
전기	600-650	영어B, 수학B
에너지	650	영어B, 수학B
식품	750	영어B, 수학B
수공예	650	영어B, 수학B
건강관리	700	영어B, 역사A, 수학B
호텔과 레스토랑	300-400	영어B, 수학B
공업	1,000	영어B, 수학B
미디어	250-350	영어B, 역사A, 수학B
자연자원 활용	900	영어B, 수학B
자연과학	200	생물B, 물리B, 화학B, 수학E
사회과학	150-300	수학C
기술	700	물리B, 수학D, 수학E
운송	300-600	영어B, 수학B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표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국가 규정 자유 선택 교과로 영어B와 수학B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과 레크레이션, 미디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영어B와 수학B뿐만 아니라 역사 A를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준비과정인 사회과학에서는 수학C를, 자연과학에서는 생물B, 물리B, 화학B, 수학 E를 자유 선택 교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국가규정 자유 선택 교과가 없다.

자유 선택 교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과목들을 모아서 엮은 몇 개의 과목군을 제시한 다음, 학생들이

과목군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게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과목들로부터 학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방법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제시할 수도 있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운영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전기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체제를 제시하면 <표 6-12>와 같다(자연자원 활용 프로그램, 식품 프로그램, 경영 프로그램, 호텔과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 체제는 <부록 3> 참조).

<표 6-12> 전기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프로그램		전기 프로그램			
구분					
핵심 교과 (75)		스웨덴어A(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A(100), 스웨덴어B(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B(100), 영어A(100), 수학A(100), 체육보건A(100), 사회A(100), 종교A(50), 과학A(50), 예술 활동(50)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1,450)	공통 필수 (400)	프로젝트와 기업(50), 컴퓨팅(50), 전기A(50), 디지털 기술A(50), 전기 기초(50), 전기 엔지니어링(100), 컨트롤 엔지니어링A(50)			
	세부 과정 선택 (1,050)	자동차 (300)	컴퓨터기술 (300)	전자 (300)	전기 (350)
		전기 규격A(50), 전기B(50), 기계 사용A(50), 기술 제어A(50), 엔지니어링 제어B(100)	컴퓨터통신(100), 개인컴퓨터(100), 웹 디자인(100)	개인컴퓨터(100), 아날로그 순회(100), 디지털기술B(50), 전기B(50)	전기 작업 환경과 안전(100), 전기 규격A(50), 전기 규격B(50), 전기 B(50), 3상 교류(50)
자유 선택(300)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 영어B(100), 수학B(50)			
		※ 이 외의 자유 선택 과목(예시) : 작업 환경, 컴퓨터 기술, CNC 기술, 전기 시스템, 물리, 화학, 멀티미디어 등 관련 과목 87개 제시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3. 현장 훈련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3년 과정 중 최소한 15주 동안 학교 밖의 직업 현장에서 현장 훈련(APU: Arbetsplatsförlagd utbildning)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외의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 4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현장 훈련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다.

지자체 공립학교와 공영 사립학교 등의 고등학교들은 학생들이 현장 훈련의 기회를 가질 산업체를 찾고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학교들은 학생들이 현장 훈련의 기회를 가질 안전하고 적합한 직업 현장을 찾기 위해 지역 산업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들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 밖의 직업 현장에서 현장 훈련을 받도록 안전하고 적합한 산업체를 찾고, 학생들이 긍정적인 직업 현장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성공적인 현장 훈련을 위해서는 직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현장 지도자들이 충분한 교육 훈련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졸업자격 인증 체제, 중도탈락, 제도적 유연성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전공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기 보다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깝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할 책임은 산업체 고용주의 몫이다.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졸업장이나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스웨덴에서는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과별로 성적 등급을 부여한다.

성적은 IG(불합격, fail), G(합격, pass), VG(우수, pass with distinction),

MVG(최우수, pass with special distinction) 4등급으로 부여한다. 여기서 G 등급은 국가 실러버스에서 제시한 최소 기준을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VG 나 MVG 등급에 관한 기준은 스웨덴 국가교육청이 별도로 설정한다. 학생이 합격 등급인 G등급이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해당 과목에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성적표에는 ***로 기록하고, 주석을 통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기초지식·근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설명이 추가된다.

스웨덴의 경우 대다수의 직업들이 자격 요건이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과 관련하여 어찌 보면 그 필요성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기기사, 배관공 등과 같이 몇몇 직업들의 경우에는 직업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산업부문별 공동훈련기구(Joint Training Boards)에서 운영하는 도제훈련 유사 프로그램(apprenticeship-like program)을 이수해야 한다. 이 산업부문별 공동훈련기구들이 관련 직업 분야의 기능공 자격증(journeyperson certificates; yrkesbevis)을 부여한다.⁴¹⁾

그러나 최근에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를 모색하면서 모든 요건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upper secondary diploma)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였고, 2011학년 가을 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교육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의 고교 이수율은 79% 인 반면에, 직업교육 프로그램 과정 학생들의 이수율은 67%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직업교육 과정 학생들의 이수율이 낮은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과정의 학생들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핵심 인문교과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졸업 이수율과 중도탈락률을 학교 유형별, 성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표 6-13>과 같다.

41) 보건의 직업의 경우에는 국가보건복지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Socialstyrelsen)에서 관련 자격증을 부여한다.

<표 6-13> 고등학교 졸업 이수율과 중도탈락률

구분	졸업 이수		중도탈락	
	2005년 졸업 이수 학생수	2001년 입학생 비율	2005년 중도탈락 학생수	2004년 입학생 비율
계	74,575	75.1%	9,645	6.9%
설립유형별				
지방자치단체 운영 학교(공립학교)	68,687	74.6%		
카운티 의회 운영 학교(공립학교)	1,244	76.0%		
공영 사립학교(독립학교) (Independently run schools)	4,356	81.9%	679	4.0%
국립기숙학교 (National boarding schools)	256	88.6%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s)	32	65.3%		
성별				
여학생	37,889	78.0%	3,175	5.7%*
남학생	36,686	72.3%	3,270	5.5%*
프로그램별				
예술(Arts)	3,304	75.8%	215	3.5%
경영(Business and administration)	2,579	71.1%	221	4.8%
아동과 레크레이션	2,478	70.7%	245	4.8%
건설(Construction)	1,756	78.2%	98	2.5%
전기(Electrical engineering)	3,063	78.5%	104	2.3%
에너지(Energy)	375	73.8%	25	3.3%
식품(Food)	278	73.0%	32	5.5%
수공예(Handicraft)	977	82.9%	73	3.6%
건강관리(Health care)	2,028	72.1%	179	5.6%
호텔 및 레스토랑	2,968	74.6%	213	4.0%
공업(Industry)	719	68.3%	94	5.8%
미디어(Media)	2,591	79.2%	160	4.2%
자연자원활용(Natural resource use)	1,529	74.7%	70	2.5%
자연과학(Natural science)	12,850	89.7%	294	2.4%
사회과학(Social science)	18,894	84.6%	657	2.6%
기술(Technology)	5,353	83.2%	90	1.4%
운송(Vehicle engineering)	1,895	69.8%	181	4.0%
개인선택(Individual)	1,960	20.3%	5,713	27.9%
특별과정 프로그램	4,140	82.4%	309	2.7%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450	75.8%	83	8.8%

* 이 수치는 이민자를 제외한 것임. 이민자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더 높음.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9).

5. 교사

스웨덴에서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훈련은 대체로 85% 정도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15% 정도는 현장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의 직업교육훈련은 관련 특정 교과 교사들과 핵심 교과 교사들이 담당한다. 관련 직업 분야에서의 현장 훈련은 공식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훈련 지도자들(trainers)이 맡는다. 훈련 지도자들은 현장 훈련의 과정 중에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

고등학교에서 순수하게 직업교육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약 11,000명 정도이다. 이는 고등학교 전체 교사 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이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9). 고등학교 직업교육 교사들은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유사한 규정과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교사 교육은 현재 고등교육법(Hogskolelag, SFS1434)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교사 학위가 있는 교사들은 대학교 수준에서 양성되는데, 대학 교육과 일선 학교에서의 현장 훈련을 받은 후에 교사 학위를 받는다. 현장에서의 2008/09학년도 기준으로 약 72%의 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사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의 경우에는 단지 62%만이 교사 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42.1%)와 운송(47.8%) 프로그램 분야의 경우 교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가장 적었다. 아동 및 레크리에이션(89.2%)과 건강 관리(82.4%) 프로그램 분야의 경우에는 교사 학위 소지 교사 수가 가장 많았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9).

고등학교 교사들의 임용 절차는 개방적이며 규제가 적은 편이다. 임용권한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 분산되어 있다. 교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중앙의 협약에 따라 종신 고용 전에 12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임용이 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신입 교사들이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의 지도 아

래 1년 동안 입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 임용에 있어 전공 관련 직업 경력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다. 교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간제로 임용될 수 있고 그 후에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6. 진로지도

스웨덴에는 진로지도를 위한 특별히 공적인 기관은 없다. 모든 진로지도가 학교나 지자체에서 주어진다. 학교장은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 상의 선택을 하거나 진로 결정을 하기 전에 교육적 지도와 진로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킬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전문적인 진로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진로지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진로지도 교사의 유형과 수를 규제하는 지침은 국가적으로 없다.

스웨덴에서 최초의 진로지도는 대개의 경우 의무기초학교 고학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실제 직업 세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보통 15세 무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1-2주 정도를 직업 현장에서 실제 직업 세계 체험을 하는 데 보낸다. 진로에 관한 별도의 과목은 없지만, 직업세계와 학습, 진로 선택에 관한 정보가 여러 교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진로지도를 하기 위해 산업계, 대학 등의 사회적 파트너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진로지도를 위한 협력은 중앙이 아닌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다. 또한 진로지도는 스웨덴의 공공 고용 서비스 센터(Public Employment Service), 노동조합, 민간 고용 서비스 센터(Private Employment Service) 등에 의해서도 제공되기도 한다.

스웨덴에서는 몇몇 웹사이트에서 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로 정보와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Utbildingsinfo.se는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나 진로상담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업과

진학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국가교육청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다.

제4절 혁신 사례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 정책은 직업교육훈련에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또 스웨덴에서는 개편을 하더라도 전반적인 개혁을 하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2006년에 보수당 우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사민당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직업교육훈련 정책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는 것 같다. 최근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주요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개혁 동향을 살펴본다.

1. 새로운 고교 체제: 통합 체제에서 삼두마차 체제로의 전환

스웨덴 보수당 정부는 2006년 집권과 더불어 여러 교육개혁 과제 중 고등학교 체제의 개편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 보수당 정부는 관련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의 고등학교 체제를 어떻게 새롭게 구조화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를 연구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가 2008년 3월 31일 발표한 ‘미래의 길: 고등학교 개혁(Future route: Reform of upper secondary school)’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현행

의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하여 3가지 체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현행의 통합 체제를 ① 주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일반 인문교육 체제, ② 직업 준비를 위한 직업교육 체제(현행과 같이, 필수로 인문 교과 요건을 부과하지 않음), ③ 고교 도제훈련 체제로 경로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문-직업-도제'의 전통적인 삼두마차 체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스웨덴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교육 평등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여 왔던 통합 고등학교 체제⁴²⁾를 개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웨덴에서 제기되어 왔던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첫째, 대학진학 대신 직업세계로 나아갈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직업 관련 과정에서도 지나치게 많은 과목들이 너무 이론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여기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많은 과목들이 이론적이라는 말은 이중적이다. 직업교육 관련 과목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핵심 과목을 포함하여 인문 과목들도 지나치게 이론적이라는 비판이다. 예컨대, 건축계로 나아갈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축 연구, 빌딩과 토목공학 등 직업 관련 과목들이 지나치게 이론적일 뿐만 아니라 건축계로 나아갈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이나 미디어계로 나아갈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자연과학 과정에서 대학 진학할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등이 모두 동일하게 이론적이라는 비판이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할 경우 각 과정별로 해당 직업세계와 잘 연계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더 나아가 직업 관련 과목도 좀 더 직업세계와 밀접히 연계된 과목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 과정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42) 스웨덴의 통합고등학교 체제(All forms of academic and vocational education in one)는 1970년에 처음 도입되고, 1992년에 고등학교 계열을 16개의 표준화된 국가 수준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상으로도 일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이 통합되어 완성되었다.

지 과정은 15주에 걸친 현장 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장 훈련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서 직업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해당 직업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이나 경험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러한 고등학교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이수율이 저조하며(특히,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즉,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직업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체제를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직업교육은 국어(스웨덴어), 수학, 영어 등 핵심 교과에는 흥미가 없지만 자신의 직업적 재능을 살리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하며, 이들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교육훈련과 현장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2006년 가을에 6개의 파일럿 연구학교에서 도제훈련과 유사한 교육 형태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이미 했고, 2008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체제를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현행처럼 한 학교에서 서로 다른 17개의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체제를 깨뜨리고 서로 다른 3가지 체제의 고등학교를 만드는 방안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고등학교를 3가지 체제로 구분하는 방안은 1970년대 이전의 유럽의 기본 학제였던 복선제 고등학교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는 영국의 Grammar School이나 독일의 Gymnasium처럼 일류학교이고, 직업기반 프로그램은 영국의 Technical School이나 독일의 Real Schule처럼 이류학교이고, 도제학교는 영국의 Modern School이나 독일의 Haupt Schule처럼 삼류학교의 성격을 지니게 될 수 있다. 물론 스웨덴에서는 세 종류의 고등학교가 위계적인 학교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직업세계를 지향하는 서로 다른 수평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의 이러한 고등학교 체제 개혁이 얼마나 성공할 것인지 지켜 볼 필요가 있다.

2. 도제훈련 체제 도입을 통한 직업 현장 훈련의 강화

한편 스웨덴의 보수당 우파 정부는 2006년 집권과 더불어 새로운 고등학교 체제를 모색하면서 도제훈련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 배경은 스웨덴이 직면하고 있는 4가지 문제, 즉 ① 스웨덴에서 자격을 갖춘 기능·기술자의 부족 문제, ② 고등학교에서의 높은 중도탈락률, ③ 학교기반의 직업교육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 ④ 직업교육을 위해 자격을 갖춘 교사들을 찾기 어렵다는 문제 등에서 비롯되었다.

스웨덴은 과거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일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체제를 도입하면서 도제훈련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 이후 스웨덴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강조가 약화되었고, 교육 훈련 결과와 노동시장의 요구 간의 불일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스웨덴 정부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도제훈련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적용한다는 계획 아래, 2008년 하반기부터 도제훈련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스웨덴에서 도입하고 있는 현대적인 고교 도제훈련 체제의 내용을 보면 현장 훈련을 강조하면서 교육과정의 유연성에 중점을 두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교 3년 전체 2,500학점 중에서 최소한 800학점을 현장 훈련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그 비중을 크게 하였다. 이는 핵심 필수 교과를 포함하여 필수 과목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의 다른 과목을 현장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제훈련은 원하는 학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원하지 않으면 기존의 현장 훈련(APU나 LIA 형태의

현장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직업 현장 생활에 접하도록 고등학교 첫 학기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제훈련생들의 경우 국어(스웨덴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종교, 체육 등의 핵심 교과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도제훈련생들이 고등교육 입학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기간 중에 추가로 핵심 교과를 이수하거나 추후에 지자체 성인교육(Komvux)을 통한 보충교육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도제훈련생들은 학생 신분으로 직업 현장에서 교육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 수당을 받을 수도 또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도제훈련생들은 도제훈련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직업 고등학교 졸업장(vocational upper secondary diploma)을 받을 수 있다.

도제훈련생들을 고용하여 지도하는 산업체들은 매년 1인당 약 25,000 SEK를 받으며, 이를 가지고 훈련생 수당과 훈련 지도자 채용 등의 비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3년 동안 1억 SEK와 함께 5억 SEK의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최초 3년간 18,000명의 훈련생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계획이다. 산업체들은 도제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다.

고등학교 도제훈련 체제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 산업체, 노조 대표자들로 도제훈련위원회(Larlingsrad)를 구성하여 노동시장의 숙련 기능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고등학교 도제훈련의 경우 지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도입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3. 교사 교육과 자격의 체계화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교사와 관련하여 최근 스웨덴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교사 수의

부족이다. 2006년 한 보고서에 의하면, 스웨덴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약 4,000명의 직업교육훈련 교사가 필요하지만(2011년까지 매년 약 800명의 교사), 2006년에는 단 200명의 직업교육훈련 교사만이 교사교육 과정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7).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교사 학위가 없는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교사의 수에 대한 우려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정부는 2006-2008년 동안 3개의 직업교육훈련 교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사 교육과 자격 부여에 관해 조사·연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로 직업교육훈련 교사 위원회는 1년 6개월 과정(90 ECTS 학점)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1년(60학점)은 관련 교과 교육을 이수하고, 1학기(30학점)는 고등학교에서 교육 현장 훈련을 받도록 하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 교사 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① 관련 직업 현장 경험을 포함하여 90 ECTS 학점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 ② 관련 직업 현장 경험을 포함하여 최소한 60학점은 관련 직업 분야의 중등 이후 교육을 통해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
- ③ 스웨덴 국가교육청이 관련 교직 분야의 자격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요건을 확인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4.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체계화와 강화

스웨덴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있어 또 다른 혁신 사례는 고등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고교 이후 모든 형태의 직업교육훈련을 하나의 체제로 일원화하여 체계화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는 2009년 7월 1일에 국가고등직업교육청(National

Agency for Higher Vocational Education)을 새로이 설립하였다. 국가고등 직업교육청은 고교 이후 단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고등직업교육청의 주요한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
- ② 교육기관에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
- ③ 직업교육과정의 질과 결과에 대한 평가, 관리
- ④ 노동시장에서의 스킬능력 요구에 대한 조사, 평가
- ⑤ 국가인증체계에 대한 조정, 지원
- ⑥ 평생학습에서 유럽자격체계(EQF: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를 위한 국가적 공조, 협력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고등직업교육청이 지원하는 고등직업교육이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수요자 지향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 체제 전반에 대해 개관해 보았다. 특히,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에 대해서는 학교 기반의 교육과정, 현장 훈련, 졸업 자격 인증 체제, 교사, 그리고 진로지도 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최근의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 개혁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 체제 전반에 걸쳐 교육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 고등학교 체제에서 인문교육-직업교육-도제훈련 체제로의 분리 전환, 도제훈련 체제

도입을 통한 직업 현장 훈련의 강화, 교사 교육과 자격의 체계화, 그리고 고등직업교육의 통합 체계화와 활성화 등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주요한 정책 동향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 체제와 최근의 개혁 동향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스웨덴의 체제와 혁신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또한 많은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적 맥락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민주주의와 코포라티즘(corporatism)으로 대표되는 국가 사회적 전통 속에서 평등과 복지, 사회적 합의를 우선시 하는 스웨덴 사회와 국민의 의식은 교육 맥락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스웨덴의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한 교육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웨덴의 경우 18세만 되면 누구나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어린이라 하더라도 독립성이 강하여 부모가 강제적으로 학업에 집중시키지 않는다. 또 동거, 이혼 등 가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결정하며 관리하지 않는다. 둘째, 스웨덴은 거의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학업 수당까지 주는 교육 복지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률은 45%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 바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1-2년 정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경험한 후에 대학에 진학한다. 그래서 스웨덴 대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셋째, 직업 간 차별이나 임금 격차가 많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후의 즉시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간에도 소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 이류대학, 삼류대학 졸업자 간에도 소득 차이가 크지 않다. 넷째, 제2의 교육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도 성인기가 되어 받는 경우들도 많다. 또 성인들이 대학 진학을 위한 공부가 필요할 때

나 고등학교 일부 과목을 대체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든지 지자체 성인교육기관(Komvux)에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은 평생 교육이라는 생각이 사고 깊숙이 박혀 있다. 다섯째, 한 마디로 교육이 인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여섯째, 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교육이 자연스럽게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학습과 평가를 별개로 보는 문화적 경향성이 존재한다.

이렇듯 우리와 상당히 다른 스웨덴의 교육적 맥락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나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적 모색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스웨덴에서는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학습할 수 있는 유연한 재교육 체제, 직업 현장과 학교를 오고 가면서 생애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순환형 교육 체제(recurrent education system)를 잘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지향해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점이다.

둘째는, 스웨덴에서는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단계부터 하지만, 의무초교육 단계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배정하여 예비직업교육(prevocational education) 차원에서 기예, 가정, 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교육과 직업현장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통합 고등학교 체제를 '인문-직업-도제' 3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체제로 분리하고 직업현장 훈련을 강화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는, 스웨덴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공 계열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국가 수준 프로그램 상의 전공 계열은 다양한 산업 부문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공 계열과도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관련 직업 분야에 취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는, 계속 학습을 위한 도구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스웨덴어), 영어, 수학 학습능력 수준에 미달한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 보

충 교육으로 개별 프로그램(individual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에서 4년의 경력을 쌓으면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단은 직업 세계로 진로 경로를 모색하고 추후에 대학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일곱째는,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여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중도 탈락률이 우리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 측면이 강하다.

여덟째는, 이민자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사회 통합 적응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라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끝으로, 스웨덴에서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상당 기간의 시범 프로젝트(pilot project) 과정을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한다는 점이다. 스웨덴 사회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교육 분야의 경우, 하나의 새로운 교육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토론하고 검토하며 연구하는 전통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도제훈련 체제를 본격 도입하기에 앞서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2011년까지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제 7 장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임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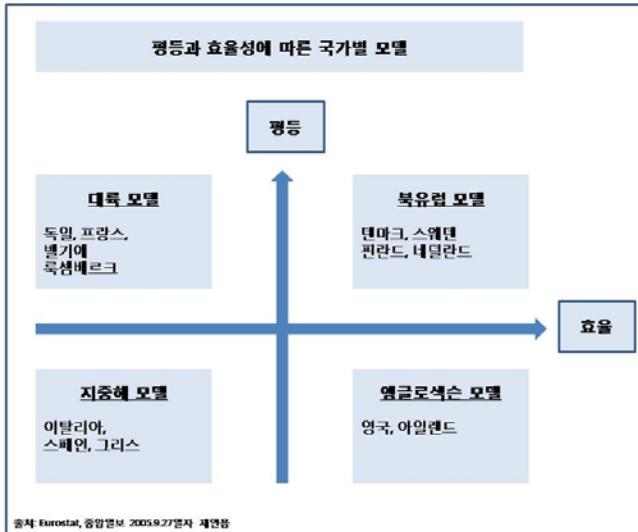
제1절 북유럽 직업교육은 하나의 모델인가?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 특히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북유럽 모델이 존재한다는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문화적 배경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고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을 실행하는 전략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직업교육을 하나의 모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행 논의에서 OECD 혹은 유럽 내에서 비교하여 북유럽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는 시각은 낫설지 않다. 한송희·오현석(2005)은 북유럽의 평생학습 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등과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유럽 국가들은 평등과 효율성을 모두 달성한 모범적 사회모델이라는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앙드레 사피르 교수의 분석을 인용하였다. 24세에서 64세 인구의 고등교육 보급률에서 북유럽이 75%인

반면,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의 경우 67%, 앵글로 색슨 모델은 60%, 지중해 모델은 39%로 나타났다. 이것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북유럽의 높은 위치를 나타낸다면, [그림 7-1]에서 다른 축은 효율성과 관련된 지표로서 성인의 문해력 국제 비교인 IALS(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에서 북유럽은 전 영역에서 일관되게 상위권으로 나타났다(Statistics Canada, 2000). 아래 그림에서 북유럽 모델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노르웨이 역시 이러한 분류 상에서 북유럽 모델에 포함하여도 손색이 없다.

[그림 7-1] 평등과 효율성에 따른 국가별 모델



출처: 한승희·오현석(2005)

한편, 이영현(2006)은 한 국가의 교육훈련 및 숙련 형성 제도는 그 나라의 독특한 문화, 경제, 정치적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숙련 형성은 그 나라의 역사적 산물이라 보고, 숙련 형성의 모델을 크게 시장 모델, 조합주의 모델, 발전국가 모델, 신 시장 모델로 구분하였다.

<표 7-1> 숙련형성 체제 모델 비교

	시장 모델	조합주의 모델	발전국가 모델	신시장 모델
대표적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칠레, 멕시코, 브라질
지정학적 조건	영·미의 산업주로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	미·영이 독점하고 있는 세계시장에 진입	경제성장의 근간이 세계시장	수입대체에 의한 산업화과정
문화	강한 개인주의 전통	도제제도의 전통	교육 존중의 유교 문화	-
생산 양식	저부가가치 사업	고부가가치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	저부가가치 산업
정부의 역할	기본교육의 책임	훈련규제	정부의 교육 통제	정부의 교육통제
노사관계	자발적 합의	협력관계	불평등한 관계	발전국가보다 더 불평등
노조역할	임금과 근로조건 유지	임금 이외에 훈련도 규제	임금협상에 초점	군사정부의 노조 억압
숙련수요 공급조절	시장의 원리	조직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짐	수요공급을 조절하는 장치에 의함	시장의 원리
정부의 훈련개입	실업자 훈련	실업자·장애자 훈련을 넘어서는 개입	정부의 주도	비공식적 혹은 비도시 지역의 훈련과 실업자 훈련
세계화 대응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세계화의 적응에 어려움	어려움 없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행 중	외국자본과 연계
체제의 결과	사회적 불평등	낮은 소득불균형	비교적 낮은 소득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출처: 이영현(2006)

시장 모델(market model)은 숙련형성에 있어서 시장과 자본이 우위를 점한다. 숙련의 수요와 공급 조절은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노동조합은 임금 및 다른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역할만 할 뿐,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또한 정부도 기본교육과 실업자 훈련만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개입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이 모델에 속한

다. 이와 대조적인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조합주의 모형(corporatist model)은 시장 모델에 비해 노사관계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정부와 노사 간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숙련형성 수요공급 및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와의 협력 하에 제도적인 틀을 확립한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도제제도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대표적 국가이다.

이 구분에 의하면 북유럽만의 별도의 모델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 덴마크가 조합주의라면 나머지 북유럽 3개국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핀란드와 스웨덴은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비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펼쳐온 나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와 노사 간의 긴밀한 협력이 아직도 중요한 사회적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주의 모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제2장에서 북유럽을 개관한 바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강소국,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연안정적인 노동시장, 사회적 합의주의라는 키워드로서 설명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진 국가이다. 이들 국가들은 교육 체제 면에서도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 비율이 높으며, 고교이상 교육 참여율이 높고, 고교 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참여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진로교육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북유럽 국가들의 직업교육 체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들 나라는 교육의 공공성의 강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 구성 및 운영,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면서도 효율성을 가진 강소국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상세한 실행 체제 면에서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 국가들 모두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공통점이 있지만, 도제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북유럽 직업교육의 모델이 선명히 있으며, 그 모델의 특징이 네 나라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북유

럽 직업교육 훈련의 주요 특성으로 표현하여 이들 국가들에 드러나는 특징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자 한다.

제2절 북유럽 직업교육의 주목할 만한 특징

본 연구의 목적은 북유럽 국가들의 시스템을 요소별로 정교하게 비교하는 데 있지 않으며, 이 국가들의 직업교육 시스템에서 드러나는 주요 특징들을 검토하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는 데 있었다. 각국의 직업교육 시스템을 요소별로 비교하기 보다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끌어내어 요약하며 제시하고자 한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각국의 사례를 가로지르며 중첩적으로 드러나는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의 주요 특징을 크게 11가지로 추출하였다. 11가지 주요 특징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전적인 지원, 중앙과 지역의 역할 분담, 사회적 파트너의 주도적 참여 속에 높은 현장성, 도제훈련의 강조, 체계적인 질 관리, 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선택, 유연한 제도, 제2의 기회가 열린 유연한 체제, 높은 직업교육 참여, 교과통합 및 체험 중심의 진로지도, 세계화와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이다. 이들 각각의 특징과 관련된 국가별 사례를 요약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1.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

북유럽 국가에서 교육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대부분의 교육이 무료로 제공된다. 2006년도 기준, OECD 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투자 평균은 5.7%인 것에 비하여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 7.3%, 스웨덴 6.3%, 핀란드 5.8%, 노르웨이 5.4%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OECD 평균보다 높다.

OECD 평균보다 높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한국, 호주는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교육비의 거의 대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민간 부담률이 2.9%로서 OECD 평균(0.8%)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북유럽 국가들과 뚜렷하게 대비를 이룬다.

교육비를 공적으로 부담하는 것에는 북유럽 사회의 시민주의 전통 속에서 강조해온 평등의 가치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에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지리적 요인에 상관없이, 교육과 훈련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해 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에서도 수업료가 없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먼 지역에서 통학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며, 실습도구 구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덴마크와 노르웨이 사례〉

- 덴마크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과 대출금의 두 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보조금은 학교와 집의 거리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고교단계 학생들은 2006년 기준, 한 해에 보조금으로 1인당 21,200크로네(약 497만원)를 받았으며 대출금으로는 보조금보다 조금 적은 18,100크로네(424만원)를 받았다.
- 노르웨이에서는 학생재정지원법(1985년 제정, 2005년 개정)에 의거하여 공립, 사립 고등교육기관에서, 공식 인증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이라면 누구나 생계를 위한 보조금과 정부학자금 대출을 통한 지원금 용자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유학 중인 노르웨이 학생에게도 지원은 제공되는데, 이들은 여행비, 입학비 및 수업료를 위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먼 지역에서 통학할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실습도구 구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며,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하지만, 각 시·도별 지자체에게 직업교육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시·도별 지자체는 각 관할구역에 있는 직업교육기관에 대해서 대부분의 재정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개별 기관의 성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직업교육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

- 덴마크의 직업교육기관은 'taximeter system'에 기초하여 정부에 의하여 지원받는다. 이는 1990년대에 도입된 정책으로, 개별 교육기관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기관에 등록된 학생의 수 등 실제적인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통하여 효율적 분배와 함께, 재정활용에 있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 핀란드의 경우 각 학교의 졸업생 수, 탈락률(drop out rates), 취업률 등 해당 학교의 직업교육 성과에 따라 기관의 직업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재정 지원에서 기존의 지원액의 일정비율(약 2-3% 정도)을 삭감하여 그 전 해에 좋은 실적을 거둔 기관에 지원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스웨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 연령 구조, 인구 밀도, 사회 구조, 이민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다.

2.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역의 높은 자율성

북유럽 국가에서 고교 단계 직업교육기관은 지방정부가 소유하며 지방 정부는 실행에 관한 큰 폭의 자율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직업교육에 주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앙정부는 직업교육에 있어서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직업교육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정책의 결정 및 실행에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중앙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부 산하에 별도의 기관을 두고 있다.

<국가수준의 정책 실행을 위한 교육부 산하 기관>

- 노르웨이의 Directorate of Education and Training은 교육연구부 산하기관이며, 고등교육 이전 단계의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과 질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립되었다.
- 스웨덴의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은 교육연구부 산하 기관으로 고교 직업교육의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또한 실러버스, 교육과정 기준, 평가기준을 개발하며, 학교장 및 교사들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중앙에서 교육과정과 질 관리에 관한 기본틀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은 직업교육훈련의 실행의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노르웨이 오슬로 교육청의 직업교육훈련 관련 주요 역할〉

- 수도인 오슬로 교육청 내의 직업훈련부에는 약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훈련 프로그램 영역별 코디네이터이다. 이들은 지역의 사회적 파트너, 훈련기관, 훈련교사들과 긴밀하게 네트워킹하는 가운데 프로그램별 훈련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 직업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주요 역할은 훈련기관 인정, 훈련계약 관리, 도제생과 훈련사무소 및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기능사 자격시험 시행, 기능사 시험을 위한 평가단 임명, 예산 지급, 학생·학부모·훈련사무소·훈련기관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훈련 수요의 지역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가운데 사회적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 훈련 실시, 자격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권은 필수적이다. 직업교육 시스템의 분권화는 사회적 파트너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업교육훈련에서 지역 수준에서 그 지역의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맞게 사회적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직업교육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3. 사회적 파트너의 주도적 참여, 현장성 높은 직업교육

북유럽 국가에서는 사회적 파트너가 직업교육훈련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사회적 파트너는 모든 직업교육훈련에서 제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정부의 직업교육훈련 자문위와 지방의 훈련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은 법령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이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주된 기능일 정도로 산업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이 높다. 산업계의 노사 양측의 대표

로 구성되어 있는 직종별 또는 프로그램별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신 훈련 직종의 개발과 기존 훈련 직종의 개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커리큘럼 구성에서도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 이들은 직업훈련과정의 목적, 기간, 내용, 자격기준, 자격증 발급 등에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직업교육훈련에 사업주와 노동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교육 내용의 현장성이 높게 되고, 그 결과로서 획득한 졸업자격은 곧바로 노동시장에서 통용된다. 즉 직업계열 고등학교를 이수함으로써 받게 되는 직업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장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노동시장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자격이 자격증으로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므로 해당 분야에 취업하려면 반드시 자격이 필요하며 이것을 학교에서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직업교육의 실제적 가치가 높다. 핀란드 사례에서 파트너십이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실제적 가치가 높다는 사실에 유추할 때, 산업체의 깊은 참여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에는 상호신뢰와 협의의 원리에 입각해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간의 협력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이 바탕을 이룬다. 노사정간의 상호신뢰는 직업교육훈련 내용이 신속하게 업데이트되고, 노동시장 적합성을 가지며 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는 오랜 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와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협력해온 경험과 노사정간에 투명하게 게임의 법칙을 따르는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북유럽에서 이와 같이 사회적 합의주의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고용주단체와 노조단체가 중앙집권화 되어 협상이 가능할 정도의 힘의 균형을 이루었다는 점 또한 작용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노동자의 숙련 향상이 노동자의 지위를 향상시켜 노조의 교섭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준 상생의 경험을 통하여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 도제훈련의 강조

북유럽 국가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에서 실습의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습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기간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기업체에서의 도제훈련을 기본 모델로 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학교에서의 훈련이 주가 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중 거의 대부분이 도제훈련에 참가하고, 노르웨이는 직업계열 학생의 약 23%, 핀란드는 16.7%가 도제훈련을 받으며, 스웨덴은 대부분의 훈련이 학교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스웨덴도 도제훈련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북유럽 직업교육훈련의 공통된 특징의 하나로 도제훈련을 말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직업교육의 핵심 원칙 중의 하나가 '이원화 훈련'이고, 대부분의 학생은 직업학교에서의 학습과 산업체에서의 도제훈련에 참여한다. 도제훈련은 기본적으로 훈련생과 기업체 사이의 계약이나 훈련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훈련의 3분의 2는 기업체 내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받는다.

노르웨이의 경우 2006년 기준, 60%의 학생들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했으나, 그 기간 중에 도제훈련에 참가한 학생의 비율은 1/4이 안 된다. 이렇듯 현장훈련의 비율이 낮은 것은 도제훈련이 발달된 독일, 덴마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직종에서 도제훈련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며, 직종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의 성격 상 현장에서의 훈련보다 학교에서의 훈련이 더 선호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르웨이 직업교육에서 도제훈련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기본 모델은 2+2이다. 학생들은 2년 동안의 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을 통하여 기초역량을 제고하고, 자신이 선택한 프로그램 및 세부 직종과 관련된 이론 학습을 마친 후에 현장훈련에 참가하게

된다. 도제훈련은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기업, 학생간의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주에게 2년 동안 약 1200유로의 비용을 지급하고, 기업은 학생들에게 숙련된 근로자의 30%-80% 수준의 임금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상하면서 지급한다. 현장훈련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카운티의 행정 담당자, 기업의 대표, 노동자 대표,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업훈련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계약의 체결과 훈련 제공 비용 지급과 같은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지역의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훈련사무소(training office)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체 내의 훈련 비중을 높이기 위한 덴마크의 노력: 2002/03발의>

- 덴마크는 2002/03 발의를 통하여 기업체 훈련 비중을 높이고 학교에서 훈련을 줄이고자 강력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결과 현재의 높은 도제 훈련 참여율을 이끌어냈다.
- 그 이전에 덴마크에서는 학교에서의 직업훈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 이유는 고용주들이 ‘고용자 배상 기금’을 통해서 훈련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학교는 기업체에서 훈련 받았던 학생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학교 내의 훈련생을 선호하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덴마크 정부는 사회적 파트너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1월 발의를 통하여 비싼 비용이 드는 학교 내의 훈련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9,960개의 훈련기업체가 등록되면서 2007년 말에 개혁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훈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양질의 노동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직업교육훈련 교육과정 구성 과정에서

자격 검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또한 중세에서부터 이어지는 도제훈련의 전통, 숙련 기술을 사회의 공공재로서 인식해온 사회적 분위기도 작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현재로서는 15주 동안의 기업체에서의 훈련을 필수화하고 있으며, OECD 통계 상으로 스웨덴에서는 도제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스웨덴 정부는 2011년에 도제훈련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적용하기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도제훈련 제도 도입을 위한 스웨덴의 최근의 노력>

- 스웨덴은 과거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 체제를 도입하면서 도제훈련 제도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에 집권한 보수당 우파 정부는 고교 단계에서 도제훈련 체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 다시 도제훈련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자격을 갖춘 기능 인력의 부족, 고등학교에서의 높은 중도탈락률, 학교기반의 직업교육이 기술의 발달을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 훈련을 적절히 시킬 교사를 찾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 스웨덴 정부는 2011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도제훈련 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적용한다는 계획 아래, 2008년 하반기부터 도제훈련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5. 체계적인 질 관리

북유럽의 직업교육은 체계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유럽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서 중도탈락이 논란이 될 정도로 높은 이유 중의 하

나는 이 나라들의 교육 시스템이 엄정한 기준에 기초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질 관리 체제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 모두 유사하다.

〈노르웨이 직종별 자격 인정〉

- 노르웨이에서 직종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수료한 기초공통과목에서의 성취 수준 인정과 하루에서 닷새 동안 걸쳐서 시행되는 실기평가를 통과할 때 주어진다.
-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며, 그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정식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성인학습 트랙을 통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별도의 노력을 통하여 자격을 만회해야 한다.
- 인증의 과정에는 지역의 직종별 평가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평가위원회의 대다수는 산업체와 노동자단체를 통하여 추천받은 사람들로 교육청에서 구성하며, 실질적인 스킬의 보유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최근의 “지식 촉진 개혁(Knowledge Promotion Reform)”의 영향으로 기초능력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이론 과목에 대한 이수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질 관리는 개인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개별 교육 기관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학생 개인의 성취의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기관에 대하여 엄격한 질 관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각 학교의 졸업생 수, 탈락률, 취업률 등 해당 학교의 직업교육 성과에 따라 기관의 직업교육의 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는 결국 직업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질 관리로 연결되므로 직업교육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결국 직업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 시의 직업교육 훈련 기관 질 관리〉

- 헬싱키 시정부는 시에 있는 8개의 직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질 관리 기준에 대해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재정지원에서 기존 지원액의 일정비율(약 2-3% 정도)을 삭감하여 그 전 해에 좋은 실적을 거둔 기관에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학교를 평가함에 있어 졸업생의 취업률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가 소속한 지역의 특성과 학교가 속한 직종분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 기관에 대한 평가와 질 관리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직업교육훈련의 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교를 표집하여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다. 이 평가에서 생성된 개인 및 학교별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단지 국가 수준에서의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6.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

북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매우 유연해서 학생들이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갖는다. 직업교육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서 모두 유연하다고 말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는 직업교육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혁을 통하여 “가르침에서 배움으로, 수업중심에서 개별훈련 중심으로”라는 구호와 함께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을 강조해 왔다. 특히 모든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평가 받은 후에 “개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기초한 교육이 진행된다. 학생 개인의 선행학습 정도와 능력에 따라서 학습 속도와 내용을 달리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하면서도 모듈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덴마크의 개인별 교육계획(Personal Educational Plan)>

- 학생들의 희망과 관심, 능력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은 학생들과 협조하여 학생 개인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들이 이수하게 될 기본과정과 본 과정의 내용이 포함되며, 기업체와 실제 훈련계약을 맺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에 당해 기업체도 참여한다. 개인별 교육계획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체의 실제 훈련을 통해 습득한 자격과 능력을 기술하는 교육 포트폴리오(educational portfolio) 또는 로그북(log-book)도 준비된다.
- 덴마크의 개인별 교육계획은 고교 직업교육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작성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교육법에서 학생 개인은 자신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특히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동기부여가 덜 되는 학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맞물린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수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 요구되는 사항이지만, 제도적으로도 개인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특히 도제훈련에서는 기본 모델이 2+2이지만, 학생이 학교에서의 이론 학습을 버거워할 경우, 먼저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부족한 이론 과정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0+4, 1+3, 2+2, 3+1, 3+0(앞의 숫자는 학교 기반 교육, 뒤의 숫자는 현장에서의 훈련 기간)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모델이 제공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학생 개인의 여건과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단기 직업교육 과정, 부분자격, 도제경로, 예비훈련, EDU+, 추가자격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적 학습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 제시>

- 덴마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계층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위한 ‘단기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정을 끝까지 이수할 인내심이 부족한 학생 대상으로 부분자격을 인정하고 추후에 완성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부분자격’제도와 EDU+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노르웨이에서도 최소한의 이론적 학습에 대해서 기피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현장 경험을 한 후에 추후에 필요한 이론 학습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열어놓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직종자격을 따거나 고교 졸업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이수한 내용을 인정하고자 certificate of competence를 제공하여 그들이 고교 졸업장이 없어서 대면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7. 진로변경이 용이한 유연한 제도

북유럽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유연성을 넘어서 교육기관 간 연계를 촘촘하게 하여 개인이 원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이동이 가능한 유연한 틀을 가지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모두 기본적으로 유연한 이동을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핀란드에서는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계 고교로 또는 직업계고에서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경우 학업 성취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진학률 등이 미진한 일반계 학교에 비해 취업률 및 자격 취득 등에 우수한 성과를 가진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희망률이 높다.

노르웨이는 한 학교에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주요 이유는 이 두 영역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실습이나 직종에 특수한 이론은 물론 코스에 따라서 다르지

만, 2+2 모델에서 학교에서 2년간 제공되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커리큘럼은 모두 일반교육 과정의 커리큘럼과 유사한 일반이론 수업을 포함한다. 이는 직업학교 학생이 일반교육 과정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최근의 '지식 촉진 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직업계열에서 일반고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1년 동안의 추가 학습을 통하여 이론 교과를 보충한 후에 졸업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노르웨이에서는 계열 간 이동만이 아니라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서는 학교 선택이 가능하다. 거주 지역 이동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받는 임금과 정부로부터의 보조금과 대출을 통하여 비용을 충당한다. 각 학교별로 9개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하지 않으며, 동일한 프로그램 하에서 제공되는 직종 코스 또한 학교에 따라 다르므로,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동일한 전공 내에서 학교를 변경하여 코스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8. 제2의 기회가 열린 유연한 체제

북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엄정한 질 관리와 함께 유연한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시도가 가능하며, 그러한 시도에서 실패하거나 대안적인 시도를 하고자 할 경우, 돌아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모든 대안적인 접근 역시 공적 교육 시스템 안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고교과정을 이수했으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자격으로서 고교 졸업 자격 취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성인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교 직업교육훈련 종료 시 받는 자격증과 동일한 자격을 갖고자 할 경우 5년 이상의 관련 경험에 대한 증명을 통하여 응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는 새로운 직종의 생성에 따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성인 자격 지원자(practice

candidate)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음을 인정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각 주에서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수(follow-u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 및 훈련 과정에 입학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과 연락할 의무가 주 정부에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들을 학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덴마크에서도 유연한 모듈형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규 교육제도와 성인 계속교육제도에서 단계에 구별 없이 고등교육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고 뒤쳐진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들을 모두 유치하기 위해서 통합적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민자 자녀 등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문화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과 우수한 학생을 모두 직업교육에 포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누구나 자기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연교육(flexeducation)>

- 덴마크 정부는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학습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에 언제라도 필요한 자격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덴마크 교육장관은 이러한 유연한 교육시스템을 ‘유연성(flexibility)’과 ‘교육(education)’을 결합시킨 개념인 ‘유연교육(flexeduca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과 함께 덴마크의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9. 높은 직업교육 참여율, 상대적으로 낮은 스티그마

북유럽 국가에서는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핀란드: 65%, 노르웨이: 60%, 스웨덴: 54.2%, 덴

마크: 47.8%). 이와 같이 높은 직업교육 참여의 배경에는 기능인을 존중하는 전통, 숙련(skills)을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산업계의 문화가 작용하고 있겠으나,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온 결과이기도 하다. 덴마크의 경우 훈련생에게는 훈련 인센티브가 있다. 즉 훈련생은 훈련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훈련수당을 받으며, 훈련의 결과로 얻게 되는 직업능력(자격)은 취업, 임금, 승진 등 경력개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도 직업교육개혁을 통하여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폴리텍 대학으로 진학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경로를 여는 정책을 통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하였다. 핀란드에서는 현재 진학을 등이 미진한 일반계 학교에 비해 취업률 및 자격 취득 등에 우수한 성과를 가진 직업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희망률이 높다.

노르웨이는 94년의 개혁을 통하여 직업훈련을 체계화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그 결과 1994년에 44%였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비율이 최근 몇 년 동안은 60%를 넘게 되었다. 고등학교 학생의 최소한 50%가 직업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치인과 사회적 파트너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며, 이를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펴온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에서 OECD 일부 국가의 직업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직업교육 참여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추세에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평생학습의 틀 속에서 **계속 교육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이다. 또한** 직업훈련 수요자 측인 노동시장에서 인력의 선발에서부터 임금, 승진 등 고용관행이 직업교육훈련의 결과로 얻어지는 직무능력(skills)에 기초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유럽에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낙인효과가 적다는 것은 정책 차원에서의 평가 결과이며,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실제로 일하고 있는 전

문가 혹은 실천가들과의 면담 과정에 드러난 사실은 북유럽에서조차도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교과통합, 체험중심, 개별화된 진로지도

북유럽의 국가에서는 진로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센터를 통한 진로지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 학교 진로지도의 주요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과통합적 접근이다. 둘째, 체험을 중시한다. 셋째, 개인의 특성에 맞춘 진로선택이 가능하도록 개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과통합적 진로교육은 특정 시기에 제한적으로 혹은 행사성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하여 범교과적으로 통합된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덴마크에서는 「교육, 직업, 노동시장 입문」이 범교과적으로 1학년에서 9학년 동안 모든 교과에서 통합되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기초교육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교과의 수업은 해당 교과에서 제공하는 지식 및 스킬이 직업생활에서의 요구가 그 가능성과 연계하는 모듈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교과를 통한 통합적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북유럽의 진로교육에서는 직업체험이 거의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7~9학년 기간에는 1~2주 가량의 직업체험을 통하여 직업현장이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김나라, 2009). 핀란드에서는 중학교와 고교 1학년 과정에서 직업생활 소개기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직업적·학업적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활동에는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Future Skills Growth”라는 인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최동선, 2009). 노르웨이에서도 2주간의 단기 직업

체험을 의무화 하여 진로선택의 바탕이 되도록 하며, 향후 이어지는 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고교 단계에서의 진로교육은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습계획의 수립과 밀접하게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개별적인 진로 지도 서비스를 학교에서 받게 된다.

11. 세계화와 EU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

EU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가지며, 1990년대 이후 벌어진 유럽의 경제 위기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EU 통합 논의로부터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의 정도가 북유럽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1990년대 초 핀란드는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정치적 이념과 경제정의 정책을 포기하게 되며, 가장 신속하고도 명료하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수용한 경우로 평가되고 있다(한승희·오현석,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정책에 있어서 핀란드가 신자유주의적 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승희·오현석(2005)에 의하면, 교육에 있어서의 신자유주의적 모형은 학습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책무이며, 사회는 이를 위하여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해주면 된다는 것이며, 평등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은 학습은 공적인 일이며, 공공부문은 그들이 기대하는 교육수준 및 교육지원 체제를 충분히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 기준에 따르면 핀란드조차도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적 복지국가 모형에 더 가깝다.

EU는 유럽 국가 간 경제협력을 주요 목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직업훈련과 자격제도에 관한 프로그램이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고자 하는 유럽정책의 효과적인 도구라고 인식하고, 기존의 체계를 더욱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는 단지 직업교육훈련에 한정되지 않으며 초등

교육에서 성인의 계속학습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의 영역에 해당된다. 이를 위한 실행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실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장원섭, 2006). 첫째, 학위, 자격증뿐만 아니라 비형식, 무형식 학습을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학습 및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와 상담을 촉진한다. 셋째, 평생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수준과 투명도를 높이고, 인센티브(예컨대, 개인학습계좌)를 제공하며, 교육의 질과 투자회수 확인(예컨대, 지표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학습공동체, 학습도시, 학습지역을 지원하고 지역학습센터를 설치하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직장에서의 학습을 촉진한다. 다섯째, 기초능력을 확인하고 저학력자, 중퇴자, 성인학습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새로운 교수학습기법, 교수자의 새로운 역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을 개발한다.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질 프레임워크(EQF)”에 맞게 교육시스템을 변화시켜가고 있으며, 유럽학점전이체계와 국제 학위 시스템이 고등교육에서 실행되고 있다. 기초능력의 강조, 영어와 제2외국어의 강조는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직업교육훈련에서의 교환 프로그램인 Leonardo da Vinci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에서 1년간 중등 교육을 받은 경우 국내에서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학생과 훈련생에게는 해외로의 직장배치와 유학을 위한 정부 학자금 대출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3절 북유럽 사례가 우리의 직업교육에 주는 시사점

1. 시사점 도출의 기본전제

흔히 우리의 고교 직업교육 체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총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비단 교육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며, 역사, 문화, 경제, 정치 모든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혹자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에서부터 찾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과 승진에서 스킬보다 학력이 우선시 되는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들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가족 복지적 측면으로 인하여 청년층이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교육 내부적으로 보면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교원 인력 수급과 관련된 교원 집단의 저항 문제가 있다.

직업교육 관련 선행 연구(정철영, 2000; 정철영 외, 2000; 정태화, 2005; 정태화, 2006; 안치민, 2006; 정태화 외, 2007; 정철영, 2007; 나승일 외, 2008; 정철영 외, 2008; 정태화, 2008; 정태화 외, 2009)에서 제시된 우리 직업교육의 문제는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이로 인한 학생 수 감소, 현장실습 미흡, 높은 진학률과 낮은 취업률, 관련 제도 및 교육기관 간의 연계 부족, 공급자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및 개편, 교원의 실기지도능력 부족, 기초학습능력 부족, 재정지원 부족, 특화된 진로교육 부족 등이다. 이들 각각의 문제에 비추어 북유럽 체제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표 7-2>에서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거의 비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직업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유럽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한 나라의 직업교육 체제

는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에 영향을 받아 생성되고 변화해온 역사적 산물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모범적인 제도를 다른 나라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다만 다른 나라가 발전시켜온 체제에서의 주요 요소들과 그들 간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발전시켜가는 데 적절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영현, 2006).

본 연구의 면담 대상자였던 노르웨이 직업교육 훈련 분야 연구자인 Host가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며,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잘 이해할 경우,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 말에 깊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과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가졌던 우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나 문제의식이 얼마나 선명했으며,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얼마나 더 선명하게 우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는지, 또한 그러한 이해가 이 연구 보고서에 녹아들어 제시되었는지를 질문한다.

〈표 7-2〉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 직업교육 체제의 문제점들을 북유럽 국가 대부분이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줄 수 있는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 사회와 이들 나라는 대조적인 시스템을 발전시켜왔으며,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선불리 모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유럽의 강소국들이 평등과 사회적 신뢰의 기본 가치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제도를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대비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이 질문은 우리의 현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는지,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변화하고자 하는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어떻게 차용할 것인지, 즉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 등의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질문

<표 7-2>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의 고교 직업교육의 문제점별 북유럽 국가 직업교육훈련의 특성

	주요 선행 연구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정 철 철 영 영 (00)	정 철 영 영 (00)	정 철 영 영 (05)	정 철 영 영 (05)	정 철 영 영 (07)	정 철 영 영 (08)	정 철 영 영 (08)	정 철 영 영 (08)	정 철 영 영 (08)	정 철 영 영 (08)					
사회의 부정적 시각/학생 수 감소	●	●	●	●	●	●	●	●	●	●	증가 (2003년 53.3%에서 2006년 47.8%)	증가 (2003년 58.8%에서 2006년 65.4%)	변화 없음 (52.2%에서 60.0%로)	증가 (2003년 52.9%에서 54.2%)	
공급자위주의 프로그램 구성 및 개편	●	●	●	●	●	●	●	●	●	●	노동시장, 산업체의 요구 반영	노동시장, 산업체의 요구 반영	노동시장, 산업체의 요구 반영	노동시장, 산업체의 요구 반영	
지역산업과의 연계 부족					●						긴밀한 연계	긴밀한 연계	긴밀한 연계	긴밀한 연계	
현장실습/체험학습미흡		●	●	●							높은 도제훈련 참여율(47.5%)	높은 도제훈련 참여율(47.5%)	현장훈련강조 (13.9%)	현장훈련 강화 시도	
높은 지한률/낮은 취업률	●						●				전문대학 지한률: 25%	전문대학 지한률: 25%	전문대학 지한률: 5%	전문대학 지한률: 10%	
관련 제도 및 교육기관 간의 연계 부족	●										수직, 수평으로 긴밀하게 연결	수직, 수평으로 긴밀하게 연결	긴밀한 연계	긴밀한 연계	
교원의 실기지도능력부족/우수교원부족	●	●	●	●	●	●	●	●	●	●	실기능력 강조	실기능력 강조	실기능력 있음 / 교사노령화 문제	실기능력 강조	
과잉교사 발생으로 인한 신분불안	●	●	●	●	●	●	●	●	●	●	교사 고령화	교사 고령화	교사 고령화	교사 고령화	
기초학력부족															
전문제도에 특화된 진로교육부족											적극적 진로지도	적극적 진로지도	적극적 진로지도	적극적 진로지도	
재정지원부족											부족하다는 논의 없음	부족하다는 논의 없음	부족하다는 논의 없음	부족하다는 논의 없음	

에 대한 답을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단계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 방향 중 선명한 한 가지 특성은 고교 단계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하여 북유럽 제도가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 이 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시사점은 구체적인 실행 전략에 대한 시사점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의 현장성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가 가능하기 위한 배경을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시사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목표로 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 그러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본 연구에서 추출한 시사점이 향후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

북유럽 국가들이 발달되고 안정된 직업교육 체제를 꾸려온 기반에는 교육비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비 투자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인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⁴³⁾ 우리나라의 높은 고등교육의 참여율 뒤에는 교육에서의 허술한 질 관리가 있다. 즉, 쉽게 고교를 졸업하고, 쉽게 대학을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도 무리해서 고등교육에 진학하도록 현 교육 체제가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즉, 상대적인 취약계층조차도

43) 교육비 투자는 200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비용 중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 2009a).

질 관리가 취약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힘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마련하고, 그로 인하여 실질적인 역량을 쌓지 못한 채 학위를 갖게 되지만, 그 학위가 노동시장에서 갖는 가치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문계 고교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용이하게 만드는 현 제제를 도입한 원래 명분은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취약계층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도덕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해 지는 데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우리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교육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은 하나의 먼 이상향이다. 현재의 우리로서는 점진적으로 직업교육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높이고, 그 대신에 엄격한 질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나아가 할 방향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그것의 핵심 기제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갈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직업교육 부문에서의 공적 부담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교 단계 직업교육과 거기서 이어지는 고등 단계 직업교육까지 국가가 전폭적으로 비용을 지원하여 직업교육 트랙의 매력도를 높임과 동시에 엄격한 질 관리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북유럽 직업교육은 사회적 파트너들의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시민주의의 전통 속에서 발달한 사회적 파트너십은 북유럽 사회에 굳건히 자리잡은 문화자산이며, 이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다. 교육에 산업체가 체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협의

체가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실행의 주체로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직업교육훈련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산업계가 참여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준별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부위원회들을 단순화하여 기능을 강화한다. 한편 법률을 정비하여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

산업 수준에서는 사업주단체와 노동조합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전문성 면에서 자체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단체나 근로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들 단체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단체와 근로자단체도 직업능력개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직업능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역 수준에서는 지역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나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같은 몇몇 기구들을 통하여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기업 수준에서 사용자는 직업교육훈련의 계획수립 및 실행과정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을 적극 동참시키고, 훈련에 대한 보상체계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 역시 직업능력개발이 자신의 직무능력 향상 및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단체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함과 동시에 자체의 훈련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노사협의회에서의 교육훈련 의결을 법적,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해야 한다.

다. 직업교육의 현장성 제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업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직무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문계 고교에서는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과 연계된 가운데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훈련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서는 노사정파트너십 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개별 학교와 기업 간의 산학협력 체결, 1社1校 결연을 통한 상호 교류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인 협력은 직업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여건이 안 되는 대다수의 학교를 배제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직업교육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학교 등 직업교육훈련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법에 명시하고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에게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지역의 자율권 확대와 중앙의 적극적 지원

우리나라에서 최근 초중등교육에 관한 시·도 교육청의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자치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자립이 미흡하다. 중앙에서의 정책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 없이 수립된 정책을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관련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은 수동성을 띄게 된다. 직업교육의 실태는 수도권 지역과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성된 교육청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나 중앙에서 지역별 차이가 고려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직업교육에 관한 권한을 대폭 지역으로 이양하되, 재정적인

지원과 기본적인 방향 수립이라는 측면에서 중앙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일관되게 실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질 관리 체제 강화

현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교육과정은 산업현장에서의 직무요구와 괴리되며, 고교졸업자격은 매우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최소한의 출결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직업교육의 질을 보충할 수가 없다. 더욱이 고교 단계 직업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근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고교 졸업 자격이나 재학 중에 취득한 자격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효용성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바는 산업계 주도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자격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직종별 직무능력표준 개발과 업데이트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편과 자격제도, 고교 졸업 인증 제도를 맞물려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 인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에 진입하도록 한다.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음 단계의 진입에서 누락된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능력중심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업연한을 엄격하게 규정한 교육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바. 기초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한 체험 중심의 대안적 프로그램 제공

북유럽의 직업교육에서는 학생 개인의 태도와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기초능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이론적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억지로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강요하기보다 실제 경험을 먼저하고, 향후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론적 학습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의 전문계 고교도 학습의욕이 매우 낮은 학생들이 의미 없이 학교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그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가 모두 고통받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학교 시스템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소중한 청소년기에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정교하게 배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결국에는 진학을 하게 되더라도, 적어도 학교에 다니는 동안 의미있는 경험이 되도록 체험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체험 속에서 기초학습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이 제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 개인의 흥미와 능력, 요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업 및 직업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관심과 진로지도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는 집단이라 하겠다. 학생 개인의 태도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

개인의 특성과 요구를 존중한다는 맥락에서 학생들이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 일반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열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이동이 가능하기 위하여 최대한 두 계열간의 공통된 요소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열간 이동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과 학교를 넘나드는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는 지역에 따라서 제공되는 전문계 고교 프로그램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체의 요구의 차이에 기인한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자체적으로 가지는 역사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아. 노동시장의 고용관행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

직업교육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공급자 측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직업훈련 수요자 측인 노동시장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즉 인력의 선발에서부터 임금, 승진 등 고용관행이 현재처럼 학력 중심이 아니라 직업교육의 결과로 얻어지는 실제능력을 중요시 해야만 직업교육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 관리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입직수준을 정하고 학력에 따라 인력을 충원하는 관행, 생산직과 관리직의 직무가 엄격히 분리된 작업조직, 생산직의 경우 근무 중에 상위학력을 취득했다더라도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는 짧은 승진사다리 등은 학생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소들이다.

정부와 기업은 직업능력을 기초로 하는 직무급의 도입, 유연한 작업조직의 설계 등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SUMMAR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Nordic Countries

Eon Lim, Young-Hyum Lee, Jihee Choi, Jun-Pil Ok

1.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uppe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system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Denmark, Finland, Norway and Sweden). The followings ar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First, what are the core values that Northern European education systems are based on, and what policies have these countries framed for embodying the core values? Second, how have apprenticeship-based VET models been constructed, and what are institutional measures for supporting the model? Third, what policy implications do their systems offer for Korean upper secondary VET?

2. Overview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o understand the context of Northern European VET,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features of these countries were considered in this study. The main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re small but strong. Despite the small population and economic sizes, these countries have achieved high economic growth and comprehensive welfare systems. Second, Social democratic tradition has prevailed in these countries. Accepting basic principles of free market economy, these countries have pursued the ideal of Socialism that takes equality as a priority value and have tried to realize it in the democratic and legal mode. Third, these countries have constructed welfare systems. Fourth, these countries have developed social corporatism. The important social groups, labor, capital and the state, have systematically taken an active part in main policies making process.

To take an objective view on features of the education system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is study compared these countries with other OECD countries. In these countries, 77.6-81.1 percent of adult population completed upper secondary education, which is above OECD average. In addition, the ratios of expenditure on education compared to GDP are above OECD average, and the ratios of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re top of the league. The result of OECD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PISA) shows that only Finland is top of the league. However the result of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IALS) shows that all of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the highest level of it. Furthermore relatively high are the proportion of a youth participating in VET in these countries: Denmark, 47.8; Finland, 65.4%; Norway, 60% and Sweden, 54.2%.

3. Main Features of VET in Northern Europe

The main features of VET in Northern Europe are the followings:

First, in these countries, the state entirely finances VET courses. Under social democratic tradition, focusing on equality, these countries have aimed to realize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 local authorities own upper secondary VET institutions, being autonomous in terms of governing them to a great extent. However, the Government has considerable influences on VET. The Government sets out the overall framework for national level curriculum and quality assurance, and the local authorities are in charge of implementing education and training. It is essential that local VET providers be autonomous in terms of adapting VET to local needs and demands.

Third, in these countries, social partners plays a central role at all the levels of VET, consequently their VET corresponds closely with labor market skills demands. In addition, there are a variety of committees, from the national advisory councils on VET to the local training committees, and the roles of social partners are regulated by a number of acts. Trade-specific and programme committees,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from both sides of industry, have a dominant position in formation of curricular, performing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new VET courses and renewal of established VET courses, in order to match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 committees are responsible for deciding purpose, period, content and requirement for the VET courses, and issuing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these countries, the mutual trust and close cooperation among the Tripartite actors(labor, capital and the state) have involved in making VET more adaptable to

the continuous labor market changes, and maintain quality of VET courses.

Forth, at the upper secondary level, all of these countrie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practical training within VET courses. However, places and periods for practical training vary in these countries. For example, Denmark and Norway take the apprenticeship training at enterprise as basic practice programme, while in Finland and Sweden, school-based practice is considered as the main programme. In Denmark, a majority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VET courses, choose apprenticeship training. In Norway, about 23 percent of vocational students and in Finland, 16.7 percent of them participate in apprenticeship programme. In Sweden, school-based practice has prevailed. In recent years, however, the Swedish government has tried to introduce 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me.

Fifth, these countries have formulated quality assurance system. High drop-out rate in the upper secondary VET has generated a lot of controversy, yet imposing strict requirements for graduate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 is one of the factors which caused high drop-out rate.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similar quality assurance systems. Such a quality assurance system of VET is applied to individual level as well as institution and national-level.

Sixth, flexible vocational education system enables students to have a wide variety of choices in these countries. For example, in Denmark, each student establishes a "personal educational plan", based on his personal assessment of prior learning, and according to the plan, education programme is provided to each student. That is, in Denmark, the flexible and modulized VET system is constructed which enable each student to

adjust the pace and content of learning based on his competency and level of his prior learning. The Norwegian Education Act also states the individual's right of receiving education according to their competencies and aptitudes. The emphasis on the individually-focused education is compatible with the view that the students who may struggle and lack motivation should be paid more attentions.

Seventh, in addition, within VET system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individual education institution has closely linked to each other so that it enables all students to transfer between learning pathways under a certain condition. Denmark, Finland and Norway have similar flexible systems.

Eighth,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strict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flexible education system so that they enable students who fail in meeting the standard quality requirement to have second-chances, as well as alternative pathways. These alternative programmes are provided with no charge within the public education system.

Ninth, relatively high are the proportion of a youth participating in upper secondary VET in these countries- Denmark: 47.8, Finland: 65.4%, Norway: 60% and Sweden: 54.2%. This is the result of not only the socio-cultural tradition of respect for a journeyman but also the strong policy implement. In these countries, every person has opportunities for continuing education within the lifelong education framework. Besides, the industrial sector, the demander of VET, has made the effort to create a skills-focused custom in recruitment, wage level, promotion and so on. That is why, on the whole, in these countries, the VET participation rates have been increased or kept status quo, while in other OECD countries, the rates have been decreased.

Tenth, in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an active and comprehensive career education has been implemented in the integrated way, across all subjects. Besides, the work experience programmes are provided to a majority of students.

Finally, these countries have reformed their education system in line with “the European Qualifications Framework”, and have implemented the European Credit Transfer System for VET (ECTS) and international degree system. These trends have entailed emphasis on basic competency, English and the second foreign language. In addition, these countries have participated in the Leonardo da Vinci programme which enables VET organizations to work with European partners and exchange best practices.

4. Policy Implications

Korea and Nor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developed distinctly different systems, therefore it may be more difficult to extract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Northern Europe case which can be applied directly to Korean VET system. However, in relation to improving coherence between the VET programmes and labor market skills demands, the Northern European case br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for VET. That is, it is needed for the government to increase gradually financial support for VET and make the VET tracks more attractive, as well as to introduce a rigid quality assurance system.

Second, there is a need for constructing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To stimulate the industrial sector to participate in VET, the government, the industry, local authorities and enterprises should come up with measures at all the levels.

Third,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linkage between the VET programmes and labor market skills demands. To promote workplace training with VET system, the role of stakeholder- the government, the industry and education institutions- should be stated by acts and controlled strictly.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offer incentive (e.g. financial incentive) for enterprises and trainees participating in workplace training.

Fourth, it is needed to expand the autonomy of local authorities and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hould empower local authorities to administrate VET, at the same time, it should set out overall framework and offer financial support programmes.

Fifth, there is a need for strengthening quality assurance system. It is necessary to set out National Skills Standard, led by the industrial sector and reflect the Standards in VET programmes and qualification system. The graduate qualification also should be tighten up.

Six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variety of experience-focused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mes for the student who lack basic competency.

Seventh, flexible education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order to offer students many pathways.

The flexible system enables student to have many chances to participate in a variety programmes and substantial options.

Eighth,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sector, the demander of VET, to make the effort to create a skills-focused employment custom.

〈부 록〉

〈부록 1〉 노르웨이, 오슬로 교육 현장 스케치

〈부록 2〉 한국의 학업중단현황(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8일
기준)

〈부록 3〉 스웨덴 고교단계 직업교육훈련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부록 1〉 노르웨이, 오슬로 교육 현장 스케치

6장에서 제시된 노르웨이 직업교육에 대한 보충 자료로서 오슬로시 교육청 담당자 및 권내 학교 방문 결과를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오슬로는 노르웨이의 수도로서 가장 큰 시 단위 교육청이며, 여기서 소개되는 비온홀트 학교는 최근에 오슬로 시에서 의욕적으로 새롭게 시도한 학교 모형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하나의 사례로서만 참고할 가치가 있다.

□ 오슬로 교육청

오슬로 교육청 내의 직업훈련부는 교육청 내의 8개 부서 중의 하나로서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서 프로그램별 훈련에 관한 일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직업교육훈련에서 교육청이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훈련기관 인정
- 계약 관리
- 도제생, 훈련사무소 및 훈련기관에 대한 감독
- 기능사 시험(Journeyman's test) 시행
- 기능사 시험을 위한 평가단 임명
- 예산 지급
- 학생, 학부모, 훈련사무소 및 훈련기관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이러한 역할 외에도 시 교육청은 성인들이 재직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 고교 자격 인증을 요청하는 사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의 경우 12,460명의 개인 신청자에 대해서 30,521의 시험 편의를 제공하였다.

<오슬로 시 교육 관련 기본 정보>

- 12,000명의 근로자
- 77,000명의 학생 및 도제(1,400명의 고등학생)
- 173개 교육기관
- 45개 훈련사무소
- 1,700 훈련기관
- 2,700명의 도제
- 25개의 고교

출처: 오슬로 교육청 담당자 발표 자료

□ 비욘홀트 중고등학교(bjørnholt skole)

비욘홀트 중고등학교는 오슬로 시내의 25개 고교 중에서 유일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이다(8학년-13학년). 오슬로 시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만들어보고자 혁신적으로 설립하여 2006년도에 개교한 후, 현재까지도 그 특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는 3개의 일반교육 프로그램(① 과학, 언어, 산업디자인, 사회 및 경제 중 선택, ② 체육, ③ 음악, 댄스, 드라마)과 3개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건축, 전기, 미디어)을 제공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고과정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구성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교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learning by doing'이라는 직업교육훈련의 교수학습 원리에 중점을 두고 학교 공간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혁신적인 공간 배치는 직업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보다 일반계 전공 학생 및 교사들이 적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방식이 정착되고 있다. 교사를 (12-20명이) 팀으로 구성하여 학생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공동으로 지며, 다양한 교과(이론 교과 포함) 교사들이 함께하여 통합적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이 과정 속에서 기초 역량을 강조하는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온홀트 학교의 공간

	
<p>입구의 개방공간: 동아리 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에 개방</p>	<p>입구: 재크의 콩나무를 소재로한 조형물. 학생들의 비상을 상징</p>
	
<p>미디어 전공 학생의 수업 장면</p>	<p>도서관: 지역주민에게 개방됨</p>
<p style="text-align: center;">〈비온홀트 학교 공간의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의 건축 단계에서부터 혁신적인 학교 모습을 구상 - 개방된 구조, 투명한 유리 - 교사와 학생이 공간적으로 밀접하도록 구성 - 팀작업이 활성화되도록 공간 구성 - 안전하고 의미있는 실습이 되도록 시설을 갖추 - 교장은 교감 및 보조사무원과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모든 구성원이 볼 수 있는 투명한 공간에서 집무 -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 - 칠판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전개 	

〈부록 2〉 한국의 학업중단 현황(2008년 3월 1일~2009년 2월 28일 기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합계		전체 인원	여자 인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일반계고(A)														
총 계(명)	1,506	734	4,300	1,812	165	62	6,810	2,387	3,364	1,513	16,145	6,508	1,419,486	677,614
일반계고 전체비율	0.11	0.11	0.30	0.27	0.01	0.01	0.48	0.35	0.24	0.22	1.14	0.96		
1학년(명)	742	376	2,553	1,017	86	33	4,188	1,428	1,922	875	9,491	3,729	512,322	243,086
학년비율	0.14	0.15	0.50	0.42	0.02	0.01	0.82	0.59	0.38	0.36	1.85	1.53		
전체비율	0.05	0.06	0.18	0.15	0.01	0.00	0.30	0.21	0.14	0.13	0.67	0.55		
2학년(명)	568	285	1,475	675	61	18	2,220	799	1,223	548	5,547	2,325	483,361	231,800
학년비율	0.12	0.12	0.31	0.29	0.01	0.01	0.46	0.34	0.25	0.24	1.15	1.00		
전체비율	0.04	0.04	0.10	0.10	0.00	0.00	0.16	0.12	0.09	0.08	0.39	0.34		
3학년(명)	196	73	272	120	18	11	402	160	219	90	1,107	454	423,803	202,728
학년비율	0.05	0.04	0.06	0.06	0.00	0.01	0.09	0.08	0.05	0.04	0.26	0.22		
전체비율	0.01	0.01	0.02	0.02	0.00	0.00	0.03	0.02	0.02	0.01	0.08	0.07		

<부록 3> 스웨덴 고교 단계 직업교육훈련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계

<부표 3-1> 자연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계

프로그램		자연 자원 활용 프로그램					
구분							
핵심 교과(750)		스웨덴어A(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A(100), 스웨덴어B(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B(100), 영어A(100), 수학A(100), 체육보건A(100), 사회A(100), 종교A(50), 과학A(50), 예술 활동(50)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1,450)	공통 필수 (450)	작업 환경과 안전(50), 프로젝트와 기업(50), 생태학(50), 순환(50), 식물과 동물의 삶(50), 컴퓨팅(50), 자연 자원 활용 직업 생활(100), 기본 기계작동(50)					
	세부 과정 선택 (1,000)	지역별 세부 과정					
		동물관리 (500)	말 사육 (500)	토양 (500)	자연보존과 환경보호 (500)	임업 (500)	정원 (500)
		미생물학과 유전 (50), 동물연구기초(50), 동물 건강관리 (150), 생물학(50), 애완동물(200)	동물연구 기초(50), 말과 마구간 관리 (150), 말 (150), 승마와 마차 조정 기초 (150)	동물연구 기초 (50), 농장동물관리(150), 소기업A (50), 기초 기계 작업 (100), 농업 경작(150)	미생물학과 유전 (50), 동물연구기초(50), 화학A(100), 환경운영과 감사(50), 자연과 문화적 환경 보존 (50), 자연과 환경 활용(150), 수질보호 A(50)	기초기계 작업(100), 전기톱과 제초기(100), 임업A(100), 목재공정A (50), 목재 운송A(150)	기초기계 작업(100), 원예학기초(150), 조경기초 (150), 식물 연구(100)
자유 선택(300)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 영어B(100), 수학B(50) ※ 이 외의 자유 선택 과목(예시) : 조경, 동물연구, 자연환경, 자연 자원 활용, 재배/사육, 관광, 양식 등 관련 과목 86개 제시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부표 3-2> 식품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프로그램		식품 프로그램		
구분				
핵심 교과 (750)		스웨덴어A(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A(100), 스웨덴어B(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B(100), 영어A(100), 수학A(100), 체육보건A(100), 사회A(100), 종교A(50), 과학A(50), 예술 활동(50)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1,450)	식품 프로그램 공통 필수 (600)	작업 환경과 안전(50), 프로젝트와 기업(50), 컴퓨팅(50), 판매 서비스(50), 식품과학A(50), 식품과학B(50), 식품위생(50), 식품기술(200), 영양(50)		
	세부 과정 선택 (850)	지역별 세부 과정(000)	지역별 세부 과정(000)	지역별 세부 과정(000)
	
자유 선택 (300)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 영어B(100), 수학B(50) ※ 이 외의 자유 선택 과목(예시) : 빵 굽기, 도살, 썩기 쉬운 식품, 기업경영 및 마케팅, Patisserie, 식품가공, 다양한 식품 요리 관련 과목 38개 제시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부표 3-3> 경영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프로그램		경영 프로그램	
구분			
핵심 교과(750)		스웨덴어A(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A(100), 스웨덴어B(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B(100), 영어A(100), 수학A(100), 체육보건A(100), 사회A(100), 종교A(50), 과학A(50), 예술 활동(50)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1,450)	공통 필수 (600)	경영A(50), 정보와 기획(50), 작업 환경과 안전(50), 프로젝트와 기업(50), 컴퓨팅(50), 소기업A(50), 사업과 제품 지식 (50), 판매와 서비스(50), 전자상거래A(50), 실전마케팅A(50), 개인 판매(50), 관광사업(50)	
	세부 과정 선택 (850)	상업과 서비스(450)	관광 사업 및 관광 서비스(450)
		상업 특화(200) 가게 운영(100) 전자 상거래B(50) 실전 마케팅B(100)	관광 사업을 위한 노동시장(200) 관광 사업을 위한 시장(100) 관광사업- 자연, 문화 및 환경(100) 관광과 여행 서비스(50)
자유 선택(300)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 영어B(100), 수학B(50)	
		※ 이 외의 자유 선택 과목(예시) : 경영, 컴퓨터 기술, 상업, 식품과 학, 멀티미디어, 법, 관광 산업 등 관련 과목 32개 제시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부표 3-4> 호텔과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교과목 편성 및 이수 체제

프로그램		호텔 및 레스토랑 프로그램	
구분			
핵심 교과(750)		스웨덴어A(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A(100), 스웨덴어B(100)/제2언어로서의 스웨덴어B(100), 영어A(100), 수학A(100), 체육보건A(100), 사회A(100), 종교A(50), 과학A(50), 예술 활동(50)	
프로그램 필수 및 선택 (1,450)	공통 필수 (650)	작업 환경과 안전(50), 프로젝트와 기업(50), 컴퓨팅(50), 호텔A(50), 식품 과학A(50), 식품 위생(50), 차가운 식품(100), 뜨거운 식품(100), 영양(50), 알코올 취급에 대한 책임(50), 서빙A(50)	
	세부 과정 선택 (800)	호텔(400)	레스토랑과 식사 서비스(300)
		호텔B(150) 호텔C(200) 관광(50)	레스토랑(100) 요식 조달(100) 서빙(100)
자유 선택(300)	국가규정 자유선택과목: 영어B(100), 수학B(50) ※ 이 외의 자유 선택 과목(예시) : 호텔 연구, 식품 과학, 요리, 영양, 서빙, 관광 사업, 등 관련 과목 16개 제시		
총 이수 학점	2,500		

출처: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01).

참고문헌

- 김나라(2009). 「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지원 체제」, 이지연 외, 『미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265-276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득갑(2009). 「금융위기로 명암이 엇갈리는 유럽 강소국 경제」, 『SERI 경제포커스』, 264호, 삼성경제연구소.
- 김은환(2004). 「한국의 미래는 강소국 전략에 있다」, 『국정브리핑』 2004년 9월 27일자.
- 김인춘(2002). 「세계화와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엮음,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 사회와 연대.
- _____ (2002). 「세계화시대 북유럽 조합주의의 변화와 혁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비교분석」, 『경제와 사회』, 제53권, 174-200쪽, 한국산업사회학회.
- _____ (2004). 「세계화, 유연성, 사민주의적 노동시장체제- 스웨덴 사례」, 『한국사회학』, 제38집 제5호, 143-177쪽, 한국사회학회.
- _____ (2007).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 나승일 외(2008).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화 및 종합발전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1호, 83-117쪽.
- 나영선 외(2008). 『고용보험 평가체계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나일주 외(2006). 『교육-고용-복지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I)』,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 대한상공회의소(2003). 『중고생 직업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박동열 외(2009). 『전문계고 기능 재정립 방안 수립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박태준 외(2008). 『직업교육 기피 해소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국제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호성(2005).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와 전망』, 책세상.
- 변종임·채재은(2008). 『스웨덴과 덴마크의 학습 노동 복지 연계 정책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18권 제2호, 181~205쪽.
- 송창용·김민경(2009). 『주요국의 직업교육 동향』, 『The HRD Review』, 제12권 제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치민(2006).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체제 현황 및 발전 방안』,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 이광현(2005). 『2005년도 국제교육통계 교류협력사업보고서- OECD 교육 지표 사업(INES)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욱·이용순(2006).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의 혁신』, 진미석·정태화(편),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 163-195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영현(2006). 『숙련형성의 이론과 체제유형』, 한상금·주인중(편), 『직업 변동과 숙련형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이정표(2006). 『전환기의 직업교육체제』, 진미석·정태화(편), 『평생학습사회의 직업교육』, 99-125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직업 능력개발연구』, 제12권 제2호.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학지사.
- 정원호(2005). 『유럽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전략연구- 직업훈련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철영(2000).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 방향』, 『좋은교사』.
(www.goodteacher.org/technot2)
- _____ (2007). 『경상북도 직업교육 종합 발전 방안연구(2008~2010)』. 경상북도 교육청.
- _____ (2008). 『울산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종합발전방안』, 울산광역시 교육청.

- _____ 외(2000).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체제 개편에 따른 교원 대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2005). 『직업교육』, 『한국의 인적자원- 도전과 패러다임』, 법문사.
- _____ (2006).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 『직업교육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2006년 한국직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한국직업교육학회.
- _____ (2008).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와 방향』, 『2008 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한국교육학회.
- 정태화 외(2009). 『평생직업교육-평생취업체제 구축』, 『정책현안과제2009-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태화·최지희(2007). 『전문계 고교를 희생시키자』, 『21세기 국가전략-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조형제(2007). 『‘사회적 합의 모델’의 가능성 탐색-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의 파업사태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127호, 122~145쪽,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최동선(2009). 『핀란드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지원 체제』, 이지연 외, 『미국·프랑스·핀란드·덴마크의 교과통합 진로교육』, 244~264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성수(2000). 『선진국 사회적 합의주의의 특성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최지희·최영렬(2006). 『OECD 각국의 고교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실태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노동연구원(2008). 『실업급여 수혜율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각각 비교』, 『노동리뷰』, 2008년 5월호.
- 한승희·오현석(2005). 『북유럽 평생학습정책 추진 사례분석을 통한 한국의 평생학습추진 전략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황규성(2008).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 방식 변화』, 『노동정책연구』, 제8권 제2호, 115~147쪽, 한국노동연

구원.

경향신문. 2009년 8월 4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art_view.html/artid=200908041830551&code=210100)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13호 2009년 10월 6일자. (<http://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2>)

연합뉴스. 2009년 3월 17일자 「실직자가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는?」.
프레스리안, 2007년 10월 11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71004114101&Section=02)

Belanger, P. & Tuijnman, A.(eds.)(1997). *New Patterns of Adult Learning- A Six-country Comparative Study*, UNESCO IEE & Pergamon.

Cedefop(2002).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Denmark-Brief Description*, Cedefop Panorama Series, Luxembourg: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_____ (2006). *Development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t EU-Level, in the Members of States and in Acceding and Candidate Countries*(July 2005 to March 2006).

_____ (2007). *Zooming in on 2010 Reassess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_____ (2009a). *Modernis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urth Report on Vocational Training Research in Europe- Background Report Volume 2*, Cedefop Reference Series; 70.

CIRIUS(2008). *Careers Education and Guidance in Denmark*.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 *Facts and Figures 2007*.

_____ (2008). *The Danish Approach to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2nd Edition*.

Directorate of Educational and Training(2006). *The Knowledge Promotion*

Reform

- EDU, EDPC & CERI(2008). *Learning for Jobs- the OECD Policy Review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ECD.
- Esping-Andersen(1990). “The Three Political Economies of the Welfare State”, pp. 9-34 in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Welfare-State and Labor-Market Regime”, pp. 144-161 in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URYDICE(2003). *Structures of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Adults Education Systems in Europe*.
- Finnish Ministry of Education(2003). *Strategy 2015: Ministry of Education*
- Høst, H. et al.(2008). “How the Number of Apprenticeships are Influenced by Policy and Economic Cycles”, in Høst, H.(ed.) (2008), *Continuity and Change in Norweg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NIFUSTEP.
- Kesselman, M.(1982) “Prospects for Democratic Socialism in advanced Capitalism: Class Struggle and Compromise in Sweden and France”, *Politics and Society*, 11(4).
- Markussen, E. et al.(2008). “Completion, drop-out and attainment of qualification in upper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n Norway”, in Høst, H.(ed.)(2008). *Continuity and Change in Norwegia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VET)*, NIFUSTEP.
- National Educational Authority, Danish Ministry of Education(2008a). *The Danish Approach to Quality- The 2nd Edition*,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Department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 Training Programmes. _____(2008b).
The Danish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2nd Edition, the Danish Ministry of Education, Department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6). *Knowledge Promotion* _____(2007). *Education- from Kindergarten to Adult Education*.
- OECD, Statistic Canada(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Fin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Adult Literacy Survey*.
- OECD(2002).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04). *OECD/CERI National Review on Educational R&D Examiners' Report on Denmark*.
- _____(2005),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08a),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08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 _____(2008b). *Learning for Jobs- OECD Review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NORWAY*.
- _____(2008c). *OECD/CERI Study of Systemic Innovation in VET- Systemic Innovation in the Danish VET System Country Case Study Report*.
- _____(2009a), *Education at a Glance*.
- _____(2009b). *Jobs for Youth Denmark Summary and Main Recommendations*, OECD: Paris.
- _____(2009c), *OECD Factbook*.
- _____(2009d). *Systemic Innovation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Parsons, D. J. et al.(2009). “The Training and Development of VET Teachers and Trainers in Europe” in *Mordernizing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Volume 2*, Cedefop Reference Series; 70, Cedefop.
- Skovsgaard, J.(2009). “Danish Lifelong Learning- What do we have to offer?”, KRIVET Forum,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Statistics Denmark(2008). *Denmark in Figures 2008*.
 _____(2009). *Statistical Yearbook 2008*.
- Tuijnman, A. & Schuller, T.(eds.)(1999). *Lifelong Learning Policy and Research: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London: Portland Press.
- <http://www.brock.dk/>
- Cedefop(2009b). ReferNet 자료 http://www.Cedefop.europa.eu/tv/information_resources/NationalVet
- <http://epp.Eurostat.ec.europa.eu>
- <http://www.indexmundi.com>
- http://www.scb.se/default___2154.aspx
- http://www.stat.fi/index_en.html
- <http://www.statbank.dk>
- <http://www.udir.co/>
- <http://www.worldvaluessurvey.org/>

■ 저자 약력

- 임 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이영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최지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옥준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북유럽의 직업교육 실태 및 혁신 사례

· 발행연월일	2009년 12월 29일 인쇄 2009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권대봉
·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화: (02)3485-5000, 5100 팩스: (02)3485-5200
· 인쇄처	크리홍보(주) (02)737-5377
·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 등록번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083-1 93370